차 례

주체문학의 대전성기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혁명위업을 빛나게 계승하시여 주체의 사회주의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실 원대한 포부를 안으시고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하기 시작하신 1960년대 중엽부터 주체적문학예술의 새시대가 펼쳐지기 시작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버이수령님의 높은 뜻을 받들고 문학예술사업을 몸소 맡아 지도하시면서 우리 민족의 력사에 일찌기 없었던 주체문학예술의 대전성기를 마련하시였다. 이리하여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영화와 문학, 음악과 무용, 미술 등 문학예술의 모든 분야에서 세상사람들을 놀래우는 20세기문예부흥의 위대한 력사가 이 땅에 펼쳐졌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불후의 고전적로작 《새로운 혁명문학을 건설할데 대하여》, 《영화예술론》, 《연극예술에 대하여》, 《가극예술에 대하여》 등 수많은 로작들을 련이어 발표하시여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는 혁명발전의 새로운 요구에 맞게 주체의 문학예술혁명을 일으킬데 대한 독창적인 방침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시대의 요구에 맞는 주체의 문학예술을 건설하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문학예술혁명을 일으켜야 한다.

문학예술혁명은 내용과 형식, 창조체계와 창조방법의 모든 령역에서 낡은것을 뒤집어엎고 새로운 주체의 문학예술을 건설하기 위한 사상문화분야에서의 심각한 계급투쟁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체의 문학예술혁명을 일으키기 위하여 문학분야에 남아있는 온갖 낡은것을 쓸어버리고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우리식의 문학창작원리와 방법을 확립하여 실천에 구현하도록 정력적으로 령도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인민대중의 지향과 요구에 맞게 독창적으로 밝혀주신 주체의 문학리론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주체문학의 근본사명과 본성에 대한 사상이다.

주체문학의 근본사명은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수행에 이바지하는것이고 그 본성은 인간과 생활을 그리며 인민대중을 위하여 참답게 복무하는데 있다. 주체의 인간학은 주체의 철학적원리에 기초하여 자주성을

생명으로 하는 사람의 본성과 그로부터 흘러나오는 인간문제를 밝힘으로써 사람을 세계와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내세우며 사람이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도록 하는데 이바지하는 문학이다. 이 문학의 생명은 주체성이고 이 문학의 참된 가치는 고상한 예술성과 결합된 높은 사상성에 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또한 문학작품창작의 기본원리도 새롭게 밝혀주시였다.

문학작품창작에서는 그 핵을 이루는 종자를 똑바로 잡고 그것을 뚜렷하게 살리는 방향에서 구성의 대를 바로세우며 사건보다도 성격을 잘 그리는데 모든것을 집중시키고 인민대중의 의사와 요구에 맞는 언어를 탐구하고 살려써야 한다. 이와 함께 소설과 시, 아동문학과 극문학 등 문학의 모든 형태를 시대와 인민의 요구에 맞게 새롭게 혁신하고 발전시켜야 한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또한 문학사업에 대한 당의 령도를 강화하는데서 나서는 요구와 방도들도 현명하게 밝혀주시였다.

문학에 대한 당의 령도를 강화하자면 《창작의 자유》에 대한 반동적궤변을 짓부시고 문학사업에 대한 당의 령도체계를 튼튼히 세워야 한다. 동시에 문학운동을 대중화하고 작가들을 당과 운명을 같이하는 우리 당의 영원한 동행자, 충실한 방조자, 훌륭한 조언자로 키워야 한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제시하신 주체의 문학리론은 문학분야에서 혁명을 일으켜 아직 인류가 알지 못했던 주체문학의 대전성기를 마련한 확고한 지도적지침으로, 찬란한 향도의 빛발로 되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밑에 주체의 문학리론을 구현하는 길에서 이룩된 가장 큰 성과는 무엇보다도 어버이수령님께서 항일혁명투쟁시기에 몸소 창작하신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을 다양한 형식으로 옮기는 사업을 앞세워 우리 당의 혁명적문예전통을 확고히 고수하고 주체사실주의문학의 영원한 본보기를 마련한것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백두산창작단, 4.15문학창작단을 무어주시고 유능한 작가집단을 동원하여 이 아름찬 력사적과제를 빛나게 수행하도록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세심한 지도와 보살피심속에서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인 《피바다》, 《꽃파는 처녀》, 《한 자위단원의 운명》, 《혈분만국회》, 《성황당》, 《딸에게서 온 편지》, 《3인1당》, 《경축대회》 등이

영화와 가극, 소설과 연극으로 옮겨짐으로써 주체의 문학예술이 대를 이어 본보기로 삼아야 할 불멸의 재부가 마련되였다. 특히 이 과정에 종래의 유럽식가극과 연극의 낡은 틀을 마스고 새형의《피바다》식가극과《성황당》식연극이 창조된것은 인류문학예술사에 특기할 력사적공적으로 된다.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주체의 문학예술혁명에서 이룩한 중요한 성과는 또한 로동계급의 수령을 형상하는 력사적과제를 빛나게 해결한것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수령의 형상을 창조하는것은 주체문학건설의 기본의 기본이다. 우리의 문학에서는 수령의 형상을 창조하는것을 주선으로 확고히 틀어쥐고나가야 한다.》

수령은 시대와 인민대중을 대표하는 주체형의 혁명가의 최고전형이다. 더우기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의 숭고한 형상을 창조하는것은 우리 인민과 세계혁명적인민들의 절절한 념원이며 최대의 희망이다.

주체문학의 대전성기에 우리 작가들은 총서《불멸의 력사》와《불멸의 향도》, 시집《향도의 해발을 우러러》등을 창작함으로써 시대와 인민의 요구에 빛나는 해답을 주었다.

총서《불멸의 력사》는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력사를 체계적으로, 전면적으로 깊이있게 그린 혁명적대작을 하나의 통일적제목으로 묶어놓은 것이다. 여기에 속한 장편소설들은 하나의 독자적인 작품이면서도 서로 밀접히 련관되여 총체적으로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력사를 폭넓게 보여주고있다.

총서《불멸의 력사》는 항일혁명투쟁시기편과 해방후편으로 나누어져있는데 항일혁명투쟁시기편에 속한 장편소설들로는《닻은 올랐다》(김정),《혁명의 려명》(천세봉),《은하수》(천세봉),《대지는 푸르다》(석윤기),《봄우뢰》(석윤기),《1932년》(권정웅),《근거지의 봄》(리종렬),《혈로》,《백두산기슭》(현승걸, 최학수),《압록강》(최학수),《위대한 사랑》(최창학),《잊지 못할 겨울》(진재환),《고난의 행군》(석윤기),《두만강지구》(석윤기),《준엄한 전구》(김병훈), 해방후편으로는《빛나는 아침》(권정웅),《조선의 봄》(천세봉),《50년여름》(안동춘),《조선의 힘》(정기종) 등이 창작되였다.

이 소설들의 기본특징은 위대한 수령님을 형상의 중심에 높이 내세우고 실재한 력사적사건을 바탕에 깔면서 풍부한 창조적환상과 예술적허구에 의거하여 흥미있게 이야기를 엮었으며 다양한 인물들의 형상을 원형에 기초하여 생동하게 펼쳐보인것이다. 그리하여 이 작품들은 력사적사실을 기록한 력사문헌에 그치지 않고 그것을 생동한 예술적형상으로 펼쳐보인 예술작품으로 될수 있었다.

총서 《불멸의 력사》와 함께 위대한 장군님을 형상한 총서 《불멸의 향도》가 창작되기 시작하였다. 총서 《불멸의 향도》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의 불멸의 혁명활동과 업적을 총서형식으로 묶이워지는 장편소설들에 담아 형상한 기념비적작품으로서 총서 《불멸의 력사》와 나란히 수령형상문학의 최고봉을 이룬다.

이 시기 총서 《불멸의 향도》에 속하는 장편소설들로서 《아침해》(현승걸), 《불구름》(박현), 《예지》(리종렬), 《푸른 하늘》(권정웅)이 창작되였다.

이 시기 수령형상작품들로서는 위대한 수령님을 형상한 장편소설 《배움의 천리길》(강효순), 영화문학 《조선의 별》(리종순), 장막희곡 《승리의 기치따라》 등과 함께 위대한 장군님을 형상한 서사시 《끝나지 않은 담화》(김철), 《인민의 지도자》(오영재) 등 다양한 형태의 대작들이 창작되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주체문학의 대전성기에 이룩한 중요한 성과는 또한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에게 무한히 충직한 주체형의 혁명가들, 새시대의 참된 주인공들을 형상한 작품들이 많이 창작된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있는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일가분들의 불멸의 형상을 창조한 작품들이다.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의 고매한 풍모를 형상한 총서《충성의 한길에서》, 영화문학 《친위전사》(백인준), 김형직선생님을 형상한 장편소설 《력사의 새벽길》(상, 리기영), (하, 김정민), 김형권선생님을 형상한 장편소설《누리에 붙는 불》(리병수)은 그 대표작으로 된다.

이와 함께 항일혁명투쟁과 그것을 계승한 민주주의혁명시기, 조국해방전쟁과 사회주의혁명, 사회주의건설시기의 슬기로운 주인공들을 형상한 작품들도 많이 창작되였다.

장편소설 《무성하는 해바라기들》(석윤기), 《새봄》(김규엽), 《돌

파구》(리종렬), 《전선》(리장후), 《녀당원》(김보행), 《빈터우에서》(김보행), 《생명수》(변희근), 《평양시간》(최학수), 《철의 신념》(김리돈), 단편소설집 《푸른 잎사귀》(한웅빈), 《모닥불》(로정법), 영화문학《이 세상 끝까지》(리춘구), 《도라지꽃》(리춘구), 가극문학《밀림아 이야기하라》,《당의 참된 딸》등은 우리 혁명의 각이한 시대가 낳은 혁명가들의 빛나는 예술적전형을 창조하였다.

여기서 당과 수령에 대한 우리 인민의 충실성과 조국과 인민에 대한 사랑의 감정을 노래한 혁명적시가문학도 뚜렷한 자리를 차지하고있다. 우리 시인들은 격동하는 시대와 호흡을 같이하면서 당과 수령께 모든 운명을 의탁하고 영원히 변함없는 한길을 걸어갈 드놀지 않는 신념과 의지, 사회주의조국에 대한 한없는 사랑과 긍지를 격정에 넘쳐 노래불렀다. 서정시 《어머니》(김철), 가사 《영원히 한길을 가리라》(리정술), 서정시 《나의 조국》(김상오), 가사 《나는 영원히 그대의 아들》(전동우)이 그 대표작이라고 할수 있다.

그밖에도 주체문학의 대전성기에는 주체의 민족관을 구현하고 조국통일의 일념을 형상한 가사《조선은 하나다》(안창만)를 비롯하여 력사주제의 장편소설 《갑오농민전쟁》(박태원), 《높새바람》(홍석중) 등이 창작되였다.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우리 혁명앞에 조성된 심각한 정세는 우리 문학앞에 새로운 요구를 제기하였다. 20세기의 마지막년대인 1990년대는 동유럽나라들에서 사회주의붉은기가 내리워지고 세계의 유일한 사회주의보루인 우리 공화국을 고립말살하기 위한 세계제국주의련합세력과 그 앞잡이들의 책동이 광란적으로 벌어진 준엄한 시련의 시기였다. 게다가 우리 인민은 사회주의위업을 옹호고수하기 위한 힘겨운 투쟁의 길에서 뜻밖에도 민족의 위대한 어버이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과 영결하는 대국상을 당하게 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민족과 혁명의 운명이 판가름되는 이 엄혹한 시기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자!》라는 신념의 구호를 제시하시고 선군정치의 기치 드높이 우리 식 사회주의를 고수하기 위한 고난의 행군, 강행군을 몸소 진두에서 이끌어오시였다.

고난의 행군을 락원의 행군으로 전환시키고 주체의 강성대국을 일

떠세우기 위한 간고한 투쟁의 나날에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격동적인 현실을 반영하여 주체문학건설에서 새로운 전변을 이룩할데 대한 혁명적인 방침을 내놓으시고 현명하게 령도하시였다.

불후의 고전적로작 《주체문학론》과 《다부작예술영화 〈민족과 운명〉의 창작성과에 토대하여 문학예술건설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자》 등에는 새시대의 요구에 맞는 문학예술건설의 진로가 환히 밝혀져있다.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밑에 이 시기 문학에서 이룩한 가장 큰 성과는 무엇보다도 수령영생위업에 바쳐진 명작들이 많이 창작된것이다.

총서《불멸의 력사》중에서 장편소설《영생》(백보흠, 송상원), 서사시《영원한 우리 수령 **김일성**동지》(김만영), 가사《수령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네》(집체), 《높이 들자 붉은기》(송찬웅), 서사시《영원무궁하라 조선의 미래여》(명준섭), 《영원하라 동지애의 력사여》(신병강) 등은 20세기 마지막년대를 장식한 수령영생문학의 불멸의 대걸작들로 기록되였다.

이와 함께 총서《불멸의 력사》의 속편들도 활발히 창작되여 항일혁명투쟁시기편에 속하는 장편소설《붉은 산줄기》(리종렬), 《천지》(허춘식)와 해방후편에 속하는 장편소설《열병광장》(정기종), 《삼천리강산》(김수경), 《승리》(김수경), 《대지의 전설》(김삼복) 등이 나왔다.

이 시기 문학이 이룩한 성과는 다음으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의 위대성 특히 선군령도의 생활력을 보여주는 선군주제의 걸작품들이 왕성하게 창작된것이다.

영생불멸의 혁명송가《**김정일**장군의 노래》(신운호)가 나오고 총서《불멸의 향도》에 속하는 장편소설로서《력사의 대하》(정기종), 《평양은 선언한다》(리종렬), 《전환》(권정웅), 《평양의 봉화》(안동춘), 《전환의 년대》(리신현) 등이 창작발표되였다.

또한 가사《우리의 **김정일**동지》(류동호), 《혁명의 수뇌부 결사옹위하리라》(김정훈), 서정서사시《최고사령관과 근위병사들》(류동호), 경희극《동지》(박호일), 《편지》(박호일), 《철령》(박호일) 등 많은 명작들이 나왔다.

이 시기 문학이 이룩한 성과는 다음으로 고난의 행군정신, 《가는 길 험난해도 웃으며 가자!》, 《오늘을 위한 오늘에 살지 말고 래일을 위한 오늘에 살라》는 혁명적인생관을 주제로 한 작품들이 높은 사상예술적수준에서 많이 창작된것이다.

장편소설《열망》(김문창), 영화문학《대홍단책임비서》(리춘구, 리덕윤), 서사시 《조국이여 청년들을 자랑하라》(백의선, 류동호), 가사 《우리는 잊지 않으리》(윤두근), 《승리의 길》(차영도) 등에서는 고난의 천리를 걸으면 행복의 만리가 온다는 신심 드높이 위대한 장군님의 두리에 일심단결하여 사회주의붉은기진군을 다그쳐온 우리 인민들의 혁명적신념과 의지를 심오히 형상하였다.

이 시기 문학이 이룩한 성과는 다음으로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과 우리 식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보여주는 문학작품들이 왕성하게 창작된 것이다.

다부작예술영화《민족과 운명》의 련속편들을 비롯하여 가사《내 나라 제일로 좋아》(최준경), 장편소설 《백금산》(김문창), 영화문학《줄기는 뿌리에서 자란다》(원영실) 등이 그 대표작들이다.

이와 같이 20세기의 마지막년대를 사회주의붉은기진군의 힘찬 노래로 장식한 우리 문학은 고난의 행군, 강행군을 승리적으로 결속하며 새 세기 강성대국건설의 활로를 열어나가기 위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투쟁을 힘있게 고무하였다.

〔명언〕

1932년

《1932년》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를 형상한 총서 《불멸의 력사》에 들어있는 장편소설로서 권정웅이 1972년에 창작한것이다.

소설은 조선민족해방투쟁에서 근본적전환을 가져온 1932년의 혁명적사변들을 서사시적화폭에 담아 형상하였다. 소설은 모두 14개 장으로 되여있다.

소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 주체21(1932)년에 험난한 가시덤불길을 헤쳐나갈 방략을 마련하시는 이야기로부터 시작된다.

당시 조선인민에 대한 일제의 악랄한 학살만행으로 우리 조국은 피바다, 불바다에 잠기였고 인민의 원한은 하늘땅에 사무쳤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량쟝커우(량강구)의 귀틀집에서 반일인민유격대 지휘관들과 각지 파견원들의 회의를 여시고 조성된 정세에 대처하여 앞으로 유격대가 나아갈 길을 명철하게 밝혀주신다. 회의에서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의 구호는 변함없이 첫째도 무장, 둘째도 무장, 셋째도 무장이라고 하시면서 이 정신에 따라 유격대를 끊임없이 확대강화하고 근거지를 창설하며 반제공동전선을 이룩해야 한다고 강조하신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를 위하여 큰 부대 하나가 남북 수천리지역에서 원정활동을 하면서 놈들의 병력을 유인분산시키고 이 지역의 인민들과 혁명조직들을 구원하며 근거지창설을 위한 혁명의 씨앗을 뿌리는 한편 독립군부대들과 반일부대들과의 반일통일전선을 형성하는 사업을 촉진시켜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신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몸소 원정부대를 친솔하시고 떠나신다.

첫 전투가 진행된다. 수십대로 편성된 적수송대를 족치는 이 전투는 승리적으로 끝난다. 처음으로 많은 무기와 탄약을 빼앗은 유격대원들의 기쁨은 끝이 없다.

소설은 다음으로 위대한 수령님께서 난만(남만)으로 가시는 길에

샤오사하(소사하)집을 찾으신 이야기를 펼친다.

소설은 여기서 두달째 앓아누워계시면서도 단 하루도 혁명사업을 중단하지 않으시고 반일인민유격대를 돕기 위해 애쓰시는 불요불굴의 혁명투사 강반석어머님의 형상을 그리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앓고계시는 어머님과 두 동생이 걱정되시여 집 두리를 몇바퀴 도시면서 떠나지 못하시는것을 아신 어머님께서는 나라를 찾자고 나선 사람이 집근심을 하고서야 어떻게 큰일을 하겠느냐고 하시면서 더 큰 부대를 만들어가지고 싸워야 한다고 말씀하신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어머님의 숭고한 뜻을 가슴뜨겁게 느끼시면서 마지막리별이 될지 모르는 걸음을 힘있게 떼신다.

작품은 계속하여 백두산지구의 험한 로정을 돌파하는 원정의 첫 단계를 보여주는 행군장면으로 넘어간다. 행군과정에도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로동자, 농민출신의 대원들에게 재능과 힘을 틔워주시며 새형의 혁명가로 그들을 키워내신다. 하늘아래 첫 동네인 천상데기, 연평지구 등에서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혁명근거지를 꾸리기 위한 사업을 해나가시면서 반일부대 특히 독립군부대와의 사업을 집중적으로 해나가신다.

계속하여 소설은 원정의 다음 로정인 류하지방에서의 활동을 펼쳐보인다.

덕산골에서 적들의 피해를 받은 지역에 다시 소생의 힘을 불어넣어 조직을 복구하고 광범한 군중속에 승리의 신심을 안겨주어 반일구국투쟁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력부대를 이끄시고 류하를 떠나 밍강(몽강)을 거쳐 량쟝커우에 돌아오신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일제의 《지엔다오(간도)지구파견대》를 호되게 족치신 후 량쟝커우회의를 여시고 하기원정을 총화하시며 동기원정방침을 제시하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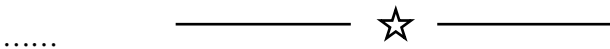
소설은 다음부분에서 또다시 샤오사하집장면을 보여준다. 샤오사하집에 다시 들리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미 달반전에 세상을 떠나신 어머님의 묘소를 찾으시고 고난에 찼던 어머님의 한생과 자신에 대한 크나큰 기대를 가슴깊이 새기시며 의지가지없이 된 두 동생분을 두고 형언할수 없는 아픔을 이기시면서 또다시 동기원정의 길에 오르신다.

소설은 마지막부분에서 푸얼하(푸르허)를 단시일내에 혁명화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빛나는 혁명활동모습과 라오예령(로야령) 봉우리에 오르는 엄혹한 행군장면에 이어 준엄한 동기원정의 절정인 라오허이산(로흑산)전투장면을 묘사하고있다. 각 지구의 반일인민유격대와 근거지사

업을 강화하기 위하여 그동안 단련되고 장성한 주력부대 대원들을 모두 파견하시고 18명의 대원만 남기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라오허이산오지에 들어서신다. 사령부의 행적을 찾은 적들은 총력량을 기울여 사령부를 2중 3중으로 포위한다. 과연 조선혁명이 끗끗이 명맥을 이어나가느냐 아니면 여기서 거꾸러지느냐 하는 심각한 정세가 조성된다. 그러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태연자약하게 돌파구를 찾아내시며 사냥을 하면서 숨어사는 마령감의 도움을 받아 화개동사냥막으로 부대를 이끌어가신다. (이 부분이 선문교재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사냥막에서 대원들의 몸도 추세우시고 군정학습도 진행하시며 그해의 마지막날에 간고하면서도 영광에 찬 혁명로정을 총화하신다.

☆

……

옆에서 인기척이 났으나 마령감은 고개를 들지 않았다. 조용하던 방안에서도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으나 그것도 로인은 의식하지 못하였다. 다만 눈앞에는 너울너울 춤을 추는 불길이 보일뿐이였다.

《할아버지, 무엇이 다 타지 않습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김일성동지의 목소리에 마령감은 비로소 부지깽이든 손을 뻗쳐 한쪽이 새까맣게 그슬린 토끼다리를 뒤적거렸다.

《토끼다리 하나를 묻었습네다. 잘 구워서 소금에 찍어먹으면 맛이 하 고이찮지요. 하지만 워낙 패린 놈이 돼서 여러 사람 입에 붙일나위가 없을것 같소이다.》

《여러 사람은 해서 무엇하겠습니까? 어서 그 부지깽이를 이리 좀 주십시오. 불을 좀 끌어내다 아궁앞에서 구워야 골고루 구워질것 같습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마령감옆에 자리를 잡고 앉으시며 익숙한 솜씨로 숯불을 끌어내시였다. 마령감은 순순히 부지깽이를 넘겨드리고 뼈마디투성인 앙상한 손바닥을 불길앞에 내댔다. 새빨간 불빛을 받고도 고목등걸처럼 거멓게 색이 죽어있는 그 여윈 손이 어쩐지 마령감의 그늘진 마음속을 그대로 드러내고있는것만 같다.

《눈이 깊어서 짐승이 더러 잡힐것 같은데 이런것밖에 걸리지 않았습니까?》

그이께서는 벌건 숯불우에 토끼다리를 올려놓고 부지깽이를 천천히

만지면서 말씀하시였다. 맞춤하게 익어가는 고기냄새가 연하게 풍겨온다.

《걸리기야 몇놈 걸렸겠지요. 하지만 어디 가나 왜놈들이 득실거리는판에 남아있기는 할라구요. 내 행여나 트인 길이 없을가 해서 옹노를 놓은 외진 곳은 다 다녀봤소이다마는 아무데고 그놈들이 쫙 덮였습데다. 이 토끼 한놈도 워낙 험한 벼랑턱에 놓아서 남아났지 그렇지 않구야 어림이 없지요.》

《우리때문에 할아버지 사냥까지 화를 입는군요. 하기는 저놈들이 여기서 수태 죽어넘어질것입니다. 그런 구경은 흔히는 못하는 구경이 아니겠습니까?》

마령감은 고개를 들고 물끄러미 **김일성**동지의 서글서글 웃고계시는 얼굴을 바라보았다. 옛날책에 나오는 얼굴이 관옥같고 샛별눈에 붉은 입술을 가진 영웅호걸이란 이런분을 두고 하는 말이였던가? 설혹 그렇기로서니 수만 적군의 포위속에 든 외로운 장수가 어찌 이리도 눈섭 하나 까딱 않고 태연자약해있을수가 있는가?

《여보시오, 대장어른.》

마령감은 한쪽무릎을 가드라뜨리고 바싹 그이곁으로 몸을 끌며 간절한 목소리로 불렀다.

《왜 그러십니까?》

그이께서는 토끼다리를 천천히 번져놓으며 애원이 어린 마령감의 눈길을 고요히 맞이하시였다.

《대장께 무슨 방략이 없겠소이까? 내 오늘 해종일 산을 샅샅이 뒤졌소이다마는 형세가 매우 어렵게 되였소이다. 나라가 망하는것을 보고도 할 일없이 산속에 묻혀 하늘을 등지고 사는 이 늙은것이 감히 국사에 관계되는 일을 가지고 간참할 계제가 못되는줄 백번도 더 잘 알고있소이다마는 대장들이 총을 들고 국난을 타개하러 나섰다가 이 곡경을 당하게 되니 비록 짐승이나 다름없는 목숨이지만 어찌 한가닥 충의지심이 없겠소이까? 이 늙은것의 마음을 헤아려 부디 이밤중으로 몸을 피할 길을 도모해주었으면 좋겠소이다. 왜놈들은 필시 래일이면 이 골짜기로 몰려올것이웨다. 그러면 대장들의 장한 뜻을 어디다 펴보겠소이까?》

《할아버지, 고맙습니다. 토끼가 잘 익었습니다. 오늘은 시장하셨겠는데 어서 요기나 하시지요. 우리도 지금 그 공론들을 하고있습니다.》

《그래 무슨 방도가 나졌소이까?》

《뭐 특별한 방도라는것이 있겠습니까? 적의 수효가 많고 이쪽에 방

비할만 한 군사가 부족하니 일단 대결을 피하고 다음기회를 보아야지요.》
《과시 밝은 말씀이웨다. 옛 병법에도 나가고 물러서는것이 다만 순리를 따지고 억지를 피한다 하였으니 지금은 형세를 보아 피해야 마땅할 땐가보웨다. 여기서 빠져나가기만 하면 군사가 의거해서 힘을 길러 다시 떨쳐일어날만 한 으슥한 곳이 있소이다. 여기서 60리 송림속을 뚫고가면 사람발자취가 전혀 미칠수 없는 외진 골짜기가 있는데 내가 홀로 이름짓기를 화개동이라 하였지요.…》
《화개동이라… 이름이 아주 마음에 듭니다. 하지만 그렇게 외진 곳에 있다면 저희들이 찾아가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김일성동지께서는 어딘가 처사같은 느낌을 주는 로인의 푸른 눈을 바라보며 의논조로 물으시였다.
《길은 응당 내가 대여드려야 할 일이지요. 하지만 지금 당장 적이 담장을 쌓다싶이 둘러섰는데 그속을 빠져나갈 일이 어렵소이다.》
《그래도 어디 빠질 길이야 있지 않겠습니까? 이 큰 산을 그놈들이 다 둘러싸기야 했을라구요.》
《대장은 나가보지 못했소이까?》
로인은 기가 차다는듯이 그이의 동하지 않는 안색을 바라보더니 한숨을 섞어가며 말을 이었다.
《이 라오허이산의 등성이와 골짜기가운데 내가 다녀보지 못한데가 어디 있겠소이까? 내 그러지 않아도 이런 일이 있을것 같아서 샅샅이 뒤져보았지만 빠져나갈만 한 길목에는 모조리 저놈들이 파수를 보고있소이다.》
《그야 사람이 다닐만 한 곳은 지키고있을테지요. 그렇기때문에 이런 때는 보통 생각이 미치지 못할 곳으로 빠져야 하지요.》
《하기는 예로부터 군사에 능한 사람들은 뜻하지 않는 곳으로 나가는것을 중히 여겼지요. 하지만 워낙 저놈들은 수효가 많다보니 총총히 늘어서있는 형편이웨다.》
《허허허, 할아버지께서도 길을 못 찾으신다면 우리 일이 정말 어렵게 됐군요.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 해도 이 큰 산을 병모가지 막듯이야 어떻게 하겠습니까? 속담에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데 좋은 수가 있겠지요. 잘 생각해보십시오. 우선 내가 보건대 적이 없는 곳이 적어도 한군데는 있습니다.》
《그것은 어데 있소이까?》

마령감은 번쩍 고개를 들고 순시도 웃음이 사라질줄 모르는 그이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방금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토끼를 떼온 곳 말입니다. 거기는 적들이 없었다고 하셨지요?》

《에—》

마령감은 홀린듯이 말끝을 길게 뽑으며 고개를 끄덕거렸다.

《정 길이 없다면 그런데로라도 빠져나갈밖에 도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마령감은 그이의 얼굴에서 눈길을 떼지 않은채 연신 턱을 끄덕거리며 기계적으로 대답했다. 그러더니 불시에 푸른 눈에 정기를 띠우며 숨가쁘게 말했다.

《내가 그렇게 말했던가요? 그곳에 적병이 없더라고… 나는 그놈들이 있는 곳에는 가까이 가지 못했다고 말했을뿐이였지요. 아— 참으로 밝으십니다. 내 눈으로 보고도 찾지 못하는 길을 10리밖 집안에 앉아 찾아내시니 내 이제사 세상에 천리안이 있다는것을 믿겠소이다. 과연 그렇소이다. 그 벼랑턱에는 적이 없었소이다. 워낙 깎아지른듯 급한데다 높이가 스무길이나 되여서 짐승도 오르내리지 못하는 곳이지요. 하지만 대장의 말씀을 듣고보니 비록 벼랑이 아무리 험한들 사람이 마음먹어서 오르지 못할 태산이 어데 있겠소이까? 내 길잡이로 앞에 설터이니 이밤으로 떠나는것이 좋겠소이다.》

×

……

이읔고 대오는 눈길을 헤치며 산발을 타고내렸다.

광풍이 불었다. 바람은 산을 온통 들었다놓듯이 마구 불어닥쳤다. 눈보라는 숲을 때리고 산마루를 걷어차고 휘휘 말려 공중으로 솟아올랐다가 다시 내리꼰지군 하였다.

《밤길 걷기엔 아주 안성맞춤이웨다. 발자국을 잠시동안에 다 지워줄것이웨다.》

마령감은 바람을 막기 위해 팔소매로 얼굴을 가리우며 웃었다.

자그마한 령을 넘었을 때 마령감은 걸음을 멈추었다.

《낮에 보니 이 아근에 온통 하얗게 못된 소리를 쓴 종이장이 널려있습데다. 바람에 다 날려가고 지금은 보이지 않는군요.》

그는 길을 잡기 위해 이리저리 휘둘러보다가 또 말을 하였다.

《한데 그 **김일성**장군이란분이 지금 정작 어떻게 됐을것 같습네까? 그 종이에는 하나도 남지 않고 유격대가 다 없어졌다고 했습디다만…》

《글쎄요.》

김일성동지께서는 빙그레 웃으셨지만 마령감은 알아볼수 없었다.

《왜놈들은 세상에 없는 악귀들이지요. 그놈들이 하는 소리란 귀담아들을만 한것이 하나도 없습네다. 그놈들 수작대로 유격대를 다 잡아없앴다면 무엇때문에 그 숱한 군대를 풀어서 산을 두겹세겹 에워싸고있겠소이까? 내가 지난 초겨울에 소금을 구하러 장에 갔더니 사람들이 하는 말이 **김일성**장군님께서 군대를 풀어서 왜놈들을 친다고들 하더군요. 그래 멀지 않아 조선이 광복을 할거라구들 합데다. 내 워낙 세상일에 떳떳하지를 못해서 어디 나설만 한 처지는 못되지만 그런분을 한번 만나뵈였으면 죽어도 원이 없겠소이다.》

《할아버지가 왜 떳떳하지 못하겠습니까? 이제 오래오래 사셔서 좋은 세상 보셔야지요.》

《내 일신에 락이 돌아오기를 차마 어찌 바라겠소이까? 다만 그런 위인께서 물론 장생하셔서 불쌍한 겨레를 건져주시기를 바랄뿐이지요. 한데 길이 온통 묻혀버렸군. 이게 어느 모퉁인고…》

로인은 대렬을 세워놓고 잠시 앞길을 여기저기 살펴보더니 다시 걷기 시작하였다.

절벽이 나졌다. 허공에 세운 기둥같이 아찔하게 깎아질리운 단애였다. 세면은 절벽이고 한쪽귀퉁이만이 산릉선과 잇닿아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친히 100메터폭이나 되는 바위벽을 세밀히 살피시였다.

그동안 대오는 휴식하였다.

이윽고 대렬앞에 돌아오신 그이께서는 앞으로의 행동에 대해 세세한 주의를 주시였다. 명령이 있기 전에는 절대로 총을 쏴서는 안된다. 말을 해서는 안되며 돌을 굴리지 말아야 한다.

절벽의 높이는 약 30메터나 되였다.

그중 동작이 민첩하고 나무에 오르는데 재주가 있는 김인룡은 바줄을 허리에 차고 바위벽에 붙었다. 바람은 더욱 사납게 불었다. 사람의 몸뚱이를 허궁 들어내칠것처럼 야단스레 휘몰아쳤다.

숨가쁜 시간이 한초한초 흘렀다.

나무뿌리 부러지는 소리가 우찍하더니 김인룡이 떨어져내렸다. 가슴을 조이며 바라보던 대원들이 모여들었다. 그러나 김인룡은 아무 말도 없이 또 바위에 붙었다. 거듭 다섯번을 실패하였는데도 그는 단념하지 않았다. 손에서 피가 흐르고 무릎이 째졌다. 얼굴에도 상처가 났다.

한 대원이 자기가 올라가보겠다고 하자 김인룡은 그를 밀쳐버리고 또 나섰다.

아홉번만에 바줄이 내려왔다.

김인룡은 머리가 터져 검은 피가 얼굴로 흘렀지만 그것을 훔칠 생각도 못하고 바위에 바줄을 매고 끌어당기였다.

대원들이 다 올라서고 나중에 마령감까지 언덕우에 올라섰다.

《아! 산양도 발을 붙이지 못할 곳인데 사람들이 올라왔군.》

진일만이 《리론가》라는 별명에 어울리게 또 한마디 하였다.

송덕형이 받았다.

《산양이 갈수 있으면 사람이 갈수 있고 사람이 갈수 있으면 부대가 갈수 있다는 그 누군가의 말이 생각나오? 그러나 그건 벌써 낡은지 오랬소. 우리들에겐 나무가 뿌리를 내리고 풀이 돋는 곳이면 어데나 갈수 있고 또 살아갈수 있으며 싸울수 있단 말이요.》

《할아버지, 마침내 뚫고나왔군요. 고맙습니다.》

김일성동지께서도 감개가 새로우시여 마령감의 손을 잡으시며 말씀하시였다.

《딴말씀이올시다. 산중에 숨어사는 내가 우리 군사에게 무엇인가 보탤 길이 있을줄이야 어떻게 알았겠소이까? 참으로 내 한생에 이밤은 가장 보람있는 밤이올시다.》

마령감은 눈굽에 이슬을 번쩍거리며 그이의 손을 마주잡았다.

날이 밝을 때까지 대오는 포위망을 벗어나 60리밖으로 행군해나갔다. 아닌게아니라 소나무숲속에 초막 한채가 조용히 들어앉아있었다.

……

마령감은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전광식에게 집살림을 세세히 알으켜주었다.

……

잠시후 로인은 유격대원들과 감격적인 작별을 하였다. 대원들전원

이 먼데까지 따라나갔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마령감의 손을 잡으시고 5리이상이나 걸어나가시였다.

눈물이 글썽해진 마령감은 허리를 굽히며 말하였다.

《찌그러진 집 한채를 바로세우는데도 힘이 드는데 기울어진 나라를 건지는 일에 어찌 고생인들 없겠소이까. 부디 몸조심하십시오. 그리고 후날이라도 혹시 **김일성**장군님을 만나뵈옵게 되거든 나라를 잃고 산중에 들어와 여명을 부지하고있는 이 주책없는 늙은것의 축원도 전해주십시오.》

김일성동지께서는 로인의 손을 오래오래 잡고 놓지 않으시였다. 그이의 손등에 로인의 눈물이 떨어졌다. 그이께서는 머지 않은 앞날에 반드시 조국이 광복될터이니 그때까지 기어이 사셔야 한다고 거듭 말씀하시며 그때 다시 만나자고 약속하시였다. 그러시고는 전광식을 따로 불러 험한 길을 벗어날 때까지 로인을 배웅해드리라고 이르시였다.

마령감은 도중 내내 전광식이더러 들어가라고 등을 떠밀다가 듣지 않으니 한 10리쯤 가서는 떡 뻗치고 서버렸다.

《여기는 내가 아침저녁 다니던 길이라 내 집뒤뜰안이나 같소이다. 젊은이는 어서 가서 대장이나 잘 모시도록 하시오.》

전광식은 하는수없이 작별인사를 하였다.

《우리 사정이 딱하지 않으면 할아버지를 집까지 모셔다드려야겠는데 참 안됐습니다. **김일성**장군님께서 몇번이나 미안하다는 말씀을 전하도록 저에게 일렀습니다.》

《뭐이라구요? **김일성**장군님께서 말씀하셨다구요?》

《그렇습니다.》

《아니 그럼 그분이 **김일성**장군님이시란 말씀이웨까? 어— 하늘이 무심하군.》

마령감은 눈우에 털썩 주저앉았다.

《평생에 귀인을 사모하다가 정작 귀인을 만나서는 모르고 지나쳤으니 한심하다, 내 일이여—》

로인은 가슴을 치며 하늘을 우러러 장탄식을 하더니 벌떡 일어났다.

《내 기어이 장군님을 다시 뵈오리다. 가거든 꼭 장군님께 내 이 뜻을 전해주시오. 내 기어이 장군님을 다시 찾아가뵈오리다.》

로인은 속으로 무엇인가 단단히 다지면서 숫눈길을 터벅터벅 걸어갔다.

문학은 인간학

우리는 이미 문학은 언어를 통하여 인간과 생활을 생동하게 그려주는 언어예술이라는것을 배웠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문학이 무엇인지 다 알았다고 할수 없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문학은 인간학이다. 산인간을 그리며 인간에게 복무한다는데 인간학으로서의 문학의 본성이 있다.》

그러면 문학을 왜 인간학이라고 하는가.

인간학이라고 하면 문자그대로 인간에 대한 학문이라는 뜻을 가진다. 인간 그자체와 인간이 살고있는 사회에 대한 학문에는 여러가지가 있다. 철학이나 력사학, 심리학, 교육학 등이 그러하다. 그런데 이런 학문들과 달리 특별히 문학을 인간학이라고 부르는것은 그것이 산인간을 그리고 인간에게 복무한다는데 있다.

문학은 우선 산인간을 그린다. 산인간을 그린다는것은 현실에서와 같이 숨쉬고 사고하고 행동하는 산인간과 그의 생활을 그린다는것을 말한다. 문학에 그려지는 인간은 실지 눈앞에 보는것처럼 구체적인 살아있는 인간이다. 그러나 철학이나 교육학, 심리학에서 말하는 인간은 구체적인 산인간이 아니다. 그것은 일정한 개념과 법칙을 가지고 추상적인 리론으로 표현한 인간이다. 문학에서는 인간을 그의 생김새로부터 시작하여 그가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과정을 생활 그대로의 모습으로 그려준다.

단편소설 《길동무들》에서는 생기발랄하고 열정적인 오명숙의 모습을 실지 산인간을 눈앞에 보듯 볼수 있다.

문학은 또한 인간에게 복무한다. 문학이 인간에게 복무한다는것은 인간과 그 생활을 통하여 절실하고 의의있는 인간문제를 밝혀냄으로써 사람들에게 생활의 진리를 깨우쳐주며 그들을 참된 삶의 길로 이끌어준다는것을 말한다.

단편소설 《길동무들》은 언제나 인민들을 위해 복무한다는 정신을 가지고 헌신적으로 아글타글 애쓰는 오명숙이와 같은 사람이 우리 당의 영원한 길동무라는 뜻깊은 인간문제를 밝혀줌으로써 인민들을 어떻게

하나 잘살게 하고 자기 고향을 당의 뜻대로 잘 가꾸어나가기 위해 귀중한 청춘시절을 바쳐가는 오명숙이처럼 살도록 우리들을 이끌어준다. 이처럼 문학은 사람들에게 옳바르게 살고 보람있게 사는 길을 가르쳐줌으로써 인간에게 복무하는것이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문학을 인간학이라고 한다.

이로부터 문학의 묘사대상은 인간과 그 생활이여야 한다.

문학작품에는 자연도 묘사되고 생산공정도 그려진다. 그렇다고 하여도 그 화폭의 중심에는 인간이 있어야 하고 그 모든것이 인간의 성격을 잘 살리는데 복종되여야 한다. 서사시 《백두산》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명령을 받들고 국내로 떠나는 정치공작원 철호가 가는 길에 눈보라가 몰아치는 장면이 묘사되여있는데 이것은 눈보라 그자체가 아니라 철호의 앞길에 가로놓인 시련과 함께 그것을 뚫고 굽힘없이 나아가는 혁명가의 억센 신념과 의지를 보여주는데 이바지하고있다. 이것은 자연묘사가 인간을 보여주는데 복종된 좋은 실례로 된다.

문학이 인간학이라면 오늘 우리 시대가 요구하는 문학은 어떤 인간학인가. 그것은 주체의 인간학이다.

주체의 인간학이 지난날의 문학과 구별되는 근본특징은 그것이 주체사상을 기초로 하고있다는데 있다. 주체의 인간학은 자주성에 대한 문제, 자주적인 인간에 대한 문제를 내세우고 주체형의 인간전형을 창조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수행에 이바지하는 새형의 문학이다.

문학이 주체의 인간학으로 되자면 첫째로, 사람을 옳게 보고 그려야 한다.

주체사상은 사람을 자주성을 생명으로 하는 사회적존재로 본다. 사람이 사회적으로 자주성을 잃어버리면 사람이라고 말할수 없다. 사람이 자주성을 잃어버렸다는것은 남의 노예로 되여 산다는것이며 남의 노예로 되여 산다는것은 돈이나 권력에 얽매이고 목숨이 아까와서 떳떳하게 살지 못한다는것이다. 사람에게 있어서는 육체적생명보다 사회정치적생명이 더 귀중하므로 사회적으로 버림받고 자주성을 잃어버리면 비록 목숨이 붙어있고 잘먹고 잘산다 하여도 사회적인간으로는 죽은 몸이나 다름없다. 그래서 혁명가들은 남의 노예로 사는것보다는 차라리 싸우다 죽는것을 백배나 더 영예롭고 보람있는 삶으로 여기는것이다.

주체의 인간학에서는 사람의 이러한 본성을 옳게 보고 그려야 한다.

오늘 우리 사회에서는 혁명과 건설에 대한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고

살며 일하며 투쟁하는 인간이 자주적인 인간으로 된다. 주체의 인간학은 바로 이런 인간의 형상을 생동하게 그려내야 한다.

총서 《불멸의 력사》중에서 장편소설 《1932년》이나 《백두산기슭》등에 나오는 혁명가들의 형상은 자주적인간의 전형으로 된다. 그들은 식민지사회의 조건에서나마 제 집에서 뜨뜻한 구들에 앉아 목숨을 보존하며 살수 있었으나 그것은 자주성을 빼앗긴 노예살이였기때문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령도를 받들고 피어린 싸움에 나섰고 그 길에서 목숨도 서슴없이 바쳤다. 이런 인간의 형상을 그리는것이 주체의 인간학이다.

문학이 주체의 인간학으로 되자면 둘째로, 자주성에 대한 문제, 자주적인 인간에 대한 문제를 내세워야 한다.

문학이 어떤 인간문제를 내세우고 밝히는가 하는것은 그 문학의 성격을 규정하는 근본표징으로 된다. 주체의 인간학은 무슨 문제를 취급하든 그것을 사람이 자기의 정치적자주성을 지키며 그것을 더욱 빛내이기 위한 문제 즉 자주성에 대한 문제, 자주적인 인간에 대한 문제를 내세운다.

가령 어떤 공장에서 생산을 높이기 위한 문제를 취급한다고 하면 이것을 기술문제나 생산조직사업과 같은 단순한 기술실무적문제로 볼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일군들의 사상문제로 보아야 한다. 당과 수령의 높은 신임과 사랑을 받아안은 사람으로서 거기에 기어이 보답하려는 충실성이 얼마나 뜨겁고 지극한것인가, 조국과 인민을 위해 복무하고 집단을 위해 자기를 바치려는 고상한 정신이 얼마나 열렬하고 사심없는것인가 하는데서 문제를 찾아야 한다.

주체의 인간학은 사람의 정치적생명과 관련된 근본문제를 내걸어야지 시시한 신변잡사와 관련된 보잘것 없는 문제에 매달려서는 안된다. 해방전 진보적문학만 보더라도 거기에는 련애소설 같은것이 많고 소소한 생활세태와 관련된 세태소설들이 많았다. 물론 이런 소설도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할수 있다. 그러나 나라가 통채로 일제에게 먹히우고 인민들의 자주권이 무참히 짓밟히고있는 조건에서 그것이 무슨 큰 문제였겠는가.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구원할데 대한 문제, 지주, 자본가계급을 타도하고 인민의 세상을 세울데 대한 문제와 결부되지 않은것은 사실상 보잘것 없는 작품인것이다. 주체의 인간학이 사람의 본성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인간문제, 자주성에 대한 문제를 내세운다고 하였을 때 그

것은 바로 언제나 해당 시대 인민대중의 자주성과 관련된 근본문제에 선차적관심을 돌려야 한다는것을 말한것이다.

문학이 주체의 인간학으로 되자면 셋째로, 사람과 세계와의 관계를 옳게 그려내야 한다.

사람은 세계속에 살고있다. 이로부터 인간학인 문학에서 사람을 그릴 때 환경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는가 하는 문제가 나선다.

문학에서는 사람을 중심으로 세계를 그려야 한다. 이것은 자연환경이나 사회적조건이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을 잘 그리는것과 함께 사람이 그 환경과 조건에 순응하지 않고 자기의 요구에 맞게 적극적으로 개조하고 변혁해나가는 모습을 기본으로 그린다는것을 말한다. 환경과 조건이 사람에게 주는 영향보다도 사람이 환경과 조건을 주동적으로 개조변혁하는 모습에 묘사의 초점을 두어야 한다.

장편소설 《1932년》을 보기로 하자. 갓 태여난 반일인민유격대는 인원수도 적었고 무기도 미약하였다. 그에 비하면 일제는 승승장구하고있던 백만의 대군이였다. 무슨 승산이 있어서 감히 조선혁명가들이 강대한 일제에게 선전포고를 하였는가. 일제는 단숨에 그 첫싹부터 짓뭉개버리려고 대군을 동원하여 덤벼들었다. 만일 이런 환경과 조건만을 크게 보았다면 감히 항일대전을 시작할 엄두를 내지 못했을것이다. 기본은 역시 사람 즉 인민대중을 중심으로 현실을 보는것이다. 이제는 우리 인민이 탁월한 수령을 모신 인민으로 되였다는것, 각성되고 조직되여가기 시작한 인민으로 되였다는것이 중요하다. 환경은 엄혹하지만 그 환경도 이런 인민대중에 의하여 개조되는 세계에 불과하다. 이런 태도가 이 작품의 모든 형상에 일관되고있다.

결론적으로 말하여 환경이 사람을 지배하는것이 아니라 사람이 환경을 지배하는것으로 그려야 한다. 사람에 의해 자연과 사회가 개조되는 과정을 그리면서 세계의 주인이고 자기 운명의 주인인 사람을 적극 내세워야 한다.

그러면 문학의 사명은 무엇인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옹호하며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주체혁명위업수행에 적극 복무하는것은 우리 문학의 기본사명이다.》

우리 문학의 기본사명은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수행에 이바지하는것이다.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수행에 이바지한다는것은 문학이 혁명의 자주적주체를 강화하는데 이바지한다는것을 말한다.

혁명의 자주적주체는 수령, 당, 군대와 인민이 하나로 통일단결된 사회정치적생명체이다. 그러므로 문학은 수령, 당, 군대와 인민의 통일단결을 강화하고 우리 인민이 영생하는 사회정치적생명을 빛내이도록 하는데 적극 복무하여야 한다.

그러자면 로동계급의 수령의 형상을 창조하여야 하며 동시에 수령을 중심으로 하여 통일단결되여있는 수령, 당, 군대와 인민의 호상관계를 잘 그려야 한다.

문학이 자기의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서는 그의 사회적기능을 높여야 한다.

문학의 사회적기능에는 세가지가 있다.

첫째로, 정치사상교양적기능이다. 이것은 문학이 당의 사상적무기로서 사람들의 사상교양, 사상개조에 복무하는 기능이다.

둘째로, 생활인식적기능이다. 이것은 문학작품을 통해 인간생활에 대한 폭넓은 지식을 인식시켜주는 기능이다.

셋째로, 문화정서교양적기능이다. 이것은 사람들에게 아름답고 고상한 생활정서를 안겨주고 그들의 문화성과 인간성을 높여주는데 이바지하는 기능이다.

이상의 세가지 기능은 서로 밀접히 련관되여있다.

이미 례든 장편소설 《1932년》은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형상을 통하여 수령님의 위대성을 깊이있게 보여주고 수령님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으로 우리 인민을 교양하는 사상교양적기능을 수행하고있을뿐아니라 1932년의 혁명력사와 당시 인민들의 생활풍속, 중국동북지방의 자연지리 등에 대한 인식적기능도 수행하고있고 아름다운 형상과 세련된 문장표현에 도취되여 깊은 정서에 잠기게 하는 문화정서교양의 기능도 수행하고있다.

〔명언〕

고 요

《고요》는 작가 리종렬이 1983년에 창작한 단편소설이다. 작품은 어느 한 자그마한 산간역을 무대로 하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안녕과 건강을 보장해드리기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가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의 빛나는 형상을 창조하고있다.

소설은 4개의 절로 구성되여있다.

1절은 30여년동안 역장으로 근무해온 천상수가 경제적효과성이 없다는 리유로 만곡역을 페쇄하는것과 관련하여 년로보장자로 집에서 새끼나 꼬게 된 서글픈 사연을 이야기하는것으로부터 시작된다. 만곡역은 하루 두번 완행렬차가 서서 서너명의 손님을 내려놓거나 싣고 떠나갈뿐인 한적한 역이다. 그러나 이 역에는 주체37(1948)년 여름 어느날 김정숙어머님께서 어리신 위대한 장군님을 데리고 내리시여 손수 어버이수령님께 드릴 샘물을 길으신 뜻깊은 사적이 깃들어있다. 그때 조역으로 있던 천상수는 들꽃묶음을 위대한 장군님의 가슴에 안겨드린 소중한 추억을 간직하고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 역을 보존하려고 철도관리국에 올라갔다가 부국장 서상만으로부터 노엽기 짝이 없는 푸대접을 받는다.

2절은 서운한 마음으로 마지막출표를 한 천상수가 신문에서 어버이수령님께서 산간지대협동농장들을 현지지도하시며 인민생활을 두고 걱정하신 보도를 읽고 큰 감동에 휩싸여있는데 문득 바로 이 역으로 수령님께서 타신 특별렬차가 통과하게 된다는 꿈같은 소식을 받는 이야기를 담고있다.

천상수는 이밤이 지나면 영영 없어질 간이역의 《만곡》이라는 역명판이라도 어버이수령님께서 보아주실것을 바라며 정성껏 닦고 또 닦는다.

3절은 이 간이역에서 잠시나마 조용히 묵어가시게 된 어버이수령님의 안녕을 위하여 최대한의 고요를 보장해드리시려고 세심한 관심과 정성을 바쳐가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모습을 형상하고

있다. (이 부분부터 선문교재이다.)

4절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만곡역을 그대로 두게 하시고 서상만부국장에게 엄한 가르치심을 주시며 천상수와 이곳 간이역에 한없는 은정을 베풀어주시는 감동적인 사연을 담고있다.

작품은 어버이수령님의 건강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가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의 숭고한 도덕의리의 세계를 생동한 하나의 일화를 통하여 감명깊게 형상하고있다.

3

렬차가 들어올 시간이 다가오자 천상수는 철길옆에 꼿꼿이 서서 공연히 모자채양을 쥐였다놓는가 하면 옷깃을 더듬더듬 쓸어만져보면서 하산쪽만 바라보았다.

어느덧 저쪽 산굽이의 어둠속에서 백열로 이글거리는 불덩어리같은 빛이 달려나왔다. 달려오는 기관차의 전조등불빛이였다.

철길을 따라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점점 세차게 울려왔다. 가슴이 뛰노는 소리인지 땅이 울리는 소리인지 가늠 못할 소리에 귀가 멍멍해진 그는 불시에 시간이 훌 날아지나는것 같은 아찔한 느낌과 함께 눈부신 백광속에 들어 얼굴이 확확 달아올랐다. 어둠속에서 철길옆의 전주들이 언뜻언뜻 드러나는가싶더니 들이닥치던 렬차가 꿈인지 생시인지 속도를 늦추며 서서히 미끄러져왔다.

천상수는 너무 놀라 강렬한 환성을 내지르고싶은 충동에 사로잡혔으나 목이 꽉 메여 그러지도 못하고 신호등을 쳐드는것도 까마득히 잊은채 주춤주춤 뒤걸음질만 쳤다.

(이건 꿈이다, 꿈이야! 내가 꿈을 꾸는게다.)

그러나 특별렬차는 분명히 역구내에 멎어섰다.

차바퀴밑에서 휩쓸어나오는 바람에 옷자락을 나붓기며 허둥거리던 역장은 눈을 슴벅거리면서 즐비하게 늘어선 차량들의 불빛 환한 차창들을 둘러보았다. 의심할바없이 특별렬차는 만곡역에 멎어선것이다.

이슬이 흐르는 차량들에서는 북부산간지대의 선기가 서늘하게 풍겨오는듯싶었다.

승강대의 문이 열리며 대여섯명의 사람들이 줄레줄레 내리고 뒤따

라 회색양복을 단정하게 입은 젊은분이 땅에 내려서서 한손을 허리에 올리고 다심한 눈길로 역사며 주변의 우중충한 산발들을 둘러보시였다.

천상수는 그분을 알아본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다. 어서 역장의 직분을 다하여야 되겠다는 조바심에 그는 거수경례를 서둘러 붙이고 정보로 척척 걸어나가 그이앞에 섰다. 그는 남의 목소리같은 우렁찬 소리로 보고를 올리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만곡역은 근무중…》

그이의 옆에 선 수원이 입술에 손가락을 세워붙이며 속삭였다.

《아바이, 쉿 조용히…》

천상수는 거수경례를 붙인 손을 내리지도 못하고 어정쩡해 서있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그에게로 다가오시여 스스럼없이 손을 잡아 내려주시였다.

《역장동무입니까?》

《옛, 만곡역장 천상수입니다.》

그는 벅찬 감격에 가슴이 터져나가는듯 하였다.

《의논할 문제가 있는데 어디 좀 들어갑시다.》

의논할 문제라는 그 말씀에 늙은 역장은 더욱 놀랍고 황송하여 눈을 빛내이며 그이만을 쳐다보았다.

《… …》

《좀 도움을 받을 일이 생겨 그럽니다.》

천상수는 그이를 모시기에는 역이 너무 초라하고 루추하여 두손을 앞에 모아쥐며 어쩔바를 모르고 망설이게 되였다.

그러나 얼마후 역장실에 들어오신 그이께서는 칠이 벗겨진 헌 의자에 허물없이 앉으시였다. 천상수는 벽에 붙여놓은 긴 걸상 한끝에 조심스럽게 앉아 옷깃을 여미였다. 그는 처음에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혹시 이 늙은 역장을 알아보시지 않을가 하여 여간 마음을 쓰지 않았다. 그러나 지나간 30년은 그의 용모를 알아보기 어렵게 변화시키고 남을만 한 긴 세월이였다. 더우기 그이께야 얼핏 만나보신 한 조역이 무슨 기억에 남을만 한 존재겠는가.

천상수에게는 그것이 다행이였다. 이 자그마한 간이역에서 맴돌며 크게 해놓은 일도 없이 한생을 다 보내고 물러나게 된 자신을 드러내보이기 부끄러워서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그 무슨 한가지 생각에만 골뚤하시며

근심어린 얼굴로 물으시였다.

《이제 통과하는 차들이 많습니까?》

《예…》

《차들이 기적소리를 자주 울립니까?》

《예, 저아래하구 웃쪽의 산굽이를 돌 때 모든 렬차들이 기적소리를 길게 내게 돼있습니다.》

《그 소리가 여기까지 크게 들려옵니까?》

《들려오다마다요. 여기 골짜기들은 나팔통이나 다름없습니다. 저 산굽이에서 기적이 울리면 그 소리가 모든 골짜기들에 메아리치는데 정말 굉장합니다. 그 울림에 산에서 바위가 굴러내린 일도 있습니다.》

그이의 눈가에 보일듯말듯 그늘이 비꼈다.

《그렇습니까… 역장동무, 렬차들이 기적소리를 내지 않고 지나가도록 해줄수 없겠습니까?》

《기적소리말입니까.》하고 천상수는 의아한 눈으로 그이를 쳐다보았다.

《예… 기적소리가 크게 울려오면 안되겠습니다. 저 렬차안에서 지금 수령님께서 주무시고계십니다. 이번 현지지도에서 몹시… 몹시 피로하셨습니다.》

순간 천상수에게는 낮에 신문에서 본 수령님의 영상이 떠올랐다. 전이 넓은 농립모로 부채질을 하시며 산비탈밭으로도 수없이 오르내리시고 험한 산길도 끝없이 걸으셨겠으니 년세가 많으신 수령님께서 얼마나 지치시였을가…

그는 가슴이 저려났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조용히 한숨을 내쉬시고는 말씀을 이으시였다.

《돌아오시는 길에도 산간지대농민들의 생활때문에 내내 걱정하시며 렬차집무실에서 일을 보셨는데 방금 잠이 드셨습니다. 도중역들은 다 복잡한 역들이고 여기가 제일 한적한 곳이라고 해서 차를 세웠습니다. 이제 평양에 나가면 또 방대한 사업이 수령님앞에 쌓여집니다. 여기서 잠시라도 푹 쉬시도록 해야 되겠는데… 그러자면 고요해야 됩니다.》

그이의 절절한 음성은 늙은 역장의 가슴을 아프게 찔렀다.

《고요해야 된다구요. 아무렴 그렇지요. 지도자동지, 걱정마십시오.》

천상수는 얼른 일어나 전화로 벽계역과 하산역을 찾아 이제부터 통과하는 모든 렬차들이 기적을 울리지 말도록 일러달라고 당부하였다. 벽계역은 그의 말뜻을 인차 깨닫고 알았다고만 짤막하게 대답하였으나 호기심이 많은데다가 성미가 검질긴 류다른 괴짜 하산역장 오일범은 끈덕지게 캐여물었다.

《여보게 만곡, 이게 웬일이야? 밀려난다더니 하산에 지시까지 하니 자네 관리국장이라도 된셈인가. 툭 터놓게. 무슨 일인가 엉? 이웃사촌이라는데 만곡과 하산이야 그럴 처진가.》

그는 오일범의 이런 너스레가 아무리 모르고 하는 소행일지라도 무엄한짓으로 여겨져 울컥해졌다.

《오일범동무, 이건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뜻이란 말이요!》

그러자 저쪽에서는 아무 말도 없었다. 몇순간 뒤에 불같은 말이 날아왔다.

《천상수동무, 잘하오. 동무는 오늘 밤 우리 철도로동계급을 대표하고있다는걸 명심해야 되오!》

천상수는 송수화기를 놓지 못하고 얼굴이 벌개져 한동안 서있었다. 이윽고 그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돌아보며 어줍게 말씀드렸다.

《하산역장은 젊어서부터 제 막역한 친구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하고 그이께서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시였다.

역장은 역구내에 환한 외등불빛이 차안에 흘러들면 수령님께서 주무시는데 방해되지 않을가싶어 벽에 붙어있는 외등스위치에 손을 가져가며 외등을 끄는게 어떻겠는가고 물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처음에는 끄라고 하셨다가 다시 생각해보시고는 켜두는게 더 좋겠다고 하시였다.

《차창에 차광막을 치면 불빛이 흘러들지 않을수 있습니다. 혹시 수령님께서 잠을 깨셨다가 역구내가 캄캄한것을 보시면 순간이나마 걱정을 하실수 있지 않겠습니까.》

수령님께 티끌만 한 걱정도 끼쳐드리지 않으시려는 그이의 심정에 천상수는 가슴이 뜨거워졌다.

… …

그가 네번째 렬차를 통과시키고 돌아오니 내내 특별렬차옆에 계시던 그이께서 보이지 않았다. 아마 렬차에 올라가 쉬시는 모양이라고 생각한 역장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는 홀가분한 마음으로 역장실로 들어

갔다.

목안이 칼칼해져 물을 마시려고 보니 물주전자만 있고 밑굽의 칠이 벗겨진 법랑고뿌가 보이지 않았다.

천상수는 미심쩍은 생각에 밖으로 나가 역뒤로 어슬렁어슬렁 돌아가다가 흠칫 놀라 멈춰섰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샘터의 너럭바위에 앉아계시였던것이다. 그이께서는 턱에 손을 고이시고 샘을 들여다보시며 끝없는 생각에 잠겨계시였다.

샘터뒤 둔덕에 풍성하게 자라오른 가둑나무가 미풍에 소리없이 설레이고 그 나무가지들사이로 흘러내리는 달빛에 샘물이 은백색으로 반짝거렸다. 사위는 그지없이 고요한데 대지의 아득한 지심에서 솟아오르는 샘물이 박우물에 넘쳐흘러내리는 소리만 돌돌 들려왔다.

그는 숨을 죽이고 엉거주춤 서있다가 뒤로 슬금슬금 물러섰다.

그이께서 얼굴을 들고 이쪽을 바라보시였다. 그 눈길은 역장을 가까이로 부르는것 같았다. 그가 조심스럽게 다가가자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조용히 물으시였다.

《이 샘물이 여기에 있은지 오랩니까?》

《전쟁직전에 제가 역장으로 배치되여와서 파놓은겝니다.》

《내가 예전에 이 부근의 어느 역에 들린적이 있었는데 그 역에 아주 시원한 샘물이 있었습니다.》

천상수는 목이 꺽 메여올랐다.

《그건 저아래 하산역입니다. 그 샘물은 예나 다름없이 물맛이 좋고 시원합니다. 이 운산령밑에서는 어디를 파든 그런 시원한 샘물이 나옵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깊은 생각에 잠겨 근처를 돌아보시였다. 그이께서는 역으로 들어와서도 역구내를 천천히 오르내리시였다.

천상수는 아득한 청춘시절의 잊지 못할 그날의 감회가 밀물처럼 가슴에 밀려들어 그이의 뒤를 따르다가 곁에 다가섰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그의 팔을 스스럼없이 끼시고 역구내를 한번 또다시 한번 오르내리시였다. 구내를 환히 밝히고있는 외등들의 둘레에서는 하루살이떼가 뽀얗게 날아돌고있었다.

줄곧 깊은 생각에 잠겨 거니시던 그이께서는 문득 걸음을 멈추시고 수령님께서 주무시는 객차의 차창을 지켜보시였다. 그이의 눈에 보일듯

말듯 이슬기가 어리였다. 이윽고 다시 걸음을 떼신 그이께서는 혼자말씀처럼 조용히 뇌이시였다.

《우리 어머님처럼 수령님께 충직한 혁명전사는 없었습니다. 항일투사들도 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번에 여러 고장을 돌아보니까 도시나 읍이나 산간농촌에도 다 만수무강탑을 높이 세웠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민들의 한결같은 념원의 표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탑들에는 수령님의 만수무강을 축원하는 글발들이 멀리에서도 바라보이게 정성담아 새겨져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탑을 세우는것으로 충실성을 다 보였다고 여기는지 실제 일은 쓰게 하지 않고있습니다.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대로, 수령님께서 바라시는대로 일은 하지 않고도 태평스럽게 지내고있습니다.

이번에 산간농촌지대에 나가봐도 그렇습니다.

수령님께서는 농사에서 적지적작의 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일군들의 귀에 못이 박이도록 가르치셨는데도 자기네 땅에서 잘되는 감자농사를 잘 짓지 못하여 몇해째 수확을 높이지 못하고있습니다. 수령님께서는 일찌기 창성련석회의에서 산간지대에서는 산을 잘 리용해야 인민들을 잘살게 할수 있다고 간곡히 가르치셨는데 산도 잘 리용하지 않고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령님께서는 일군들을 데리고 수없이 산에도 오르고 밭에도 나가시여 산간지대인민들을 잘살게 할수 있는 방도들을 하나하나 가르쳐주셨습니다. 수령님께서는 밤에도 제대로 쉬지 못하시였습니다. 우리가 반세기나 혁명을 했는데 인민들의 생활이 아직도 높지 못하다고 가슴아파하시며 잠드시지 못하시였습니다. 그러다나니 피로에 피로가 겹쳤습니다. 내가 오죽하면 여기에 차를 세웠겠습니까.》

그이의 절절한 말씀에 천상수는 가슴이 저며지는듯 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일이 있을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는지라 수령님을 모실수 있도록 역을 꾸리지 못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여기는 고요해서 좋습니다.》

그이께서는 한손을 허리에 올리시며 역사와 그 주변의 우중충한 산들을 둘러보시다가 문득 쾌활하신 음성으로 말씀하시였다.

《내가 예전에 어머님과 함께 들렸던 그 역의 조역은 새파란 청년이였는데 아주 쾌활한 동무였습니다.… 기차가 떠날 때 달리는 차를 따라오며 내 가슴에 꽃을 안겨주고는 그만 넘어졌드랬는데 상하지 않았다는것을 보여주려고 껑충껑충 뛰여올랐습니다. 참 쾌활한 청년이였습니다.》

천상수는 눈앞이 탁 흐려와 머리를 숙였다.

《지도자동지!》

그이께서는 늙은 역장의 얼굴을 눈여겨 살펴보시며 가슴아프신 음성으로 뇌이시였다.

《아, 세월이 많이도 흘렀습니다. 역장아바이, 왜 자기를 감추려고 합니까?》

천상수는 그이께 이끌려 어떻게 방으로 들어왔는지 몰랐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그와 다정하게 마주앉으시여 살아온 이야기랑 들으시다가 저는쪽 다리를 쓸어만져보시였다.

《언제 다쳤습니까?》

《전쟁때 시한탄을 치우다가 다쳤습니다. 전후에 상처가 도져 수술을 했는데도 이 모양이 됐습니다.》

《도시의 평탄한 길이라도 모르겠는데 이런 산골길에서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한평생 걸음걸이에 마음을 써왔겠습니다.》

그이께서는 한평생의 괴로움을 쓸어만져주시는듯 다심한 음성으로 말씀하시였다.

천상수는 코물을 흑 들이켰다.

《젊어서는 좀 그랬는데… 늙어서야 아무렇게나 걸으면 뭐랍니까.》

《그래 30여년간 어디도 가지 않고 내내 이 역에 계셨단 말입니까?》

《예…》

《이 심심산중에서 얼마나 외로왔겠습니까.》

천상수는 가슴속설음이 못 견디게 터져올라 그만 한손으로 얼굴을 가리우고 흑흑 흐느꼈다. 흐느낌소리가 터질 때 정수리를 덮은 성긴 백발이 보일듯말듯 흔들렸다. 그는 인차 자신을 다잡으며 눈물범벅이 된 얼굴을 들었다.

《저는 저 만곡사람들한테 봉사하고 만곡사람들은 저를 혈육처럼 여겨줬습니다. 그게 큰 기쁨이구 락이여서 이날 이때까지 외로운줄도 힘든줄도 모르고 지내왔습니다.》

《예…》 하고 그이께서는 머리를 무겁게 끄덕이시였다.

《내 앞으로는 여기를 지나갈 때면 꼭 들리군 하겠습니다.》

천상수는 한동안 머리를 수긋하고있다가 죄송스럽게 말씀드렸다.

《고맙습니다. … 한데 이 역은 없어집니다. 이밤이 지나면 없어지고맙니다.》

《예?… 없어지다니요?》

《우리 관리국산하에 새 역들을 내오게 된 사정때문에 이 역은 페쇄하게 됐습니다. 새로 개발된 탄광과 광산지구들에 큰 역을 다섯개나 새로 내온답니다.》

《그러면 이 역을 리용하던 인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삼사십리나 더 걸어나가야 기차를 타게 되니 불편이야 하겠지만 참아야 합니다. 탄광이랑 광산이랑 많이 개발돼야 나라가 부강해지는데 참아야지요. 만곡사람들은 본건 적어두 리해성이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저도 이제 만곡리에 들어가 해설사업을 할가 합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안색이 어두워지시며 다심한 음성으로 말씀하시였다.

《그러니 우리가 이 역의 마감손님이겠습니다.》

천상수는 대답을 올리지 못하였다.

4

하산쪽에서 올라오는 마감렬차가 지나갈 때 뒤끄리의 차장차에서 검은 그림자가 뛰여내렸다. 그 그림자는 산굽이앞코숭이에 서있는 천상수에게로 황황히 다가왔다. 철도관리국 부국장 서상만이였다. 그는 숨이 턱에 닿아 헐떡거리며 다우쳐 물었다.

《특별렬차가 지금도 만곡에… 역에… 서있습니까? 어떻게… 모셔드렸소? 수령님께서 편히 쉬십니까?》

《예…》

《왜 제때제때 보고를 안하는가 말이요. 온 관리국이 속이 새까매서 앉아있는데… 참다못해 내가 뛰여왔단 말이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모두 자기 위치에서 정상적으로 사업하게 그런 전화를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역에 계시오?》

《예.》

《그래 어디에… 어느 방에 모셨소?》

《역장실에…》

《역장실에? 령감냄새나는 그런 방에 모신단 말이요? 만곡때문에 우리 관리국이 망신을 당하게 됐소.》

부국장은 이전에 와서 받았던 인상을 되살려 역을 잘 거두지 못했다고 늙은 역장을 마구 몰아대였다. 그리고는 결패스럽게 돌아서 자갈소리를 와작와작 내며 역쪽으로 걸음을 다그쳐갔다.

천상수는 노여움이 북받쳐 가슴이 방망이질하였으나 지그시 누르며 묵묵히 그의 뒤를 따랐다.

불빛이 환한 역구내에 들어서자 부국장은 특별렬차곁에 서계시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로 다가가 모자를 벗고 정중하게 인사를 드렸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부국장에게 몇마디 말씀을 건네시는것 같더니 그를 데리고 역장실로 들어가시였다.

천상수는 시간이 어떻게 흘렀는지 알지 못하였다.

특별렬차의 차창들에 불빛이 환히 켜지고 수원들이 기쁨에 설레이며 오르내릴 때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역장실에서 나오시였다. 역장실문이 열렸다가 닫기는 그 틈에 부국장이 머리를 떨구고 의자에 앉아있는 모습이 언뜻 들여다보였다.

역구내에 비가 쏟아졌다. 서남쪽 하늘가에서 번개가 번쩍이고 둔중한 우뢰소리가 먼 포성의 메아리처럼 울려왔다.

렬차에 올랐다 내려오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기쁨에 넘친 얼굴로 천상수에게로 다가와 그의 손을 뜨겁게 잡아주시였다.

《수령님께서 푹 쉬시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만곡역을 잊지 않겠습니다. 아바이, 오래오래 건강하십시오.》

《떠나십니까?》

천상수는 가슴이 텅 비는것 같은 허전한감에 더 말을 잇지 못하였다. 늙은 역장의 눈에 눈물이 그렁해졌다.

비물이 흘러내려 번쩍거리는 렬차가 역구내를 서서히 미끄러져나갈 때 천상수는 언뜻언뜻 지나가는 차창들을 향하여 머리를 깊이 숙여 절을 하였다.

그가 허리를 펴는데 누구인가 바람처럼 옆을 스쳐지나갔다. 부국장이였다. 그는 엇비스듬히 흩날리는 비발속으로 렬차를 따라 정신없이 달려나갔다. 땅을 진감하는 차바퀴소리, 날리는 옷자락, 무엇이라고 부르짖는듯 한 목메인 소리… 렬차의 뒤꼬리가 비발속에 멀어지자 그는 맥없이 멎어섰다.

쏟아지는 비줄기가 땅을 두드리며 물보라를 뽀얗게 일으켰다. 그는 폭풍속에 든 사람처럼 머리를 움켜잡고 허우적거렸다.

영문을 몰라 황황히 다가간 천상수에게 그는 갈린 소리로 부탁했다.

《혼자 있게 해주시오.》

시간이 퍼그나 지나 천상수가 역장실로 들어가니 부국장은 번민이 가득 실린 얼굴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나는 숨이 질 때까지 명심할 가르치심을 받았습니다.》

눈물에 젖은 목소리였다.

그는 더 말을 잇지 못하고 펼쳐진 사업수첩을 역장에게 내밀었다.

《여기에 있습니다. 빠짐없이 적느라고 했는데…》그리고는 방에서 조용히 나갔다. 비방울들이 휘뿌려진듯 글자들이 여러군데나 번지여 얼룩을 그린 수첩장에서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심각한 음성이 울려나오는것 같았다.

《만곡역장은 만곡에 사는 사람들과 산간벽지로 찾아오는 사람들을 위하여 한생을 바쳤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인민의 충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관리국에서 새 역들을 내오는 사정과 관련하여 이 역을 없앤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 고장 인민들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수령님께서는 13명의 어린이들을 위해 통학렬차를 보내주시고 한두명의 아이들을 위해 자그마한 정거장까지 마련하여주시는데 이미 있던 역이야 무엇때문에 없애겠습니까. 어떻게나 예비를 짜내여 새 역들도 내오고 이 역도 없애지 않도록 타산해보시오. 나는 지나가던 손님으로서 의견을 말합니다.

큰 사업때문에 인민들의 조그마한 리해관계를 소홀히 대하거나 함부로 무시해버려도 좋다는 법은 없습니다. 인민들의 심정이나 리해관계를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것은 우리 혁명의 근본원리나 목적에도 어긋나는 매우 위험한 사상감정입니다.

어느 누구나 그런 사상감정이 마음속에 있다면 티끌만 할 때에 없애버리고 더 생기지 않도록 경계하여야 합니다. 인민대중을 무시하고 깔보는데 습관되면 혁명의 역신으로도 될수 있다는것이 간고한 우리 혁명이 남긴 하나의 심각한 교훈이기도 합니다. 이번에 여러 지방을 돌아보니 인민들에 대한 사상관점이 바로서지 않은 사람들때문에 인민경제의 구석구석에서 수령님께서 바라시는대로 일이 펴이지 못하고있습니다.

수령님께서는 인민들을 잘살게 하려고 한생을 바쳐오십니다.

이번 현지지도에서도 수령님께서는 인민들을 잘살게 하기 위해

그르쳐진 일들을 바로잡느라고 그토록 피로하셨습니다. 수령님께서 올해 년세가 얼마이십니까. 자기 인민들을 사랑하고 존중하며 인민들에게 헌신복무할 대신 인민들에게 고통을 주어 심려만 끼쳐드리는 일군을 수령님께 충실하며 수령님의 만수무강을 진심으로 바라는 사람이라고 할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건 허황한 소리입니다. 지각있는 사람이라면 특별렬차가 이 간이역에 묵게 된 사연을 두고 좀 생각해봐야 합니다. 누구나 수령님의 만수무강을 진심으로 바란다면 우선 자기 사업단위에서 인민의 충복이 되여야 합니다.》

천상수는 바위돌로 굳어진듯 움직일줄 몰랐다. 희붐한 새벽빛이 어린 유리창문에 비방울이 화라락 뿌려졌다.…

만곡역은 페쇄되지 않았다.

며칠후 하산쪽으로부터 한대의 수동차가 철길을 울리며 만곡방향으로 살같이 달려올라왔다. 수동차우에는 이쁘장한 처녀가 쇠란간을 잡고 바람을 맞받으며 서있었다. 그 처녀는 흩날리는 머리칼을 자주 쓸어만져올리는가 하면 이마우에 손채양을 붙이고 마주 달려오는 우중충한 산들을 둘러보며 미소를 날리였다.

수동차를 억척스럽게 몰아오던 하산역장 오일범은 길을 가다가 자기네 일행을 놀랍게 쳐다보는 두메산골사람들을 향하여 팔을 내저으며 웨쳐댔다.

《만곡역에 출표원이 옵니다. 꽃같은 체네가 들어옵니다.—》

수동차가 역구내에 들어서자 만곡역장은 근엄하면서도 고집스러운 얼굴표정으로 옷차림을 살펴보고는 의젓하게 걸어서 마중나왔다.

나의 조국

《나의 조국》은 김상오가 1979년에 창작한 우수한 서정시이다.

김상오(1917-1992)는 황해남도 해주시의 하급사무원가정에서 출생하였다. 그는 고등보통학교를 중퇴하고 일본에 건너가 신문배달을 비롯한 막로동을 하면서 자습으로 문학과 의학공부를 하였다. 3년간의 고달픈 이국살이를 마치고 귀국하여 고향에서 치과의사로 있으면서 몇편의 시를 발표하였으나 그것은 아직 시라고 할만 한것이 못되였다. 해방후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품속에서 신문 《자유황해》 주필, 《민주조선》의 부주필 등으로 사업하면서 비로소 새 조국 건설의 환희와 랑만, 로동계급의 혁명적열정과 긍지를 노래한 특색있는 시들을 발표하기 시작하였다.

조국해방전쟁시기에 미제침략자들에 대한 끝없는 증오와 복수의 감정을 담은 시 《증오의 불길로써》(1950), 《저기로!》(1951), 인민군용사들의 영웅적위훈을 노래한 서사시 《조국의 기발아래》(1952) 등을 창작하였다.

전후에 복구건설과 사회주의건설의 장엄한 현실속에서 새로 일떠선 평양을 노래한 시초 《평양시초》(1960), 천리마기수들의 아름다운 정신세계를 노래한 서정시《훌륭한 사람들에 대한 시》(1961), 가사《청산벌에 풍년이 왔네》(1959),《황금나무 능금나무 산에 심었소》(1959) 등을 창작발표하여 이 시기의 대표적시인으로서의 면모를 뚜렷이 보여주었다.

한때 그는 손에서 붓을 놓고 오랜 기간 다른 사업에 종사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해방직후에 해주에서 열정적인 청년시인 김상오를 만나시였던 사실을 회상하시면서 그를 다시 시단에 세워주시는 은혜로운 사랑을 베풀어주시였다. 1977년부터 다시 붓을 들고 대오에 돌아온 김상오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와 감사의 정을 담아 서정시 《심려》(1977), 《제가 노래할수 있는것은》(1977)을 창작하였으며 서정시 《나의 조국》을 발표하여 우리 인민을 어버이수령님에 대

한 끝없는 충실성과 조국에 대한 열렬한 사랑의 정신으로 교양하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서정시 〈나의 조국〉은 조국애를 노래한 우수한 작품으로서 시대의 주도적인 감정을 깊이있게 형상한 본보기로 된다.》

조국에 대한 사랑을 노래한 시들이 많지만 《나의 조국》처럼 조국애를 혁명적수령관에 기초하여 생활적으로 감동깊게 형상한 훌륭한 작품은 흔치 않다.

김상오는 시만 쓴것이 아니라 많은 소설과 평론도 썼으며 외국문학작품번역도 하였다. 그의 시들은 시집《우리의 날》(1950),《증오의 불길》(1952), 《아름다운 기슭》(1959), 《나의 조국》(1988)에 묶어져있다.

알지 못해라 언제부터
나의 가슴에 깃들었는지
아마도 그것은 나의 첫삶과 함께
이미 조용히 자리잡은것이리

언제나 나의 심장에 가득차있어
기쁨과 아픔
그 모든 운명을 함께 사는것

조국이여!
너는 무엇이기에
가만히 네 이름 부르면
가슴은 터질듯 긍지로 부풀고
눈굽은 쩌릿이 젖어드는것이냐

어찌하여, 때로 이국의 거리를 거닐다가도
문득 솟구치는 그리움에
마음은 한달음에 달려와
너를 안는것이냐

조국은
고향마을 정든 집이라더라
동구밖 오리나무숲
그 정겨운 설레임
새벽녘 들가에 피는
녀인들의 웃음소리
송아지떼 풀을 뜯는 언덕을 넘어
지줄대며 흐르는 여울물소리

조국은
그리운 얼굴들이라더라
다심하신 고향 어머니
모래불에 딩굴던 어릴적 동무
물결치는 이랑속에 벼단을 안고
땀을 씻는 처녀의 그윽한 눈길…

지난날 네 그리 가난하고 억눌려
슬픔과 고통만을 줄 때에도
너의 운명으로 내 가슴이 아팠고
살길 찾아 너를 떠나면서도
눈물속에 돌아보고 또 돌아보았거니

조국이여, 너는 무엇이기에
저 눈덮인 이국의 광야
비내리는 타향의 부두에 서면
두고온 네 하늘이 그리도 푸르러
살아서 너를 떠나간이들
죽어서도 돌아오길 소원했더냐

한번 너를 잃으면
네게로 돌아가는 길 그리도 멀어
피로써 눈보라 만리길을 헤쳐야 했고

죽음과 함께 불바다를 건너야 했거니
조국이여, 진정 너는 무엇이기에
너의 한치 땅을 위해
애어린 청춘들 웃으며 꽃처럼 졌고
쓰러지면서도 못 잊어
두팔가득 너를 그러안고 갔더냐

한줌 흙속에
너를 싸안고 간 투사들도 있었더라
한떨기 진달래꽃향기에
눈감고
너의 모습 그려본 녀대원도 있었더라
아마도 조국은 어머니…

그렇다, 조국은
더없이 신성하고 숭엄한 그 무엇
위대하신 수령님 한생을 바치시는
겨레의 삶이며 그 무궁한 미래
죽어서도 안기여사는 영원한 품

그것은 그대를 바라보는 깊은 눈동자
맑은 거울앞에서처럼
부끄럼없이 그앞에 서기 쉽지 않으리
오직 그의 영광속에 그대의 삶이 있고
그를 저버림은 곧 그대의 죽음인
조국이란 그러한것

뜨거운 심장없이 안을수 없고
진실한 사랑없이 부를수 없는
위대하고 신성한 이름…
조국을 사랑한다고 말하지 말라
조국에 그대의 심장을 주기 전에는!

오, 조국이여 조국이여
너는 손이 닳도록 쓰다듬고싶은
우리의 땅
바라보아도 바라보아도 더 바라보고싶은
우리의 푸른 하늘

조국이여
그때문이 아니냐
일을 해도 일을 해도 더 하고싶어
하루를 십년으로 살고싶은 이 갈망은
지혜와 힘과 뜨거운 열정을
있는껏 다 쏟아바치며
바치는것이 기쁨인 이 아름다운 삶은

가는 곳마다 들끓는 생활과
끓임없이 탄생하는 환희의 노래
강토를 굽이치는 철의 흐름우에
소용돌이치는 열풍을 안고

조국이여, 너는
세기의 하늘높이 나래쳐오르는
세찬 퍼덕임
그 아득한 높이의 빛발
찬란한 우리의 미래

그 미래를 바라보며
온갖 시름 잊은 얼굴들이
로동의 기쁨안고 돌아오는 락원의 거리
무수한 배움의 창문을 비쳐드는 해살과
보육원들이 지켜선 애기들의 고요한 숨결…

그렇다, 조국은
수령님 찾아주신 우리의 삶
수령님 안겨주신 우리의 궁지
영원한 영원한 그이의 품

그 품이여라!
조국이여 나의 조국이여

푸른 하늘

《푸른 하늘》은 권정웅이 1991년에 창작한 총서 《불멸의 향도》에 속하는 장편소설로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 주체73(1984)년 여름 큰물피해를 입은 남조선의 수재민들에게 북반부인민들의 동포애가 깃든 막대한 량의 구호물자를 보내주는 사업을 현명하게 이끌어주시는 이야기를 기본내용으로 하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자정이 넘도록 서울지구지도를 앞에 놓으시고 남조선 한강변의 수재형편에 마음쓰시는 어버이수령님을 우러러 자신께서 책임지고 남조선수재민들을 도와줄 현실적인 대책을 세우겠다고 말씀올리신다.

남조선당국자들은 남조선인민들의 강력한 요구에 부딪쳐 할수없이 우리가 보내는 구호물자를 받아들이겠다고 선포한다. 그래놓고도 10월 10일까지 구호물자를 보내려는 우리의 성의있는 제안에 대하여 9월말까지 구호물자의 전량을 한꺼번에 보내주지 않으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무례하게 도전해나선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의 구호물자는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진다 해도 보내야 하며 분계선장벽이 열배, 백배로 높아지고 두터워진다 해도 보내야 하겠다고 하시면서 당중앙위원회 비서 허담, 정무원 부총리 고윤학, 적십자중앙위원회 부위원장 안창후 등 관계부문 일군들을 부르시여 여러차례 협의회도 소집하시고 구호물자를 준비하고있는 정미공장이며 방직공장에도 나가시여 인민들의 통일열망에서 무궁무진한 힘을 얻으시며 이 사업을 힘있게 이끌어나가신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관계부문 일군들에게 남측이 받겠다고 세상에

공포한 이상 우리는 우리가 선택한 품종을 우리가 정한 량만큼 우리가 계획한 날자와 지점에 가져가야 한다고 하시며 이것을 온 세상에 선포하게 하시고 그대로 결행하도록 하심으로써 교활하고 파렴치한 놈들을 꿈쩍 못하게 굴복시키고 나라가 갈라져 39년만에 처음으로 혈육들의 사랑이 수백대의 자동차와 대형짐배들에 가득가득 실려 분계선을 넘어가는 놀라운 사변이 이루어지게 하신다.

한편《동아일보》사회부 기자 한영국은 취재활동을 하면서 남조선 수재민들에 대한 우리의 구호물자 인도인수사업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직접 보고 체험한다.

한영국은 북남실무접촉과정을 목격하면서 북의 진정한 인도주의와 남측의 비렬한 술책을 똑똑히 알게 되고 큰 충격을 받게 되지만 신문기사는 안기부의 요구에 맞게 써낸다. 그러나 좌초(배가 암초우에 얹힘)되였다던 배를 대신하여 짧은 기간에 정성껏 마련한 세멘트를 싣고 나타난 짐배《순천》호의 위용과 구호물자를 싣고 온 젊은 자동차운전사와의 상봉은 더는 참을수 없게 그의 마음을 뒤흔들어놓는다. 한영국은 운전사청년이 바로 34년전 의용군에 입대하여 공화국북반부에 들어간 친형인 한영도의 아들이며 형이 끝없는 행복을 누리고있다는 꿈같은 사실을 알게 되지만 자기가 그 청년의 삼촌이라는것을 밝힐수 없는 형편에서 마지막으로 헤여질 때 형이 어린 소년이였던 자기에게 주고간 시계줄을 그(한남준)의 손에 얼른 쥐여주면서 기념으로 받아서 아버지에게 전하라고 한다.

그후 한영국은 더는 북에 대한 동경과 공감을 막아낼수 없게 되여 남조선위정자들과 맞서 진실을 그대로 써낸다. 이로 하여 끝내 안기부의 작간으로 맞아죽게 되지만 생명보다 귀중한 참된 삶을 찾는다.

다른 한편《국방군》장성으로 있다가 미국에 망명해있던 최성덕은 고향방문을 위해 비행기로 평양에 온다.

평양에 온 첫날부터 그는 놀라운 현실에 부딪친다. 동포들에게 구호미를 보내게 되였다고 사람사태를 이루어 흥성이는 신문매대, 병원에서 손님의 건강은 우리가 책임진다는 의사의 말, 실업자도 기생충도 없고 학비나 세금이란 말도 모르는 현실, 참으로 공화국북반부는 그에게 있어서 별세계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세심한 보살피심속에서 최성덕은 드디여 1961년에 사망한 아버지의 묘소를 찾아가게 되며 그앞에서 어린애처럼 울음을 터

뜨린다.

그리고 한 일군을 통하여 어버이수령님께서 자기 아버지를 애국인사라고 하시였다는것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자기의 건강과 생활을 잘 돌보며 도와줄데 대하여 말씀하시였다는것을 알게 된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최성덕에게 어버이수령님을 만나뵈옵는 영광을 안겨주시며 애국렬사릉에 새롭게 세워줄 제작중인 그의 아버지의 비문까지 보게 하여주신다.

최성덕은 북조선에 와서 사랑과 정의의 화신이신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을 뵙고 여기 내 조국이 인민의 락원이라는것을 믿게 되며 자신도 서슴없이 인민을 위한 이 사랑의 대오에 들어설것을 결심한다. 끝없는 감격에 휩싸여 위대한 대원수님을 만나뵈온 아이들의 무리가 기쁨에 겨워 들어선 청년공원쪽을 바라보면서 움직일줄 모르던 최성덕이 고개를 드니 모란봉이 보이고 그우로 조국의 하늘, 푸른 하늘이 펼쳐져있었다.

선문교재는 제5장 1절로서 세멘트를 싣고 인천으로 가던 배 한척이 좌초된 뜻밖의 사건으로 인하여 제기되는 여러가지 복잡한 문제를 풀어나갈수 없어 관계부문 일군들이 어쩔바를 몰라할 때 위대한 장군님께서 빛나는 예지로 이 문제를 원만히 시원스럽게 풀어나가시는 이야기를 담고있다.

제5장

1

김정일동지의 집무실이였다.

허담은 하던 이야기를 계속하였다.

《최성덕은 우리가 남조선인민들에게 보내는 구호물자에 대해 류다른 관심을 보인 후로는 지금까지 계속 침묵을 지키고있습니다. 원래 성격이 내성적이고 침울한것 같습니다. 만경대고향집도 방문했는데 무려 두시간 십분에 걸쳐 돌아보았습니다. 고향집에 있는 농기구와 가구들에 대한 설명을 주의깊게 듣고는 이것저것 꼬치꼬치 캐여물어서 해설강사를 진땀뽑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습, 작두, 독, 놋바리, 책상, 벼루 등 살림도구들모두가 당대의 진품이라고 하면서 감탄하더랍니다.》

《그건 그렇고 건강은 어떻다고 합니까? 오자마자 병원에 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서류를 번지고있던 **김정일**동지께서는 그것을 한쪽에 밀어놓고 허담과 나란히 안락의자에 앉으시였다.

《만성취장염을 가지고있는데 현재는 별일 없다고 합니다. 아마 려행에서 파로한것 같습니다. 종합진단결과는 치아가 성한것이 없어 틀이를 해주자고 하니 거절하더랍니다.》

《거절했단 말입니까?》

《예, 윤숙경동무의 말을 들으면 치료비생각을 하는것 같아서 우리나라에서는 무상치료제라고 하니까 그렇다면 더더욱 치료받을수 없다고 했답니다.》

그이께서 가벼이 고개를 끄덕이시였다.

《그 사람은 그럴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 나라에서 무상치료제라는걸 모를 사람이 아닙니다. 윤숙경동무에게 말해주시오. 최성덕선생은 말그대로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이니 모든것을 제 눈으로 보고 스스로 판단하게 하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가 틀이를 하고싶다면 해주고 안하겠다면 그만두게 둬두라고 하시오. 그가 부친의 묘에는 갔댔습니까?》

《래일 갈 예정입니다.》

《룡성에 있다는 묘가 그의 부친이라는것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때 당시 세운 묘비가 있습니다. 그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고 또 계속 묘를 지킨 먼 친척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틀림없겠습니다. 어쨌든 잘 도와주도록 합시다. 윤숙경동무가 그를 안내하는데 대해 고통스럽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처음 제가 그 말을 꺼냈을 때는 놀라와했습니다. 최성덕이란 이름만 듣고도 대번에 낯색이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별로 달가와하지 않는 티를 보이지 않습니다.》

《최성덕은 자기를 안내하는 윤숙경동무의 사연을 알고있습니까?》

《모르고있습니다. 다만 지성이 높고 친절한 녀성이라는 정도입니다. 카나다에서 왔다니까 자기 처지와 비슷하다고 생각하고있습니다.》

《우리는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합니다. 우리가 과거를 따지지 않는다고 했다면 그 어느 누구에 대해서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죄가 경하고 보잘것 없는것이면 묵과하고 큰 죄는 묵은것도 캐고, 그렇게 해서

는 안됩니다. 세계를 알고 전쟁도 알고 인생을 알고있는 그가 여기에 올 때쯤 하면야 무슨 생각인들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가 남조선에 보내는 구호물자에 대해 류다른 관심을 보였다는것은 그에게 애국애족의 감정이 있다는것을 말해줍니다. 비록 그것이 싸늘하게 식은 재티안에서 깜박이는 하나의 불티에 불과할수 있으나 그 불티가 불길이 되여 일어날수도 있는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이께서는 시계를 들여다보시였다. 어느새 밤 1시가 넘었다. 허담은 서둘러서 말씀올리였다.

《의도를 알겠습니다. 벌써 밤이 깊었는데…》

《난 좀 더 기다려야 하겠습니다. 방금전에 고윤학동무에게서 전화가 왔다는데 무슨 일이 생긴것 같습니다.》

허담이 주저주저하는데 마침 고윤학이 들어섰다. 고윤학은 숨이 차서 헐썩거리며 자세를 바로하더니 보고하였다.

《인천으로 가던 배 한척이 황해남도 앞바다에서 좌초되였습니다.》

《좌초?》 그이께서는 반사적으로 되물으시였다.

《예, 남포에서 제1진으로 떠났던 〈대동강〉호입니다.》

《좀 자세히 이야기하시오. 어떻게 되여 그렇게 됐답니까? 좌초는 몇시쯤 되고…》

《방금전에 장산곶앞바다를 항해하다가 창암도부근에서 암초에 걸렸다고 합니다. 여러차례 빠져나오려고 시도했지만 잘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지금 거기에는 파도가 높고 바람이 심해서 앞을 가려볼수 없다고 합니다. 그 배에는 1만 2천톤의 세멘트를 싣고 안창후동무를 비롯한 적십자대표들의 기본성원들이 탔습니다.》

《사람들은 다친데 없답니까? 지금 배상태는 어느 정도입니까?》

《사람들은 일없고 배는 바위에 올라앉아 기동이 곤난하다고 합니다. 그 동무들은 시간이 좀 지체되더라도 자체로 해결해보겠다고 하는데 전망을 확답하기 어렵습니다. 기상관측소에서는 아침이면 바람은 멎을거라고 하고있습니다.》

《그것이 전부입니까?》

《그렇습니다.》

《…》

그이께서는 아무 말씀도 없이 한자리에 서신채 침묵하고계시였다.

고윤학의 이마에는 진땀이 내돋았고 머리카락은 휘주근해졌다.

숨가쁜 침묵이 한초한초 흘러갔다.

이윽해서 **김정일**동지의 음성이 들리였다.

《장산곶앞이라면 임당수소용돌이겠는데 거기는 옛날부터 배길이 험하다고 한곳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조직사업을 잘하지 못한데 있는것 같습니다.》

《그건 후에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우선 인명피해가 없는지 다시 확인해봐야겠습니다.》

《전화로 몇번 확인했는데 부상자는 한사람도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그래도 계속 알아보시오. 혹시 그쪽에서 우리를 안심시키기 위해 묻어둘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주의해야 할것은 이제부터입니다. 당황하고 조급해나서 무분별해질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또 사고가 날수 있습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천천히 걸음을 떼시여 오른쪽에 있는 나들문에까지 가셨다가 다시 돌아서서 고윤학이앞으로 다가오시였다.

《부총리동무 생각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무슨 안이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고는 매우 심각한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구조작업을 단시일내에 하려고 합니다. 해주와 남포에 알아보니 구조작업할만 한 선박과 인원은 있습니다.》

《구조작업을 짧은 시간에 한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걸릴것으로 보입니까?》

《대형화물선인데다 1만 2천톤의 세멘트를 실은채 암초에 걸려든만큼 시간이 꽤 걸릴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타산은 현장에 나가 실지정황을 봐야 산출해낼수 있을것 같습니다.》

그이께서는 긍정하듯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시였다. 그러시고는 잠시 비내리는 캄캄한 창밖에 시선을 주시였다가 혼자말처럼 뇌이시였다.

《최악의 경우도 예상해야 합니다. 이제도 말했지만 다른데도 아니고 장산곶앞이라면 간단히 구조해내기 곤난할수 있습니다. 그곳 바다밑의 바위돌들은 대단히 날카롭다는 말을 언제인가 나도 들은적이 있습니다.》

《…》

고윤학은 뭐라고 말씀드렸으면 좋을지 몰라서 머리를 숙였다. 면목이 없었다. 허담도 낯빛이 컴컴해서 그이를 지켜보고있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생각에 잠기신채 뒤짐을 지고 천천히 걸음을 옮

겨놓으시였다. 그이의 무거운 발걸음소리가 저력있게 바닥을 울렸다.

허담도 고윤학이도 뜻하지 않게 돌발적으로 당한 사태의 엄중성을 속속들이 깨닫고있었다. 그러면서도 그 어떤 기적적인 해결책이 나서지 않을가 하는 막연하면서도 가냘픈 기대로 가슴을 조이고있었다. 그들은 구호물자들을 기차와 자동차와 배에 실어 떠나보낸 다음에는 무사히 가닿으려니 하고 방심하면서 태평스럽게 지냈던탓에 이런 불행한 비상사고가 발생한듯싶은 죄책감으로 하여 입안이 말라드는 괴로움과 안타까움을 느끼고있었다.

《이렇게 합시다.》

김정일동지께서 침묵을 깨치며 결단성있는 어조로 말씀하시였다.

《구조작업을 합시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는데 〈대동강〉호의 비상사고를 수습할 총책임을 고윤학동무가 맡아줘야 하겠습니다. 내가 인민무력부장동무에게 말해서 서해에 있는 해군부대를 구조작업에 투입시키게 하겠습니다. 거기에는 힘있는 구조선도 있고 그런것을 담당할만 한 경험자들도 있을것입니다. 서해갑문건설에 동원된 구조작업선을 돌려도 될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빠른 시일안에 구조작업을 끝내도록 합시다.》

막혔던 숨길이 활 열리는것 같은 명방책이였다.

《알겠습니다.》

고윤학은 힘있게 대답올렸다. 음울하게 흐려졌던 그의 얼굴에 밝은 기운이 서려올랐다.

그러나 **김정일**동지께서는 무엇인가 석연치 않은듯 묵묵히 창밖을 내다보며 재삼 그 무슨 근심어린 생각에 잠기신듯싶었다.

《해군을 투입하면 문제없습니다. 이제는 념려하지 마십시오.》

이번에는 허담이 확신을 표명하였다. 지금형편에서 해군구조함선을 투입하는것보다 더 유력한 방도는 없다고 여긴것이다.

《동무네들이 그게 좋겠다니까 우선 그렇게 해봅시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반소매잠바의 쟈크물개를 내리워 잠바앞섶을 절반쯤 터놓으며 탁자앞으로 걸어나와 송수화기를 들어올리시였다.

《인민무력부장을 찾으시오.》

비는 계속 내리고있었다.

창밖은 아직 캄캄한데 야외등이 희미하게 비치고있는 정원의 잔디

밭에는 제법 굵어진 밤비가 주룩주룩 내리고있었다. 사위는 쥐죽은듯한 정적에 휩싸이고 수도의 밤거리는 깊은 잠에 들어있었다.

창가에 붙어서서 비내리는 창밖을 내다보시던 **김정일**동지께서는 문득 집무탁쪽으로 돌아서서 전화기앞으로 급히 다가가시였다. 뜻밖에 들이닥친 예상치 않은 사고를 두고 몇가지 긴급조치를 취하긴 했어도 그것만으로는 아무래도 마음을 놓으실수 없었다. 지금쯤은 고윤학이도 해당 부문 일군들을 불러앉혀놓고 조난선을 구출하기 위한 작전을 짜고들고있을것이였다.

교환수에게 고윤학을 부르라고 하시였다.

《고윤학동무입니까? **김정일**입니다. 지금 어떻게 하고있습니까? 조직사업을 해서 현지로 떠나보내고있다?… 나도 그렇게 짐작하고있었습니다. 그래 동무들이 신심을 가집니까? 좋습니다. 군대동무들은 벌써 움직이기 시작해서 선발대로 이미 현장에 도착하여 구조전투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사람들을 빨리 현장에 내보내시오. 그러되 부총리동무는 사고현장으로 가지 말고 순천으로 떠나야 하겠습니다.》

《순천으로 말입니까?》

고윤학은 반사적으로 놀라는것이였다. 수화구에서는 그의 높은 숨소리가 들리였다.

《놀랄건 없습니다. 만약의 경우를 생각해서 동무는 순천에 가서 〈대동강〉호에 실었던 량만 한 세멘트를 남포로 실어오는 긴급조치를 시급히 취해야겠습니다. 방금 인민무력부에서 보고된 자료에 의하면 좌초된 〈대동강〉호의 배상태가 좋지 않은데다 태풍이 불어 파도가 엊저녁보다 더 사나와지고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예정했던대로 구조작업을 인차 끝낼것 같지 못합니다. 이런 형편에서 구조작업을 계속하면서 한편으로 복선을 쳐야 하겠습니다. 리해됩니까?》

《알겠습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고윤학의 목소리는 어쩐지 가늘게 떨리고있었다. 그 목소리만 듣고서도 그가 얼마나 긴장하고 흥분되여있는가를 충분히 리해할수 있었다.

《그리고 적십자회 중앙위원회에 말해서 적십자회에서 남측에 전화통지문을 보내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배가 좌초되여 한척분의 세멘트가 하루나 이틀쯤 늦어질것이라고 말입니다.》

《네, 아까 적십자회에서 좌초된 문제때문에 문의해왔댔습니다. 이제 말해주겠습니다.》

《남측에 한척분의 세멘트도착이 하루나 이틀쯤 늦어질거라고 알리는 이상 이제부터 구조작업이나 복선대책이 48시간이상은 단 1분도 초과해서는 안되겠습니다. 24시간전이나 늦어도 48시간전에 끝내야 합니다.》

《알았습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전화를 끝내고나서 최동무를 찾으시였다. 그에게 당중앙 책임일군들을 부르라고 이르시며 이름을 불러주시였다.

그가 일간출판물과 일보자료들을 놓고 돌아나간 후에 **김정일**동지께서는 순천세멘트공장 당비서에게 전화를 걸어 그곳 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현재 생산상태가 어떤가, 완성품재고량이 지금 얼마나 되는가, 1만 2천톤의 세멘트를 화차로 실어내자면 시간과 로력이 얼마나 필요한가 하는것들을 일일이 알아보시였다. 그러시고는 그에게 시급하게 1만 2천톤의 세멘트를 화차에 실어낼 과업을 주시였다.

《생산해놓은 세멘트는 얼마든지 있다니 상차작업만 벌리면 되겠습니다. 지배인동무랑 같이 토론해서 인차 공개당총회들을 열고 남조선수재민들에게 가던 세멘트배가 비상사고로 좌초되여 지금 가지 못하고있다는것과 그때문에 세멘트배를 새로 띄우려고 긴급한 상차작업을 하게 되였다는것을 사실대로 알려주시오. 그러면 당원들이 선두에 나설것이며 전체 로동자들이 궐기할것입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또 다른 하나의 예비선으로서 해주세멘트공장에다 5 000톤정도의 세멘트를 임의의 시각에 해주항으로 실어내갈수 있게 준비하라고 이르시였다.

그러는 사이에 조직부와 선전부, 중공업부 등의 책임일군들이 모였다는것을 알고 해당 당조직들에서 추가적으로 제기되는 세멘트생산과 그것을 수송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도록 하시였다.

〔명언〕

충성의 한길에서

4.15문학창작단에서 창작한 총서 《충성의 한길에서》〔《유격구의 기수》(천세봉), 《사령부로 가는 길》(천세봉), 《광복의 해발》, 《그리운 조국산천》, 《진달래》(리종렬)〕는 항일의 녀성영웅이신 김정숙어머님의 불요불굴의 투쟁이야기를 내용으로 하고있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어리신 몸으로 푸옌동(부암동)의 지주집에서 연자방아를 돌리느라고 날마다 시달리면서도 밤이면 야학에 다니시며 사회정치적으로 빠르게 눈떠가신다.

태봉거리의 《자위단》습격사건이 있은 뒤 일제경찰놈들은 김정숙어머님의 오빠인 김기준동지를 찾아내려고 피눈이 되여 날뛰다가 형님을 잡아간다. 로동자들속에 들어가 혁명사업을 하는 오빠는 집에 오지 못하며 놈들에게 끌려간 형님은 남편에 대한 비밀을 끝까지 지키고 구류장에서 장렬하게 희생된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마을의 아동단사업을 맡아보시는 한편 어머니를 잃은 조카 인남이에게 동냥젖을 얻어먹이려고 먼길을 다니셨지만 뜻대로 되지 않는다.

그런가위에 일제놈들의 《토벌》로 집은 불타고 사랑하는 어머니는 돌아가신다.

어느날 김기준동지께서 마을에 오시여 인남이를 한 혁명동지의 어머니에게 맡기고 김정숙어머님과 동생 기송동지는 유격근거지로 보낸다.

상촌유격근거지에 도착하신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아동단사업을 맡으시여 부모잃은 아이들을 친누이의 정으로 보살피며 이끌어나가신다.

그후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크나큰 신임속에 왕칭(왕청)지방으로 지하공작을 나가시며 온갖 난관을 이겨내시면서 부녀회를 조직하시고 그것을 확대해나가신다.

적의 《토벌》로 상촌근거지가 위험에 처했다는 급보를 받으신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지체없이 근거지로 달려가신다.

이때 미처 피하지 못하고 적의 포위속에 든 인민들을 구원하려고 나팔을 불어 적을 딴 방향으로 유인하던 동생 기송동지가 적탄에 맞아 희생된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어머니와 동생과 형님의 복수를 맹세하며 총을 더욱 억세게 틀어잡으신다. (《유격구의 기수》)

유격근거지가 해산되게 되자 유격구의 인민들은 친척들이 있는 적구로 흩어져가게 된다. 의지가지없어서 당장 어디로도 갈수 없는 사람들만은 유격근거지의 마지막지탱점인 숱기막골근거지로 모이게 된다.

아동단원들을 이끌고 숱기막골로 가신 김정숙어머님께서는 거기서 공청책임자로 임명되신다.

구정부 부회장자리에 있던 일제의 주구 리억겸의 음모책동으로 성실한 혁명가인 차응도회장이 살해되고 식량이 떨어져 굶주림이 계속되고 일제놈들의 《토벌》은 더욱 악랄해진다. 이런 속에서도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사람들을 이끌어 땅을 뚜지고 봄씨붙임을 하신다.

적의 《토벌》은 더욱 확대된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유격대와 함께 전호에서 적을 맞받아 용감히 싸우신다.

유격대중대는 그후 위대한 수령님의 명령에 따라 마안산으로 옮겨간다. 마안산에서 김정숙어머님께서는 두번째로 위대한 수령님을 만나뵙게 되며 오빠 김기준동지가 희생되였다는 슬픈 소식을 접하게 된다. 온 가족을 원쑤에게 잃은 크나큰 슬픔을 가슴속에 묻은채 사령부작식대원으로 사업하시던 김정숙어머님께서는 푸쑹(무송)현성전투때 사령부의 안전을 위해 녀성대원들을 이끄시고 적을 딴 방향으로 유인하여 무자비하게 족치신다. (《사령부로 가는 길》)

김정숙어머님께서는 그후 국내에 혁명조직을 꾸려갈 준비를 하기 위해 압록강에서 멀지 않은 타오취엔리(도천리)에 지하공작을 나오신다. 구장 강성태의 사촌누이로 가장하고 발을 붙이기는 했지만 첫 걸음부터 적의 감시를 받게 된다. 게다가 구장의 누이라는것으로 해서 사람들이 곁을 주지 않는다. 이러한 어려운 조건에서도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진정을 가지고 사람들과 사귀며 믿음과 사랑을 베풀어 한사람한사람 깨우쳐 나가신다.

점차 사람들은 김정숙어머님을 존경하게 되고 어머님의 이끄심따라 부녀회조직에 망라되게 된다. (《광복의 해발》)

타오취엔리를 중심으로 한 샤강구(하강구)일대를 혁명화하신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압록강을 넘나드시면서 신파땅에 장차 국내공작을 본격적으로 벌려나갈수 있는 핵심을 키우는 사업에 들어서신다.

어머님께서는 신파뗴군합숙의 식모로 들어가시여 뗴군들의 형제계 유사인 주창범, 좌경적인 사회주의운동자 한성욱, 민족주의자인 정지천 등과 접촉하면서 그들의 그릇된 견해를 바로잡아주시고 여러가지 곡절을 겪으면서도 하나하나 조국광복회에 묶어세우신다. 이런 과정을 거쳐 신파지구에 당소조를 내오시며 당소조를 중심으로 로동자들을 굳게 묶어세워 투쟁에 일떠세우신다. (《그리운 조국산천》)

신파지구사업을 자신께서 키우신 혁명동지에게 맡기시고 수령님곁으로 돌아오신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재봉대를 맡으시여 적들의 끊임없는 《토벌》에 맞서싸우시면서도 말겨진 군복을 제때에 만들어내신다.

난파이쯔(남패자)회의가 있은 뒤 위대한 수령님께서 친솔하신 주력부대와 떨어져 칭봉(청봉)밀영으로 가신 김정숙어머님께서는 밀영책임자 엄장호의 배신적인 행위를 정면에서 폭로규탄하시고 사령부에 련락을 보내신다.

위대한 수령님을 따라 조국진군의 길에 오르신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청봉과 건창, 베개봉, 삼지연을 거쳐 신개척에서 일제놈들을 통쾌하게 족치신다. (이 부분이 선문교재이다.)

다시 압록강을 건느신 어머님께서는 조국의 대안에 활짝 핀 진달래를 이윽토록 바라보신다. (《진달래》)

어머님께서 눈물도 많이 뿌리시고 곡절도 많이 겪으시면서 걸음걸음 걸어오신 멀고도 험한 길은 오직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만을 받드는 한길이였다.

제6장

5

신개척에 나간 7련대가 창평, 삼장방향에 방어대를 파견하고 전화선들을 끊은 다음 군사행동을 시작하자 적들의 저항도 더 악랄해졌다. 사처에서 적들이 달려들었다.

적은 사령부가 자리잡고있는 신사동방향으로도 기여들었다. 놈들은 가소린차를 타고 림철을 따라 곧바로 신사동으로 올라왔다.

사령관동지께서는 그 정황보고를 받으시고 정찰하기 위하여 온 놈들일수 있으니 먼저 사격하지 말며 접전을 될수록 피하라고 명령하시였다.

사령관동지의 예견대로 놈들은 잠복초앞에까지 와서 어물거리고 더 접근하지 않았다.

그날 깊은 밤중 사령관동지께서는 8련대와 독립대대, 경위중대, 기관총소대를 신사동에서 철수시켜 대홍단벌의 좀 둔덕진 곳에 배치하시였다.

신사동, 신개척일대에서 아군이 단행한 군사정치활동에 당황해진 적들이 반드시 아군부대들을 뒤따라 대홍단벌로 기여들리라 타산하신것이였다.

사태는 사령관동지께서 타산하신대로 발전하였고 그리하여 대홍단벌에서는 이튿날 아침부터 치렬한 격전이 벌어졌다.

전투는 7련대의 뒤를 따라온 적들을 치는것으로부터 시작되였다.

사령관동지께서는 둔덕진 곳의 수림속에서 전투를 지휘하시였다.

……

점점 세차게 끓어오르는 격전의 소음에 대기가 전률하고 수림이 뒤설레였다.

지휘처뒤의 수림속에서는 김정숙동지께서 장철구, 서영순이와 함께 7련대에서 들어온 부상자를 응급처치하고계시였다. 부상자는 평소에 녀대원들앞에만 서도 수집음에 얼굴이 빨개지던 대원이였건만 지금은 혼수상태에 빠져 아무것도 못 느끼고 세 녀성의 다심한 손길밑에 다리를 뻗고 번듯하게 누워있다. 그의 복부는 피에 질벅하게 젖었다. 단추를 하나하나 벗길 사이도 없어 군복저고리앞섶을 열고 내의를 북 찢어 열어헤치니 피칠갑이 되여 시뻘겋게 번들거리는 배가 드러났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소금물에 적신 수건으로 그 피를 닦아내시였다.

명치아래에 구멍이 뚫렸다.

탄알은 거기를 뚫고들어가 옆구리를 탁 헤치고 빠져나갔다. 그이께서는 개인붕대포 두개를 터쳐 리바놀에 적신 솜뭉치를 창상구멍에 대고 배에 붕대를 감기 시작하시였다. 전장에서 수류탄이 작렬하는 소리가 련이어 들려오자 부상자는 가슴팍과 배의 근육을 부르르 떨더니 헛소리를 내질렀다.

《련대장동지— 탄알이… 탄알이 떨어졌습니다.》

그의 마음은 아직도 초연이 휘몰아치는 전장에서 총을 쏘고있는듯했다.

서영순은 부들부들 떠는 그의 어깨를 지그시 눌러주며 다심하게 속삭였다.

《동무… 동무… 마음을 갈앉혀요. 진정해요.》

부상자는 그의 말을 알아듣고 순응하는듯 얼마후 잠잠해졌다. 반쯤 내리감긴 눈에 물기가 떨었다.

서영순은 문득 이 부상자와 다름없는 대원인 리금준의 생각이 가슴을 쳐 남몰래 입술을 깨물었다. 그는 김정숙동지와 장철구의 일손을 도와 부상자를 맞들어 나무그늘밑 후미진 곳으로 옮겨갔다. 그리고는 모두 풀잎으로 피묻은 손을 씻는데 최정덕이 헐떡거리며 뛰여왔다.

최정덕은 근심어린 얼굴로 부상자를 보고 서영순을 돌아보았다.

서영순이도 아까 떠날 때 최정덕이 리금준에게 선참 들리겠다고 한 말이 생각나 그늘 비낀 그의 얼굴을 지켜보게 되였다.

《격발기가 고장났더구나. 속상해서… 기름걸레를 보니 말이 아니요. 그런걸루 닦으니 먼지가 더 낄수밖에…》 하고 최정덕이 말했다.

장철구가 어정쩡해서 그를 쳐다보았다.

《누구 소린데?》

《누구긴 누구겠소. 금준동무지…》

그리고는 서영순을 힐난의 눈길로 돌아보았다.

《어째 기름걸레랑 좋은걸 갖춰주지 못하오. 이젠 지휘성원도 아니고 대원인데 그런게 각가지로 다 있어야 되오.》

서영순이 분한 얼굴로 뇌까렸다.

《됐어요.… 그런 걱정까지 해주겠어요?》

김정숙동지께서 부드럽게 이르시였다.

《정덕동무 말이 옳아요. 그럴것없이 동무 총을 갖다줘요. 후에 보

고하면 되지. 우선 싸움이야 잘해놓고봐야 되지 않겠어요.》

이때 전령병이 달려왔다.

《여기 물이 없어요?》

《장군님께서 찾으시나요?》 하고 김정숙동지께서 그를 쳐다보며 물으시였다.

《찾지는 않으시는데… 사령관동지의 입술이 다 말라 갈라터졌어요.》

그이께서는 전투의 가렬성이 한가슴에 가득 안겨들어 재빨리 자신의 물통과 두 녀대원들의 물통을 흔들어보시였다. 물통고리가 잘칵거리는 메마른 소리만 난다.

《어찔가?》

《여기 오면 있을줄 알았는데…》 하고 전령병은 난감한 얼굴로 중얼거리며 돌아서려고 하였다.

《내가 기관총소대에 가져가서 이렇게 됐구나!》 최정덕은 얼굴빛이 캄캄해졌다.

《그냥 돌아가요. 인차 물을 가져가겠어요.》 하고 이르신 김정숙동지께서 얼른 군대밥통을 들고 숲속으로 뛰여들어가시였다. 그이께서는 수풀속을 누벼다니며 풀잎이며 나무잎사귀들에 맺힌 이슬을 군대밥통에 털어넣으시였다. 군대밥통을 기울여 밑굽을 적신 물을 한쪽으로 모아보니 거기에 티 같은것이 떠있었다. 그래서 풀잎이며 나무잎사귀들을 찬찬히 여겨보니 어디서인가 날아든 먼지를 입어 잎사귀들에 맺혀있는 이슬들이 정갈하지 못했다. 아쉽지만 간신히 모은 그 물을 쏟아버리시였다.

그리고는 샘을 찾아 헤매시다가 여기로 행군해올 때 국사당가까이에서 샘물을 마셨던 일이 생각나시였다. 그것은 아득한 옛적부터 지나가고 지나오는 길손들의 목을 추겨준 샘물인것 같았다. 어찌하여 첫 순간에 그것이 떠오르지 않았는지 아실수 없었다.

그이께서는 국사당쪽을 향해 숲속을 헤쳐나가시였다. 오른쪽 벌에서는 전투가 더 격렬해지는지 수류탄의 작렬소리와 총소리들이 요란하게 터져올랐다. 그 격전의 소음이 그이의 발걸음을 재촉하였다. 그이께서는 손으로 나무가지들이며 넝쿨들을 헤치며 달려나가시였다. 나무가지들이 목이며 팔에 쓸리면서 획획 날아지나갔다.

(어쩌면… 어쩌면… 입술까지 다 마르셨을가. 정황이 점점 어려워지는게 아닐가?)

그이께서는 장군님께서 몹시 갈증을 느끼고계시리라는 그 한가지

생각만을 하며 숲속을 정신없이 달려나가시였다. 그이께서는 이윽고 국사당결의 샘터에 이르러 물을 떠가지고 인차 돌아서시였다. 갈 때와는 달리 걸음을 조심조심 옮기시였다. 밥통안의 물이 찰랑거리며 흘러내려서였다.

나무잎사귀들에 맺혀있는 이슬들이 구슬알들처럼 반짝이며 신선한 기운을 풍기는듯 했다.

갈 때에는 느끼지 못했는데 숲속엔 후미진데가 많았다. 그리고빽빽이 들어선 나무밑이며 뒤엉켜진 넝쿨과 덤불들속에 음침한 기운이 도사리고있는것 같아 은근히 마음이 긴장되시였다.

아름드리강대나무옆을 지나가시던 그이께서는 옆에서 섬찍한 기운이 느껴져 흠칫 놀랐으나 마음을 다잡고 흔연스레 나무가지에 걸린 옷자락을 벗기시였다. 눈결에 보니 몇걸음쯤 떨어진 묵은 풀덤불속에서 시꺼먼 총구가 삐죽 내밀었고 그뒤에 독사눈, 단숨을 톺는 소리…

(적이구나!)

그때 풀덤불속의 적들도 숨을 죽이고 그이를 쏘아보고있었다. 놈들은 세명의 척후병들이였고 그뒤에는 소대가 엎드려있었다. 놈들은 사령부를 기습하려고 은밀히 기여들었다가 그 위치를 알지 못해 잠복하여 감시정찰을 하는중이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부대들이나 사령부를 배후로부터 기습하자고 기여든 놈들이란것을 직감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덮쳐드는 위기감에 모든것이 혼란되여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모르시였다. 그러나 한가지 명백한것은 놈들이 발견될가봐 먼저 총소리를 내지 못하리라는것이였다.

그이께서는 웬일인지 하늘을 쳐다보게 되시였다. 구름 한점없이 맑은 하늘이 어둑하게 보이고 착잡한 생각들이 뇌리에 번개쳤다.

저놈들은 이제 소리없이 해치우자고 접어들것이다. 못 본척하고 돌아서면 어떨가? 아니다. 한초가 새롭다. 빨리 사령부에 알려야 한다. 그러자면 총소리를 내야 한다! 사령부에서 인차 알도록 높이 울려야 한다!

그이께서는 억울하고 분하지만 이런데서 홀로 최후의 순간을 맞게 되였다는것을 인정하지 않으실수 없었다. 그러자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자신의 한생이 이 순간을 위하여 있었던듯싶으면서 뛰놀던 가슴이 침착하게 가라앉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손을 들어올려 이마에 척척한

식은땀을 씻으시였다.

(저놈들은 내가 자기네를 못 봤다고 여기는것 같다. 밥통을 내려놓고 권총을 뽑자.…)

그이께서는 허리를 굽히기 시작하시였다. 문득 밥통과 땅바닥과의 거리가 아득하고 그 어간에 생명을 던져야 넘어설수 있는 위험이 층층으로 겹쌓여있는듯이 느껴지시였다.

아무리 허리를 굽혀야 밥통밑굽이 땅바닥에 닿지 않고 시꺼먼 총구의 환영만 눈앞에 언뜻거린다.

(내가 긴장때문에 허리를 못 굽히는게 아닌가? 굽히자… 굽히자… 놈들은 자기네가 발견되였다고 생각되면 덮쳐들것이다. 몇놈일가? 저 부스럭거리는 소리를 보면 수십명인지 얼만지 모른다. 탄알은 예비탄창까지 모두… 저 숨소리가 거칠어지는게 아닌가? 이제 밥통밑굽이 땅에 닿으면 모자를 벗어덮고 다른 손은 권총에… 안전장치가 풀렸던가? 안전장치… 아니, 내가 잘못 생각하는게 아닌가?)

한순간에 운명적인 생각들이 뇌리를 스쳤다.

저놈들이 사령부를 노리고있는데 그 위치를 몰라 저러고있는것이 아닌가? 쏘지 말고 유인해야 한다.

그이께서 허리를 도로 펴시려는데 옆에서 버스럭소리가 나더니 숲에서 최정덕이 황황히 뛰여나왔다. 그는 기겁하여 그이를 부둥켜안았다.

《아니 왜 이러오? 어디… 어디가 아프오?》 아무 영문도 모르는 그는 그이의 잔등이며 옆구리를 더듬더듬 쓸어만져보며 다급히 묻는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최정덕의 손을 밀어버리고 발을 떼여 그가 오던 쪽으로 걸어나가시였다.

최정덕은 그이의 팔을 잡고 총총히 따라왔다.

《어쩐지 미심쩍어서 왔더니 무슨 일이요?》

김정숙동지께서는 놈들이 숨어있는 풀덤불에서 얼마간 떨어졌다고 생각되자 나직이 속삭이시였다.

《적이야요. 이자 거기 풀덤불속에 있어요.》

《엉?》

최정덕은 전률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그의 거쿨진 손을 꼭 잡아쥐시였다.

《모르는척 해요. 사령부를 찾는것 같아요. 저것들이 따라오면 딴데로 끌고가자요.》

최정덕은 숨소리가 거칠어졌다.

《내가 하는대로 해요.》 하고 그이께서는 걸음을 돌려 대홍단벌쪽을 등지고 외딴쪽으로 나무가지들을 헤치며 걸어나가시였다.

최정덕은 인차 마음을 다잡고 따라오며 한수 더 떠서 일부러 큰소리로 말을 건네였다.

《저보구 누가 물을 떠오라구 했나? 이제 사령부에 가서 약을 먹고 가만히 누워있으라구!》

그이께서도 응수하시였다.

《사령부에 있으면서 어떻게 편안히 누워있겠어요.》

《원 별소릴…》

뒤쪽에서 삭정이 부러지는 소리며 나무가지가 휘였다가 펴지는 소리 같은것이 들려왔다. 놈들이 따라오는것이 틀림없었다. 가슴이 쿵쿵 뛰고 목안에서 겨불내가 풍겨올랐다.

대홍단쪽의 총소리가 점점 멀어지고 추적의 발자욱소리가 가까이로 다가오자 최정덕은 걸음을 늦춰 그이의 뒤에 섰다. 모든 위험과 날아오는 총탄마저 몸으로 막아주자는 결심인것 같았다.

앞에서 걷는 김정숙동지께서는 그의 화끈한 입김을 뒤덜미에 느끼시였다. 가슴이 저려나시였다. 최정덕의 일생과 그의 사람됨됨이 가슴을 아프게 파고들었다.

그이께서는 이런 걸음이 어떤 결말로 끝난다는것을 잘 알고계시였다. 처음에는 창황중에 의지가 되여 같이 떠났지만 지금에는 이 녀대원을 그런 결말에로 끌고가고싶지 않으시였다.

《정덕동무, 갈라져야겠어요.》 그이께서 나직이 이르시였다.

《놈들이 우리만 따르지 않고 두패로 갈라져 대홍단쪽으로도 갔는지 몰라요. 빨리 달려가보고 적정이 있으면 사령부에 알려요. 총으로 신호하든지 직접 뛰여가 보고하든지… 빨리 가요, 빨리!…》

최정덕은 순순히 응하였다. 다행히도 그는 적들이 기미를 느끼지 못하게 하느라고 슬그머니 물러나 무성하게 처져내린 나무가지들밑으로 번개같이 숨어드는것이였다. 물러날 때 물기가 번쩍이는 눈으로 한번 흘깃 돌아보았을뿐이다.

최정덕은 수림속을 꿰질러 대홍단벌뒤쪽으로 한참 달려나와 두리번거렸으나 아무런 적정도 발견하지 못하였다. 땀투성이가 되여 단숨을 헉헉 몰아쉬는 그의 가슴에 비로소 아리숭한 의혹이 갈마들었다. 이쪽

방향에는 적정이 있을수도 있고 없을수도 있지만 김정숙동지께서 자기를 헐한데로, 안전한데로 떼여보내려고 이 방향에 보낸것 같아서였다.

그는 김정숙동지를 너무 믿어왔던탓에 그런 속마음은 모르고 정신없이 여기로 뛰여왔던것이다.

최정덕은 주먹으로 제 가슴을 쾅 들이쳤다. 그리고는 흙빛으로 이그러진 얼굴로 그이께서 가신쪽을 바라보았다. 바람에 설레이는 울창한 숲이 앞을 가리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저는 그런 길을 가면서 나는 살리자고 여기로 보냈는가?)

가슴이 찢어지는듯 아파났다.

최정덕이 그이께로 도로 뛰여갈지 사령부로 먼저 가야 할지 몰라 목단추를 와락와락 벗기며 망설이는데 저 뒤쪽 수림속에서 갑자기 총소리들이 터져올랐다.

놈들이 유인의 기미를 느꼈거나 참을성을 잃어 그이께 달려든것이 틀림없었다.

최정덕은 순간에 정신을 잃고 그쪽으로 달려가다가 홱 돌아섰다. 그리고는 사령부쪽 하늘을 향해 보총을 쳐들고 머리칼을 흩날리며 방아쇠를 당겼다.

여무진 총성이 하늘에 메아리쳤다.

(정숙이！ 정숙이！)

그의 흙빛얼굴이 눈물에 화락 젖었다.

당의 참된 딸

《당의 참된 딸》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의 지도밑에 주체60(1971년)에 창작공연된 혁명가극의 대본이다.

작품은 서장과 종장, 전 6장으로 구성되여있다.

1장은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나어린 처녀간호원 강연옥이 조선로동당원들의 숭고한 풍모에서 큰 충격을 받으며 당원들처럼 위대한 수령님과 당에 충실한 혁명전사가 될것을 굳게 마음다지는것을 보여준다. 불타는 고지에 화선담가대로 나갔던 연옥은 당원들이 발휘하는 백절불굴의 투쟁정신과 당원의 임무에 대한 자각을 목격하고 당원이란 어떤 사람인가 하는 물음을 세포위원장에게 제기한다. 세포위원장 덕준은 조선로동당원은 순간을 살아도 위대한 수령 **김일성**장군님을 위하여 살고 일생을 살아도 장군님께 끝없이 충직한 전사들이라고 대답한다. 연옥은 자기도 그렇게 살리라 굳게 다짐한다.

2장과 3장은 주인공 강연옥이 일시적후퇴가 시작된 뜻밖의 간고한 정황속에서 부상병들을 후송할데 대한 임무를 이악하게 수행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간고한 행군을 거쳐 약속된 지점인 태백산병동을 찾아갔으나 부대는 이미 제2호지점으로 옮긴 뒤였다. 실망에 잠긴 연옥은 처음에 마음의 안정을 잃었으나 북두칠성 저 멀리 어버이수령님 계시는 최고사령부를 그려보며 힘을 얻는다.(2장)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태백산병동장면에서 연옥이가 부르는 노래 **《어디에 계십니까 그리운 장군님》**을 시대의 기념비적명작으로 완성하시여 사람들의 심장을 틀어잡는 가극의 주제가로 되게 하여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후에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노래를 들어주시고 **《어디에 계십니까 그리운 장군님》**은 수령숭배, 수령결사옹위의 정신이 잘 구현된 노래라고 하시면서 이 노래의 선률이 온 강산에 힘차게 울려퍼지게 함으로써 2000년대에도 《당의 참된 딸》의 주인공과 같은 수령숭배, 수령결사옹위정신의 체현자들이 수많이 나와 일심단결의 대오를 더욱 튼튼히 다져나가게 하여야 한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제2호지점을 향해 가는 길에서 남천강이 가로막았을 때에는 후퇴하는 인민들의 도움을 받아 과감한 투쟁으로 도하에 성공하며 사랑하는 전우가 의식을 잃었을 때는 자기 피를 뽑아 수혈해준다.(여기서부터 선문교재이다.) 그리고 쌀이 떨어졌을 때에는 단신으로 마을에 내려가 한 할아버지의 도움으로 식량을 해결해온다. 그날 너무도 피곤하여 수저를 든채 잠든 연옥을 보며 전우들은 눈물짓는데 연옥은 꿈속에서 최고사령부를 찾아가 그리운 어버이수령님을 만나뵙는다.(3장)

4장은 드디여 부대를 찾아온 연옥이가 수령님께서 보내주신 사랑의 솜옷을 받아안으며 조선로동당에 입당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5장은 군의소에서 중환자에게 자기의 뼈를 이식해주기도 하며 온갖 정성을 다하는 연옥의 모습과 그를 뜨거운 동지적사랑으로 소중히 대해주는 전우들의 우정을 보여준다.

6장은 당의 참된 딸인 연옥의 영웅적인 최후를 그리고있다. 퇴원하는 전우들과 함께 전승의 광장에서 어버이수령님께 승리의 보고를 드릴 날을 그려보는 연옥의 가슴은 희망에 넘쳐있다. 그런데 적비행대의 맹폭격속에서 환자들을 업어나르던 그는 날아드는 적탄을 막아 전우를 구원하고 희생된다. 숨지는 순간에 그는 당원증과 당비를 당중앙위원회에 보내달라는 부탁과 어버이수령님을 뵙고싶다는 뜨거운 말을 남긴다.

작품은 당원이란 어떤 사람들인가 하는 의의있는 문제를 제기하고 당원은 오직 당과 수령을 위하여, 조국을 위하여 청춘도 생명도 서슴없이 바치는 혁명가들이라는 사상을 힘있게 확증하고있다.

나오는 사람들

강연옥 간호원(상등병, 후에 상사)
차덕준 세포위원장(중사, 후에 특무상사)
최성림 전사(부상병)
명호 하사(부상병)
춘삼 상등병(부상병)
기창 상등병(부상병)
사단정치부장

군의소장
간호원 1, 2, 3
할머니
마을할아버지
이밖에 군의, 간호원들, 병사들, 마을사람들
기타 미제침략군, 괴뢰군놈들

제 3장
제 2경

때: 얼마후
곳: 오대산이 가까운 어느 산기슭
무대: 오래 자란 소나무 몇그루, 멀리 오대산련봉이 물결쳐갔다.

— 무대 밝아지면
△ 기창이 우등불을 피우며 멀리 살핀다.
△ 연옥이 앞서고 뒤에서 성림과 춘삼이 명호를 태운 담가를 들고 힘있게 들어온다.
△ 그들은 명호를 우등불결에 눕힌다.

연옥: 동무들, 오늘은 여기서 숙영합시다.

△ 성림 공병삽을 들고 기창과 함께 나간다.
△ 춘삼 보초를 서러 나간다.
△ 명호 몹시 괴로와한다.
△ 연옥 명호의 머리를 짚어보며 안타까와한다.

녀성방창:
삼태성도 기울어 밤은 깊은데
전우의 숨결은 높아만 가네
한없이 귀중한 전우의 생명
내 진정 구원할 길 없단 말인가

연옥:
포연이 몰아치는 고지우에서
불보다 뜨거움을 안겨준 전우
당원의 그 생명을 구원 못하면
내 어이 수령님의 전사라 하리

△ 연옥 우등불에 주사기를 소독한다.

△ 연옥 자기 팔에서 피를 뽑아 명호에게 수혈해준다.

녀성방창: 이 땅에 뿌리내려 천년을 산 나무야
이런 사랑 이런 은정 언제 봤더냐
혁명의 전우 위해 붉은 피를 바쳐가는
수령님의 전사앞에 밀림도 머리숙이네

하늘에는 북두칠성 밝은 빛을 뿌리고
숲속에 안개는 고요히 흐르네
성스러운 싸움에 목숨바쳐 달려나갈
혁명의 전우여 어서 일떠서시라

△ 연옥 미대를 털어보나 쌀이 없다.

△ 연옥 빈혈을 일으키며 바위우에 쓰러진다.

△ 최성림 들어온다.

연옥: (바위에서 일어나며) 최성림동지, 명호동무에게 미음을 쑤어드려야겠는데… 전 이런 때 어떻게 하면 좋아요.

성림: 연옥동무, (품속에서 회상기를 꺼내며) 난 방금전에 한 항일투사 동지가 쓴 한홉의 미시가루에 대한 회상기를 읽었소.
장군님께서 령도하신 항일유격대는 아무러한 후방도 없이 20성상이나 백두의 눈보라속에서 일제와 싸워이겼소.

장군님 나눠주신 한홉의 미시가루
천만석 낟알에도 비길수 없네
한없이 뜨거운 어버이 그 사랑
혁명의 신념을 안겨주셨네

△ 성림 나간다.

△ 연옥 성림이가 주고 간 회상기를 펼쳐든다.

남성방창: 두손 모아 받아안은 한홉의 미시가루
대원들 감격에 눈물지었네
가슴에 흘러든 어버이 그 사랑
오늘도 우리 심장 불태워주네

△ 연옥 국부조명속에서 편지를 쓰기 시작한다.

녀성독창방창: 찬이슬 내리는 깊은 한밤에
녀전사는 결심 품고 편지를 쓰네
한자두자 적어가는 글발마다에
별들도 사랑의 빛을 뿌리네

△ 무대 다시 밝아지면 춘삼, 기창이 자고있다.

녀성방창: 혁명의 전우 위해 먼길 떠나는
간호원의 그 모습 가슴뜨겁네
험한 길을 헤쳐가는 녀전사앞에
별이여 밝은 빛을 뿌리여다오

△ 연옥 편지를 써놓고 동무들을 정겹게 바라보며 떠난다.

— 무대 어두워진다.—

제 4장

제 2경

때: 전장으로부터 얼마후
곳: 사단정치부 사무실
무대: 벽에는 위대한 수령님의 초상화가 정중히 모셔져있다.

—무대 밝아지면

△ 정치부장과 군관들이 서있다.

△ 덕준 문건을 가지고 들어와 정치부장에게 준다.

덕준: 나이는 어리지만 연옥동무는
가슴속에 붉은 충성 간직한 전사
온갖 시련 굳세게 이겨나가며

덕준과 정치부성원들 } 당이 준 임무를 다하여왔네

△ 정치부군관이 연옥을 데리고 들어온다.

정치부장: 강연옥동무, 동무는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몸소 창건하시고 령도하시는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의 당원이요.

△ 정치부장 연옥에게 당원증을 수여한다.

△ 연옥은 숭엄한 마음으로 당원증을 받는다.

△ 무가사방창이 울린다.

△ 연옥 끝없는 감격속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초상화를 우러러본다.

혼성방창: 아

녀성방창: 천대받던 로동자의 이 딸을 안아
당원으로 키워주신 어머니당의 품
고난속에 헤매일 때 앞길 밝히며
오늘의 행복에로 이끌어주었네

덕준과 정치부성원들: 항일의 빛나는 전통을 이어
승리에로 이끄는 조선로동당
그 품속에 안기는 높은 이 영예
대를 이어 영원히 빛내여가자

연옥: 순간을 살아도 장군님 위하여
일생을 영원히 장군님 위하여
혁명의 전사로 충성 다하며
오직 한길 당을 따라 싸우렵니다

모두: 혁명의 전사로 충성 다하며
오직 한길 당을 따라 싸워나가자

△ 연옥 굳은 맹세를 다질 때

— 무대 어두워진다.—

제5장

제1경

때: 그 이듬해 봄, 달밝은 밤

곳: 군의소병동

무대: 좌측에 연옥이가 담당한 입원실, 앞마당에 샘물터가 있다.

— 무대 밝아지면

△ 군의들과 간호원들 수술실쪽으로 급히 오가고있다.

△ 춘삼, 기창 나와서 수술실쪽을 바라보고 서있다.

△ 간호원1 주사기통을 들고 나온다.

기창: 정임동무！ 땅크를 까부셨다는 부상병이 어떻게 되였어요?

간호원1: 수술은 순조로이 끝났어요. 그런데 연옥동무는 그 부상병에게 뼈를 이식했어요.

기창: 뼈를요?！ 아니 그럼 연옥동무가…

정임: 동무들, 연옥동무는 괜찮아요. 어서들 들어가 주무세요.

△ 기창, 춘삼 마지 못해 들어간다.

△ 간호원1 입원실쪽으로 나간다.

△ 잠시후 연옥 나와서 샘물터로 나간다.

녀성방창: 어제는 적후에서 피를 바치고
오늘은 전우 위해 뼈를 바치네
끝없이 솟아나는 맑은 샘처럼
그 가슴에 고인 정성 한이 없어라

연옥: 저 하늘에 반짝이는 밝은 별들은
언제 봐도 아름다운 빛을 뿌리네
당원의 영예를 가슴에 안고
이 한몸도 저 별처럼 빛을 뿌리리

△ 연옥 입원실로 들어가려는데 성림, 춘삼, 기창 나온다.

성림
춘삼
기창 } 연옥동무！

연옥: 아니, 왜들 주무시지 않고 나왔어요? 래일은 퇴원하여 전선으로 떠나가야 할텐데 오늘 밤은 충분히 주무셔야 하지 않아요.

기창: 부대로 돌아가는 우리들에게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연옥동문 이식수술까지 하고 …

연옥: (성림의 팔을 어루만지며) 찬바람을 맞으면 시리지 않아요?

△ 성림 말없이 고개를 흔든다.

△ 구름속을 헤치며 달이 흘러간다.

연옥: 동무들, 태백산마루에서 우등불을 피워놓고 밤을 새우던 그때도 바로 저런 달이 떠있었지요?

△ 모두 그날을 회고하듯 달을 쳐다본다.

연옥: 태백산마루에서 저 달을 바라보며
행군속에 지새던 밤 잊을수 없네

연옥, 성립 } 시련의 가시덤불 헤쳐 넘으며
춘삼, 기창 } 충성의 한길로 우리는 왔네

연옥: 험한 산 깊은 강을 함께 넘으며
걸음마다 우정은 깊어졌다네

연옥, 성립 } 한마음 장군님의 품을 찾아서
춘삼, 기창 } 충성의 한길로 우리는 왔네

기창: 연옥동무, 우리 함께 남천강을 건넌 봉철이 할머니가 어떻게 되였을가요?!

연옥: 무사히 들어오셨을거예요.

성립: 그때 기창동문 연옥동무의 속을 몹시 태웠었지. 하하하…

연옥: 아니예요. 비록 뜻밖의 일로 해서 고생은 좀 했지만 그 시련 속에서 나는 당원의 신념을 배웠습니다.

△ 명호 입원실에서 나온다.

명호: 동무들!

모두: 명호동무. (달려가 부축한다.)

성립: 아니 이 다릴 가지구 왜 나왔소?

연옥: 명호동무, 들어가서 약초찜질을 계속하자요.

△ 연옥 명호를 부축하고 입원실로 들어간다. 약초를 찧는 연옥의 모습이 창문가에 비친다.

△ 성립, 춘삼, 기창 연옥의 모습을 뜨겁게 바라본다.

녀성방창: 화선병동 창문가에 불빛 흐르네
간호의 한밤은 깊어만 가네
전우의 머리말에 꽃피는 정성
어머니 손길처럼 따뜻하여라

△ 연옥의 모습이 계속 창문가에 어리여있다.

—무대 어두워진다.—

第6장

第2경

때: 전경에서 얼마후 명호의 퇴원날

곳: 병동밖

무대: 산기슭에 병동이 보이고 아름드리소나무가 몇그루 서있다.

— 무대 밝아지면

△ 연옥, 간호원1 퇴원하는 명호와 함께 나온다.

녀성방창: 불길속에 자라난 전사의 영예
해님도 반기여 웃어주누나
승리를 앞당기는 싸움의 길에
언제나 위훈을 수놓아가네

아 조국을 위해 불타는 심장
그 언제나 충성으로 높이 뛴다오

△ 간호원들 꽃다발을 들고 들어온다.

△ 간호원들 춤을 추며 명호의 퇴원을 축하해준다.

연옥
간호원들 } 별들이 반짝이는 깊은 밤에도
정성 다해 간호한 보람이 있어
완쾌한 전사동무 총을 메고서
또다시 싸움터로 떠나간다네

아 우리의 가슴 설레인다오
간호원의 자랑은 끝이 없다오

△ 간호원들 명호에게 꽃다발을 안긴다.

명호: 언제인가 연옥동무가 꽃수레를 태워보내겠다더니 이거 정말 꽃수레를 타고 가게 됐구만요.

△ 모두 웃는다.

명호: 전선으로 떠나는 나의 가슴엔
동무의 붉은 피가 흐르고있네
시련에 찬 나날에 정성 다해준
혁명동지 그 사랑 잊지 않으리

△ 덕준 나온다.

덕준: 명호, 이렇게 회복되여 전선으로 나가는걸 보니 정말 기쁘구만.

명호: 장군님을 위해서 모든것을 바쳐 싸우겠습니다.

△ 명호 나가려는데 공습경보가 울린다. 적기들이 날아오는 소리.

△ 모두 자기 위치로 달려나간다.

△ 연옥 명호에게 어서 떠나라고 하나 그도 병동으로 달려간다.

△ 적기가 야수적으로 폭격한다. 병동이 불탄다.

△ 덕준, 연옥, 간호원들이 환자들을 대피시킨다.

△ 간호원1 환자들을 나르고 다시 나온다. 불붙는 병동속에 환자가 있다 고 하며 그리로 들어가려 한다.

△ 연옥 간호원1의 팔을 잡아 이끈다.

△ 연옥 부축해내온 환자를 간호원1에게 맡기고 불붙는 병동으로 달려들어간다.

명호
간호원1 } 연옥동무!

△ 적기의 기총탄이 그들의 앞길을 막는다.

△ 간호원1, 명호 환자를 업고 대피호로 달려나간다.

명호
간호원1 } 연옥동무!

△ 뒤무대 회전하며 불타는 병동안에서 환자를 찾는 연옥의 모습을 보여준다.

△ 연옥 환자를 찾아 업고 나온다.
집이 무너진다.

△ 연옥 언덕우에 올라설 때 적기가 내려꽂힌다.

△ 연옥 환자를 자기 몸으로 덮으며 적탄을 막는다. 연옥 쓰러진다.

△ 명호 달려나온다.

명호: 연옥동무! 연옥동무!

간호원1: (달려나오며) 연옥동무, 연옥동무!

덕준: (달려나오며) 연옥아!

△ 군의소장과 군의, 간호원들 나온다.

△ 쓰러진 연옥을 붙안고 애타게 부른다.

간호원1: 아바이. (흐느껴운다.)

△ 연옥 천천히 눈을 뜬다.

연옥: 정임이, 환자들은?…

덕준: 모두 일없어.

연옥: 명호동무 … 전선에 나가면 미국놈들을 모조리 족쳐주세요.

△ 명호 격하여 대답을 못한다.

연옥: (당원증주머니를 꺼내며) 세포위원장동지! 여기에 저의 이달 당비가 들어있어요. 이 당원증을 우리 당중앙에 보내주세요.

덕준: 연옥아, 너는 죽어선 안돼, 안 죽는다.

△ 전우들의 부축을 받아 연옥이 일어난다.

연옥: 세포위원장동지, 아버지장군님을 뵙고싶습니다.

△ 연옥 장렬한 최후를 마친다.

모두: 연옥동무!

△ 모두 목메여 흐느껴운다.

△ 비장한 무가사방창이 흐른다.

△ 무장을 갖춘 전투원들이 달려나온다.

덕준: 승리의 날 장군님을 만나뵙자던
그 약속을 남겨놓고 우리곁을 떠났구나

대중창: 나어린 몸으로 잠 못 자고 굶으며
적후의 천리길에 혁명임무 다하였네

덕준
명호 } 붉은 피도 뼈와 살도 생명도 서슴없이
전우 위해 바치고 간 혁명동지여

대중창: 꽃나이 한생은 길지 않아도
그 모범은 길이길이 인민속에 빛나리라

수령님께 충성 다한 당의 참된 딸
수령님의 품속에서 영생하리라

△ 전우들 붉은 기폭에 싸인 연옥을 받들고 나간다.

간호원1: 연옥동무!

△ 원쑤격멸의 포성이 하늘땅을 울린다.

△ 공화국기발을 높이 들고 미제침략자들을 소멸하며 진격하는 전투원들의 모습이 뒤무대에 보인다.

대중창: 한순간을 살아도 수령님 위해
동무여 목숨바쳐 싸워나가자
혁명의 총창을 억세게 잡고
기어이 남녘땅을 해방하리라

수령님 만세를 높이 부르며
철천지 원쑤미제 쓸어버리자

녀전사는 우리곁을 떠나갔어도
그 념원은 조국땅에 꽃펴나리라
그가 걸은 충성의 한길을 따라
수백만 영웅대오 나아간다네
전우의 피맺힌 원한 씻으려
복수의 총창들고 싸워나가자

대를 이어 수령님께 충성 다 바쳐
승리의 한길로 달려나가자

△ (뒤무대) 승리한 고지우에서 전투원들과 인민들이 위대한 수령님 만세를 높이 웨친다.

△ 생명의 마지막순간까지 그처럼 당과 위대한 수령님께 무한히 충직하였던 강연옥이는 우리의 심장속에 영원히 살아있을것이다.

△ 합창이 고조되는 속에

— 막이 내린다. —

〔명언〕

우리의것을 사랑하고 귀중히 여기는것이 바로 조국애이며 주체이다.

김 정 일

나는 영원히 그대의 아들

그대가 한그루 나무라며는
이 몸은 아지에 피는 잎사귀
찬바람 불어와 떨어진대도
흙이 되여 뿌리 덮어주리라
아 나의 조국아
흙이 되여 뿌리 덮어주리라

그대가 크나큰 심장이라면
이 몸은 그 품에 뛰는 피방울
마지막 한방울 다할 때까지
높뛰는 고동을 더해주리라
아 나의 조국아
높뛰는 고동을 더해주리라

은혜론 품속에 나서자라나
나 하나 행복을 바라고 살랴
청춘의 그 나이 묻지를 말라
순간을 산대도 값있게 살리
아 나의 조국아
나는 영원히 그대의 아들

(전동우)

〔명언〕

현실은 훌륭한 학교이며 인민대중은 선생이다.
김 정 일

자기 위치 앞으로

《자기 위치 앞으로》는 1974년에 작가 엄단웅이 창작한 단편소설이다.

엄단웅(1928—1992)은 경기도 고양군에서 가난한 로동자의 아들로 태여나 겨우 초등학교나 다닌 다음 어려서부터 힘겨운 로동생활을 하였으며 해방후에도 암흑의 땅 남조선에서 힘겹게 살다가 중국을 거쳐 공화국북반부로 들어왔다. 그는 조선인민군에 입대하여 군관으로서 조국해방전쟁에 참가하였고 1959년 8월에 제대되여 문학수업을 하다가 문학대학 특설반, **김일성**종합대학 작가양성반을 거쳐 전문적인 소설창작에 착수하였다. 그는 자기의 풍부한 생활체험에 기초하여 처녀작인 단편소설 《네번째 경례》(1960), 《조선녀성》(1961), 《로동당원》(1962), 《두그루의 백양나무》(1964), 《그의 행군로》(1966) 등을 창작하였다. 1972년에 조국해방전쟁 1계단의 현실을 반영한 중편소설 《락동강》을 발표하여 독자들의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켰으며 그후 대건설장과 검덕광산에 내려가 생활하면서 속도전의 열풍이 휘몰아치는 환경속에서 단편소설 《자기 위치 앞으로》를 창작발표하였다.

《자기 위치 앞으로》는 5개의 절로 구성되여있다.

1절은 대야금기지건설장의 건설사업소 지배인 전창민이 산소로건물조립에 쓸 25t기중기를 15리밖에서 옮겨오는데 넉달이 걸려야 한다는 기사장의 이야기를 듣고 걱정에 잠기는데서 시작된다.

25t기중기를 옮겨오는데 넉달이 걸리면 건설기일이 세월없이 늦어지게 되는것이다. 조급증에 사로잡혀 승용차를 타고 현장을 돌아보려고 나선 그는 늙은 용접공아바이를 만났으나 그의 이야기를 들을념도 않고 지나쳐버린다.

그는 바쁘다는것을 핑계로 로동자들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의 의견을 귀담아들을줄 모르는 사람이 되여버린것이다.

2절은 25t기중기를 찾아간 지배인이 연공작업반의 신호조장 최영길과 기중기운전공처녀가 손발이 맞아 그 큰 기중기를 제 몸처럼 다루는것을 목격하고 이 거물의 《중추신경》이 애어린 처녀였음을 발견하는 이야기를 담고있다.

3절은 기중기이동문제를 풀기 위한 소참모회의를 그리고있다.(여기서부터가 선문교재이다.)

작품은 이러한 이야기를 통하여 일군들이 항상 군중속에 들어가 사업해야 한다고 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교시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확인하고 우리 시대 혁명과 건설의 지휘성원들이 차지해야 할 위치는 대중속에 있다는 뜻깊은 사상을 밝히고있다.

3

기중기이동문제를 풀기 위한 소참모회의는 밤 10시부터 지배인실에서 시작되였다. 지배인의 제의에 의하여 제관조립직장의 연공들을 대표하여 신호조장 최영길을 포함한 몇명의 연공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지배인은 낮에 기중기운전공 순금이를 여기에 꼭 참가시키라고 당부하였으나 근무교대를 채 하지 못한 관계로 오지 못했다는 얘기를 듣고 몹시 서운해하였다. 그는 낮에 작업현장에 눌러앉아 그들의 일손도 도와주고 점심도 같이 나누면서 이 문제를 연공들과 진지하게 토론하였다. 아직 이렇다할 묘안이 나온것은 아니였으나 한가지 결심만은 뚜렷해졌다. 그것은 공사기일로 보나 로동자들의 충천한 기세로 보나 이 기중기 하나를 이동하는데 종래대로 몇달씩 긴 시간을 소비할수는 없으며 로동자들의 힘을 잘 발동한다면 시간을 훨씬 앞당길수 있겠다는 신념이였다. 기술자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작성한 기술부장의 제안으로부터 토의가 시작되였다. 기중기의 팔을 해체하고 동체부분을 다시 세토막으로 크게 분해하여 운반하자는것이였다. 그렇게 되면 시간을 두달로 단축할수 있다는것이다.

최소한도 넉달이 걸려야 된다던 시초의 제안에 비해 시간을 절반으로 단축한 대단한 제안이였다. 혁신적인 대담성과 과학적인 타산이 안받침된 이 제안을 기사장이 적극 지지하였다.

전창민자신도 기술부장의 이 합리적인 제안을 나무랄 근거는 아무

것도 없었다.

그러나 당장 새 구조물조립전투를 벌려야 되겠는데 앞으로 두달후에야 기중기를 쓸수 있다는 막연한 불만이 그의 가슴에서 꿈틀거렸다.

방안에는 담배연기만이 가득차있었다.

지배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환기창을 열어제꼈다. 이때 신호조장 최영길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우리는 지금 강철고지를 점령하기 위하여 강행군을 하고있습니다. 군대에서 말하면 기중기는 포와 같다고 말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중기 하나를 옮기는데 두달씩 걸려서야 어떻게 적과 싸워 이길수 있습니까. 때문에 저는 이 제안을 반대합니다.》

지배인은 머리를 끄덕였다. 기술부장 역시 흥미있는 표정으로 연공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러나 기사장은 침울한 얼굴로 젊은 연공의 빳빳하게 일어선 앞머리를 지켜보고있었다. 기사장은 그 어떤 경우에도 흥분을 억제하고 웃는 낯으로 상대방과 이야기할줄 알았다.

《옳소, 동무의 말이 옳소. 그리자면 문제는 더 좋은 방도가 나와야 될게 아니겠소. 이 자리에서 우리가 듣자는것도 바로 그것이요. 다른 방도가 있으면 내놓고 토의해봅시다.》

기사장은 웃으면서 그렇지 않느냐는듯 좌중을 둘러보았다.

신호공은 흥분을 억제하느라고 앞사람의 의자등받이를 두손으로 꽉 움켜쥐고 서있었다.

《아까 지배인동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우리끼리 모여앉아 방도를 더 연구해보았습니다. 우리의 의견은 기중기를 분해할것이 아니라 통채로 자동차에 실어 옮기자는것입니다.》

《통채로?》

《네!》

《자동차에?》

《그렇습니다.》

놀란것은 기술일군들만이 아니였다. 지배인자신도 자기 귀를 의심하지 않을수 없었다. 젊은 연공은 조리있게 말을 이어나갔다.

《물론 25톤기중기를 한꺼번에 실을만 한 큰 자동차는 아직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나 작은 통나무들을 무어 큰 떼목을 뭇듯이 자동차떼를 뭇는다면 이보다 더한 물체라도 능히 실을수 있으리라고 저는 생

각합니다.》

회의장은 술렁거리기 시작하였다.

《자동차떼를 뭇잔 말이지?》

《 그렇습니다. 지배인동지도 아시겠지만 공병들이 여러척의 작은 도하창(철선)우에다 널판을 놓고 큰 도선판을 만들어 땅크며 포를 운반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60톤견인차 몇대로 말하자면 자동차도선판을 만들어 싣자는것입니다.》

지배인은 그럴듯 하다는듯이 감탄하여 머리를 련속 끄덕였다.

《좋아, 싣는것은 그렇게 싣는다치고 그 큰 기중기가 움직이는 차우에서 자빠지지 않고 서있을가?》

지배인은 흡족한 얼굴로 능청스럽게 눈을 끔벅거리며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거기에 대해서도 좀 생각해보았습니다. 소형기중기차의 팔로 25톤기중기를 량익측에서 부축해줄수 없을가 하는 생각입니다. 말하자면 나무를 심고 받침대를 세워놓듯이 작은 기중기팔들로 받침대를 만들어 따라가면서 부축해주자는것입니다.》

《동무의 말대로 자동차에 싣고온다는 그 15리길이 어떤 길이라는 것을 생각해봤소?》

말없이 앉아있던 기사장이 불쑥 물었다. 그의 음성은 점잖았으나 그속에는 철부지의 무모함을 꾸짖는 년장자의 너그러운 웃음이 섞여있었다.

《길이 물론 험한줄 저도 잘 압니다. 그렇다고 이 바쁜 때 언제 로반을 닦고 침목을 깔아 레루를 놓겠습니까? 기중기앞에서 불도젤로 직접 길을 닦으며 나가자는것입니다. 공병들이 통로를 개척하듯이 불도젤로 길을 닦으며 그의 뒤를 따라나간다면 두달이 아니라 하루면 될것 같습니다.》

장내는 물을 뿌린듯 조용하였다.

아무도 입을 여는 사람이 없었다.

지배인도 기사장도… 회의장은 한동안 너무도 대담하고 너무도 엄청난 발기앞에서 넋을 잃은듯싶었다.

그러나 침묵은 오래 계속되지 않았다.

기술부의 어느 한 기사는 책상우에 사업일지를 펼쳐놓고 연필을 달리더니 류동상태에서의 25톤기중기의 력학적인 중심모멘트에 대한 계

산수자를 인용하면서 이 제안의 부당성을 론증하였다.

《이 동무가 납득할수 있게 좀 더 쉽게 설명을 하면…》

곁에 앉았던 기사장이 주머니에서 상아물부리를 꺼내 성냥갑우에다 거꾸로 세워놓고 물체의 관성법칙과 류동상태에서의 중심모멘트의 변화과정을 젊은 연공이 납득할수 있도록 설명하기 시작하였다.

기사장의 이야기가 끝나자 지금까지 한마디 말이 없던 기술부장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25톤기중기를 통채로 떠옮긴다는것은 흥미있는 일입니다. 나는 기술적인 타산에 앞서 우선 연공동무들의 대담한 발기가 마음에 듭니다. 한번 통이 크게 대담하게 생각하고 판을 크게 벌리는것이 어떻겠습니까? 기술적인 난관은 연공동무들과 함께 우리 기술부가 해결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술렁거리기 시작하였다. 기사장의 아량있는 설명에 기울어지던 방안의 분위기는 다시 일변하였다.

결국 소참모회의는 연공들의 제안의 무모성을 론증하는 기사장의 너그러운 설명과 그 주장에 반격을 가한 기술부장의 제의로 하여 아퀴를 짓지 못하였다.

4

회의는 끝났으나 지배인은 흥분을 가라앉힐수 없었다. 그는 뒤짐을 지고 텅 빈 사무실안을 왔다갔다 하였다.

(자동차떼를 뭇잔 말이지? 작은 도하창으로 큰 도선판을 무어 땅크를 운반하듯이 음…)

그는 문득 가렬하던 전쟁시기에 포의 리용률을 높일데 대한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을 높이 받들고 76미리련대포를 분해하지 않고 통채로 직접 고지우에 끌고올라가서 통쾌하게 적을 답새우던 일이 되살아났다.

(그때 나도 포병구분대 전투원들과 함께 련대장견장이 달린 이 어깨우에 포신을 떠받들고 험한 산벼랑을 기여오르지 않았던가? 포와 기중기, 비록 환경과 물체는 다르지만 본질적으로 무엇이 다른가. 그때의 그 정신, 그 기백으로 오직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관철을 위해 어깨에 25톤기중기를 떠받들고 일어선다면 못해낼 일이 무엇인가… 그런데 관성의 법칙, 그놈의 중심모멘트가 앞을 가로막는단 말이지?…)

지배인은 잠시도 앉아있지 못하고 방안을 왔다갔다 하였다.

《똑, 똑, 똑…》문기척소리가 들렸다. 지배인은 걸음을 멈추었다.

《들어가도 좋습니까?》

녀자의 조용한 목소리와 함께 가볍게 문이 열리면서 기중기운전공 순금이가 들어섰다. 지배인은 반색을 하며 그를 향해 마주 걸어나갔다.

《이제야 왔나? 앉소! 어서 여기 와 앉으라구.》

그는 순금이앞에 의자를 내놓았다. 그러나 운전공처녀는 의자에 앉으려 하지 않고 서서 똑바로 지배인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지배인동지! 이제 오다가 최영길동무를 만났어요. 그 동무가 지배인동지보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전창민은 조금 허리를 굽히고 처녀의 깜박거리는 두눈을 흥미있게 들여다보았다.

《그래 영길이가 나더러 뭐라고 하던가?》

순금이는 난처한듯 고개를 떨구었다.

《지배인동지는 군대출신이기때문에 통이 큰분인줄 알았더니 영 담이 작고 결단성이 없다고 해요.》

《뭐? 내가 담이 작고 결단성이 없다? 하하하…》

지배인은 통쾌하게 웃음을 터뜨렸다.

《그러면 왜 참모회의에서 기중기문제를 뒤로 미루셨어요?》

《어째서 뒤로 미루었는가구?》

지배인은 여전히 미소를 띠운채 천천히 뒤짐을 지고 방안을 돌아갔다. 그는 어쩌면 자기 집 응석꾸러기딸애와도 같은 이 기중기운전공처녀와 이야기를 하는것이 못내 즐거웠다.

《거기엔 상당한 원인이 있지. 알겠나? 지금 힘의 물리적인 중심모멘트, 관성의 법칙이 내앞을 가로막고있소. 그놈의 중심모멘트가…》

그러자 처녀는 눈빛을 빛내며 방실 웃었다.

《저도 영길동무한테서 들었어요. 우리가 내놓은 의견을 반대하는 동무들은 물리학의 법칙만 알았지 인간이 그 법칙의 주인이라는 주체사상의 본질은 모르거던요. 그래서 중심모멘트에만 포로돼있는거야요. 그리고도 우리더러 모른다고 깔보거던요.》

지배인은 즐거운 마음으로 의자에 걸터앉아 담배를 꺼내물었다.

《그래 포로병들이 동무들을 깔보고있단 말이지?》

《지배인동지, 저희들을 믿어주세요. 우리는 25톤기중기에서 나사

못 하나 풀지 않고 그냥 통채로 두달이 아니라 단 하루동안에 당이 요구하는 장소에 옮겨놓겠어요.》

《그런데 무슨 방도라도 있나?》

《있어요. 우리는 다람쥐원리를 리용하려고 해요.》

《뭐 다람쥐원리?》

《예.》

처녀는 손등으로 입을 가리우며 웃었다.

《지배인동지는 다람쥐가 긴 꼬리를 가지고 몸의 중심모멘트를 조절하고있다는 말을 듣지 못하셨어요?》

전창민은 입에서 물부리를 뽑아쥐고 흥미있게 처녀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다람쥐가 회초리 같은 나무가지끝에도 자유롭게 오르내릴수 있는 것은 긴 꼬리를 가지고 몸의 균형을 옳게 조절하고있기때문이예요. 말하자면 다람쥐는 긴 꼬리를 가지고 몸의 중심모멘트를 조절하고있는거예요.》

《아, 그렇군!》

지배인은 처녀의 이야기에 그만 정신이 팔려 자기도 모르게 피우던 담배를 재털이에 비벼껐다.

《그래서 지배인동지.》

처녀는 한걸음 지배인앞으로 다가섰다.

《우리는 25톤기중기의 팔을 떼지 않고 그 팔을 리용하려고 해요. 다람쥐의 꼬리처럼 말예요.》

《그렇지!》

지배인은 손으로 책상을 탕 치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옳아, 이렇게 말이지, 이렇게 교예극장 배우들이 줄타기를 하는 것처럼…》

지배인은 두팔을 벌리고 몸을 좌우로 흔들며 동작을 시험해보았다.

지배인은 25톤기중기를 이제는 통채로 자동차에 옮겨싣고 갈수 있겠다는 흥분으로 하여 심장이 높뛰였다.

그러나 다음순간 그 어떤 불안감이 불쑥 머리를 추켜들었다.

(그러다가 만약… 아니다, 아니다.)

지배인은 정색을 하고 머리를 설레설레 내저었다.

《지배인동지, 할수 있습니다. 제가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안되오. 그렇게 할수 없소. 그런 위험한 기중기우에 나는 귀중한 우리 동무들을 올려놓을수 없소.》

운전공처녀는 한걸음 더 지배인앞으로 다가섰다.

《안심하세요. 지배인동지, 제가 꼭 할수 있어요. 기중기는 저의 몸과 같은거예요. 저는 자기 팔을 놀리듯이 기중기팔을 마음대로 움직일수 있어요.

경애하는 수령님의 교시를 관철하는 길에서 난관이 제기되였다고 우리가 어떻게 주저하고 동요하고 물러설수 있습니까.

지배인동지! 건설을 착수하는 첫 궐기모임에서 지배인동지자신이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혁명하는 길에서는 죽어도 영광이고 살아도 영광이라고 말입니다.》

지배인은 갑자기 눈앞이 콱 흐려져서 창문을 향해 돌아섰다. 어둠속 여기저기에서 용접의 불꽃이 튀고있었다. 불비처럼 쏟아져내리던 용접의 그 불꽃들은 차츰 하나로 융합되면서 갈수록 커다란 하나의 불덩이로 흐려졌다. 그의 눈앞에는 트라스우를 오르내리며 기중기를 지휘하던 신호공의 모습이며 량손에 운전대를 틀어잡고 잠시도 놓칠세라 연공의 일거일동을 지켜보던 처녀의 빛나는 두눈이 자꾸 어른거렸다. 나는 어째서 여직 한대오속에 있는 이 동무들조차 알지 못하고 지내왔는가?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일군들이 항상 군중들속에 들어가 사업해야 한다고 그토록 간곡하게 가르치시지 않으셨는가. 그는 문득 아침 기사장에게 지휘관으로서 자기의 위치를 지켜야 한다고 말한 일이 되살아났다. 그러면 여직 지휘관으로서의 나의 위치는 과연 어디에 있었는가? 항일유격대지휘관들처럼 공격전투시에 맨 앞장에 서고 어려운 후퇴시기에 맨뒤에 서있었는가? 행군하는 때에는 대오 한복판에 서서 힘겨워하는 전사의 총과 배낭을 메다주기도 하고 부축해주기도 하였는가?…

전창민은 할 말이 없었다. 심심히 뉘우쳐지는 자기를 발견하는 순간 그는 몹시도 가슴이 아팠다.

전창민은 그래도 자신이 로동자들을 리해하고있다고 생각하고있었다. 늘 현장에서 로동자들과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한다고 생각하고있었다.

그러나 지금 다시 돌이켜보면 그는 순금이 같은 이 건설장의 주인들을 알지 못하고있었으며 그들의 곁을 바람처럼 스쳐지나가기만 하였다.

오늘 아침 구내길에서 지배인을 붙잡는 용접공로인의 곁을 분주히 지나가버렸듯이 그는 로동자들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줄 몰랐다.

자기 위치에 들어서자! 항일유격대지휘관들처럼 전사들속으로!

포병중대 전사들과 함께 76미리련대포를 어깨로 떠밀며 벼랑을 기여오르던 그때와 같이 또다시 자기 위치에 들어서자!

전창민은 돌아섰다.

《한순금동무! 돌아가서 오늘 저녁은 푹 쉬시오. 그래야 앞으로의 강행군을 보장할수 있소. 동무의 의견대로 25톤기중기를 통채로 떠옮깁시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는 늦어도 래일중으로 행군출발준비를 끝내야겠소.》

순금의 얼굴에는 감격의 파도가 물결쳤다.

《알았습니다.》

처녀는 문을 열고 밖을 나가자 2층 층계를 구을듯이 달려내려갔다.

지배인은 쿵쿵 계단을 울리는 그의 잰 발걸음소리가 귀전에서 멀리 사라질 때까지 두눈이 글썽해진 얼굴에 미소를 지으며 한자리에 굳어져 있었다.

5

출발준비는 해질무렵에 끝났다. 지배인은 새벽부터 기중기를 차에 싣느라고 담배 한대 피울 짬도 없이 분주히 돌아갔다. 제관조립직장의 연공들이 어려운 이 사업을 직접 감당하였다.

그들뿐이 아니였다. 온 건설장이 떨쳐나와 어려운 이 작업을 도와나섰다.

기사장을 비롯한 기술일군들이 작업의 기술적지도를 맡아 드바삐 돌아갔다. 그리하여 25톤기중기를 3대의 60톤견인차로 무어진 련결차 뗴목우에 옮겨실을수 있었다. 대기하고있던 4대의 소형기중기차의 무쇠팔들이 하늘높이 솟아오른 어미기중기의 량옆구리를 떠받들었다. 견인차앞에는 길을 다지는 두대의 로라차가 서고 다시 그앞에는 석대의 대형불도젤이 정렬하였다. 그리고 앞과 뒤에는 지휘차들이 서있었다. 그것은 마치 공격출발진지를 차지하고 전투명령을 기다리는 기계화군단을 련상시켰다.

출발시간이 다가올수록 전창민의 가슴은 불안과 흥분으로 조여들었다. 그는 머리를 제껴 허공높이 솟아오른 기중기한끝을 쳐다보기도 하고 견인차의 고무바퀴를 발끝으로 툭툭 다쳐보기도 하였다.

출발에 앞서 지배인은 기계화행군대오에 망라된 전체 성원들을 한곳에 모아놓고 준비상태를 검열하였다. 그는 행군에서 지켜야 할 주의사항을 곰곰히 상기시키고나서 오래간만에 군대식으로 구령을 쳤다.

《자기 위치 앞으로!》

정렬했던 대오는 힘차게 첫걸음을 내디디며 각기 제자리로 흩어져갔다.

이동방송실의 확성기에서 울려퍼지는 유격대행진곡이 사람들의 심장을 격동시켰다.

자동차들은 벌써 발동을 걸어 부르릉거리며 출발구령이 내리기를 기다리고있었다.

25톤기중기를 통채로 차에 실어 떠옮긴다는 소문은 이미 온 건설장에 퍼져 군중들이 떼구름처럼 밀려들었다.

지배인은 출발준비상태를 최종적으로 확인하고나서 25톤기중기를 향해 걸음을 옮겼다.

승용차 한대가 급히 달려오더니 그의 곁에 와서 멈춰섰다. 그것은 항상 지배인을 따라다니던 그의 승용차였다.

운전사는 출발시간이 늦을세라 차에서 뛰여내려 지배인이 오르기를 기다렸다. 그러나 전창민은 그냥 차의 곁을 스쳐지나가면서 운전사에게 말하였다.

《차를 들여다세워놓소. 나는 이제부터 이 동무들과 같이 가야겠소. 내 위치는 저기요.》

지배인은 25톤기중기의 운전실을 손으로 가리켰다. 그는 기중기를 향해 걸어나가다가 긴장해서 기중기의 운전실을 바라보며 흥분한 목소리로 기술자들에게 무엇인가 작업지시를 주고있는 기사장과 마주쳤다. 석양이 비낀 기사장의 얼굴은 오늘따라 몹시 수척해보였다.

전창민은 너그럽게 웃었다.

《기사장동무,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우리 일군들이 항일유격대의 지휘관들처럼 언제나 로동자들속에 들어가야 한다고 간곡히 교시하시였소. 우리 지휘관들은 가장 어렵고 가장 힘들 때 싸우는 전사들곁에, 전호속에 같이 있어야 하오. 그러나 지난날 우리는 그들과 너무도 멀리 떨어져 지내왔소.》

전창민은 기중기의 쇠사다리를 오르다가 걸음을 멈추고 밑을 굽어보며 큰소리로 웨쳤다.

《기사장동무는 맨앞에 서서 불도젤로 새 길을 닦으며 나가시오. 출발시간이 다 되였습니다. 빨리 자기 위치에 들어서시오!》

기중기운전실에서 곧추 내다보이는 지휘차우에는 젊은 연공인 신호수 최영길이 기발을 손에 쥐고 출발을 기다리고있었다.

지배인이 운전칸에 나타나자 긴장하게 운전대를 틀어쥐고 앉았던 순금이 놀라운듯 자리에서 일어섰다.

《앉소, 앉소. 나도 오늘은 순금동무곁에 있어야겠소.》

《네?…》

한동안 어리둥절해있던 순금의 얼굴에 감격의 물결이 세차게 파도쳤다.

운전대를 틀어쥔 순금의 손이 가늘게 떨렸다.

《준비들은 다 됐소?》

《네!》

《그럼 떠납시다.》

신호공이 기발을 휘젓자 발동기소리가 갑자기 높아지면서 자동차떼가 몸을 떨었다.

《출발!》

자신만만하고 신심에 넘친 지배인의 구령과 함께 어마어마한 기중기를 실은 련결차떼가 움씰 앞으로 움직였다. 순간 건설장이 떠나갈듯 만세소리가 폭풍처럼 터져나왔다. 운전대를 틀어쥔 순금의 손은 더욱 날쌔게 움직이였다.

지배인은 문을 열고 운전탑으로 나갔다.

머리우에서 기중기팔이 다람쥐가 꼬리를 휘젓듯이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거대한 기중기체의 중심모멘트를 조종하고있었다. 불도젤은 움찔움찔 용을 쓰면서 번뜩이는 삽날로 마치 이 땅우에 아직 남아있는 온갖 낡은것들을 쓸어버리듯이 땅바닥을 고루 깎으면서 길없는 벌판우에 길을 내고있었다. 그의 뒤를 이어 로라차가 땅을 다지며 지나갔다. 가지런히 늘어선 견인차들은 적진을 향해 밀려나가는 땅크서렬처럼 아무도 아직 밟아보지 못한 새길우에 커다란 고무바퀴자국을 찍으며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앞을 향해 움직이였다. 요란한 발동소리가 벌판의 대기를 꽉 채우고 그들이 스쳐지날 때마다 대지는 무거운 바퀴에 짓눌려 몸을 떨었다.

《순금이! 무섭지 않아?》

전창민은 몸에 익은 손동작으로 능숙하게 운전대를 조종하고있는 기중기운전공처녀에게 말을 걸었다.

《무섭지 않아요. 지배인동지가 곁에 계시니 어쩐지 마음이 든든해요.》

순금은 글썽한 눈으로 지배인을 쳐다보았다.

날이 어두워지자 여러 갈래의 탐조등이 그들의 앞길을 환히 비쳐주었다. 건설장의 수많은 자동차들도 불빛으로 이에 합류하였다. 오가던 자동차들도 잠시 길을 멈추고 그들에게 불빛을 한동안 던져주고서야 다시 길을 떠나군 하였다.

멀리서 바라보면 그것은 전등불이 환한 하나의 큰 도시가 어디론지 움직여가는것 같았다. 지상과 공중의 곳곳에서는 무수한 용접봉의 불꽃이 밤하늘에 튀여오르고있었다. 25톤기중기를 실은 장엄한 이 행진대오는 눈부신 그 축하의 꽃보라속을 헤집으며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강철고지를 향해 앞으로 전진하고있었다.

빛나는 아침

《빛나는 아침》은 총서 《불멸의 력사》의 해방후편의 하나로서 권정웅이 1988년에 창작한 장편소설이다.

소설의 이야기는 해방된 조국에 개선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 김책동지와 함께 평양철도공장에 나가시여 숨죽어있는 철도형편을 알아보시는데로부터 시작된다.

2차대전에서 패망한 일제놈들은 제 나라로 도망치면서 우리 나라에서 기관차를 모조리 파괴해버렸다. 철도를 복구하자면 강철이 있어야 되겠는데 제철소, 제강소들도 모두 파괴되였고 일부 로동자들은 여기저기로 흩어져갔다. 철을 생산하재도, 철도를 복구하재도 당장 걸리는것은 기술자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하자면 무엇보다먼저 인

재문제부터 해결해야겠다는것을 다시한번 깊이 되새기시면서 전국적인 범위에서 기술인재들과 지식인들을 찾아내도록 이르신다. 이 사업을 맡아보는 최준걸은 전국적으로 기술인재와 지식인들이 겨우 10명안팎이라고 보고올린다.

이러한 때에 남조선 대구에 고향을 둔 야금기사 강병철이 위대한 수령님을 찾아온다. 그는 지난날 일제놈들한테 복무한바 있는 기술자로서 이제는 조선을 위한 강철을 마음껏 뽑아보고싶어서 북으로 들어왔노라고 말씀올린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재부나 명예를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조선을 위한 강철을 뽑아보고싶다는 강병철의 희망을 높이 평가하시고 강철도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 강철을 만드는 사람을 더 귀중히 여긴다고 하시면서 흥남으로 내려가 일하도록 해주신다. 그리고 강병철을 통하여 알게 된 야금기사 양춘만을 만나보시려고 강선제강소로 나가신다.

일본제국대학에서 수재로 소문났던 양춘만은 강선제강소의 생산을 추켜올리는데서 큰 역할을 한 사람으로서 해방된 오늘 친일파로 타도될것이 두려워 가족을 둔채 서울로 달아났었다.

양춘만의 집에 들리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양춘만의 아들애가 몹시 앓고있는것을 아시고 그를 자신의 차에 태워 평양의 병원에 입원시키도록 해주시며 항일투사인 박원식에게 서울로 나가 양춘만을 데려오도록 이르신다.

위대한 수령님의 높은 뜻을 받들고 서울에 나간 박원식은 고생끝에 양춘만을 만나 그를 데리고 북행길에 오른다. 그런데 아직 신념이 굳지 못했던 양춘만은 미제의 앞잡이인 민기환놈의 부추김에 넘어가 렬차에서 내리뛰여 도망친다. 양춘만을 뒤따라 뛰여내린 박원식은 서울서부터 뒤따르던 반동놈의 권총사격을 받아 부상당하면서 양춘만을 놓치고만다.

한편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철도관리국장 한명구가 일제에게 복무한 기술자라고 내쫓아야 한다고 떠드는가 하면 쌀을 내라고 고아대며 소요를 일으킨 철도공장로동자들을 현지에서 몸소 만나시여 그들에게 나라의 형편을 하나하나 해설해주기도 하시고 뒤에 숨어서 사람들을 나쁜길로 충동질하는 반동놈들을 잡아내야 한다고 일깨워주시기도 하신다. 뿐만아니라 빨리 기관차를 수리하여 해주에 있는 쌀을 실어오도록 대책도 세워주신다.

그리하여 박원식이 해주로부터 10개의 방통에 쌀을 싣고 평양으로

돌아오게 된다. 박원식은 서울의 지령을 받고있는 반동놈들의 흉악한 방해책동을 과감하게 물리치면서 중화역에 이른다. 그는 양춘만이 중화에 있는 삼촌네 집에 가있다는것을 알고 기어이 그를 데려가려고 결심한다. 그러나 그 집앞에 이르러 반동놈의 권총사격을 받고 쓰러진다. 결국 쌀을 실은 렬차는 평양에 도착하였으나 박원식은 희생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해방전에 경성제국대학 교수였던 물리학자 안동권도 친히 찾아가신다. 안동권은 평양공업전문학교를 새로 세우는데 협력해달라고 열번이나 찾아갔던 김책동지의 권고를 그때까지 매번 거절하고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안동권으로 하여금 진심으로 새 조국 건설에 나서도록 친절히 일깨워주신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토록 크나큰 한품에 인테리들을 안으시고 새 조국 건설에 떨쳐나서도록 심혈을 기울이고계셨건만 당시 당중앙의 중요직책을 맡고있던 반당분자 오기섭은 인테리들을 로골적으로 배척하며 자기의 그릇된 견해를 신문에 내여 인테리들이 머리도 못들게 만들어놓는다. 철도관리국장 한명구가 스스로 자기 자리를 내놓겠다고 나서게 하며 흥남비료공장에 내려가 특수강을 뽑아보겠다고 밤낮으로 뛰여다니던 강병철을(원쑤놈들의 파괴책동으로 합금로가 폭파되였음에도 불구하고) 구류장에 가두어놓고 의식적인 행동이라고 몰아대기까지 한다. 오기섭의 좌경적인 망동으로 하여 뚜렷한 신념이 없었던 화학기사 원시범은 서울로 나가버리며 강병철도 해방과 함께 품었던 희망을 버리고 구류장안에서 자살하려고까지 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강요된 문건자료가 아니라 본인의 진심을 믿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몸소 흥남에 내려가시여 구류장에 갇혀있는 강병철을 만나주시고 그가 신심을 가지고 새 조국건설에 이바지하도록 믿음을 주신다.(이 부분이 선문교재이다.) 뿐만아니라 강병철을 청진제강소 기사장으로 일하도록 크나큰 사랑을 베푸신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심지어 수령님 덕분에 자기 아들애가 소생되였다는것을 알고 비로소 자기를 뉘우친 양춘만이 사죄를 하겠다고 찾아왔을 때 그가 비록 박원식을 희생시킨 장본인이기는 하지만 사죄를 하려면 강선의 로동계급속에 들어가라고 재생의 길을 가르쳐주시기도 하신다.

함경남북도에 대한 현지지도의 길에 오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청진제강소를 찾으시고 그곳 기사장으로 일하는 강병철을 만나시여

그의 빛나는 로력적성과를 치하해주시며 친히 출강장면을 보아주신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로동자들의 건강에 유해롭다는 건조로를 돌아보시고는 생산에 지장을 받더라도 그 건조로를 없애버려야겠다고 이르신다.

어느날 강선제강소에 가있는 양춘만기사가 로를 복구하고 처음으로 뽑아낸 첫 강철을 가지고 위대한 수령님을 찾아온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것이 바로 조선사람이 뽑아낸 강철이라고 매우 만족해하시면서 양춘만이 진심으로 새 출발을 한데 대하여 더욱 기뻐하신다.

해방된 조국에서 지난날의 인테리들이 인민의 편에 서서 새 출발을 하게 되고 새로운 인재육성을 위한 종합대학이 일떠서고 나라의 주인으로 된 우리 인민이 새 생활 창조의 길에 들어선다. 이날을 위해 비록 가슴아픈 희생도 많았지만 이것은 우리 나라의 힘찬 전진을 확고히 내다보게 하는 빛나는 아침을 맞이하는것과 같은것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과 박원식의 미망인인 한필남과 함께 대동강가를 거니신다.

제9장

7

계속 마루바닥에 올방자를 틀고있어서 무릎이 쑥 나간 바지는 뎅궁 들려 발목이 보이였고 세수를 하고 빗질을 했지만 꺼슬꺼슬한 머리는 그대로 일어나있었다. 강병철은 성큼 복도에 나섰다가 인차 벽을 짚고야 몸의 균형을 유지하였다.

방안에만 들어박혀있어 그런지 아래다리가 후들후들 떨리였다. 하기는 그동안 얼마나 많은 환상의 길을 걸었던가. 30여년간 걸은 전 로정을 수십번 거슬러 오르내리였다. 그런데 평온해졌던 심리가 순간에 왈카닥 충격을 일으켰다. 누가 무엇때문에 지금에 와서 이 처지에 있는 강병철을 만나자고 부르는것일가. 넉넉히 잡아서 30분, 바투 세면 3초동안이면 충분했는데 왜 운명이 또 이렇게 지꿎게 희롱을 하는지 몰랐다.

강병철은 보안서현관앞 세멘트계단 세개를 내려서서 땅을 밟는 순간 머리를 들어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하늘은 두쪼각이였다. 한쪽은 검은구름이 덮이고 한쪽은 싸늘하게 개여있었다. 바람을 가리기 위해 앞

섶을 여미면서 발밑을 내려다보았다. 군데군데 눈이 무져있고 또 그만치 군데군데 눈이 녹은 땅이 시꺼멓게 드러나있었다. 그는 마른데를 골라 디디면서 공장사무실쪽으로 걸어나갔다. 렬을 지어선 사택들, 길을 따라 뻗어간 전선줄, 거기에 걸려 펄럭이는 아이들의 가오리연, 골목들에서 나오기도 하고 또 들어가기도 하는 사람들, 어디선가 메질을 하는 쇠붙이들의 음향 등 그 모든것이 판판 낯설은 이방풍경 같았다. 낯익고 정답게 보자고 해도 자꾸 간격이 생기였다. 그는 보안서장 박인국의 안내대로 비료공장사무실 2층에 있는 이미 알고있는 넓은 방에 발을 들여놓았다. 그 순간 그는 눈앞이 아찔해져서 겨우 자빠지지 않고 견딜수 있었다.

차츰 안개가 걷히는것처럼 눈앞이 열리였을 때는 **김일성**동지께서 그의 팔을 부축해서 의자에 앉히신 뒤였다. 강병철은 의자에서 급히 일어서서 다시 인사를 차리였다. 당장 울음을 터치며 가슴에 안겨 만단사연을 하소하고싶지만 그는 혼신의 힘을 다해 참았다.

《장군님! 안녕하십니까. 수고스럽게 오셨습니다.》

머리를 숙여 인사를 드리자 **김일성**동지께서는 팔을 잡아 다시 자리에 앉게 한 다음 말씀하시였다.

《너무 이러지 맙시다. 우리는 평양에서 허물없이 사귀지 않았습니까. 론쟁도 하고 의논도 하고 또 서로 언약도 하지 않았습니까.》

담배를 피우게 되였다. 그이께서는 불을 켜대고 붙이라고 하시였다. 강병철은 사양하려고 뒤로 손을 당기다가 성냥불꽁다리가 밭은것을 보고 하는수없이 담배끝을 내대였다. 강병철은 담배를 빨면서 좌석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장군님의 오른쪽에 공장장 리연수가 허리를 꼿꼿이 펴고 앉았고 그뒤에 보안서장 박인국이 차렷자세로 서있었다. 최한덕은 장군님 왼쪽켠에 앉았는데 무릎에 놓인 손건사가 잘되지 않아 쩔쩔매였다. 하지만 강병철은 자기자신이 어떻게 되여 이렇게 태연해질수 있었는지 알수 없었다. 그는 당황하거나 초조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그는 가슴이 뻐근할만큼 행복감에 잠겨있었다. 전혀 상상할수 없었던 놀라운 일이기는 하지만 장군님을 다시 뵈올수 있다는 그자체만으로써도 참말 다행한 일이였다. 그러나 다음순간 그것을 왈카닥 밀어제끼고 슬픈 생각이 일어났다. 평양에서 만났던 때와는 너무나 판이한 정황에 놓여있다. 이제는 자기자신이 자기 운명을 결정한 뒤기때문에 모든것이 체념화된것이다.

때문에 그는 저번에 와서 장군님께 신소를 해서라도 해결받아야겠다던 원시범의 방안 같은것에는 관심이 전혀 없었고 운명의 흐름을 따라 조금도 거슬림이 없이 순탄하게 나가려고 할뿐이였다.

（바야흐로 때가 왔구나.） 하고 강병철은 오늘 이 자리에서부터 생의 마지막지점까지의 로정을 짐작해보았다. 이제 그이께서는 부드럽고 온화한 어조로 죄상을 물으실것이다. 그러면 나는 이미 여러번 거듭한 설명을 또다시 반복하게 될것이다. 그다음에는 응당한 정치적, 사상적규명이 있을것이며 로동계급의 리익, 인민의 리익이 침범되였다는것으로 해서 호된 규탄을 받게 될것이다. 그다음에는 박인국이 기세등등해서 나를 끌어다가 더 견고한 방에 가둬넣어둘것이며 그후 어느 달이 없고 흐린 음침한 날 밤 어데론가 끌어갈것이다. 그리하여 한줄기의 파문도 남기지 못하고 한 인생은 종말의 바다밑에 영원히 가라앉게 될것이다.

《그래 합금로가 어째서 폭발했습니까?》

담배불을 재털이에 끄고 안락의자 팔걸이로 몸을 기울이신 **김일성**동지께서 고개를 숙이고 무릎에 손을 얹어놓고있는 강병철에게 물으시였다.

《저의 잘못으로 해서 공장에 큰 손실을 주었습니다.》

고개를 들면서 정확한 억양으로 대답하였다. 이때 강병철은 엄엄하고 위압적인 표정도 아니고 의아한것도 아닌 그저 평범한 그러면서도 동정이 어린 그이의 시선을 확연히 알아볼수 있었다.

《강철로가 폭파되였다는것은 그 어느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전적으로 저의 책임입니다. 저때문에 합금생산이 안되게 되였습니다. 탄광에서는 당장 특수강 정머리를 요구하고있는데 주지 못하고있습니다.》

《결국 동무자신이 그런것을 다 알고있으니까 더 할 말이 없게 되였습니다. 그래 그 책임을 어떻게 지려고 합니까?》

《그에 대해서는 어떤 가혹한 심판이 내려져도 다 받아들일 각오가 되여있습니다. 이것은 진심입니다.》

《진심이라?》 하고 그이께서는 담배갑을 집어드시였다.

강병철은 다시 고개를 숙이지 않을수 없었다. 그이의 시선이 와닿을적마다 마주 보아낼수 없는 불안을 느끼게 되였다. 심리의 맨 안구석에서 가물거리는 세부까지 다 들여다보시면서 그이께서는 때로는 왜 그렇게 하였는가 하고 묻기도 하고 왜 동무는 거짓말 절반, 진실 절반인가 하고 따지기도 하실것만 같았다. 그리하여 강병철은 진심을 말한다

고 하면서도 이미 고안된 자기 심산을 드러내놓음으로써 해뜬 대낮에 자기 그림자를 피해보려는 어리석은 인간으로 되고말았다. 잠간 침묵이 흐를 때 방안이 쩌렁 울리면서 그이의 높은 음성이 들리였다.

《동무는 그 책임을 져야 합니다. 사태는 매우 엄중합니다. 다른데서는 벌써 제품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철도에서는 지난달 17일부터 두개의 려객렬차를 운영하게 되였고 따라서 우편통신도 상당히 민활해졌습니다. 사동, 안주, 고원탄광들에서도 석탄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강선제강소에서는 며칠후 첫 쇠물이 나올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독 여기서만은 그렇지 못합니다. 질이 좋은 금속이 나올수 있는 여기는 왜 이 모양입니까.》

그이께서는 계속 말씀을 하고계시는데 강병철은 그것을 의식해내지 못할만치 온몸에 서리가 내돋았다. 처음에는 갑자기 오한기가 나는것 같더니 다음에는 온몸에 불이 달린것처럼 아프고 쓰리였다. 목에서는 단김이 치솟고 눈살이 꼿꼿해졌다. 드디여 그는 겨우 숨을 톺아올리면서 울음을 터뜨리였다.

《그런데 아까 저 최한덕로인의 설명을 들어봐도 그렇고 또 강동무의 말을 들어도 마찬가지인데 그동안 또 한번의 실험을 해볼만 한 시간이 흘렀는데 왜 초상집처럼 이렇게들 하고있습니까?》

그이의 음조에서는 분명히 그 어떤 오해나 또 어떤 알수 없는 리유로 해서 사태가 악화되고있는데 대해 분개하시는것이 알렸다.

《한가지 물읍시다. 그래 강병철기사가 로를 고의적으로 폭파시켰다는것이 사실입니까?》

강병철은 본능적으로 흠칫 놀라 고개를 들고 그이를 올려다보았다. 이때 그의 눈에는 형용키 어려운 일종의 불안과 초조와 회의의 빛이 어려있었다.

자기자신에 대한 믿음을 잃었고 또 자기를 둘러싼 주위환경에 대한 불신임에 완전히 포로된 그는 자기본연의 량심을 도저히 지켜낼수 없었다. 그리하여 그는 우여곡절을 거쳐서 마지막에 도달하게 될 그 결론을 맨 먼저 내대게 되였다.

《그렇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로를 폭파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렇소, 그것이 사실이요?》

그이께서는 차츰 더 의문에 잠기시며 같은 말을 반복하다가 자리에서 일어나시였다.

《사실이라?》

그때 의자를 덜컥 울리며 여직 아무 반응도 없이 줄곧 강병철을 지켜보고있던 최한덕이 일어났다.

《장군님! 제가 한마디 말씀올리겠습니다. 강병철이 저 사람은 기술은 있는데 인간으로 말하면 졸장부올시다. 지금 속에 없는 거짓말을 하고있습니다.》 성급한 그는 벌써부터 숨소리가 거칠어지고 주먹이 들먹들먹하였다. 언젠가 몇마디 말을 건네보고 따귀를 친것처럼 그렇게 하고싶지만 정중한 좌석이여서 가까스로 분기를 참으며 뒤말을 떠듬떠듬 이어대였다. 《저 사람의 배속은 뻔합니다. 사고는 친것이니 그것은 엎지른 물처럼 주어담을수 없는노릇이다, 내가 실수를 했다는 속마음을 버선목이라고 뒤집어보일수도 없다, 또 요번것은 그럭저럭 굼때다쳐도 일본에서 저질렀다는 사고까지 피할수는 없지 않은가, 그런바에는 차라리 내 발로 일찌감치 불더미에 올라앉자, 이렇게 잔꾀를 부리는것입니다. 페일언하고 저 강병철은 따귀를 쳐서 정신이 들게 해야 할 사람입니다. 저한테 맡겨주십시오. 저는 하루동안에 진속을 뽑아내겠습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방안을 거닐으시면서 최한덕의 말을 주의깊게 듣고계시였다. 그는 강병철을 믿고 사랑하기때문에 그만치 분격이 큰것이다.

《그러니까 고문을 들이대서 실토하게 하겠다는것입니까?》

만면에 웃음을 그리신 그이께서는 강병철이앞에서 걸음을 멈추시였다.

《강동무! 우리 로동계급의 말을 들었습니까. 저 동무의 말에서는 진심이 느껴지는데 동무의 말에는 어딘지 모르게 꾸민것 같은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또 물읍시다. 로를 고의적으로 폭파시켰다면 그 목적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아이들처럼 로를 가지고 유희를 한것은 아니겠는데.》

《심리과정은 복잡했지만 행동계기는 단순합니다. 난 공산주의를 위해서 강철을 만들고싶지 않았습니다. 야하다에서 권력에 굴종해서 만든 강철이나 이곳 강철이나 같은것으로 보았습니다. 두 경우에 나의 행동은 다 같았습니다. 모두 일치합니다.》

《그러면 공산주의자들이 당신한테 어떤 피해나 손해를 준것이 있는가요?》

《그것은 나자신에게 직접 미친것은 없고 리념문제입니다. 내가 왜 리념문제에 대해서 말하느냐 하면》 하고 강병철은 침착해지려고 애를

쓰면서 말을 계속하였다. 《그 리유는 이렇습니다. 사람은 빵만으로는 살수 없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성서에는 그 대답으로 사람은 하느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살아나갈수 있다고 하였는데 그건 너무 어리석고 허황해서 저는 한때 예수에 미쳤던것만 못지 않게 맑스나 레닌도 신봉했었습니다.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에 대해서도 읽었습니다. 대단히 매력적이였습니다. 그러나 1925년에 조직된 조선공산당이 한짓을 보면 정이 떨어집니다. 그러고보면 세상에는 저를 매혹시킬 리념이 없었던것입니다. 허무합니다. 그래 저는 순결한 마음으로 내 나라, 내 민족을 위하여 힘자라는껏 무엇인가를 해보자고 결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한쪼각의 소망마저 이룩할수 없게 되였습니다. 저의 지금의 솔직한 심정은 이렇습니다.》

여기까지 말하고나서 강병철은 눈물이 그렁그렁해졌다. 가슴에서 뜨거운것이 북받쳐올라왔다.

《리념문제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참말로 동무는 먼길을 에돌고있는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코 전혀 무익한것은 아니고 어느 정도 불가피했다고 말할수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가 갈 길을 찾는다는것이 그렇게 헐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선 우리는 이야기를 허공에 띄워놓지 말고 땅에 발을 붙이고 현실적인것을 론의해봅시다.》

그이께서는 의자를 당겨놓고 강병철과 마주앉으시였다.

《오전에 비료공장을 돌아보았는데 이곳 사람들이 공장복구안을 만드는데 강병철이 크게 공로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어떤 리념으로 해서 그렇게 할수 있었습니까?》

대답이 없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한걸음 나서시여 강병철의 손을 잡아당기시였다. 양복앞섶에 숨기였던 붕대를 감은 손을 쳐들고 잠시동안 보고계시던 그이께서는 《그래 이 손으로 어떻게 술질을 해서 군대밥통의것을 떠자셨는가요?》 하고 물으시였다.

영문을 알지 못한채 손을 내대고있던 강병철은 고개를 푹 떨구었다. 그이께서는 모든것을 다 알고계시는구나 하고 생각하였다. 그렇게 되자 갑자기 코마루가 저려나더니 목구멍으로 뜨거운것이 치밀어올랐다. 어떤 보수도 명예도 필요없었다. 오직 자기의 진심을 알아주는 사람이 이 세상에 단 한명만 있다 해도 그는 자기의 모든것을 기꺼이 바칠 각오가 되여있었던것이다. 그러나 그는 솔직한 자기의 심정을 토로하지 않고 이를

사려물면서 참았다. 오열을 삼키고나서 그는 태연하게 대답하였다.

《저는 밥만은 왼손으로 먹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밥을 먹으면서 독서를 하자면 그렇게 하는것이 편리했습니다.》

《그것은 그렇다치고 저 최한덕로인의 말을 들으면 로를 쌓느라고 손이 이 모양이 되였다는데 그것은 무엇때문이였습니까?》 대답이 없었다. 강병철은 더욱더 랭철해지려고 애를 썼다.

《무연탄화독에서 대두박을 끓이고 가마니우에서 쪽잠을 자면서 일했다는데 그것은 무엇때문입니까? 단순히 누구에게 잘 보이기 위한것이라면 이건 너무나 값이 비싸지 않습니까?》

그러나 강병철은 빚어세운듯이 앉아만 있다. 그로서는 그 모든것을 말로 설명하기가 너무나 벅찼던것이다. 보안서 지하실에 웅크리고앉아만 보름동안에 얽어놓은 그 실꾸리를 가려낼수도 없고 설사 그 한끝을 찾아냈다 해도 그것을 여기에 늘여놓을수 없는것이다.

《강병철동무！》하고 그이께서 나직이 말씀하시였다.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동무는 내 나라의 강철을 만들수만 있다면 그 어떤 보상도 요구하지 않는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부귀도 영화도 필요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에 와서 동무는 무엇을 요구합니까. 건국도상에서 우리는 첫 걸음을 내뗐을뿐입니다. 난 여직까지의 동무의 말을 전혀 리해할수도 없고 믿을수가 없습니다. 동무가 어떻게 합금로를 고의적으로 폭파할수 있습니까?》

그이께서는 두손으로 움켜쥐시였던 강병철의 손을 털썩 놓으면서 고개를 흔드시였다.

그 순간이였다. 강병철은 심장이 뚝 멎는것 같더니 온몸이 싸늘하게 식어들어갔다. 그는 본능적으로 두손을 맞잡았다. 여직까지 흘러왔던 그이의 체온을 간직하려는것이다. 하지만 어느덧 손끝까지 랭기가 미쳐왔다. 그렇게 되자 그는 와락 몸을 던져 장군님의 품에 안겨 실토정을 하고싶었다.

（장군님！ 장군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저는 로를 고의적으로 폭파시키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떻게 그렇게 할수 있겠습니까.）

가슴속에서는 이런 웨침이 불길처럼 솟아올라왔지만 시퍼렇게 멍이진 그의 입술은 차츰 더 얼어들면서 끝내 속의것을 내뿜지 못하게 하였다.

옆에서 처음부터 말 한마디 없이 앉아있던 리연수가 의자를 조심스

럽게 뒤로 밀어놓더니 이미 책상우에 내놓았던 서류철을 펼쳐들었다.

《여기에 본인이 자필로 쓴 진술서가 있습니다.》

《진술서요?》

그이께서는 리연수가 내드린 서류를 받아 첫장을 펼쳐보시였다. 첫가위에 《합금로 제1호폭발사건과 관련한 진술서》라고 씌여있고 그밑에 강병철의 지장이 시뻘겋게 찍혀있었다.

《요전에 왔던 오기섭동지도 이것을 보고는 부인할수 없는 사실이라고 인정했습니다.》

리연수는 근엄한 얼굴로 한마디 하더니 강병철이와 최한덕을 피뜩 둘러보고나서 자리에 앉았다.

《여기에 동무가 로를 고의적으로 폭파시켰다는 자백이 적혀있습니까?》

연뎅이같은 말마디들이 강병철의 흉벽을 텅텅 울려놓는다.

《그렇습니다.》

강병철은 갈린 목소리로 대답하였다.

그렇게 되자 방금전에 장군님께 기탄없이 말씀드리고싶었던 욕망은 자취없이 사라지고말았다.

（내 말은 어데까지나 공뜬 빈소리고 욕망에 불과하다. 그러나 공장장은 드놀지 않는 근거를 내대지 않는가. 그만두자. 그만두자. 얼마간 참고 견디면 모든것은 예상대로 될테니까.）

김일성동지께서는 별로 놀라와하시는 기색도 없이 진술서를 책상 한쪽에 밀어놓으시더니 강병철을 향하여 미소를 띠고 말씀하시였다.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강선제강소의 양춘만기사에 대해서 말한 기억이 납니까?》

《양춘만, 그렇습니다. 제가 그때 그런 사람이 있다는것을 알려드렸습니다.》

강병철은 눈을 번쩍 뜨고 쳐다보면서 호기심이 어린 표정을 지었다.

《양춘만은 서울로 도망간것이 틀림없었습니다.》

《그럴것입니다. 다른데는 갈데가 없는 사람입니다.》 하고 강병철은 역시 놀랄만 한 일이 아니며 앞이 뻔하다는 기분을 보이면서 가볍게 질문을 하였다. 《누가 서울에서 만나보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동무들이 우정 찾아가 만났습니다. 강선에 다시 돌아가 강철을 만들자고 하니까 인차 동의하고 길을 같이 떠났습니다.》

《그렇습니까?》 강병철은 량미간을 좁히면서 머리를 약간 가로 틀었다. 《그렇게 순순히 따라나섰다는것은 좀 리해가 되지 않습니다. 혹시 어떤 위협을 느낀것이나 아닙니까?》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평산까지 왔다가 도망쳤습니다.》

《옳습니다. 그럴겁니다.》환성에 가까운 소리를 질렀다. 그리고나서 강병철은 활기를 띠고 보태였다.《그것이 진실입니다. 제가 그때 명확히 말씀을 올렸다고 생각됩니다. 그 사람만은 좀 특수합니다.》

《하긴 그런것 같습니다. 그런데 얼마전에 그가 제발로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자기 잘못을 깨닫고 강철을 만들겠다는 맹세도 했습니다.》

《제발로 찾아왔단 말입니까?》

그는 흠칫 몸을 솟구기까지 하면서 어리둥절해 좌우를 둘러보기까지 하였다. 믿어야 할지 믿지 말아야 할지 알수 없었다. 순간순간에 운명이 책장번지듯 하는것이다. 도망쳤다는것은 응당한 일로 되는데 제발로 찾아왔다는것은 믿을래야 믿을수 없었다. 그래 그는 생각던 끝에 장군님께서 강병철을 설복하기 위해 극단한 실례를 하나 만드신것이나 아닌가 짐작해보았다. 그렇지만 미소를 띠신 장군님의 얼굴에서는 전혀 그런 느낌을 받을수 없고 다만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진지한 기운만이 온몸에 풍기고있었다.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자.) 하고 강병철은 고개를 떨구고 생각해보았다. 그런데 장군님께서 어째서 양춘만의 이야기를 지금 나한테 말해주시는것일가. 처음에 대수간 비치시였던 이야기에 대한 후일담일수도 있겠지만 보다는 곡절이 있기는 하지만 종착점에서는 달리 될수 없다는 하나의 불가피성을 납득시키려는것이나 아닐가. 하지만 양춘만이도 이제 앞날에 있게 될 나같은 경우를 두고보아야 하는것이다. 그렇다, 두고보아야 한다.

《장군님!》 하고 강병철은 약간 떨리는듯 한 음성으로 말을 떼였다.《양춘만이 돌아왔다는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좋은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제가 바라는것은 앞으로 나처럼 되지 말아달라는것입니다.》

신중성을 띠고 시작한 강병철의 말을 주의깊게 듣고계시던 **김일성**동지께서는 그가 말을 끝내자 즉시에 물으시였다.

《나처럼 되지 말라는것은 무슨 말입니까?》

강병철은 대단한 용기를 내여 대답을 올리였다.

《양춘만에게는 나와 같은 경우가 앞날에 있을수 있다는것입니다.》

《그렇다면 동무는 로를 고의적으로 폭파시켰다는것을 그대로 인정합니까?》

《그렇습니다. 저 진술서에 쓴것이 모두 사실그대로입니다.》

《진술서? 저 문건말입니까?》

《그렇습니다.》

《나는 저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는 저런 문건을 인정하지 않습니다!》그이께서는 오른손을 머리우까지 높이 쳐들었다가 힘있게 엇가로 내리그으시면서 자리에서 일어나시였다. 《나는 저런 문건놀음에 진절머리가 난 사람이요.》자리를 뜨신 그이께서는 급히 맞은켠 벽에까지 걸어나갔다가 다시 돌아오시여 처음에는 리연수에게 다음에는 강병철에게 손짓을 하며 말씀을 계속하시였다. 《나는 저 문건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기섭동무도 동무의 필적을 내보이면서 진술서에 적힌것을 인정해야 한다고 하였지만 나는 그것을 반대했습니다. 산 사람을 믿지 않고 문건을 믿으면 사람이 제정신을 잃게 됩니다. 나는 항일무장투쟁을 시작한 때로부터 지금까지 여러번에 걸쳐 쓰라린 체험을 했습니다.》

그이께서는 잠간 중단하셨다가 다시 계속하시였다.

《무장투쟁초기에 반〈민생단〉투쟁이라는것이 벌어졌습니다. 그것때문에 숱한 사람들이 잘못되고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그때에도 바로 저런 문서보따리를 메고다니면서 잘 싸우는 사람들을 모해하게 만들었습니다. 직접 본인을 만나서 한마디 물어보면 되는것인데 잔뜩 문건을 만들어가지고 서로 의심하게 하였습니다.》

그이께서는《민생단》문서보따리를 태워버리고 모두 단결해서 일제와 싸우던 이야기를 상세히 하시였다.

… …

다시 본래의 화제로 돌아가신 **김일성**동지께서는 10여년전 이야기를 눈에 보는것처럼 방불하게 형상하시고나서 강병철의 진술도 결국 《민생단》보따리와 같다고밖에 볼수 없다고 단호하게 론단하시였다. 계속해서 그이께서는 평양에서 만났던 이야기를 다시 상기시키시였다.

《강병철동무! 나는 그때나 지금이나 전혀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가 인테리인 동무와 손을 잡고 같이 혁명을 하자고 한것은 그 어떤 사탕발린 빈소리가 아니라 진정입니다. 이것은 오늘도 그렇고 래일도 그렇고 또 영원히 그럴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누구의 혼자생각이 아니라 우리 당의 방침이며 의지입니다. 우리 혁명이 이것을 요구하고있습니다.

또 동무들의 처지에서 볼 때도 이것은 근본문제이며 절실한것입니다. 우리 조선의 인테리앞에는 단 하나의 길이 있을뿐입니다. 그것은 우리 인민과 더불어 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수립하고 부강한 내 나라를 건설하는 그 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할 정로입니다. 이 길외에 절대로 다른 길이 있을수 없습니다.》그이께서는 주의를 집중해서 듣고있는 동무들을 한번 빙 둘러보시고나서 다시 말씀을 계속하시였다.《여기서 한가지 동무에게 명백히 말해둘것이 있습니다. 아까 동무는 공산주의를 위해서 강철을 만들 생각이 없었다고 하였습니다. 그것은 또한 리념에서 온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을 놓고 말해봅시다. 여기 오기 며칠전에 우리는 신의주에 갔던 일이 있습니다. 공산당을 반대하는 악선전에 넘어간 학생들이 란동을 부리였습니다. 그 학생들은 공산당이라면 덮어놓고 반대하였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나가 연설을 하는데 〈**김일성**장군님은 공산주의자입니까?〉 하고 군중들가운데서 누가 큰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래 나는 서슴없이 〈나는 공산주의자입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모두 아연해졌습니다.》

계속하여 그이께서는 공산주의자와 조선독립운동에 대하여 해설하시였고 적들에게 매수된 나쁜 놈들이 공산주의탈을 쓰고 나쁜짓을 하는것이 있었다는데 대하여 례를 들어가며 말씀하시였다. 그런 후에 강병철이 지금 처한것과 같은 구체적인 대상을 들어 분석하시였다. 《내가 보건대 강병철동무는 이러한것보다 더 심각한 인생문제를 생각하고있는것 같습니다. 동서고금의 유명무명의 수많은 인사들이 인간에 대하여, 인생에 대하여 말하였습니다. 인간은 죄악의 존재라고도 하고 반대로 인간은 선의 존재라고도 하며 인간은 령혼을 가진 동물외 아무것도 아니라고도 합니다. 우리는 인간이 있어 자연도 우주도 가치와 의의를 가지며 또 그 인간이 그 모든것을 개조하고 향유한다고 봅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 인간을 믿고 사랑하는것으로써 혁명을 하고 나라도 찾으며 그 인간을 위해서 한생 자기를 바칠 각오로 살아가고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조선공산주의자들의 리념입니다. 이것이 당신에게 적대되기때문에 자기 운명은 고사하고 털끝 한오리 바칠 생각이 없다면 섭섭하기는 하지만 강병철동무! 우리와 이 자리에서 깨끗이 미련없이 헤여집시다. 당신은 여기 앉은 다른 동무들과 달리 이러저러한 인생관을 모두 알고있을것이기때문에 나는 이런 정도로 강병철의 립장을 묻습니다.》

강병철은 가슴이 섬찍해나서 고개를 들었다. 왜 그런지 온 심장의

것이 졸지에 쑥 뽑히는것 같은 허무한 생각이 들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이쪽 기분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는것이 없는것처럼 자신의 감정만을 터치시는것 같았다.

《그러나 후회는 하지 마시오. 사람들은 모두 아무때나 아무런 대가도 치름이 없이 자기 길에 들어서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왜 동무는 솔직하게 말하지 않습니까. 아까 동무는 양춘만이 앞으로 나처럼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나처럼〉 이것을 동무는 명백하게 밝혀서 말해야 하는것입니다. 동무는 지금 인테리에 대한 자그마한 몰리해앞에서 우리들이 한사코 없애야겠다고 노력하고있는 부분적인 결함을 두고 투정을 부리고있는것입니다. 동무는 량심 그대로 내 나라의 철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쳤습니다. 그것은 정말 눈물겹습니다. 손끝에서 피가 흐르는데도 벽돌을 축조했습니다. 그 손이 너무 쓰리고 아파서 손을 쳐든채 가마니우에서 딩굴며 밤을 새웠습니다. 동무는 대두박을 화독에 삶아먹으며 일했습니다. 여기가 아니고 저쪽에 있었다면 동무는 호의호식을 할수 있으며 아무리 나쁜 경우라 해도 대두박을 씹을 형편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 앉은 공장장은》 하고 **김일성**동지께서는 날카로운 시선으로 리연수를 쳐다보시는데 그는 벌써 순간에 얼굴이 하얗게 질려있었다.《공장장은 동무의 고충을 알아주고 도와줄 대신에 색안경을 끼고 감시만 하고있었습니다. 이전에 잘 먹었으니 일없다, 아직 일본책만 보고있다 이런 식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공산주의자라고 자칭하는 공장장은 동무에게 대단히 몰인정하게 대했습니다. 그러니 동무는 이런 사람들의 감시하에서 금속을 만드는것이나 일제때 야하다에서 강철을 만드는것이나 본질상 무엇이 다른가라는 의문을 가지게 되였던것입니다. 동무의 가슴속에는 지금 이런 엄중한것이 숨어있습니다. 하긴 여기만 그런것이 아니라 평양에도 여기 공장장과 같은 사람이 있을수 있고 또 한동안 우리 대렬속에 그런것이 나타날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해서 동무네가 우리를 믿지 않고 우리를 외면하는 길로 나가서는 안됩니다.》

강병철이앞에 손을 내대고 두세번 흔들어보이신 그이께서는 잠시 말씀을 중단하시였다가 다시 계속하시였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당신들이 우리와 리념을 합치지 못할 근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당신들이 가야 할 그 어떤 다른 화려하고 휘황한 길이 있는것도 아닙니다. 다시한번 말해둡니다만 우리는

처음 만났던 그때처럼 우리는 당신들을 믿고 당신들은 우리를 믿고 같이 한길을 갑시다.》

강병철은 이때 온몸의 균형을 잃고 물에 뜬것처럼 기우뚱거림을 느끼였다. 그러자 그는 의자가름대를 붙잡고 자빠지지 않으려고 무진 애를 썼다. 그러다가 그는 가슴을 움켜쥐면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무아몽중에 빠진 그는 아무것도 식별해낼수 없었다. 오로지 그는 장군님만을 믿고 따르려던 절절한 념원과 피타는 노력이 졸지에 허공으로 날아나는것 같아 그것을 한사코 붙잡으려고 팔을 들어올리며 모지름을 썼다.

《장군님! 저는 변함없이 장군님만 믿습니다.》

그는 한마디한마디 힘을 주어 정확하게 속심을 터치였다.

장군님의 말씀은 투철하고 단호하였으며 그러면서도 사랑과 믿음의 숨결이 그토록 강렬하여 마지막까지 부둥키고있던 불신에 대한 종창을 그는 사정없이 북북 찢어놓았다. 그는 방바닥에 털썩 엎드려 어깨를 들먹이기 시작하였다. 그이께 무한정 많은 말을 해야 하고 또 할수 있을것 같았는데 무슨 말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를 잡을수 없었다. 그래 그는 넘쳐나는 오열을 삼키고있을뿐이였다.

《강병철동무! 일어서시오. 이 길로 합금로로 나가시오. 우리 인민이 당신을 지켜보고있습니다.》

방안에서는 더이상 아무런 음향도 울리지 않았다.

강병철은 천천히 일어섰다. 그리고는 마치 구령을 받은 전사처럼 조금도 곁눈을 팔지 않고 현관을 나서더니 합금로쪽으로 곧추 걸어갔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창문을 거쳐 한 지식인이 가고있는 걸음을 묵묵히 지키다가 흠칫 놀라시였다. 문앞에서 웬 청년이 강병철을 지켰다가 따라가는데 그 외모로 보아 신창의 박창술이 틀림없었다. 그때에야 그이께서는 박창술이 한 전화가 오늘 여기로 자신을 오게 하는데 큰 견인력이 되였다는것으로 해서 빙그레 미소를 지으시였다.

강병철이 로에 도착하니 해는 벌써 지고 밤이 되였다. 그는 합금로안에 들어가 다시 쌓기 위해 무둑히 무져놓은 내화벽돌무지에 털썩 엎드리였다. 그리고는 몸을 우들우들 떨면서 속으로 부르짖었다.

(이 믿음을 안고 나는 한생 살겠다. 이 지탱점이 있는 한 나는 다시 흔들리지 않을것이다. 이것이 서있으면 나도 서있고 이것이 넘어지면 나도 같이 땅에 꺼꾸러질것이다. 이것이 나의 모든것이다. 이 단 하

나의 길로 드팀없이 한생을 걸어갈것이다.)

밤은 깊어가는데 숨을 죽인 로앞에서 단 한명의 기사가 내쉬는 가냘픈 입김이 가물가물 피여오르면서 로의 두리를 천천히 감돌고있었다.

그이는 우리의 최고사령관

오, 그이시다
전민, 전군이 우러러 받드는
그이가 우리의 최고사령관!
그이가 우리의 **김정일**동지!

일찌기 반세기전 2월의 아침에
이 나라 조종의 산 백두의 성산이
정일봉마루에 받들어올린 아들

항일의 전장에서 담력을 키우시고
50년대 전화의 그 나날에
최고사령부 작전대앞에서
령장의 지략을 터득하신분

그이시여라
탁월한 군사사상, 주체의 전법으로
하늘, 땅, 바다를 철벽으로 다지시고
전민이 자위총검 굳게 잡게 하신분

흉악한 침략자들, 도발자들이
얼마나 악을 쓰며 소란을 피웠던가
허나 그 언제 한번이나
그이의 철추를 면할수 있었던가

어느때 한번이나 그이 높이 추켜드신
우리의 존엄을 훼손할수 있었던가

피로써 전취한 혁명의 주권도
위력으로 드팀없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어느 하루 아침에 찬탈 당하고
정의와 진리도 위인을 못 만난다면
모욕될수 있음을 보아왔기에

우리 당과 인민은 념원으로, 신념으로
친애하는 그이를
우리 혁명무력의 최고통솔자
최고사령관으로 받들었나니

그이 아닌 그 누가 떠메랴
조국생사존망의 이 중하를
그이 아닌 그 누가
력사의 절박한 이 요구를 받아안을수 있으랴

아—
우러러 숭엄한 강철의 령장！
로숙하고 세련된 군사의 대가！
그 안광 한번 누리에 번쩍이면
백만대적도 기가 꺾여 주저앉고말려니

시련의 천만산악 앞을 막는다 해도
두려울것 없어라
그이와 한피줄로 이어진 우리기에
가야 할 길 천만리 억만리라도
서슴을것 없어라

그이를 모셨기에
우리는 언제나 백전백승！

지구상에 제국주의호전광들 살아있는 한
더 굳게 잡으리 그이 주신 무장!
더 굳게 다지리 그이 안아 키워주신
일당백 우리 대오, 충성의 전투대오

오—
방패되여 성새되여 옹위할 령수
그이 명령하신다면
불이 되여 가리라
폭풍되여 가리라
그이 가리키신 곳 어디든 그 어디든
승리의 만세소리 울리게 하리라

사열을 받으시라 령장이시여!
경례를 받으시라 령수이시여!
아, **김정일**동지
우리의 위대한 최고사령관이시여!

(김 철)

빈터우에서

《빈터우에서》는 김보행이 1987년에 창작한 장편소설로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 두고두고 회고하시면서 높이 평가하신 락원의 10명당원들의 이야기를 소설화한것이다.

소설은 위대한 수령님의 원대한 구상에 따라 우리 나라에서 수리화가 거창하게 벌어지던 전후복구건설시기를 시대적배경으로 하고있다.

소설의 이야기는 주물직장장 용녀가 락원의 로동계급의 힘으로 대형양수기를 만들수 없겠는가 하는 위대한 수령님의 크나큰 믿음의 교시를 전달받는데로부터 시작된다.

당중앙위원회에서 내려온 부장은 용녀네에게 다른 나라에서 구해들여왔다는 대형양수기를 현지에서 보여주면서 많은 사람들이 기술이 부족해서 아직 우리 나라에서는 만들수 없다고 하는데 바로 이 문제를 락원의 동무들과 의논해보라고 위대한 수령님께서 말씀하셨다고 전해준다. 그 한대의 양수기도 위대한 수령님께서 친히 편지를 내셔서야 겨우 구해올수 있었다는것이였다.

용녀는 기술이나 그 어떤 조건에 앞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바라시는 일이기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해내겠다는 결심을 가지고 주물직장당세포회의에 이 문제를 제기한다. 당원들모두가 찬성해나선다. 10t능력의 천정기중기로 30t이나 되는 중량물을 들어옮길수 있겠는가 하는것이 문제였지만 이미 경험이 있어 그렇게 할수 있다는 홍만석기사의 기술적인 담보까지 있고보니 주물직장 당원들과 로동자들의 사기는 하늘을 찌를듯이 높다.

그러나 대형양수기제작문제는 처음부터 큰 난관에 부딪친다.

무엇보다도 지배인 염우진이 기술이 어떻소, 설비가 어떻소 하면서 달가와하지 않는다. 게다가 성 부상인 정인백이 은근히 반대하면서 지배인을 부추긴다. 그런가위에 또 생산부장자리에 앉아있는 반혁명분자 엄기태가 부상과 지배인의 턱밑에 붙어돌아가면서 대형양수기제작을 방해하기 위한 모략을 꾸민다. 엄기태놈은 자기 졸개와 함께 창고에서 합금용특수강을 훔쳐내다 강물에 던지기도 하고 소학동창생인 홍만석기사를 동정하는척 하면서 자기 처지를 생각하여 이미 내놓았던 기술혁신문

제도 걷어치우며 새로운 안을 내놓는것과 같은 모험을 하지 말라고 은근히 오금을 박는다. 전쟁전에 개인정미소를 가지고있던 홍만석기사의 아버지는 일시적후퇴시기 적을 도와준것으로 하여 인민군대에 의해 처단된것으로 되여있었는데 사실상 엄기태놈의 애비가 자기의 검은 정체를 가리우기 위해 일을 그렇게 꾸몄다는것을 홍만석은 물론 알리가 없었다. 그래서 홍만석은 처남들이 와서 안해를 데려가도 감히 말리지를 못하고 두 어린것을 데리고 혼자 고생을 하고있는데다 엄기태놈의 말까지 듣고보니 마음이 흔들려 자기가 이미 내놓았던 기술혁신안도 취소할뿐아니라 다른 직장으로 옮기겠다는 제의까지 한다.

용녀는 홍만석기사의 나약성을 준절히 나무란다. 그러면서도 친정에 가있는 홍만석의 안해에게 남편과 아이들한테로 돌아오라는 간절한 편지를 남몰래 거듭한다.

용녀네는 전쟁때 소개했던 용선로를 뗴목에 싣고오다가 그만 강물에 빠뜨린다. 엄기태놈의 일당이 숨어서 쏜 탄알에 용녀가 부상을 당했고 그통에 뗴목의 조종을 잘못했던것이다. 입원하였던 용녀는 완쾌되기도 전에 퇴원하여 자재를 해결받자고 평양으로 올라간다. 그러나 강철사정이 너무 긴장하여 한t한t을 위대한 수령님께서 비준하시는 형편이라는 말을 듣고는 그냥 돌아서고만다. 위대한 수령님께 걱정을 끼쳐드린다고 생각하니 죄악으로 느껴졌던것이다.

그리하여 강물에 빠뜨린 용선로를 끌어내는 전투를 조직한다.(이 부분이 선문교재이다.)

도검찰소 부소장자리에 앉아있는 반혁명분자 엄병태(엄기태의 사촌형)놈은 홍만석기사를 밤마다 데려다가 합금용특수강을 자기가 훔쳐냈다고 자백하라면서 비밀심문을 들이대고 성 부상 정인백은 주택건설에 무관심하다고 용녀를 추궁한다. 이렇게 방해책동은 계속되였지만 용녀네는 대형양수기제작을 줄기차게 밀고나간다.

드디여 주형틀에 쇠물을 녹여 붓는다. 그런데 해체해보니 주물에 숱한 공기구멍이 생겼다. 결국 실패한셈이다.

이런 실태를 두고 정인백부상은 국가에 큰 손실을 주었다고 용녀를 추궁하면서 대형양수기를 만들수 없다는 제의서를 정식으로 만들어 중앙에 올려보내라고 지배인에게 지시한다.

용녀네는 한번 더 실험할것을 요구한다. 지배인이 중앙에 올려보낼 제의서를 만들어 본인들의 수표를 받겠다고 직장으로 가져오자 그 제의

서를 찢어버리고만다. 한때 엄기태놈의 간계에 흔들렸던 홍만석기사도 당원들의 견결한 투지에 고무되면서 이제는 굳은 립장에 서게 된다.

용녀네들은 누가 뭐라고 하든지 흔들리지 않고 또다시 대형양수기 주형틀을 만든다.

이무렵 당중앙위원회에 올라갔다 돌아온 공장당위원장으로부터 부상 정인백이 종파분자였다는것이 폭로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드디여 주형틀이 완성된다. 주물을 앞둔 날 밤 공장안팎을 지키던 주물직장 당원들에게 주형틀을 파괴하려던 엄기태와 그 졸개가 체포된다.

주물이 성과적으로 진행되고 새로 만든 대형양수기가 양수장에 설치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통수식에 나오신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락원의 로동계급은 당에 무한히 충실한 사람들이라고 높이 평가하신다. 그리고 직장장 용녀가 전쟁때 몸에 박힌 파편때문에 입원해있다는 말을 들으시고 평양에 올라와 수술받도록 크나큰 은정을 베푸신다.

넉달반만에 퇴원한 용녀는 어버이수령님의 부르심을 받고 길을 떠난다.

25

공장은 몹시 곤난했다. 그것은 일찍 닥쳐온 추위가 혹독한데다가 바람이 모질게 휘몰아쳤기때문만도 아니였다. 12월도 초순인데 벌써 금룡강이 얼기 시작했다. 흐름이 굼뜬 곳들은 어느새 얼음이 쭉 깔리고 여울들에서만 물결이 해빛에 반짝거렸다. 밀물이 올라올 때면 얼음이 쩍쩍 갈라져 성에장으로 변했다가 다시 얼어들군 했다. 땅도 꽁꽁 얼어들고 곡괭이끝이 탕탕 튀여올랐다. 사람들도 얼어서 일했다. 미처 문을 짜달지 못한 창문과 출입문들에 방수지나 거적때기 같은것들을 대고 못질을 했지만 연료가 없어 불을 피우지 못하는 작업장들과 사무실들로는 추위가 거침없이 덮쳐들었으며 수도관들이 펑펑 얼어터지고 철근과 못대가리들에는 성에가 하얗게 불렸다.

그러나 주요한 곤난은 심술궂은 자연의 변덕에 있는것이 아니였다. 중요한 곤난은 이런 조건밑에서도 기중기를 만들어 건설장들에 보내주어야 하며 집도 짓고 복구작업도 계속해야 하며 용선로를 가져다 세우

고 양수기를 만들어내야 한다는데 있었다. 작업일정표는 전쟁때보다 더 긴장하게 작성되고 그때보다 더 많은 일손을 요구하고있었다. 하지만 그것들은 눈에 보이는 곤난이다. 보이지 않는 인간내부에 숨어있는 곤난은 또 얼마나 큰것인가 하고 생각하면서 용녀는 강기슭을 걸어 올라가고있었다. 그의 젖은 작업복아래도리는 소가죽처럼 꽛꽛하게 얼어서 벌거덕소리를 내고 수건을 목에 둬번 감아 끝을 뒤로 제꼈건만 얼굴은 추위에 빨갛게 얼었다.

용녀는 이번에도 용선로운반작업을 책임졌다. 운반조에는 오십여명의 성원들이 망라되였다. 주물직장사람들외에 다른 직장에서 온 지원로력들이 배속되고있었던것이다. 용녀는 작업이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오십명이 넘는 성원이면 용선로를 능히 끌어갈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작업은 세개 조로 나뉘여 진행되였다. 한조는 뗴를 준비하고 한조는 권양기를 설치하고 한조는 얼음을 까고 물속에 들어가 용선로를 쇠바줄로 얽어매는 일을 하였다. 용녀는 물속에서 일하는 작업조를 중시하여 거기에 사람들도 많이 배속시켰고 자신도 거기에 많이 머물러있군 했다. 바람이 모질게 휘몰아치는 추운 날씨에 물속에서 진행되는 작업은 삼십분도 계속되지 못했다. 사람들은 강변에다 우등불을 피워놓고 서로 엇바꾸어가며 몸을 녹이고는 다시 물속으로 뛰여들어가군 했다. 전쟁때 용녀는 아낙네들과 함께 얼음을 까고 물속에 들어가 손더듬질을 하며 선철토막들을 캐낸적이 있다. 그때는 추위가 지금처럼 기승을 부리지 않은것 같았다. 하긴 그때는 추위가 고개를 숙이기 시작한 봄이였고 지금은 바야흐로 추위가 공격을 개시한 겨울이다. 물속에 몸을 잠그기만 하면 살을 칼로 베는듯 한 아픔이 전신을 휩쓸며 뼈속이 저려왔고 도끼자루나 쇠바줄에 손이 떡떡 얼어붙군 했다. 그래도 하루낮 하루밤동안에 얼음을 까고 물속에 들어가 용선로를 찾아냈으며 그것의 동체를 쇠바줄로 얽어맸다. 권양기도 설치했고 뗴를 무을수 있는 통나무도 찍어서 운반해왔다. 오늘 새벽에는 용선로에 련결된 쇠바줄을 권양기에 걸어놓는 작업까지 끝냈다. 그리고는 전체가 달라붙어 권양기를 돌렸다. 그런데 웬걸, 쇠바줄만 활줄처럼 팽팽해질뿐 용선로는 끄떡도 않았다. 당기는 힘이 약하다는것이 누구에게나 명백한 사실로 인정되였다. 공장에 련락을 띄워 사람들을 더 불러와야 했다. 그런데 련락을 가고 사람들을 소집하고 그들이 떠나오고 그러느라면 빨라도 이틀은 걸릴것이고 또 그들이 손을 뗀만큼 공장일은 지장을 받을것이였다.

어떻게 할것인가. 운반조성원들은 결심을 내리지 못하고 수동권양기주위에 둘러앉아 묵묵히 담배를 피웠다.

그러나 용녀가 인간내부에 숨어있는 곤난이라고 하는것은 그것이 아니다. 평양에서 돌아온 뒤부터 용녀는 자주 신열이 나며 현기증이 생기군 했다. 어떤 날은 아침부터 신열이 나서 온종일 기분이 언짢았고 또 어떤 때는 현기증이 생겨 한참씩 앉아있거나 무엇에 몸을 기대고 조용히 서있지 않으면 안되였다. 이전에는 그 못된 증상이 그렇게까지 로골적으로 위협하지는 않았었다. 다만 며칠밤을 새거나 무리할 때에만 공기의 부족을 느끼게 했고 가만가만 걸을것을 요구했을뿐이였다. 그런데 이제는 아침부터 신열이 나서 온종일 기분이 언짢아있게 하고 현기증이 생겨 조용히 앉아있지 않으면 안되게 만들고있다. 전쟁때 받은 대수술로 인하여 생겨난 그 못된 증상이 반동놈들한테 입은 총상의 부추김을 받으며 그의 몸에서 마침내 활개를 치기 시작한것이였다. 물론 총상은 더께가 앉고 아무는 단계에 있었지마는 그때문에 용녀의 몸은 저으기 허약해졌다. 용녀는 이 내부적곤난을 감추고 일했다. 그는 자기의 아픔이 겉으로 드러나는것을 두려워했으며 다른 사람들이 눈치챌가봐 겁나하였다. 그는 자기의 건강때문에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근심을 더해주고 자신이 동정을 받게 되는것이 딱하게 생각되였다. 지금도 갑자기 현기증이 오자 그는 사람들의 눈을 피하여 강기슭을 조용히 걷고있다. 그는 강기슭에 솟아있는 커다란 바위뒤로 가서 거기에 몸을 기대고 앉았다. 지난 밤부터 신열이 있고 몸이 찌뿌드드하더니 끌내 현기증이 일어난것이다. 용녀는 바위에 기대앉아서 조용히 눈을 감고 현기증과 싸우며 생각하였다.

어떻게 해야 할가. 공장으로 사람을 띄워야 할가. 왜 이 시각에 현기증이 일어나 사람을 괴롭히는것일가.…

《왜 그러십니까, 아주머니?》

용녀는 목소리를 들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아 잠시후에야 얼굴을 들었다. 강길무가 곁에 와 서있었다.

《아이, 깜빡 잠이 들었댔어요.》

용녀는 당황하여 거짓말을 했다. 그리고는 자리에서 일어서다가 다리를 비칠하고 다시 바위에 몸을 기댔다. 찌르고 스며드는듯 한 추위와 바람이 그의 머리카락을 마구 헝클어뜨리며 휘몰아치고있는데 얼음처럼 찬 바위에 몸을 기대고 잠을 잤다는것이 어인 말인가. 그것은 쪽잠이

들었던 사람의 모습이 아니였다. 신음소리를 삼키느라고 아래입술을 사려문 입, 돌을 틀어쥔 손, 곁에 사람이 다가오는줄도 모르는 무감각… 분명 아픔을 참아내느라고 애쓰는 모습이였다. 더구나 자리에서 일어서다가 다리까지 비칠하며 다시 바위에 몸을 기대지 않았는가. 언제나 용녀의 건강에 관심하고있는 길무인지라 그 말을 곧이 들을리 만무했다.

《아주머니, 아픔을 감추지 마십시오. 그러다가 건강을 아주 망쳐버리고맙니다.》

《삼촌은 못하는 소리가 없어요. 내 건강이 어떻다고 그래요. 삼촌이 걱정하던 상처도 이젠 거의다 아물었는데.》

《아주머니, 그러지 마십시오. 아주머니는 그렇게 말하지만 아주머니얼굴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있습니다. 혹시 전쟁때 받은 상처가 재발해서 겹쳐진거라도 아닙니까.》

용녀는 고개를 설레설레 저으며 강길무의 질문을 부정했다.

《그게 언제때 일이라고 이제 와서 재발하겠나요. 난 아무렇지도 않아요.》

용녀는 그렇게 말하면서도 자기의 말이 이미 설득력을 상실하고있다는것을 느끼고 자신에게 화를 냈다.

《큰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오랜 시일이 지난 뒤에도 재발될수가 있습니다. 우리 동무들한테서 소식이 오는걸 봐도 전쟁때 입었던 부상이 다시 재발되여 고생하는 동무들이 있습니다. 수술이 잘못돼서 재발되는 경우도 있고 지내 몸이 허약해져서 다시 동통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여튼 아주머니 기색이 말이 아닙니다. 아주머니, 여기 일은 나한테 맡기고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아보십시오.》

마디마디에 근심과 동정과 진정이 넘치는 강길무의 말이였다. 용녀는 강길무의 진정에 목이 멨다.

《삼촌, 너무 걱정말아요. 난 일없어요.》

그러나 강길무는 자기의 주장을 강경하게 내세웠다.

《그러지 말고 가보십시오. 나도 이제는 당적분공을 집행해야겠습니다.》

용녀는 말뜻을 새기지 못하고 한참이나 바라보다가 물었다.

《당적분공이라니, 그건 또 무슨 말인가요?》

강길무는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말했다.

《글쎄 떠나십시오. 혼자 가지 못하겠으면 내가 사람을 한명 붙이

겠습니다.》

《정말 삼촌은 고집스럽군요. 내가 어쨌다고 사람을 붙여서 병원에 보내겠다고 그러세요.》

《아주머니, 너무 태연해하지 마십시오. 아주머니는 요새 몸이 쇠약해졌는데도 그걸 자꾸 감추려고만 하고있습니다. 세포위원장아저씨랑 당원들이 아주머니 건강문제를 두고 얼마나 걱정하는지 아십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세포회의까지 있었습니다.》

《세포회의를요?!》

《아주머니는 잘 모를겁니다. 아주머니한테는 알리지 않고 우리끼리 한 회의니까요. 그 회의에서 제가 아주머니 건강을 특별히 관심할데 대한 분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저는 그 분공을 잘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아침 보니 안되겠습니다. 병원으로 가야 하겠습니다.》

용녀의 커다란 두눈에 눈물이 그렁해졌다. 세포동무들의 동지적사랑이 가슴을 뜨겁게 울려주고있었던것이다. 마침내 용녀는 강길무의 손을 뜨겁게 잡았다.

《삼촌, 고마와요. 동지들이 정말 고마와요. 삼촌, 내 몸이 괴로운건 사실이예요. 자주 신열이 나고 현기증이 생기군 해요. 그렇지만 난 병원에 갈수 없고 가서도 안되는 몸이예요. 난 당원이예요. 그런데 당에서 바라는 양수기를 만드느냐 만들지 못하느냐 하는 이 시각에 어떻게 제 한몸을 생각하며 병원걸음이나 하고있겠나요. 삼촌도 알지만 전쟁때 명철이 아버지랑 태수아바니랑 언제 한번 제 한몸을 생각하고 싸웠나요. 그네들을 생각해서라도 난 그렇게 살수 없어요. 그리고 내가 양수기에서 물러나 병원걸음이나 하면 나를 죽이겠다고 폭탄을 던지고 총질을 한 미국놈들과 반동놈들이 얼마나 좋아하겠나요. 삼촌, 내 심정을 리해해주세요. 몸이 좀 불편한건 사실이지만 아직 나에게는 성성한 팔다리와 고동치는 심장이 있어요. 그것이 있는 한 한순간도 양수기에서 물러설수 없어요. 내 몸은 아무렇게 돼도 일없어요. 양수기만 되면 돼요. 양수기가 되기 전에는 난 절대로 꺼꾸러지지 않아요. 지금의 아픔보다 더 큰 아픔도 날 꺼꾸러뜨리지 못했어요. 명철이 아버지가 전사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도 그렇고 명희가 반동놈들의 손에 잘못되였을 때는 주위가 온통 그믐밤처럼 캄캄했어요. 내 심장이 고동치는 한 그 무엇도 날 꺼꾸러뜨리지 못해요. 그러니 걱정하지 말아요. 그리고 삼촌,

한가지 부탁하자요. 이제 세포위원장아바니랑 당원들이 또 걱정하면 삼촌이 그들에게 잘 말해주세요. 난 절대로 일없다고 말이예요. 그리고 절대로 꺼꾸러지지 않는다고 말이예요. 그렇게 할수 있지요? 고마와요. 그리고 내 대진리에 좀 갔다오겠어요.》

《거긴 왜요?》

《농민들한테 도움을 좀 청해야겠어요. 로력이 긴장한 공장에 련락하기보다는 그편이 나을것 같아요.》

《그것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아주머니는 못 갑니다. 내가 갔다오지요.》

《아니예요. 내가 가야 해요. 이런 일에는 남자들보다 녀자들이 나아요.》

대진리는 작업현장에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리였지만 삼십리길이 잘되였다. 용녀는 오금이와 함께 떠났다. 당원들의 뜨거운 동지적사랑을 생각하며 강심을 먹고 걷노라니 신열도 내리는듯싶고 현기증도 고개를 숙이는듯 했다. 용녀네가 대진리에 도착한것은 한낮이 다 되여서였다.

리인민위원장은 인정이 후해보이는 늙은이였다. 용녀는 초면의 리인민위원장에게 찾아온 사연을 말했다.

《위원장동지, 저희들은 한시간이라도 빨리 용선로를 운반해다가 양수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용녀는 리인민위원장이 자기의 말을 믿어주기를 바래서 열렬히 그리고 절절하게 청원했다. 리인민위원장은 좋은 사람이였다. 그는 용녀의 이야기를 듣고 감격을 금치 못해했다.

《장하우. 녀성들의 몸으루서… 내 농민들을 동원시켜가지구 가리다.》

용녀와 오금이는 몇번이고 고맙다고 인사했다.

《그런 말들 마시우다. 그게 다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하는 일인데 뭐 고마울게 있나요. 응당 해야 할 일이지요.》

리인민위원장은 용녀네와 한 약속을 어기지 않았다. 그는 이십여명의 농민대렬을 인솔해가지고 저녁무렵에 룡소기슭에 나타났다. 농민들은 그저 온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한짐씩 지고 왔다. 그것은 자기네 농민들을 위하여 수고하는 로동자들의 간식용고구마며 사과며 하는것들이였다. 그들은 자기들의 소박한 성의를 나무람하지 말아달라고 말했다.

농민들과 뜨겁게 상봉한 용녀네는 곧 용선로를 꺼내는 작업에 착수하였다.

황순동, 박선홍 등 경험있는 로동자들과 강길무를 비롯한 십여명의 젊은 로동자들이 지레대로 용선로를 떠밀기 위해 얼음장이 떠도는 물속으로 들어가고 나머지성원들과 농민들은 권양기곁에 둘러섰다. 작업의 총지휘는 연공작업에 경험이 있는 김용세가 담당했다. 용녀는 호각을 입에 물고 기발을 든 김용세곁에 서있었다. 용녀의 지시를 받은 김용세가 기발로써 작업시작을 알리였다. 긴 배관을 련결시킨 네개의 손잡이를 잡고있던 사십여명의 로동자들이 권양기를 돌리기 시작했다. 권양기와 용선로에 련결된 쇠바줄이 팽팽해지자 물속에 들어가있던 로동자들이 용선로를 지레대로 떠밀기 시작했다. 권양기를 돌리는 사람들과 물속에서 용선로를 떠미는 사람들속에서 《여잇샤！》《여잇샤！》소리가 흘러나왔다. 김용세가 《여잇샤！》 하고 소리치면 권양기쪽에서도, 물속에서도 《여잇샤！》 하고 대답하며 힘을 썼다. 드디여 물속에 옹크리고있던 용선로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환성을 올리며 당기고 떠밀었다. 이미 물속으로 뛰여들어 용선로에 어깨를 들이민 용녀는 말할것도 없고 밖에서 작업을 지휘하는 김용세도 등이 땀에 젖기 시작했다.

용선로는 쇠바줄에 끌리우고 지레대에 떠밀리여 한치 앞으로 전진했다가는 한치 뒤로 미끄러지고 또 한치 전진했다가는 또 한치 미끄러지면서 움직였다. 땀을 흘리는것은 작업을 지휘하는 김용세뿐이 아니였다. 권양기를 돌리는 사람들의 얼굴에서도 땀이 흘렀고 물속에서 얼음장을 밀어내며 용선로를 떠미는 사람들도 추위를 느끼지 못했다. 그들은 용선로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그 한가지 기쁨으로 다른 모든것을 생각하고 느낄 경황이 없었다. 또 다른것은 생각해도 안되였다. 권양기를 돌리는 사람들도 용선로를 떠미는 사람들도 오직 그것에만 온갖 정신과 힘을 바쳐야 했다. 시간이 감에 따라 용선로의 움직임이 굼떠졌다.

《힘을 내자요. 맥을 놓아서는 안돼요.》

물속에서 소리치는 용녀의 목소리를 김용세가 권양기쪽에 받아넘겼다.

《맥을 놓아서는 안되오. 죽어도 권양기손잡이를 쥐고 죽어야 하오. 여잇샤！》

《여잇샤！》

《여잇샤！》

그들은 한순간도 긴장을 늦추거나 맥을 놓아서는 안되였다. 만약 권양기로 쇠바줄을 당기는쪽에서나 지레대로 떠미는 그 어느 한쪽에서 맥을 놓거나 긴장을 늦추는 경우 용선로는 균형을 잃고 다시 물속으로

미끄러지며 인명피해까지도 예견하지 않으면 안되는 파국적인 상태를 빚어놓을수 있는것이였다. 초긴장, 인내성, 침착성, 책임성이 바람 휘몰아치는 강기슭과 얼음장이 떠도는 물속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사로잡고있었다. 용선로가 바위에 걸리여 더는 움직이지 않게 되자 용선로를 어깨로 떠받치고 서서 바위를 굴리고 다시 길을 내며 밀고당기였다. 드디여 용선로는 물속으로부터 자기의 동체를 로출시키더니 마침내는 기슭으로 끌려나왔다. 그것은 작업을 시작하여 세시간이 지난 뒤였다. 사람들은 물이 줄줄 흐르며 얼며 하는 용선로동체에 가슴을 대고 그것을 쓸어만지며 너털웃음을 터치기도 하고 동체우에 올라서서 환성을 올리기도 하면서 자기들의 첫 성공을 기뻐했다. 찌르고 쑤시며 스며드는듯한 추위도, 휘몰아치는 바람도 이때만은 제구실을 못했다. 젖은 옷이 꽛꽛하게 얼어드는것도 가슴을 댄 용선로동체에 옷이 얼어붙는것도 상관함이 없이 그들은 오래오래 웃고 떠들며 기뻐했다.

　다음날에는 떼를 뭇고 그우에 용선로를 싣는 작업을 진행했다. 그 일 역시 간고했다. 아무리 어렵고 간고했다 하더라도 용녀는 사람들과 함께 그 일을 해냈다. 용녀를 괴롭히던 신열도 현기증도 이제 와서는 그를 어쩌지 못하는듯 했다. 농민들은 그때까지 돌아가지 않았다. 용선로가 공장에 가닿을 때까지 돌아갈수 없다는것을 그들은 알고있었다. 그들은 로동자들의 일본새에 탄복하고있었으며 따라서 자기네 농민들을 위해 로동자들이 애쓰고있는데 중간에 돌아가는것은 의리가 없는 행동이라고 말하였다.

　용녀는 양수기를 하루빨리 만들어야 할 절박감을 더욱더 가슴깊이 느끼면서 용선로운반작업에 박차를 가했다. 얼음을 까고 물길을 내면서 용선로가 실린 떼를 몰아오는 작업은 용선로를 물속에서 꺼내던 일 못지 않게 어려웠다. 떼가 얼음판사이에 끼우는가 하면 물이 얕아 강바닥에 붙어 움직이지 않았다. 그러면 들어붙어 얼음을 까거나 바줄을 걸어 량쪽에서 끌고 뒤에서 밀고 해야 했다. 때로는 힘에 부쳐 떼가 끄떡도 하지 않았다. 공장의 일이자 자기네 일로 돼버린 농민들은 마을에 가서 자기네 소를 끌고오겠다고 했다. 대여섯마리의 소에 멍에를 메워 량쪽에서 끌면 수십명 사람들의 힘을 대신할것이라고 그들은 말했다. 용녀는 농민들의 성의가 감사하여 그들에게 또 한번 경의를 표했다.

　리인민위원장은 세명의 농민에게 과업을 주어 마을로 돌려보냈다. 리인민위원장은 세심한 늙은이였다. 그는 누구누구네 소를 끌고오되 바

줄과 멍에는 어디서 어떻게 구하고 어느 길로 어떻게 와야 빨리 도착할 수 있다고 가르쳐주는것이였다.

물속에서 구원된 용선로가 떼에 실리워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소식은 공장에도 전해졌다. 운반작업이 시작될 때 이틀동안이나 현지에서 묵어간 공장당위원장 김형운과 행정부서의 일군들이 또다시 현장으로 달려왔다. 그들속에는 까만 외투를 입고 채양이 없는 까만 세모종 양털모자를 쓴 부상도 있었다. 정인백부상은 떼를 타고 움직이기 시작한 용선로가 보고싶어서 온것이 아니라 끌려서 왔다. 그는 용선로를 가져온다 해도 양수기는 될수 없다는 견해에서 조금도 변함이 없었다.

그러나 정인백은 용선로운반현장으로 오지 않을수 없었다. 아침에 공장당위원장이 정인백의 방으로 찾아왔다. 공장당위원장은 정인백을 례절있게 대했고 그앞에서 매우 겸손했다. 그렇다고 지배인 염우진이나 생산부장 엄기태와 같이 굽석거리며 자기를 잘 보이려고 애쓰는것은 아니였다. 공장당위원장 김형운에게는 그것이 없었다. 아부가 없고 굴종이 없었다. 머저리가 아닌 정인백은 공장에 내려와 김형운과의 초대면의 순간에 벌써 그것을 간파했다. 비록 밑에서 일할지언정 능숙하고 세련된 일군이라고 생각했다. 그뒤 몇번인가 만나는 과정에 정인백은 자기의 그 견해를 더욱 확신했다. 그러자 웬일인지 그의 례절과 겸손이 가슴속에 은근한 공포를 일으키면서 그를 경계하게 되는것이였다. 그런데 오늘 아침 그가 찾아왔다. 김형운은 인사성있게 그동안 생활에서 불편이 없느냐고 하면서 용선로를 실은 떼가 공장을 향해 출발했다는데 가보지 않겠느냐고 물었다. 거절할수 없었고 따라나서지 않을수 없었다. 어차피 그들이 스스로 물러앉을 때까지는 공장에 머물러있어야 하는 한 그때까지는 부상이 로동자들의 투쟁에 랭담하다는 말을 또다시 남길 필요가 없는것이였다.

현장에 도착한 김형운은 농민들의 도움을 청한것은 정말 잘한 일이라고 하면서 지원농민들에게 사의를 표했다. 그리고는 그자신이 직접 떼우에 올라가 삿대질을 하기도 하고 도끼로 얼음을 까기도 하고 바줄을 당기기도 했다. 다른 일군들도 당위원장을 따라 온종일 거기에서 그 일을 했다. 다만 손님인 정인백부상만이 생산부장 엄기태를 앞세우고 인차 그곳을 떠나 공장으로 돌아갔다.

성격과 전형

인간학인 문학에서 기본은 성격을 창조하는것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문학에서 인간을 그린다는것은 그의 성격을 그린다는것이다. 문학에서 인간을 화폭의 중심에 세운다는것은 결국 그의 성격을 위주로 하여 형상을 창조하는것을 말한다.》

문학에 그려지는 생활화폭의 중심에는 인간이 서있다. 생활을 창조하는것도 인간이고 생활을 즐기는것도 인간이다. 그런데 인간을 그린다는것은 그의 성격을 그린다는것이다. 이로부터 형상의 중심은 성격이라고 하는것이다. 그러면 성격이란 무엇인가.

문학에서 성격이란 작품속에 그려진 사회적인간의 비반복적인 개성을 말한다.

개성이란 이 사람과도 같지 않고 저 사람과도 같지 않은 그에게만 있는 특성이다. 성격은 바로 산인간의 개성인것으로 하여 비반복적인것이다. 세상에는 사람의 수만큼 성격이 있게 된다.

이런 점에서 문학에서 말하는 성격은 보통 생활에서나 일반사회학에서 말하는 용어와 구별된다. 문학에서의 성격은 사람일반이 가지는 특성이 아니라 매 사람에게서 구체적으로, 개성적으로 나타나는 특성이며 철저히 비반복적인것으로 되는것이다.

현실속에 사는 사람은 성별과 년령, 경력과 교양정도, 사고방식과 행동, 언어와 취미, 생활습성과 생김새에서 고유한 특성을 가지게 되는데 이 모든것들이 성격의 요소를 이룬다.

성격을 이루는 요소에서 기본은 내면세계이다. 내면세계에는 사상, 감정, 의지 등이 속한다. 여기서도 결정적인것은 사상이다. 사상이 어떠한가 하는데 따라 그 인물의 성격이 규정된다.

앞에서 배운 장편소설 《빈터우에서》에는 주인공 용녀를 비롯하여 많은 인물들이 형상되여있다. 그가운데서도 주인공 용녀는 지난날 나라를 빼앗기고 식민지노예의 설음을 안고살던 우리 인민을 새 조국 건설의 주인으로 내세워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은덕에 보답하기 위해 수령님께서 주신 교시를 기어이 관철해내고야말 불타는 결의에 충만되여있는

참된 당원이다.

그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양수기를 만들데 대해 주신 교시를 전달받고는 설비와 자재도 부족하고 경험도 없고 반당반혁명종파분자들의 방해책동도 우심했지만 한몸이 그대로 육탄이 되여 기어이 수령님의 교시를 관철하고야말겠다는 오직 하나의 신념을 안고 이악하게 싸워나가며 마침내 자체의 기술, 자체의 힘으로 양수기를 만들어낸다.

바로 이러한 충실성, 주인공 용녀의 사상이 감정세계가 풍부하고 다감하며 억세고 용감한 성격을 특징짓는 핵으로 되였다.

성격을 이루는 요소에서 다음으로 중요한것은 기질적측면이다. 기질적측면에는 성미나 취미, 관습과 같은것이 속한다. 성미가 급한가 느린가, 강한가 약한가, 개방적인가 내성적인가, 날카로운가 무딘가 하는 것은 인간의 개성적특징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취미나 관습도 그러하지만 성미는 보다 공고하고 좀체로 변하지 않는다.

장편소설 《석개울의 새봄》에는 성격이 서로 대조되는 세명의 로인들이 등장한다. 조희모는 좀 가볍고 약은 사람이다. 엄대근이는 무섭게 결패가 있는데 작두날에라도 올라설만큼 강하지만 그대신 뒤는 가볍게 풀어지는 사람이다. 마인렬이는 속이 깊고 마뜩지 않은 일에서는 오래동안 속이 풀리지 않는 사람이다. 엄대근이나 조희모 같은 로인들이 빨리 더워지고 빨리 식는 성미라면 마령감은 큰 바다처럼 서서히 더워지고 서서히 식는 성미이다. 이런 기질상대조가 인물들의 성격을 개성적으로 부각시키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성격을 이루는 요소에서 생김새도 중요하다. 물론 생김새는 그 인물의 성격을 규정하는데서 결정적인것은 아니지만 인물의 성격을 독자들앞에 생동하게 안겨주는데서는 놓치지 말아야 할 요소이다.

문학에서 성격은 전형적성격으로 되여야 한다. 전형적성격을 간단히 전형이라고 부른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비록 산인간의 숨결이 느껴오는 성격이라고 하여도 전형으로 되지 못하면 진실로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의의있는 형상으로 될수 없다.》

전형이란 해당한 시대, 해당한 계급의 본질과 민족적특성이 체현된 인물형상을 말한다.

전형은 생동한 개성일뿐아니라 그가 속한 계급, 계층, 그가 사는 시대와 민족의 본질이 일반화되여있는 성격이다. 쉽게 말하여 구체적인

개성이면서도 같은 계급, 같은 시대, 같은 민족에 속한 모든 사람들에게서 볼수 있는 성격이다.

장편소설 《빈터우에서》의 주인공 주용녀는 얼굴모습, 취미, 나이 등에서 다른 사람들과 전혀 다른 개성을 가지고있지만 그의 성격에는 전후 우리 로동계급들에게서 볼수 있는 본질적인 특징이 체현되여있다. 그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뜻을 받들어 빈터우에서 나라를 일떠세운 열렬한 충실성, 자력갱생의 혁명정신 등이다.

전형에는 첫째로, 계급적본질이 체현된다.

사람은 언제나 일정한 계급에 속하여있다. 그러므로 인간성격에서 중요한것은 그의 계급적바탕이다. 로동자라면 아무리 개성적이라고 해도 역시 로동계급으로서 다른 계급의 사람들과 다른 본질적특징을 가지기마련이다.

전형에는 둘째로, 시대적본질이 체현된다.

사람은 언제나 일정한 시대에 살고있다. 때문에 그에게는 그 시대의 특징이 체현된다. 20세기의 사람과 21세기의 사람이 같을수 없다.

전형에는 셋째로, 민족적특성이 체현된다.

사람은 반드시 일정한 민족에 속하여있다. 그러므로 그 민족의 특징을 체현하지 않을수 없다. 같은 로동계급이라 하여도 조선의 로동계급에게는 로씨야나 중국의 로동계급과 구별되는 특성이 있다.

전형에는 긍정적전형과 부정적전형이 있다.

전형을 창조하는 작업을 전형화라고 하고 전형적인것을 반영하는 성질을 전형성이라고 한다.

전형문제, 전형성문제는 심각한 정치적문제이다. 그것은 무엇을 전형으로 보는가에 따라 정치적견해와 립장이 평가되기때문이다.

〔명언〕

믿음과 사랑에는 충성과 의리가 따라야 한다.

김 정 일

어 머 니

내 이제는
다 자란 아이들을 거느리고
어느덧 귀밑머리 희여졌건만
지금도 아이적 목소리로 때없이 찾는
어머니, 어머니가 내게 있어라

기쁠 때도 어머니
괴로울 때도 어머니
반기여도 꾸짖어도 달려가 안기며
천백가지 소원을 다 아뢰고
잊을번 한 잘못까지 다 말하는
이 어머니없이 나는 못살아

놓치면 잃을듯
떨어지면 숨질듯
잠결에도 그 품을 더듬어 찾으면
정겨운 시선은
밤깊도록 내 얼굴에 머물러있고
살뜰한 손길은
날이 밝도록 내 머리를 쓰다듬어주나니
이 어머니 정말
나를 낳아 젖먹여준 그 어머닌가…

내 조용히 눈길을 들어
어머니의 모습을 다시 쳐다보노라
그러면… 아니구나！

이 어머니
나 하나만이 아닌
이 땅우의 수천만 아들딸들을
어엿한 혁명가로 안아키우는
위대한 어머니가 나를 굽어보나니

그 시선 한번 강토에 비끼면
황량하던 페허에도 온갖 꽃이 만발하고
거인의 그 손길 창공을 가리키면
전설속의 천리마 네굽을 안고 나는
아, 이런 어머니를 내 지금껏
아이적 목소리로 불러왔던가
이런 어머니의 크나큰 품이
나의 작은 요람까지 지켜주고있었던가

송구스러워라 이 어머니를
나에게 젖조차 변변히 먹여줄수 없었던
한 시골아낙네의 이름과 나란히 한다는것은
그러나 어이하리
당이여 조선로동당이여
어머니란 이 말보다
그대에게 더 어울리는 뜨거운 말을
이 세상 어느 어머니도
나에게 가르쳐주지 못했거니…

그대는 어머니!
피도 숨결도 다 나누어주고
운명도 미래도 다 맡아안아주며
바람도 비도 죽음까지도
다 막아나서주는 우리들의 어머니
준엄한 싸움길에 하나의 전사 뒤떨어져도
천리길, 만리길을 다시 달려가
붉은기에 휩싸안아 대오에 세워주는
영원한 삶의 품! 혁명의 어머니!

인류력사 백만년에 수억만의 어머니들이
그리도 애달프게 기원하던 아침이
오직 그대의 예지, 그대의 신념
그대 필승불패의 향도를 따라
이 땅우에 찬연히 밝아왔나니

웅석과 어리광만으로야 어찌
그대 사려깊은 눈빛을 마주볼수 있으랴
당이여 어머니시여
그대 현명한 스승의 시선
그대 로숙한 사령관의 안광이
저 멀리 내다보는 미래의 언덕으로
내 걸으리라—
그대 나를 위하여 마음 기울인
그 모든 낮과 밤을 다 안고 걸으리라

무엇을 아끼랴 그 무엇을 서슴으랴
그대 숭엄하고 존엄높은 모습에
한줄기 빛이라도 더해드릴수 있다면
내 불붙는 석탄이 되여
어느 발전소의 화실에 날아들어도 좋아라
그대의 은정 가없이 펼쳐진
저 푸른 이랑들을 더 푸르게 할수만 있다면
내 한줌 거름이 되여
어린 모 한포기를 살찌운들 무슨 한이 있으랴

아, 나의 생명의 시작도 끝도
그 품에만 있는 조선로동당이여
하늘가에 흩어지고 땅에 묻혔다가도
나는 다시 그대 품에 돌아올 그대의 아들!
그대 정겨운 시선, 살뜰한 손길에 몸을 맡기고
나는 영원히 아이적 목소리로 부르고 부르리라—
어머니! 어머니없이 나는 못살아!

(김 철)

승리의 기치따라

혁명연극《승리의 기치따라》는 서장과 종장 그리고 전 6장으로 구성되여있다.

서장은 1952년 가을 전선동부의 어느 한 고지중턱에서 조국의 고지는 나의 고지라고 웨치며 불사신마냥 미제침략군과 싸우는 주인공 강석을 비롯한 영웅전사들의 투쟁모습을 보여주는 속에 연극의 제명을 새기고있다.

제1장은 1952년 12월 어느날 전선동부의 어느 한 사단지휘처이다.

적들의 방대한 무력이 사단전방에 집결되는데 겁을 먹은 사단장 서인호는 최소한 사단력량을 보존하기 위하여 일부 대대, 련대들을 일시 후퇴시켜 방어전연을 좁히려고 한다. 련대장 강석은 이에 강력히 항의하나 서인호는 명령을 하달한다. 때마침 최고사령부에서 부총참모장이 내려와 적들의 무력증강책동에 겁을 먹은 사단장을 질책하고 강철의 령장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 몸소 최전연에까지 나오신 감격적인 소식을 알린다. 한편 이 장면에서 군의 주은경과 전사 박성남의 인물선이 맞물린다. 새로 배치되여온 아름다운 녀군의 주은경은 전사들의 오락회에서 노래를 불러달라는 요청을 거절한다. 강석은 그에게 애국심은 메스끌에만 있는것이 아니라 병사들의 노래속에도 있다고 하면서 마가을의 찬바람처럼 쌀쌀하다고 질책한다. 전사 박성남은 정찰에서 적장교를 생포해오다가 그놈이 내던진 작전가방을 찾아오지 못하여 후방부서로 돌리우게 된다.

제2장은 몇시간후 쏙새골의 어느 한 골짜기이다.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전선을 시찰하시고 이곳에 오시여 1948년도에 만나보시였던 마을세포위원장 박덕삼을 감회깊이 추억하시며 그의 가족인 할머니 김씨와 딸 순애 그리고 아들 박성남을 만나주신다. (박덕삼은 적들에게 희생되였다.)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전쟁승리의 신심을 안겨주시면서 박성남에게 아버지의 원쑤를 갚으라고 손수 기관단총을 수여하신다.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그들의 억센 모습에서 그 어떤 원자탄이나 로케트보다 더 위력한 무기인 인민의 힘을 보시였다. 이윽고 적들의《신공세》를 파탄시키기 위한 작전회의가 열린다.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외국의 군사리론을

교조적으로 대하는 서인호의 패배주의를 엄하게 비판하시고 주체적인 갱도전법과 함께 비행기사냥군조, 땅크습격조, 야간습격조운동을 대대적으로 벌릴데 대한 적극적인 방어전의 방침을 밝혀주신다.

제3장은 몇달후 갱도안이다. 적들이 발악적으로 공격해오지만 전사들은 팔씨름경기도 하고 콩나물과 두부도 먹으면서 락천적으로 살며 싸운다. 중상당한 박성남이 부상자명단에서 빼달라고 조르다가 녀군의 주은경에게서 거절을 당했지만 련대장 강석은 그를 땅크습격조에 망라시킨다. 여기에 철직당하여 전사로 있는 이전 사단장 서인호도 망라된다. 그는 진심으로 자신의 과오를 뉘우치고있었고 련대장 강석이나 하전사들은 그를 진정으로 도와주고있었다. 땅크습격조는 큰 위훈을 세우며 박성남전사는 땅크를 일곱대나 까부시고 중상을 입고 쓰러진다.

제4장은 전장에서 얼마후 최고사령부 집무실이다.(이 부분이 선문교재이다.)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후방에서 보내온 어리신 아드님의 편지를 받아보시며 벌써 나라의 운명과 인민의 행복을 생각하게 되였다고 기쁨을 금치 못해하신다.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전쟁의 최후승리를 내다보시고 평양시복구건설설계도를 더 크게, 더 웅장하게 작성하도록 가르쳐주시며 화학섬유공장 시험공장건설을 당장 시작하도록 대담한 조치를 취해주신다. 한편 전선형편은 급전한다. 정전담판장에서의 양보, 아이젠하워의 호전장군들에 대한 호출, 전 전선에 걸친 배비변경…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적의 기도를 간파하시고 새 작전을 펼치시기 위해 전선으로 나가신다.

제5장은 며칠후 저녁무렵 사단군의소이다.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는 박성남전사를 두고 모두들 안타까와하는 가운데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오시여 치료대책을 세워주신다. 누구도 가망이 없다는 수술을 대담하게 주은경이 맡아나선다.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여기서 작전회의를 열고 반타격전방침을 밝히시며 서인호를 다시 사단장으로 임명하신다. 강석은 385고지를 타고앉을 명령을 받고 온 련대를 강행군으로 진격시킨다.

제6장은 얼마후 무명고지전호가의 전투지휘처이다.

385고지습격전투가 힘겨운 고비에 처한다. 주은경은 385고지전투치료대로 보내줄것을 요청한다. 그는 박성남의 수술을 성공적으로 진행

하면서 위대한 수령님의 뜨거운 인간애에 무한히 감동되였으며 마가을의 찬바람이 열풍으로 되였던것이다. 치렬한 습격전이 시작된다. 강석은 적탄에 중상을 당하고도 포사격을 지휘하고 돌격전의 선두에 선다. 최후의 순간 그는 주은경에게 사랑을 고백하며 전사들에게 뜻깊은 유언을 남긴다.《동무들! 련락병! 내 말을 명심해주오. 태양이 있으면 영원한 광명이 있듯이 우리 장군님만 계시면 조선은 영원히 빛날것이요. 우리 장군님은 승리의 기치요.》

종장은 1953년 7월 **김일성**광장이다.

승리의 열병식을 앞두고 원수복을 입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장령, 군관, 영웅전사들과 함께 박성남전사와 그의 가족들을 만나주신다. 서인호와 주은경도 왔다.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강석이도 함께 왔으면 얼마나 좋았겠는가고 목메여하신다.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정전은 완전한 평화가 아니라고 하시며 한손엔 총을, 다른 한손엔 마치와 낫을 들고 한초도 지체함이 없이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강국을 건설함으로써 조국통일의 대사변을 맞이할 웅대한 지략을 펼쳐주신다. 열병식주석단에 그이께서 오르실 때 막이 내린다.

때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시기 1952년말부터 1953년 7월까지
곳 우리 나라 전선동부

나오는 사람들

강석 인민군 련대장
서인호 인민군 사단장
주은경 사단군의소 상급군의
박성남 인민군 전사(상등병)
배한봉 인민군 전사(하사)
김선화 사단군의소 간호원(상사)
김정걸 인민군 중대장

김 씨 성남의 할머니
순 애 성남의 동생
대대장
류 민 화학연구소 소장
연구소 당위원장
최고사령부 부총참모장
전선사령부 부사령관
부관장
사단군의소 녀군의소장
미군포로(장교)
기타 인민군 장령, 군관, 전사들, 마을사람들

제4장

때 전장에서 얼마후 여름
곳 최고사령부
무대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일을 보시는 집무실이다.
좌측에는 총참모부로 가는 길이 있고 우측에는 밖으로 나오는 문이 있다. 정면에는 큰 작전도가 걸려있고 그옆으로는 창문이 나있다.

무대 밝아지면
△ 깊은 밤이다.
△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작전지도앞에서 깊은 사색에 잠겨계신다.
△ 시계종소리가 새벽 3시를 알린다.
△ 부총참모장이 들어선다.

부총참모장 최고사령관동지, 우리의 갱도전에서 된벼락을 맞은 놈들이 정전담판장에서 우리측 제안을 접수할 기색이라고 합니다.

최고사령관동지 그렇소? 얼마전까지만 해도 평양까지 내주어야 정전을 하겠다고 코대를 쳐들고 교만하게 행동하던 놈들이 양보를 한다? 놈들이 지금 수세에 빠진것만은 사실이요.

부총참모장 얼마전에 놈들의 국회가 열렸는데 싸움을 주장하는 매파보다 정전을 주장하는 비둘기파가 더 우세를 차지했다고 합니

다. 그리고 지금 미국국민들속에서는 조선전쟁에 끌려나간 제 아들들을 돌려보내라고 아우성을 친다고 합니다.

최고사령관동지 그렇소. 때문에 덜레스란자는 조선전쟁을 일으킨것은 백악관의 큰 오산이였다고 비명을 질렀소.

부총참모장 장군님, 새벽 3시가 넘었는데 이제라도 좀 쉬셔야겠습니다.

최고사령관동지 나는 일없소. 전선에서 무슨 변동이 있으면 제때에 보고하시오.

부총참모장 알았습니다.(나간다.)

△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책상을 마주하시고 앉으시여 지도를 펼치신채 사색에 잠기신다.

최고사령관동지 (혼자 말씀으로) 정전담판장에서의 양보라…

△ 먼 우뢰소리가 들린다.

△ 잠시후 꾸레미를 든 부관장이 조심히 들어선다.

최고사령관동지 동무 왜 아직 자지 않고있소?

부관장 방금전에 후방에 있는 학원에서 아드님으로부터 인편에 달래와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최고사령관동지 그렇소?

부관장 예, 며칠전에 여름옷을 가지고 간 호위군관으로부터 장군님께서 요즘 제대로 주무시지 못하시고 식사도 제대로 하시지 못한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장군님께서는 입맛을 잃으셨을 땐 메주장에 달래를 넣고 끓여올리면 식사를 잘하신다고 하시면서 어린 녀동생과 함께 학원에서 멀리 떨어진 발뚝을 찾아다니시며 온종일 달래를 캤다고 합니다.

최고사령관동지 그렇소? (달래를 드시고 향기를 맡으시다가 봉투에서 편지를 꺼내신다. 두장의 편지중에서 한장을 드시고 호탕하게 웃으신다.)
이걸 보오. 우리 경희가 아직 글을 쓸줄 모르니 손을 그려보냈소. 손을 보니 그새 퍽 컸구만. 이 전쟁 3년간에 어지간히 고생들을 했지. 어머니도 없이…

△ 부관장이 오열을 삼킨다.

최고사령관동지 (편지를 부관장에게 주시며) 여기다 뭐라고 썼는지 같이 들어봅시다.

부관장 예.(편지를 받아 읽는다.)

《항상 그리운 아버지에게

아버지, 그동안 안녕하십니까?

가렬한 조국해방전쟁에서 미국양코배기를 때려부시느라고 얼마나 수고하십니까?

…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탁으로서 아버지에게 말씀드릴것은 아버지는 개인의 몸인것이 아니라 전체 조선인민의 수령입니다.

… 아버지께서 건강에 류의하고 항공에 주의하고 항상 몸조심함은 전체 조선인민의 행복이며 또한 우리들의 행복입니다. 아무쪼록 건강에 많이 노력하실것을 멀리서 축복합니다.

1953년 6월 1일

김 정 일 올림》

최고사령관동지 벌써 나라의 운명과 인민의 행복을 생각하게 되였구만!…

△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편지를 드시고 깊은 생각에 잠기신다.

최고사령관동지 부관장동무, 래일 차를 가지고 가서 이리로 데려오시오.

부관장 예? 폭격이 심한데 어떻게? 안전한 곳에 계시는것이…

최고사령관동지 아니요. 큰일을 하자면 이 작전도결에 있어야 하오.

부관장 알았습니다. (나간다.)

△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수화기를 드신다.

최고사령관동지 내각사무국 5호실에 대시오. 밤늦게 불러서 안됐소. 애육원 고아들에게 옷을 해입히는 문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뭐라구? 동무나 나나 다 당원이 아니요. 그렇소. 군대용피복에서라도 떼내여 해입힙시다. 수고하오. (수화기를 놓으신다.)

△ 부관장이 나온다.

부관장 섬유연구소 류민선생과 설계가동무가 도착했습니다.

최고사령관동지 어서 들여보내시오.

부관장 알았습니다.

△ 잠시후 류민과 당위원장이 들어온다.

류 민 장군님, 안녕하십니까?

△ 류민과 당위원장이 인사를 드린다.

△ 부관장 나간다.

최고사령관동지 아, 류민선생, 기다렸습니다. 자, 여기 와서 앉으십시오.

△ 설계가가 들어온다.

설계가 (거수경례하며) 최고사령관동지, 안녕하십니까?

최고사령관동지 동문 아직도 대대장하던 때의 기분이구만.

설계가 군복은 벗었지만 마음의 군복은 벗지 않았습니다.

최고사령관동지 (설계가와 악수를 하시며) 병사의 그 정신이 중요하오. 그래 평양시복구건설설계도를 다 끝냈소?

설계가 그렇습니다.(도면을 앞상우에 펼쳐놓는다.)

최고사령관동지 그럼 어디 봅시다. (도면을 보시다가) 류민선생, 우리 함께 래일을 구상해봅시다. 이리 가까이 오십시오.

△ 모두 책상우의 도면을 바라본다.

최고사령관동지 (주의깊게 도면을 보시며) 여기가 모란봉이요?

설계가 그렇습니다.

최고사령관동지 그리고 여기가 어딘가 하니 본평양역이구.

설계가 그렇습니다.

최고사령관동지 류민선생, 어떻습니까?

류 민 (흥분하여) 지금은 전쟁이 아닙니까? 이런걸 보는것만 해도 꿈만 같습니다.

당위원장 이런 도시가 일어선다면 누가 옛날의 평양이라고 하겠습니까?

최고사령관동지 하지만 나는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일동 예?!

최고사령관동지 지금 평양에는 쓸만 한 건물이라고는 별로 남지 않았는데 무엇때문에 종전의 도시형성에 매달리겠습니까? 우리는 평양을 세계1등급의 웅장화려한 현대적인 도시로 건설해야 합니다. 그런데 모든것이 답답하고 협소하게 되였습니다. 안 그렇소?

설계가 저…사실은…

최고사령관동지 (설계도를 짚으시며) 이 대동강을 따라 대통로를 쭉 뽑고 그 변두리에는 근로자들의 문화주택을 세웁시다. 그리고 대동강에는 철다리 하나뿐만아니라 현대적인 다리를 몇개 더 놓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대통로끝에는 민족적형식을 갖춘 대극장을 일떠세웁시다. 여기가 보통벌이요?

설계가 그렇습니다.

최고사령관동지 토성랑!… 왜놈땐 헐벗고 굶주린 우리 인민이 제일 많이 살았소. 그런데 미국놈들은 여기다 폭탄을 퍼부었소. 우

리는 여기에다가 대운하와 유원지, 고층건물이 꽉 들어찬 인민의 락원을 꾸립시다. 어떻소?

설계가 저희들이 너무 소심하게 생각했습니다. 장군님의 말씀을 듣고보니 래일의 평양의 모습이 눈앞에 선히 떠오릅니다.

최고사령관동지 그래 얼마동안이면 끝낼수 있소?

설계가 저, 두달이면 될것 같습니다.

최고사령관동지 두달이라? 아니요. 우리는 이제부터 조선의 새로운 시간을 창조해야 합니다. 되도록 빨리 설계하시오.

△ 이때 부관장 급히 나온다.

부관장 장군님, 오늘 강석련대에서는 땅크습격전을 벌렸는데 그 전투에서 박성남전사가 적땅크 일곱대를 까부시고 중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최고사령관동지 박성남이면 그 할머니의 손자가 아니요?

부관장 그렇습니다.

최고사령관동지 그래 그가 지금 어떻게 됐소?

부관장 사단군의소에 후송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습격전투에 서인호동무도 참가했다고 합니다.

최고사령관동지 서인호동무도?

부관장 예, 서인호동무는 무사하다고 합니다.

최고사령관동지 강석련대장을 찾아 보고하도록 하시오. 기다리겠소.

부관장 알았습니다.

△ 부관장 나간다.

최고사령관동지 동무들, 열여덟살 난 나어린 전사가 적땅크를 일곱대나 까부시고 중상을 당했습니다. 무엇을 념원해서? 승리한 래일을 믿었던것이요. 승리한 조국의 래일을 위해서 말입니다. (류민에게) 선생님이 하시는 일이 래일을 위한 보람찬 일입니다. 그런데 류민선생이 화학섬유공장 중간시험공장건설을 전쟁이 끝난 다음에 하겠다고 내각에 제기했습니까?

류 민 장군님, 용서해주십시오. 폭탄이 우박치는 이 엄혹한 전쟁시기 벌써 승리한 조국의 래일을 구상하시는 장군님의 불같은 그 기상앞에 머리를 숙입니다. 내 돌아가 당장 중간시험공장건설에 착수하겠습니다.

최고사령관동지 그건 아주 좋은 일입니다. 경지면적이 제한되여있는

우리 나라에서는 화학섬유로 입는 문제를 꼭 풀어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제가 직접 풀어드리겠습니다.

류 민 고맙습니다. 장군님, 건강하십시오.

최고사령관동지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당위원장에게) 선생을 잘 돌봐주십시오.

△ 류민, 당위원장, 설계가 함께 정중히 인사를 올리고 나간다.

△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깊은 사색에 잠겨 천천히 방안을 거니시며 조용히 시를 읊으신다.

최고사령관동지

세계의 정직한 사람들이여！
지도를 펼치라
싸우는 조선을 찾으라
……
폭격에 참새들마저 없어진 조선！

△ 부관장이 나온다.

부관장 강석련대장으로부터 전화입니다. (마이크스위치를 넣는다.)

강석의 목소리 최고사령관동지, 안녕하십니까?

최고사령관동지 강석동무요? 그래 성남이의 부상이 어떻소?

강석의 목소리 성남동무는 아직 혼수상태에 있습니다.

최고사령관동지 혼수상태에 있다?…

강석의 목소리 군의소일군들의 말에 의하면 부상이 너무 심해서 소생할 가능성이 없다고 합니다.

최고사령관동지 소생할 가망이 없다? 아니요. 용감한 사람은 절대로 죽지 않소. 그 동무에게 나의 말을 전하시오. 동무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고, 절대로 죽지 않는다고！

강석의 목소리 알았습니다.

△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수화기를 놓으시고 창밖을 내다보신다.

△ 우뢰가 울고 비방울이 떨어진다.

△ 문건을 든 장령이 들어온다.

부총참모장 최고사령관동지, 정찰국에서 보내온 새로운 자료입니다.

△ 최고사령관동지께서 문건을 받아보신다.

장령1 지금 적들은 최전방부대와 미군 제1, 제2기갑부대를 교체하면서 새로운 기계화부대를 끌어들이고있습니다.

△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깊은 사색에 잠기신다.

최고사령관동지 놈들이 전 전선에 걸쳐 배비변경을 한단 말이지?…

△ 하늘을 가르는 번개, 뒤이어 우뢰소리

부총참모장 장군님, 아이젠하워가 클라크를 비롯한 호전장군들을 워싱톤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최고사령관동지 워싱톤?!

부총참모장 그렇습니다.

최고사령관동지 (천천히 방안을 거니시며) 정전담판장에서의 양보, 아이젠하워의 긴급호출, 전선에서의 배비변경… 하하 (웃으시다가) 이 세가지 사실은 서로 모순되는듯 하면서도 하나의 결론을 주고있습니다. (지도를 보시다가) 전선으로 떠납시다.

△ 번개가 치고 우뢰가 운다.

부관장 지금 밖에서는 소낙비가 억수로 쏟아지고있습니다.

최고사령관동지 우리가 언제 편안한 길을 걸었소? 작전회의는 전선에서 합시다.

부총참모장 알았습니다.

△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움직일 때 무대 전환한다.

△ 사품치는 강물

△ 철교우로 최고사령관동지께서 타신 승용차가 달린다.

△ 번개가 일고 우뢰가 운다.

△ 설화가 울린다.

설화 아, 비는 내리고 포성은 울부짖는데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시고 준엄한 전선길을 가시는 위대한 수령님. 항일의 피어린 혈전의 길을 이어오신 위대한 수령님의 거룩한 자욱은 그 얼마였던가, 몇천몇만리였던가.

△ 설화가 끝나며 무대 어두워진다.

〔명언〕

신념의 뿌리에서 솟아난 충실성만이 절대적인 충실성으로 될수 있다.

김 정 일

영원한 우리 수령 김일성동지

《영원한 우리 수령 **김일성**동지》는 김만영이 1995년 6월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서거 1돐에 즈음하여 창작한 서사시이다.

서사시는 머리시와 3개의 장으로 구성되여있다.

머리시에서는 시인이 이 땅이 생겨 가장 슬프던 그 나날의 갈피갈피를 다시 번지는것을 용서해달라고 하면서도 어버이수령님께로 달리는 마음을 그 무엇으로도 잠재울길 없어 심장의 가리킴대로 그리움의 붓을 달리는 끝없는 격정을 토로하고있다.

1장은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끝없는 그리움속에 흘러간 지나간 한해의 추억에 바쳐지고있다. 그리움의 노를 저어 피눈물의 대하를 거슬러올라 어버이수령님을 떠나보내던 비애의 기슭 금수산기념궁전(당시)앞에 선 시인은 그 무슨 기적인듯 수령님께서 여전히 살아계시는듯 한 환상에 사로잡힌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과연 그 어떤 기적이 세계를 휩쓴 눈물의 홍수를 가시며 그 어떤 천지조화가 그 거대한 상실의 공간을 메울것인가.

조기에 가리워 하늘이 보이지 않았다
눈물에 가리워 땅이 보이지 않았다
태양도 빛을 거두었고
지구도 운동을 멈추었다

세계는 더 깊이
수령님 지니신
심장의 무게를 알았나니
그것은

만민이 안겨사는
지구의 무게
정의와 진리의 무게
시대와 력사의 무게

시인은 계속하여 어버이수령님을 끝없이 그리워하시며 여기에 수령님을 영생의 모습으로 길이 모실 주체의 최고성지를 꾸리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의 가슴뜨거운 충정의 세계를 노래하였다. 참으로 어버이수령님의 서거후 지나간 한해는 위대한 인간, 위대한 수령이 천만년 세월과 함께 어떻게 영생하는가를 세계앞에 참된 진리로 보여준 불멸의 한해였던것이다.

2장은 어버이수령님께서 한평생 쌓으신 불멸의 업적과 한없이 고매한 풍모에 대한 열렬한 칭송에 바쳐지고있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이 세상 처음으로 주인없던 세계에 주인을 내세우는 거룩한 빛을 창조하여 누리에 가득 뿌려주시였으며 그 빛으로 인민에게서 노예의 사슬을 벗겨주시고 인민이 제일로 살기 좋은 우리 식 사회주의를 세워주시였다. 시인은 주체의 붉은기를 높이 들고 수령님께서 열어놓으신 새 력사의 길을 소리높이 구가하면서 그 길의 진두에 위대한 후계자를 내세워주신 불멸의 업적을 격정적으로 칭송하고있다.

영원히 빛난다
이 세기를
21세기—**김정일**세기로 이어놓으신
불멸의 그 위업은
세기와 세기를 넘어 영원히 빛난다

계속하여 시인은 어버이수령님의 인간상을 감명깊은 생활적형상속에 펼쳐보이고있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말그대로 하늘이 낸 위인이시였지만 인민과 더불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보통인간으로 남아있기를 원하시였다. 절세의 애국자, 만고의 영웅, 백전로장이시기 전에 먼저 인간이시였기에 인민을 두고 근심도 많으셨고 동지의 아픔을 두고 눈물도 많으셨다. 어버이수령님은 모든것을 인민에게 고스란히 넘겨주시고 그렇듯 겸허하게, 그리도 소박하게 한생을 사신분이시다.

나는 모른다
우리 수령님처럼 인민을 위해
그렇게 불같이 사시다
그렇게 불같이 가신분을
그렇게 생을 깨끗이 마무리하고 간
그런 위대한 인간을

하기에 시인은 한생에 이룩하신 업적이 너무도 크고 위대하기에 이 땅엔 어버이수령님 탄생하신 날만 있고 어버이수령님 가신 날은 없다고 격동적으로 웨치고있다.

3장은 비애의 바다에서 우리 인민을 일어서게 해주시고 어버이수령님을 영생의 모습으로 모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의 숭고한 도덕의리의 세계를 열정적으로 구가하는데 바쳐지고있다.(이 부분이 선문교재이다.)

우리 인민이 슬픔의 눈물을 맹세의 불길로 태우며 꿋꿋이 머리들고 일어설수 있게 해주신분은 오로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이시였다.

서사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은 곧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이심을 노래하면서 어버이수령님은 우리 인민의 영원한 수령으로 영생하리라는 장엄한 송축의 찬가로 끝맺고있다.

서사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을 영원히 높이 모시고 따를 우리 인민의 불타는 마음을 깊은 철학적사색과 풍만한 예술적환상속에서 훌륭히 시화하였으며 고도로 집약화된 예술적구성과 세련된 언어형상, 그리움의 정서를 타고 굽이치는 서정적흐름우에 인상적인 서사적묘사를 적절히 배합한 예술적성과로 하여 현대조선시문학사에 뚜렷한 리정표를 아로새긴 뛰여난 명작으로 되였다.

……

×　　×

오오, 성스러운 땅
주체의 최고성지여
내 여기에 서니
우주의 한끝이 다 보여오고
억만 심장의 박동소리가 다 들려오누나

나는 보노라
끝없이 찾아오는 사람들의 물결
신념으로 억세여지고
의리로 고결하고
한생의 맹세로 불타는
순결한 그 가슴들을

락관에 넘친
우리의 로동계급과 협동농민
지식인들과 청년들
일당백병사들과 씩씩한 우리 아이들

어떻게 이 사람들이
슬픔의 눈물을
맹세의 불길로 태우며
비애의 바다에서 일어섰던가

하늘도 무겁게 내려앉고
소낙비도 무겁게 쏟아지고
가슴도 눈물도 무거워
머리를 들수 없었던 그날

할 말을 잊었던 그날
눈물만이 말하던 그날

그 어떤 거대한 힘이
온 나라 수천만을
꿋꿋이 머리들고 일어서게 했던가

엄숙한 추도대회가 거행되던
김일성광장 주석단의 한복판
천만 눈길이 합쳐지던 거기
세계의 초점이 모여지던 거기

거기엔
백두의 근엄한 모습으로
위대한 그이께서 서계시였나니
그이는
우리의 령도자 **김정일**동지！

그 순간
우리는
빛에 이끌려
힘에 이끌려
일제히 머리들어 바라보았다

그이도 역시
검은 옷을 입으시고
무거운 마음을 안으신채
말없이 서계시였다

슬픔이면
이 세상 가장 큰 슬픔을 안으셨고
아픔이면
이 세상 가장 큰 아픔을 당하시였건만
신념과 의지로 확신에 넘치신
그이를 바라보았다

막혔던 물목이 터져
노도치는 대하인양
지각을 뚫고 솟는 화산의 분출인양
가슴에 솟구치는 새로운 힘과 신심을 안고
우리는 그이를 우러렀나니

그이도 우리를 바라보고계셨다
수령을 잃고
어버이를 잃고 슬피우는 인민
수령님 한생 바쳐 키워놓으신
우리 인민을 바라보시였다

그이는 한마디 말씀이 없으시였으나
우리는 다 들었어라
우리 심장의 고동소리처럼
그이 심중의 말씀을

백년이 가도
천년이 가도
대대손손 수령님을 높이 모시고
혁명도 건설도 그 모든 투쟁도
수령님식대로 하리라는 그 말씀

사회주의조선의 시조는
위대한 수령님이시라고
우리 민족은 **김일성**민족이라고
절절히 하시는 그 말씀

우리는 또 들었어라
위대한 수령님의 전사
위대한 수령님의 제자답게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며
한마음한뜻으로 힘차게 일해나가자는
그이의 간곡한 그 말씀

우리는 다 듣고 다 알았나니
수령님업적을 100프로 계승하시고
100프로 고수해나가시는
그이의 그 억척같은 의지를
수령님의 유훈을 받들어
주체의 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실
그이의 그 불같은 맹세를

그 맹세
그 결심에서
이 땅에 영원한 신념의 구호가
높이 울리지 않았던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그 맹세
그 결심에서
세계의 마음들이 달려오는 여기
금수산기념궁전
주체의 최고성지가
행운의 이해에
높이 솟아 빛나지 않느냐

인민들과 함께 있어야
제일 좋아하시고
제일 편안해하시고
인민들과 함께 있는것을
세상 제일 큰 락으로 아신
수령님이시기에

수령님과 함께 있어야
제일 기쁘고
제일 즐겁고
수령님과 함께 있는것을
세상에서 제일 큰 행복으로 아는
인민이기에

수령님의 그 소원
인민의 그 념원을 담아
주체의 최고성지 여기에 펼쳐
수령님과 인민이
영원히 함께 있게 하신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

나는 아노라
수령님의 생각
수령님의 마음이자
친애하는 그이의 생각이고 마음임을
그이의 마음이자
우리 인민의 마음임을

인민때문에
수령님과 밤도 같이 지새셨고
인민때문에
새벽길도 같이 걸으셨고
찬비도 같이 맞으신
친애하는 그이

두분이 함께 기뻐하시고
두분이 함께 피로와하셨다면
그것은
다 인민때문이였나니

아, 그래서
수령님과 친애하는 그이사이에
마지막으로 오고간 전화도
인민을 두고
인민을 위해 하신 전화가 아니였던가!

사상도 인민을 위한 그 사상
령도도 인민을 위한 그 령도
풍모도 인민을 위한 그 풍모를
그대로 지니시고 구현해나가시는
인민의 령도자

—나에게서 그 어떤 변화를 바라지 말라
  모든것을 수령님 가르치심대로
  모든것을 수령님식대로
  모든것을 이 세상 모든것을
  오로지 수령님을 위하여!

아, 이것이
력사의 조종간을 틀어쥐신
위대한 그이의
정치철학
정치방식
정치신념

세계는
력사가 알지 못하던
위대한 인간을 보았고
위대한 혁명가를 보았고
위대한 령도자를 보았다

그 고결한 풍모
그 위대한 도덕으로 하여

그이는 수령님을 잃어
멈추어섰던 이 행성을
다시 돌리신 유일한분

위대한 주체의 빛으로
력사의 진로를 밝히시며
수령님의 위업을 빛내가시는
김정일동지는 **김일성**동지！

친애하는 그이의 숭고한 뜻에 받들려
이 땅에 솟아오른
주체의 최고성지는
의리의 절정
도덕의 절정
충효의 절정

그 절정우에
우리 수령님
생전의 모습으로 영생하시며
오늘도 여기에 계신다
인민들과 함께 여기에 계신다

여기에 계신다
여기에 계시며
인민들을 만나시여
해야 할 일을 의논해주시고
가야 할 길을 가리켜주신다

여기에 계시며
혁명의 붉은기를 높이 들고 나아가는
일심의 대오에
투쟁의 노래를 주시고
영원한 승리를 주신다

이 땅의 한끝에서 한끝까지
지구의 한끝에서 한끝까지
태양의 미소로 축복하시며
붉은기가 지구를 덮을
자주의 먼먼 미래를 열어주시나니

김정일동지
그이 계시여
수령님은 오늘도
인류의 심장에 고동을 주시며
새 세기를 향해 걸어가신다

부러워하라 세계여
위대한 두분을 함께 모시고
격동의 시대에 태여나
수령복을 누리며
한껏 긍지와 환희를 안고 살아온
영광에 찬 우리의 삶을 부러워하라

백년 세월이 흐르고
천년 세대가 바뀌여도
수령님은 우리 인민의 영원한 어버이
우리 인민의 영원한 수령

아, 주체의 최고성지
여기서 인류는 보리라
후대들은 보리라
백전백승하는 우리 당의 모습과 함께
무궁번영하는 우리 조국의 모습과 함께
수령님의 영생의 모습을 보리라!
영원한 태양을 보리라!

갑오농민전쟁

《갑오농민전쟁》은 작가 박태원이 1976년부터 1986년사이에 창작한 장편력사소설이다.

박태원(1909-1986)은 서울에서 출생하였다. 그의 아버지가 약국을 경영하였던 관계로 박태원은 별로 어렵지 않게 보통학교와 중학교를 다니였으며 그후 일본에 건너가 법정대학 영문과에 입학하였다. 그러나 중학교시절부터 문학에 뜻을 두고 많은 책을 읽은 그에게 있어서 법정대학의 영문과는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리하여 그는 입학한지 1년만에 대학을 중퇴하고 서울로 돌아와 창작생활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 시기에 창작된 그의 작품들은 프로레타리아문학의 세계에서 멀리 뒤떨어져있었다.

해방후 그는《삼국연의》,《서유기》등을 번역하는 한편 주로 력사물주제의 소설을 창작하였다.

박태원에게 있어서 진정한 창작의 길은 그가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시기 서울이 해방되여 어버이수령님의 품에 안기게 된 이후부터 활짝 열려지게 되였다.

박태원은 어버이수령님의 크나큰 믿음과 사랑에 의하여 전쟁기간에 문화선전성 간부학교를 졸업하고 종군작가로 활동하였다. 전후에는 극장과 중앙방송위원회 전속작가로 있으면서 많은 작품을 창작하였다.

박태원은 생의 말기에 시력완전상실과 전신마비로 침상에서 일어날 수 없는 몸이였지만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 베풀어주신 크나큰 사랑과 믿음을 받아안고 초인간적인 힘과 의지로 작품을 창작하였다.

장편소설 《갑오농민전쟁》 1, 2부는 박태원자신이 창작하였고 3부는 그가 채 쓰지 못한것을 그가 사망한 다음 그의 안해 권영희가 완성하여 발표하였다.

소설은 1894년 전라남도지방을 중심으로 일어난 농민봉기를 기본사건으로 하고 이 갑오농민전쟁의 전 과정을 3부에 걸치는 대화폭으로

펼쳐보인 대작이다.

1부는 1892년 겨울부터 1893년 겨울까지 고부군 양교리와 서울을 무대로 하여 주인공 오상민의 성장과정과 농민전쟁폭발전야의 복잡한 사회력사적환경을 펼쳐보이고있다.

오상민을 비롯한 농민들은 악질적인 량반토호인 리진사와 관리놈들의 착취밑에서 극도로 빈한한 생활고에 시달린다. 그는 갑신정변때 개화파를 도와 싸우다 희생된것으로 알고있는 아버지 오수동의 8년제사를 차리다가 뜻밖에 그가 살아있으며 새로운 싸움준비를 갖추고 집으로 내려온다는 반가운 소식을 듣는다. 한편 충청도 보은에서는 동학도들의 모임이 열리고 여기서 전봉준이 《척왜척양》, 《보국안민》의 구호를 내놓고 외적에게 나라를 팔며 인민들을 못살게 구는 량반토호들을 반대하여 일떠설것을 열렬히 호소한다. 전봉준은 곧 서울에 올라가 오수동, 정한순을 만나 함께 싸울것을 약속하고 사람들을 모아 싸움준비를 다그친다. 새로 부임한 고부군수 조병갑의 악독한 수탈만행은 농민들의 분노를 자아낸다. 더우기 고부백성들의 생사가 달려있는 청원서를 가지고 전주감영에 간 전봉준의 아버지 전창혁로인이 감사놈과 조병갑놈의 악형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자 더는 참을수 없는 상태에서 전봉준의 격문이 발표된다.

2부는 고부민란으로부터 전주입성까지의 농민봉기군의 투쟁을 폭넓게 그리고있다. 농민봉기군이 들고일어나자 조병갑은 줄행랑을 치고 리진사도 도망친다. 오상민은 리진사놈의 고간을 부시고 쌀과 천을 농민들에게 나누어준다. 봉기군은 종문서, 땅문서, 빚문서들을 모조리 불태우고 무기고를 열어 무장을 갖춘다.

그러나 농민봉기군의 투쟁은 처음부터 시련에 부닥친다. 약속대로 린접고을들에서 함께 일어나지 못하고 대오안에서 동요가 생기자 전봉준은 일시 대오를 분산시키고 오상민, 렴동이 등의 총포대, 창검대는 선운사에 들어가 훈련하게 한다. 왕의 명령에 따라 고부안핵사로 파견되여온 리용태에 의해 봉기군과 그 가족들에 대한 치떨리는 살륙만행이 벌어진다.

1894년 3월 28일 분격한 농민들앞에서 전봉준은 호남창의소의 명

의로 된 창의문과 격문을 발표하고 다시 투쟁의 봉화를 든다. 오상민을 비롯한 농민봉기군은 태인관가를 치고 악질관료들을 처단하며 무기고를 털고 옥문을 열어제낀다. 당황망조한 조정에서는 량호초토사 홍계훈을 파견하여 농민봉기군을《토벌》하게 한다. 봉기군은 전봉준의 능숙한 지휘밑에 백산전투와 황토현전투, 장성전투들에서 관군을 격파하고 드디여 전라도 전주성에 보무당당히 입성한다.

3부는 농민봉기군의 그후 운명을 보여준다. 봉건국왕 리형은 농민봉기군을 진압하기 위하여 외국에 군대를 요청하는 매국적음모를 꾸민다. 이에 따라 조선강점과 출병의 기회를 노리고있던 청나라와 일본의 군대가 우리 나라에 기여든다. 힘겨운 상태에서 량반출신의 지도자였던 전봉준은 원쑤들의 기만적인 화의협상에 동의하여 전주에서 회담을 하고 농민봉기군을 헤쳐버린다.

그러자 외래침략자들은 나라의 국권을 빼앗기 위한 파렴치한 요구를 제기하며 부패무능한 봉건통치배들은 나라를 위기에 몰아넣는《폐정개혁》을 실시한다.

국권을 위기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다시 농민봉기가 일어난다. 전봉준은 10만대군을 거느리고 공주에로의 진격의 길에 오른다. 이 진군길에서 농민봉기군의 두령의 한사람인 오수동이 적탄을 몸으로 막아 전봉준을 구원하고 최후를 마친다. 선문교재는 이 장면을 보여주고있다.

농민봉기군은 공주대격전에서 실패할 때까지 영웅적투쟁을 벌린다. 싸움끝에 전봉준은 체포되고 봉기는 진압된다.

작품은 실재한 력사적사실에 의거하여 갑오농민전쟁의 방대한 화폭을 진실하게 펼쳐보이면서 력사의 주체는 인민대중이며 그들이야말로 참다운 애국자라는 진리를 밝혀주었다. 특히 그들의 실패요인에 대한 예술적일반화를 통하여 인민대중의 정의로운 투쟁은 옳바른 지도자를 내세울 때 승리할수 있으며 민족적 및 계급적원쑤들과는 추호도 타협하지 말아야 한다는 력사의 교훈을 보여주었다.

12. 오수동의 전사

……

한편 전봉준은 서울로의 북상을 앞두고 일을 의논하기 위해 두령들과 함께 대도소에 모여있었다.

이 자리에는 며칠전에 농민군진영으로 투항해온 유도수령인 동학농민군 토벌대장 리유상도 자리를 같이하고있었다.

전봉준이 막 입을 열어 이야기를 시작하려 하는데 문밖에 발소리 들리더니 몹시 황황해하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대장어른! 어떤자가 와서 만나뵙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옆에 앉아있던 오수동이 밖을 내다보며 물었다.

《무슨 일이요?》

그 군사는 오수동앞으로 가까이 와서며 눈이 둥그래서 사연을 보고하였다.

《글쎄 키가 구척같고 무섭게 생긴자가 큰 칼을 뽑아들고 와서 다짜고짜 전대장을 만나겠다면서 누구냐 물어도 대답이 없소오이다. 어떻게 할가요?》

전봉준은 한번 가볍게 웃고나서 조용히 일렀다.

《어떻게 하다니, 들여보내시오!》

오수동이 전봉준을 보고

《내가 먼저 만나서는 안되겠소?》

하고 걱정스러워하니 전봉준은 껄껄 웃으며 손을 저었다.

《나를 만나러 온 손을 오두령이 만날 법이 어디 있겠소? 내 만나리다.》

잠시후 밖으로 나갔던 군사가 다시 들어와 아뢰였다.

《여기 손님이 오셨소오이다.》

낯모를 사나이가 문앞으로 다가와 섰다. 보니 과연 키는 구척같고 얼굴은 주칠을 한듯 붉은데 횡포한 얼굴에 긴칼을 딱 짚고 서서 전봉준을 노려보았다.

방안의 두령들은 모두 숨을 죽이고 바라보았다.

전대장이 조용히 마루끝에 나와서며

《내가 전봉준이거니와 그편은 뉘시온지 어서 이리 올라오시오.》

하고 맞아들였다.

대답도 없이 방안에 들어온 그는 둘러앉은 두령들을 도끼눈을 해가지고 무섭게 노려보고나서 전봉준쪽으로 홱 돌아서며

《내 그대에게 조용히 할 말이 있으니 좌우를 물리쳐주겠소?》

하고 마치 명령이라도 하듯 하였다. 장검을 뽑아들고 서있는 그의 얼굴에는 횡포한 빛과 살기가 가득 어려있었다.

그러나 전봉준은 조금도 사색을 변치 않고 온화한 말씨로

《어려울게 있소, 그리하오.》

하고는 방안의 두령들을 보고 말했다.

《모두 들으셨지요. 물러들 가 계시다가 다시 모이도록 하십시다.》

그러나 서로 마주 바라볼뿐 자리를 뜨려고 하지 않았다. 그들은 모두 칼을 뽑아든 괴한과 자리를 같이한 대장을 두어두고 나가기를 꺼려하는 눈치였다. 두령들중에는 칼자루를 지그시 당겨잡는 사람조차 있었다.

이것을 눈치챈 전봉준이 목청을 가다듬어 그들을 꾸짖었다.

《왜들 나가지 않으시오! 내 이미 저 손에게 좌우를 물리기를 허락하였거니 어서들 물러가시오!》

두령들이 다 나간 다음 전봉준이 그 괴한을 향해 조용히 입을 열었다.

《이제는 아무도 없소. 조용히 하실 말씀이란 무엇이요?》

하는데 그 사나이 그 말에는 대답없이 별안간 몸을 홱 틀며 한곳을 쏘아보는것이였다.

전봉준은 의아해서 그가 눈을 주고있는 곳을 바라보았다.

방 웃목에 쳐놓은 백포장이 팔락팔락 움직이고있었다.

전봉준은 싱긋이 웃고 몸을 일어 웃목으로 걸어가서 백포장의 한끝을 쥐고 홱 채여 한옆으로 밀어붙이고 자리에 돌아왔다.

《자객의 매복은 없소이다. 그래 무슨 일로…》

《내 이 칼을 네 목에 시험해보러 왔다.》

그 사나이 별안간 칼을 쑥 뽑아들고 전봉준에게로 달려들었다.

아주 위험한 순간이였다.

칼이 바야흐로 전봉준의 어깨에 내려지려는 순간이였다.

전봉준이 몸을 날려 괴한에게로 번개처럼 달려들어가며 주먹을 한번 휘둘렀다. 한순간에 괴한은 나가넘어지고 그의 칼은 쟁그랑소리를 내고 전봉준의 등뒤에 가 떨어졌다.

전봉준은 괴한에게 칼을 집어주었다.

《하하하, 칼을 시험해보겠다니. 뭐 내 목에는 칼이 안 드는가 하

오? 이 조꼬만 사나이의 목은 아주 손쉽게 베여질게요.》

잠시 말을 끊었다가 아직도 씩씩거리며 서있는 피한에게 전봉준은 웃으며 자리를 권하였다.

《자, 앉으시오. 까닭없이 오셨겠소? 오신 연유부터 들어봅시다.》

거듭 앉기를 권하는데 그는 시종 전봉준에게서 눈을 떼지 않고 선채 지켜보았다.

체소하면서도 호방하고 담력있으며 그 준수한 얼굴에 빨아들이는듯한 눈, 말이 적고 조용하면서도 사람을 위압하는 름름한 기풍에 그는 어린듯 취한듯 눈을 떼지 못했다.

한동안 그 사나이를 올려다보며 앉아있던 전봉준은 웃으며

《이 사람의 손님대접이 아무래도 소홀한 모양이오그려. 말씀이 없으신걸 보니…》

하였다.

이때 별안간 그 사나이 쥐고있던 칼을 땅에 내던지고 고개를 떨구었다.

《소제를 용서하소서. 이 몸은 선생께 큰 죄를 지었도소이다.》

전봉준이 급히 그를 만류하였다.

《어째 이러시오? 그대 단신으로 찾아온 담력을 보니 그나름의 장한 뜻 있을듯 한데, 예로부터 의는 통한다 했거늘 서로의 오해는 걷힐수 있다고 믿어 내 끝내 말씀을 듣자 하오.》

하니 그 사나이는 자기는 려산부사 겸 후영 영장 김윤식이란 사람으로서 농민군 토벌대장의 임무를 받고 군사를 거느려 동학농민군을 토벌코저 하던중 호남일대의 천병만마가 려산지경을 짓쳐 들어오는것을 보니 몇천의 자기 군사로써는 창해의 일속이라 감히 생심키 어려워 농민군진중에 들어와 전대장을 한번 만나보고 좌우를 결정하려 하렸다 하며 이렇게 말했다.

《소제 선생의 큰뜻을 알지 못하고 감히… 그러나 오늘 한번 만나뵈오매 저의 의혹은 풀렸도소이다. 선생의 하해같은 아량으로 저의 죄를 용서하소서.》

《무슨 말씀이시오. 형장이 잘못을 알았을 때는 이미 용서를 받은것인데 구태여… 하하…》

하고 전봉준이 말하니 그는 말했다.

《소제 오늘 장군을 뵈오니 마치 운무를 헤치고 밝은 하늘을 보는

듯싶소이다. 저의 밝지 못한 소행을 용서하시고 저를 부디 선생의 휘하에 거두어주소서！》

전봉준은 웃으며 말했다.

《나는 이미 그대를 맞아들이였소이다. 항자수대(항복한자는 대접한다.)는 우리가 내세운 기치고 또 래자불거란 말도 있지 않소이까？ 나는 찾아오는이를 거절하지 않소이다. 하물며 이 어려운 때 뜻을 같이하려는 사람이 아니겠소이까？》

하니 김윤식은 전봉준앞에 깊이 머리숙여 절하며

《소제 있는 힘을 다하여 선생의 뜻을 받들고저 하나이다.》

하고 말하였다.

전봉준은 급히 그를 붙잡아일으켰다.

《사나이 나서 한번 하고싶은 일을 하다가 죽기 바랄뿐이요. 함께 싸웁시다.》

그리고는 크게 한번 웃고나서

《그런데 그 칼의 시험은 언제 또 하시려오? 차력장사로 이름높은 그대의 장검아래 내 오늘 목이 떨어지는줄 알고 간이 콩알만 했댔소.》

하고 말하니 김윤식은 어줍게 웃으며

《선생에게 그런 기색은 조금도 없었소이다. 오히려 차력장사인 몸이 선생의 눈에 빨려들어가버리는듯 했소이다.》 하고 첫인상과는 달리 허심하게 자기 심정을 토로하였다.

《그런데 참, 김윤식이 차력장사란 말은 뉘게서 들으셨소이까?》

《내 다 들어 알고있소. 유도수령 리유상에게서… 그는 지금 예 와있소.》

김윤식이 좀 놀라며 물었다.

《그도 예 와있소이까?》

그들 둘은 서로 뜨겁게 손을 잡았다.

전봉준은 마침내 10만대군을 량로로 나누어 진군의 길에 올랐다.

기치창검이 숲을 이룬 농민군대렬이 원쑤들을 쓸어눕힐 투지를 안고 성난 파도처럼 흘러간다. 장강처럼, 대하처럼 도도히 굽이쳐 흘러간다.

길군악소리 요란히 울리는 가운데 농민군들 소리를 합쳐 병정가를 부른다.

우리 군사 나간다
왜놈치러 나간다
저벅저벅 나간다
왈랑절랑 나간다

일출산 월출산에
해도 뜨고 달도 뜨고
만고상청 푸른 숲에
갈가마귀 우짖는데

까막들이 고개밑에
울고있는 적병들아
우리 병정 나간다
살바람처럼 나간다

농민군들의 대렬이 마을앞을 지날 때마다 사람들이 달려나와 이 장한 모습을 지켜보며 잘 싸우라고 지팽이를 흔드는 늙은이도 있고 눈물을 흘리는 아낙네들 그리고 좋아라 손벽을 치는 아이들도 있어 주변은 인산인해를 이루군 하였다.

전봉준이 맨앞에서 말타고 가고 그 바로 뒤로 대렬옆에 오수동이 말우에 앉아가고있었다.

구름 한점 없는 하늘에 가을해 쟁그럽게 내리쏟아붓는 맑은 날씨였다.

취타소리도 노래소리도 잠시 멎고 조용한데 대렬속에서 《아저씨！—》 하는 애녀석의 목소리에 오수동이 돌아다보았다. 길남이였다.

그는 짐짓 엄한 얼굴을 지었다.

《이녀석！ 너 대장님 아시면 어쩌려구 대오속에서 마구 뛰여나오느냐?》

길남이는 해죽해죽 웃으며 한껏 음성을 낮추어

《그러기에 가만가만 말할랍니다.

저것 좀 보세요. 저 산이요. 어쩌면 저렇게 고와요.》

하고 한곳을 가리키는데 그가 손을 들어 가리키는 곳에는 가을단장을 한 갖가지 수목들이 울긋불긋 마치 비단장막을 두른듯 하였다.

《이녀석！ 네 눈에도 고운게 알리느냐? 하하…》

하고 오수동이 웃으니 길남이도 손바닥으로 입을 가리고 키득키득

한다.

《아저씨, 아저씨. 저것, 저것 좀 보세요. 저 큰 나무가지에서 락엽이 무수히 떨어져내리더니 도로 훌쩍 올라가 가지에 붙네요.》

《에 이놈! 그따위 허튼소리 하면 이따 쉴참에 볼기 맞는다!》

하는데 길남이 제법 의젓하게 설명한다.

《새들이 무리로 내려앉았다가 도루 올라가앉는게 꼭 그런것 같네요. 그리구 저 큰 나무는 대체 몇백년이나 자랐기에 저렇게 클가요? 아저씨, 저 나무는 숱한것을 보아왔겠지요? 오늘 우리 농민군의 이 장한 모습도 보고요.》

과연 그 나무는 적어도 오륙백년 자랐을듯싶은데 한그루가 한개의 작은 뫼봉우리만 하게 보였다.

그러나 오수동은 짐짓 엄한 얼굴을 하고

《하아— 이녀석 안되겠다? 네 입에다 함우를 물려야겠다. 재잴거리지 못하게.》

《함우가 무언데요?》

《그건 군사가 은밀히 행군할 때 말 못하게 하느라 입에다 물리던 나무토막이다.》

길남은 아랑곳없이 말우의 오수동을 시무룩히 올려다보며 말했다.

《아저씨, 나는 기운이 없어요.》

뜻밖의 그의 태도에 의아해진 오수동이

《그건 왜?》 하고 물으니 길남이 제 등에 멘 칼을 손으로 툭 치며

《나두 이 칼이 아니라 총을 메고싶어서요.》

하고 고개를 툭 떨군다. 오수동은 어이없어하며 웃었다.

《이녀석, 네가 총을 가지면 어떻고 칼을 가지면 어때서…》

이 말에 길남이 고개를 번쩍 쳐들고 오수동을 올롱한 눈으로 바라보며 야무지게 말했다.

《아저씨도 참, 나도 전번 장성싸움에서 총 가지고 싸웠잖아요.》

《응, 그랬던가? 그럼 공주에 가서 싸움이 시작되건 네 그 칼로 한놈 썽둥 베고 그놈의 총을 빼앗으면 되지 뭐.》

길남이 원망스러운듯 오수동을 올려다본다. 오수동은 그 모양을 굽어보다가

《애, 이놈아! 너 목 부러지겠다. 아저씨 올려다보느라 하하…》

하고 문득 팔을 늘여 나이에 비해 키가 작은 길남이를 번쩍 들어

말에 올려앉혔다.

《싫어요. 아저씨, 대장님 보시면 어쩌려구요?》

길남이 어린애 취급받는게 싫어 기어이 말에서 내리려 하였으나 오수동은 그 억센 팔로 꽉 부여안고 히뭇이 웃을뿐이였다.

그들이 전라도와 충청도의 경계인 려산지계를 가고있을 때였다. 홀연 한방의 총성이 울리고 전면에서 북소리가 둥둥둥 울리고 함성이 진동하더니 티끌이 보얗게 일며 총포탄과 시석이 비발치듯 날아왔다.

《길을 열어주고 삼면에 매복하였다가 쳐들어온 다음 포위를 좁히고 치라!》

전대장의 웨침소리였다.

그러나 이것은 뜻밖의 정황이라 농민군은 오히려 삼면포위에 들어 만들어놓은 함정안에 빠진것이나 다름없었다.

오수동은 길남이를 데리고 높은 언덕에 올라붙어 나무뒤에 몸을 숨기고 적들을 쏘아눕히고있었다.

원래 명포수인데다가 또 자리를 잡고 한곳에 앉아 쏘는 총이라 그의 시야속에 들어온 원쑤는 놓치는 법 없이 백발명중하였다.

《길남아! 너는 싸울 생각 말고 저 말이나 잘 보고있거라. 그리고 아저씨가 쏘는것이나 구경해. 눈에 익혔다가 총 가지거든 싸우게…》

옆에 있는 길남이에게 롱을 하면서도 연해연방 한놈씩 놈들을 쏘아눕히는데 신이 나서 길남이 어깨를 으쓱으쓱하며 소리내여 웨친다.

《울 아저씨 잘한다, 잘한다! 이놈들!》

이렇게 한창 싸울 때 놈들의 진중에서 홀지에 둥둥 두번 북소리 울리더니 살아남은 군사들 뿔뿔이 헤쳐져 어지러이 달아났다. 이윽하여 농민군진영에서도 징을 울려 군사들을 거두게 하였다.

길남이 말을 끌고 오수동이곁으로 달려오며 소리쳤다.

《아저씨, 아저씨는 정말 명포수예요. 어떻게 그렇게 잘 쏘시나요?》

그러다가 정작 코앞에 다가와서는 아까 그 투정을 계속하는것이였다.

《나두 총이 있었더면…》

오수동은 그 투정이 밉지 않아 이렇게 위안하였다.

《네 총이 이젠 생겼다. 이따 대장님이 전리품을 나누어주실 때 네게도…》

허나 길남은 여전히 시무룩한 표정을 하고
《그런데 나한테까지 차례질것이 있을라구요? 태반이 총 못 가진 사람들인데…》
하더니 문득 오수동을 빤히 올려다보며 말하는것이였다.
《아저씨! 총 이리 주세요. 내가 식혀서 잘 닦아드릴게요.》
《그래라. 좀 만져라도 보고싶으냐?》
《아니요.》
대답은 이렇게 했으나 총을 잠시라도 메고있고싶었다. 오수동의 백발백중하는 솜씨를 보고는 더욱 가지고싶은 총이였다.
대렬을 바로 정돈하라는 솔발소리가 울렸다. 오수동은 길남이한테 총을 넘겨주고 재촉했다.
《어서 가자! 기신신호가 있기 전에…》
이렇게 말하고 몇걸음 앞서나가다 아직 총에 정신 팔린 길남이를 돌아다보는데 이때 길남이가 앉아있는쪽에서 불과 20~30보 떨어져있는 나무뒤에 사람의 그림자가 얼씬하였다. 관군복색을 한 놈이 어디 한곳을 정신없이 노려보며 총을 겨누고있었다.
오수동은 그놈이 총구를 겨눈쪽을 바라보았다. 거기에는 전봉준이 서있었다. 대렬을 점검하는 한편 로획한 총과 전리품을 나누어주고있었다. 한순간 오수동의 등골로는 식은땀이 흘렀다. 위기일발의 순간이였다. 허나 이때 그의 손에는 총이 없었다. 길남이를 부르고 어쩌고 할 사이도 없었다. 순간 그는 몸을 날려 전봉준에게 달려가 그를 안아넘어뜨렸다.
그 순간 한방의 총성이 골안에 울렸다.
이어 다른 한방의 총성이 들려왔다.
처음은 어째서 울린 총소리며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누구도 알지 못했다.
전봉준이 치명상을 입은 오수동을 안아 일으켜서야 사람들은 그 정상을 알고 정신없이들 달려왔다.
《이게 웬일이요, 오두령!》
오수동의 가슴에서 샘솟듯 하는 피를 자기의 웃옷을 벗어 막으며 목메여 부르짖는 전봉준의 목소리였다.
《오두령! 나를 구하려다가 이 지경이…》
말끝을 맺지 못하고 종이장같이 창백해진 오수동의 얼굴을 들여다

보는데 오수동이 감았던 눈을 힘겹게 뜨고 전봉준을 바라보며 싱그레 웃는것이였다.

《됐소, 당신 녹두장군이 살았으니 됐소.》

그리고는 자기 일을 다한 사람이 피로에 지친듯 눈을 스르르 감아버렸다.

이때 길남이가 모여선 군사들 틈을 비집고 들어와 오수동의 몸을 잡아흔들며 울음을 터뜨렸다.

《아저씨, 아저씨— 나때문에, 나때문에— 눈을 뜨세요. 아저씨, 이놈을 용서하세요. 용서하세요.》

오수동이 눈을 떴다. 그리고 자기를 흔들며 우는 길남이의 손을 더듬어쥔다.

《그 총은 네가 가지거라.》

《아저씨, 죽으면 안돼요. 아저씨, 저를 용서하세요. 용서하세요.》

그 절통한 부르짖음에 오수동이 고개를 두어번 끄떡끄떡한다.

그리고는 눈을 감았다.

전봉준은 갈린 목소리로 혼자 중얼거렸다.

《아들에게 할 말도 있었으련만…》

이때 다시는 뜰것 같지 않던 오수동이 눈을 다시 떴다. 그리고 간신히 입을 떼였다.

《그애한테는 당신, 당신이 있지 않소.》

전봉준이 그의 몸을 흔들었다. 꺼져가는 그의 넋을 불러일으키려는듯이 애타게 그의 이름을 부르며 흔들었다.

《여보 오두령!— 오두령—》

오수동은 눈을 뜨고 오래도록 전봉준을 바라보았다.

아, 하늘이여! 저 뜻높고 어진 사나이를 도와 이 나라를 구원하게 하소서 하고 빌기라도 하는지…

그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다시는 뜨지 않았다.

이때 길남이 별안간 전봉준앞에 와락 다가와 땅바닥에 머리를 박고 엎드리며

《대장님! 제 목을 치십시오. 규률없이 군법을 어겨 장수를 죽인 이놈을 죽이세요.》

하니 거기 섰던 모든 군사들이 놀랐다.

한 군사 썩 나서며 부르짖었다.

《무어? 네가 쏘았단 말이냐? 이놈아!》

《이거, 오두령님 총을 네가 가지고있었고나. 이 어찌된 일이냐? 어서 말해라!》

하고 막 달려들어 치려는 군사들도 있었다. 길남이 슬픈 낯빛으로 말한다.

《그분을 잃고는 나도 살고싶지 않아요. 맘대로 때리세요. 죽여주세요.》

하고는 목을 놓아 울었다.

한동안 오수동의 시신곁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앉아있던 전봉준이 가까스로 몸을 일으키더니 저고리를 벗어 오수동의 시신우에 덮어주고나서 추연한 낯빛으로 말했다.

《어지지 못한 나를 위해 수고가 많았소. 부디 잘 가시오.》

그의 눈에 눈물이 비오듯 하니 모여선 군사들모두가 울지 않는이가 없었다.

전봉준은 조용히 입을 열어 길남이를 향해 물었다.

《군법을 어겼다니, 군법을 네 어떻게 어겼느냐?》

길남이가 목을 늘이고 엎드려 말한다.

《제가 본래 총을 몹시 가지고싶었는데 아까 전투에서 오두령님이 총 한방에 한놈씩 백발백중하는것을 보니 더욱 총을 가져보고싶은 생각이 간절했습니다.》

그는 다시 울음을 터뜨리였다. 그 울음 그칠것 같지 않더니 이윽하여 주먹으로 눈물을 닦고나서

《그래 싸움이 끝나자 오두령님보고 총을 제가 식혀서 잘 닦아드리겠다고 하고 가지고 앉아 만지작거리고있는중에 한번 쏘아보고싶은 생각이 들어서 저만큼에 서있는 나무를 겨누고있었습니다. 이때 모이라는 솔발소리가 들리더군요. 오두령님이 어서 가자고 부르셨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한방 쏴보고 가려고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 말했을 때 한 군사가 달려들며 소리쳤다.

《그래 그분을 네가 쏘았단 말이지?》

전봉준은 어린것을 치려는 그를 만류하며 조용히 말했다.

《그런게 아닐게요. 그래 어서 말해봐라.》

《그래 막 방아쇠를 당기려고 하는데 난데없는 총소리가 바로 내가 겨누고있는쪽에서 나고 이쪽을 바라보니 오두령님이 전대장님을 안고

돌아가다가 넘어지더군요. 순간 총소리 난쪽을 바라보는데 한놈의 관군이 뛰여달아났습니다. 그래 나는 그놈을 겨누고 쏘았습니다.》

하고나서 길남은 오수동의 시신을 들여다보며 다시 통곡을 시작했다.

《내가 아저씨 총을 뺏지 않았으면 일없었을걸… 제가…》

전봉준은 그 말에 길게 한숨 쉬고나서 혼자소리로 추연히 말하였다.

《알만 하다. 그놈을 발견했을 때 그에게는 총이 없었다. 그래서 나를 몸으로 막았다.》

손바닥으로 눈물을 문지르고난 전봉준은 령을 내려 오수동의 시신을 양지바른 곳에 묻게 하였다.

땅을 파고, 마침내 오수동의 시체가 광중으로 내려지고 흙을 덮기 시작했는데 그 모든것을 넋없이 들여다보고섰던 길남이 문득

《아, 아, 아버지!》

한마디하고 땅에 털썩 나가넘어졌다.

부모를 일찍 여의고 박생원집 아이머슴으로 갖은 천대속에 살아오던 그는 농민군아저씨들속에서 비로소 따뜻한 정을 느낄수 있었으며 어느덧 엉석받이로 되여있었다.

그는 오수동을 몹시 따랐다. 그리고 오수동은 그를 매양 측은한 눈으로 바라보았다. 귀엽게 굴어 누구에게나 사랑을 받는중에 오수동은 특히 그를 사랑했다.

길남이가 얼마나 불러보고싶던 아버지인가?…

전봉준은 코마루가 시큰해지는것을 느끼며 그를 급히 안아일으켰다.

《왜 이러느냐? 정신 차려라!》

길남은 전봉준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흐느껴 울었다.

전봉준은 길남이의 눈물을 손으로 닦아주고나서 조용히 그러나 엄하게 말했다.

《네 울기만 하면 어찌 되느냐? 그는 예서 죽어서는 안될 사람이였다. 그러니 우리가 그의 몫을 더해야 하잖느냐? 그리고 그의 원쑤를 갚아야지? 너의 아저씨, 아니 아버지의 원쑤를 말이다!》

이렇게 울지 말라고 달래는 그의 부릅뜬 눈에서도 눈물이 샘솟듯한다.

이윽하여 솔발소리가 나고 농민군은 대오를 정돈하였다. 전봉준은 길을 떠나기에 앞서 오수동의 무덤앞에서 하직을 고하였다.

《오두령! 그대의 뛰여난 용맹을 내 여기다 묻고 떠나가오. 호걸

스러운 그대 기상 어디에서 다시 찾아보겠소. 성문우에 눈알을 걸어 놈들이 망할 날 보리라던 그대의 유언 그대로 두고, 그 념원 이루지 못한 채 아! 여기에 묻히다니… 내 그대에게 맹세하오. 원쑤를 미워하는 그 넋과 서슬푸른 그대의 칼 내 물려받으오리…》

하고 말문이 설음에 싸여 그대로 한동안 무덤앞에 서있다가 이윽하여 말끝을 맺었다.

《오두령, 안심하오. 내 오두령의 뜻을 헛되게는 않으리다.》

돌아서기 힘든 걸음이였다. 모두들 차마 떠나기 아쉬운듯 눈물을 머금고 몇번이고 몇번이고 돌아다보았다.

이윽하여 전봉준이 령을 내려 소라소리 세번 울리자 군사들의 대오 첫머리가 움직이기 시작하였다.

원쑤를 쳐부실 장한 마음 가다듬고 농민군대오는 길을 떠난다.

길남이 길을 가며 다짐한다.

《아버지! 내 꼭 아버지 원쑤를 갚겠습니다!》

래자불거— 한번 온 사람은 다시 가지 않는다.

차력장사— 힘이 매우 센 사람.

솔발소리— 군령을 내릴 때 쓰던 큰 방울소리.

기신신호— 몸을 일으키라는 뜻으로서 군사가 움직이게 될 때 알리던 신호.

창작방법과 사조

문학의 발전과정을 옳바로 리해하자면 창작방법과 사조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가져야 한다.

작가는 작품을 창작하면서 반드시 일정한 창작방법에 의거하게 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창작방법은 창작가가 생활을 인식하고 평가하며 예술로 반영하는데서 의거하는 미학적원칙이다.》

작가가 작품을 쓰자면 먼저 인간생활을 연구하고 그에 대한 평가를 내리게 된다. 어느것이 옳고그른가, 어느것이 아름답고 추악한가, 어느것이 나라와 인민을 위해 좋은것이고 나쁜것인가, 어떻게 해야 옳고 선하고 아름답게 살려는 인민의 지향과 요구를 실현할수 있을것인가.

그다음 작가는 그것을 예술작품에 반영하면서 어떤 방식에 의거할것인가를 생각하게 된다. 생활을 그자체의 형식으로 그대로 재현하겠는가, 아니면 현실생활과는 같지 않더라도 자기가 주관적으로 념원하는대로 그리겠는가, 형상수법에서는 어떤것을 위주로 하겠는가.

바로 여기서 작가의 정치적견해와 미학적리상이 작용하게 된다. 이것은 일정한 창작적원칙으로서 창작의 전반을 이끌어나가고 방향짓는것이다. 이 창작적원칙, 미학적원칙을 창작방법이라고 한다.

창작방법에서 결정적인것은 작가의 세계관이다. 어떤 세계관을 가졌는가에 따라 어떤 창작방법을 선택하겠는가 하는것이 규정된다. 진보적인 세계관을 가진 작가는 진보적인 창작방법에 의거하게 되고 반동적인 세계관을 가진 작가는 반동적인 창작방법에 의거하게 된다.

그러면 창작방법이 어떻게 발생발전하여왔는가.

문학예술의 발생초기부터 창작방법이 생겨난것은 아니다. 문학예술이 발전하면서 점차적으로 두가지 경향으로 갈라지게 되였다. 그 하나는 현실에서 벌어졌거나 벌어지고있는 생활을 그대로 그리는것이고 다른 하나는 사람들이 희망하고 념원하는 생활을 환상과 같은 조건적인

방식으로 그리는것이다. 이 두 경향은 고대중세문학에서 서로 혼합되여 있었다. 중세소설 《임진록》이나 《홍길동전》을 보면 생활그대로의 형상도 있고 환상적인 형상도 있다.

이 두 경향은 점차 사실주의와 랑만주의의 특징을 뚜렷이 하면서 완전히 갈라지게 되였다. 우리 나라 고전소설 《춘향전》이나 영국의 고전소설 《로빈슨 크루소우》에는 사실주의의 특징이 뚜렷이 나타나있다.

인류의 진보적인 창작방법에서 지배적인 자리를 차지한것은 사실주의이다.

사실주의창작방법은 객관적현실을 정당하게 인식하고 진실하게 반영하는 창작방법이다.

사실주의는 실재하는 사실에 기초하여 현실을 객관적으로 묘사하며 생활의 본질을 밝히는것을 근본원칙으로 한다.

사실주의의 특징은 첫째로, 현실생활에서 가장 본질적인것을 골라 구체적인것속에 구현하여 전형화하는것이다. 다시말하면 전형적환경에서 전형적성격을 창조하는것이다.

둘째로, 생활세부를 진실하고 생동하게 그리며 생활의 론리에 맞게 작품을 구성하는것이다. 다시말하여 생활의 모양그대로 인간과 생활을 그려나가는것이다.

셋째로, 작품의 사상이 예술적형상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것이다.

사실주의는 비판적사실주의와 사회주의적사실주의를 거쳐 그의 가장 높은 형태인 주체사실주의로 발전하였다.

주체사실주의는 위대한 주체사상의 원리를 문학예술창작에 구현하는 과정에 형성된 우리 시대의 가장 옳바른 창작방법이다.

인류의 진보적인 창작방법에서 다음으로 중요한것은 진보적랑만주의창작방법이다.

진보적랑만주의는 현실생활보다는 주로 작가가 주관적으로 념원하는 생활을 그리는 창작방법이다. 진보적랑만주의는 자기가 념원하는 생활에 대한 공상적인 화폭을 불만스러운 현실에 대치시키는 방법으로 착취사회현실에 대한 비판정신과 미래의 훌륭한 생활에 대한 지향을 표현

하는것을 근본원칙으로 한다.

진보적랑만주의의 특징은 첫째로, 현실에 대한 강한 불만, 항거의 정신과 함께 보다 아름다운 미래에 대한 지향을 공상적인 화폭으로 표현하는것이다.

둘째로, 주인공이 현실에 맞서는 반항자로, 비상한 힘과 재능을 가진 인물로 그려지는것이다. 흔히 기적적이고 초인간적인 힘을 가지고 생활에서 볼수 없거나 보기 드문 환경에서 행동한다.

셋째로, 격동적인 문체와 과장, 환상, 날카로운 대조의 수법을 쓰면서 구성이 보통 생활론리에 맞지 않게 엮어지는것이다.

일정한 창작방법에 의거하고있는 작가들은 각이한 시대, 각이한 나라의 조건에서 살면서 일정한 사조에도 속하게 된다.

사조란 말그대로 사상조류란 뜻인데 문학예술에서는 문학예술사조라고 부른다.

문학사조는 창작방법이 형성되고 문학이 더욱 다양한 형태로 발전하면서 그것이 시대에 따라 구체적으로 나타난 개념이다. 다시말하여 사상적으로나 예술적으로 공통성을 이룬 작가들의 창작적경향성을 말한다.

문학사조도 진보적인 사조와 반동적인 사조로 갈라볼수 있다.

진보적인 문학사조는 진보적인 세계관, 진보적인 창작방법에 기초한 사조이다. 우리 나라 중세의 실학파문학사조, 근대의 《신경향파》문학사조, 유럽의 근대의 인문주의문학사조, 고전주의문학사조, 감상주의문학사조, 비판적사실주의문학사조 등이 이에 속한다.

반동적인 문학사조는 반동적인 세계관, 반동적인 창작방법에 의거한 사조이다. 이런 문학사조에서는 대체로 창작방법이 무엇인지 갈라볼수 없는것이 많다.

중세의 산수파문학사조, 근대의 자연주의, 상징주의, 예술지상주의, 초현실주의문학사조 등이 그 실례로 된다.

반동적인 문예사조를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는것은 오늘 우리앞에 나선 중요한 과업이다. 지금 제국주의자들은 여러가지 반동적인 부르죠아문예사조를 퍼뜨려 청소년들을 비롯한 인민대중의 혁명의식을 마비시키고있다. 그가운데서도 가장 반동적인것은 자연주의와 형식주의, 수정

주의문학사조이다.

자연주의는 부르죠아문예사조의 주되는 조류이다. 자연주의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그린다는 구실밑에 우연적이고 비본질적인것을 기계적으로 묘사함으로써 생활의 본질과 진실을 외곡한다. 그리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착취사회의 모순을 보지 못하게 하고 계급의식을 마비시키며 자본주의의 《영원성》을 설교하려고 한다.

형식주의도 부르죠아문예사조의 주되는 조류이다. 형식주의는 형식을 내용과 분리시키고 내용을 형식에 복종시킴으로써 문학작품의 사상성을 떨어뜨릴뿐아니라 예술성자체도 손상시킨다. 그들은 형식만 내세우던 나머지 별의별 망측한 형식을 다 꾸며내여 그 누구도 알수 없는 무의미하고 까다로운 말마디의 유희를 벌려놓는다. 이것도 악덕과 모순에 찬 자본주의사회의 현실을 가리우고 사람의 계급의식을 마비시킨다.

수정주의는 한때 로동계급의 혁명문학을 창조한다고 하던자들이 양풍에 물젖어 사회주의문학에 끌어들인 배신자들의 문학사조이다. 그들은 썩어빠진 반동적문학예술과 자본주의생활양식을 마구 끌어들여 부르죠아반동사상을 부식시킴으로써 혁명의식을 마비시킨다. 수정주의문학은《초계급적문학》,《전 인류적문학》의 구호밑에 문학의 로동계급성, 당성을 부인하고 《창작의 자유》를 떠벌이며 문학에 대한 당과 수령의 령도를 거부한다.

부르죠아반동문학사조를 반대하고 우리 내부에 절대로 침투하지 못하게 하려면 우리 당의 주체적문예사상과 리론으로 튼튼히 무장하여야 한다.

영원무궁하라 조선의 미래여

《영원무궁하라 조선의 미래여》는 1995년 9월 1일 개학날을 맞으면서 우리 어린이들을 끝없이 사랑하시며 조선의 미래를 아름답게 꽃피우시기 위하여 한평생을 바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과 뜨거운 맹세를 담아 명준섭이 창작한 기념비적명작이다.

서사시는 머리시와 맺음시, 5개의 장으로 구성되여있다.

머리시에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 계시지 않는 9월의 첫 개학날을 맞으며 어버이수령님께서 한평생 그리도 기쁘게 맞이하시던 9월 1일에 대한 목메인 그리움의 정서를 터뜨리고있다.

1장에서는 9월의 개학날을 앞둔 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 아이들이 없이는 한시도 못사시던 어버이수령님 생각이 간절하시여 금수산기념궁전(당시)으로 마음 달리시며 잠 못 이루시는 가슴뜨거운 심회가 그려지고있다.

2장에서는 백두의 설한풍속에서 혁명의 미래를 가꾸어오신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혁명업적과 후대관을 노래하고있다. 눈보라가 하늘땅을 뒤흔드는 베이만(북만)의 빙설천지에서 혁명의 배신자들이 버리고 간 아이들을 군복자락에 감싸안으시고 한자욱한자욱 피의 자욱을 옮겨가신 어버이수령님의 위대한 사랑의 력사가 그려진다.

황막한 세상에 헤매이던
어린 생명들을 안아주신
수령님의 그 따사로운 품
그것은 아이들의 집이였고
요람이였다
자애로운 어머니였고

정다운 삼천리강토였고
꿈결에도 그립던 조국이였나니

그 품에 볼을 비비며
눈물도 흘리고
웃음도 망울지으며
그 품에서
꿈을 키우고
뜻을 키우며
조국의 미래는 자라났더라

3장에서는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조국의 미래를 위해 후대들에게 베풀어주신 사랑의 전설들이 노래되고있다. 우리 일군들이 어버이수령님의 집무실에 새것으로 주단을 깔고 책상을 놓아드리였다가 그것이 중대사건으로 되고 이런 돈이 있으면 아이들에게 필요한것을 하나라도 더 마련해주라고 추상같이 꾸짖으시던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감동적인 일화와 함께 우리 일군들이 유자녀학원에 새로 만든 《마안산》모포를 제때에 바꾸어주지 못하여 위대한 장군님의 엄한 비판을 받던 뜻깊은 일화도 그려진다.

4장에서는 후대들에게 기울여주시는 수령님의 사랑이 천이라면 그 천을 다 안고 꽃피워가시면서도 끝을 모르고 만족을 모르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의 은정깊은 사랑의 력사가 노래되고있다.

5장에서는 어버이수령님을 잃고 온 나라 아이들이 서럽게 울던 비운의 나날과 더불어 위대한 장군님께서 수령님을 대신하여 아이들에게 안겨주신 은정의 새로운 전설이 노래되고있다. 준전시상태가 선포된 준엄한 시기에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를 찾으시여 도당책임비서들에게 모든 도들에 이런 야영소들을 새로 잘 지어 우리 어린이들에게 선물하자는 명령을 하달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풍모가 감동깊게 그려진다.(이 부분이 선문교재이다.)

맺음시에서는 9월의 이날 조국의 미래를 끝없이 축복하면서 주체의 영원한 태양이신 어버이수령님과 더불어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을 모시여 **김일성**조국의 미래는 영원무궁하리라는 격조높은 찬가를 울리고있다.

☆

……

× ×

하늘도 울고 땅도 울던
7월의 그 나날
자기의 친부모가 갔다한들
아이들이 그처럼 서럽게 울었을것인가

차마 믿을수 없어서
믿어지지 않아서
제 눈으로 보기 전에는
믿고싶지도 않아서
팔소매로 눈물을 닦으며
길을 떠난 량강땅의 나어린 소년들

자기 마을 지경밖도 나서보지 못한 아이들
그 길이 천리가 넘는줄
알고나 떠났던가
그 길이 험한 령을 넘어야 할줄
알고나 그 걸음 시작했던가

아니였으면
꿈이였으면
오직 그 한가지 생각으로 가슴 달래며
만수대언덕으로 달려간 아이들

울음바다, 눈물의 바다
그속에 온몸을 던지며
아버지, 아버지
정녕 가셨단 말입니까
아버지없이
우리는 어떻게 살라요
참고참아오던 곡성을 터뜨렸거니

아, 나는 보았다 그날
어린것들이 밤을 새워
어버이수령님 동상에 호상을 서고있는것을
그 모습을 바라보며
더 슬프게 운것이
우리 인민뿐이였던가

깊은 밤에 소문없이
만수대를 찾으신 친애하는 그이
쏟아지는 폭우에 화환이 젖을가봐
몸으로 가리우고
만수대언덕으로 오르는
우리의 새 세대들을 보시며
조용히 손수건을 눈가에 가져가시는 그 모습
내 삼가 우러르며
북받치는 격정을 누를길 없었나니

이 세상 진심이란 어떤것인가를 알려거든
이밤의 저 새 세대들을 보라고
수령님을 받드는 그 진정을 보려거든
저 인민들을 보라고
갈리신 음성으로 하시던 그 말씀
오늘도 이 가슴을 울려주어라

이제는 장군님 한분밖에 안 계시여
장군님만 쳐다보며 사는 인민들
텔레비죤화면앞에서
축가신 그 영상 우러르며
얼마나 안타까와했던가

그날로부터 날과 달은 흘러
해가 바뀌였건만

우리 가슴에 더 깊이 새겨지는
한장의 편지가 있나니

이 땅의 이름없는 아홉살소녀가
천진한 동심으로
또박또박 써올린 한장의 편지

…
꿈결에도 그리운 우리 장군님
장군님은 개인의 몸이 아니라
온 나라 인민의 몸이십니다
밥도 제때에 꼭꼭 잡수시고
잠도 꼭꼭 주무십시오
장군님만 건강하시면 우리는 행복합니다

해바라기꽃송이처럼
언제나 밝던 그 얼굴에서
어버이를 잃어
웃음마저 사라진 우리 어린이들
눈물로 흐려진 그 눈동자에
너무도 일찌 생각이 깃들어
때없이 철이 들었는가

수령님 없이는 못사는 아이들이
수령님과 꼭같으신 우리 장군님께
간절한 심정을 아뢰인 이 편지
이름없는 한 작은 마을에서
소문없이 부친 편지이건만
그것이 어찌
기차나 우편차에 실려온 글발일것인가

아, 장군님 계시여 마음이 든든하고
장군님 계시여

우리 수령님 영생하심을 굳게 믿는
사람들의 손을 거쳐 마음을 거쳐
평양으로 당중앙으로 전해진
우리 인민의 진심이 아니였던가

그 진심을
자신의 심장과 하나로 이어진
피줄로 삼으시고
혁명을 이끄시는 **김정일**동지
그이는 우리 인민처럼
참 좋은 인민은 없다고 하시며
이 땅에
학습당 하나를 지어도
소년궁전 하나를 세워도
산원을 하나 건설하고
다부작예술영화 한편을 만들어도
크나큰 로고를 바쳐가시는것 아니던가

먼먼 래일
천추만대에 가서도
한점의 손색도 없게
만점짜리로 되게 하자고
불면불휴의 낮과 밤
불면불휴의 사색을 이어가시는
참으로 위대한 인간

하기에 우리는 그이를
인민형의 령도자라고
실력가형의 령도자라고
목메여 부르며 따른다

그 위대한 인간의 품에서
조국의 미래

혁명의 세대들이 자라거니
우리 얼마나 행복한것이냐

수령님 없이는 한시도 못사는
아이들을 생각하시여
그처럼 마음쓰시는
우리의 장군님

제국주의원쑤들이
사회주의 마지막포위진을 좁히며
이 땅에 핵구름을 몰아오던
그 준엄한 나날
준전시상태를 선포하시고
최고사령부의 작전대를 떠나셨으니

명령을 기다리는
군사령관들을 만나시려는가
최전연초소의
전사들을 찾으시려는가

허나 그이께서 가신 곳은
어느 야전지휘소도
군항도 비행장도 아니였다
넓고 푸른 동해바다가
흰파도 부서지는 백사장

뜻밖에도 장군님을 맞이한것은
명령을 기다리는
인민군지휘관들이 아니였다
하얀 등산모 제껴쓴
나어린 야영생들
인류가 지켜보던 조선
최고사령부의 작전대가 아닌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
물결푸른 바다가에서
온 세계에 울려퍼진 그이의 명령

—각 도당책임비서동무들
　모든 도들에
　이런 야영소들을 새로 잘 지어
　우리의 어린이들에게 선물합시다

그 어떤 전쟁의 포고도
핵탄의 공격도
이보다 더 놀랍게
세계를 진감시킬수 있었으랴
그이께선 이 한마디 명령으로
우리를 향해 추켜든
무수한 살륙의 포신들을
순간에 땅우에 떨구어놓으시고
살인장군들의 눈을 멀게 하셨나니

당과 군대와 인민이
혼연일체가 된 나라
멸적의 그 총창
필승의 그 총검우에 받들린
우리의 미래
이 나라의 새 세대들이여
축복을 받으라
얼마나 위대한 령장의 품이
너희들을 보호해주시고
너희들을 그늘없이 밝게 꽃피워주고있는것이냐

모든것을 아이들을 위하여！
언제나 좋은것은 어린이들에게！
언제나 앞자리는 어린이들에게！

이것이 이 나라의 국가시책
이것이 우리 당의 최고정책

그렇다
만고풍상을 헤쳐오신
우리 수령님의 한평생은
아이들을 위한 한평생
우리 장군님의 한평생은
아이들을 위한 한평생

아, 아이들이 없이
한시도 못사시는
우리 수령님, 우리 장군님
아, 우리 수령님, 우리 장군님 없이는
순간도 못사는 우리 아이들
이것이 내 나라, 내 조국이여라

감사를 드리노라
부럼없는 왕관을
어린이들의 머리우에 얹어주시고
행복의 상상봉에 앉혀주신
어버이수령님, 우리의 장군님이시여!

국제야영의 나날을
웃음속에 보낸 아이들
야영은 끝났건만
안 가겠다고 발버둥하는
대륙을 넘어온 소년들

사회주의가 무너져
미래가 묻히고
아이들이 버림받는
그 하늘밑으로 다시는 못 가겠다고

안타까이 매달리는
눈물젖은 그 눈빛은
무엇을 웨치고있었던가

국경이 없는
장군님의 사랑의 품만이
이 세상 모든 아이들이 안겨살
영원한 행복의 품이라고

장군님이 없으면
사회주의도 없고
참다운 조국도 없고
오늘도 래일도 없다고
그렇게 세상을 향해
웨치지 않았던가

그렇다
장군님께서 돌려주시는 사랑은
미래를 위해 한생을 바쳐오신
수령님의 그 사랑을
길이길이 자자손손 지켜주시는 사랑

행복의 천만대문을
이 땅에 세워주신 수령님의 유산을
더욱 빛내이며 꽃피워가시는 사랑
아, **김정일**동지 계시여
수령님의 그 사랑은 무궁하여라

우리 인민을
위대한 인민이라 불러주시며
영원한 태양의 품에 안아주는
그 사랑으로 혁명은 대를 잇고
그 사랑으로 력사는 흐르고

그 사랑의 빛발아래
공산주의 새 아침은 밝아오리니

인류의 미래를 안아주고 키워주시는
위대한 사랑의 노래
국경을 넘어
세월을 넘어
끝없이 끝없이 울려가라

민족과 운명

다부작예술영화 《민족과 운명》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주체문학예술의 대전성기를 최고의 높이에서 장식하고있는 세계적인 걸작이다.

영화는 노래《내 나라 제일로 좋아》를 주제가로 하여 민족의 운명이자 개인의 운명이라는 종자를 심고 우리 수령이 제일이고 우리 당이 제일이며 우리 인민이 제일이고 우리 사회주의조국이 제일이라는 사상을 수십부에 달하는 방대한 생활화폭을 통하여 깊이있게 밝히고있다.

《민족과 운명》은 실재한 력사적사실과 원형에 기초하여 여러개의 편으로 나뉘여 창작되고있다.

제1-4부는 최현덕편인데 공산주의에 대한 편협한 견해를 가지고 극단적인 반공의 길을 걷던 최현덕이 인생말년에 가서야 위대한 수령님의 한없이 숭고한 민족애와 덕성에 감복하여 사회주의조국의 품에 안기게 되는 극적인 이야기를 담고있다.

제5-8부는 윤상민편인데 박정희파쑈독재정권에 침을 뱉고 서부도이췰란드(당시)에 망명하여 음악창작활동을 벌리고있던 작곡가 윤상민이 공화국북반부를 방문하고 드디여 참된 인간사랑의 제도하에서 일생동안 꿈꾸던 음악의 세계를 발견하며 조국통일에 이바지할 일념으로 범민족적인 통일음악제를 발기하고 전두환일당의 갖은 모략과 압력을 물리치면서 기어이 성사시켜나가는 자랑찬 모습을 보여주고있다.

제9-13부는 차홍기편인데 해방직후 공화국의 품을 저버리고 남으로 나가 반동적인 괴뢰군의 중심세력의 하나로 되였던 군단장 차홍기가

독재자로서의 자기의 권력지반을 다지기 위해 온갖 비렬한 음모를 다꾸미는 파쑈폭군 박정희의 정체를 꿰뚫어보고 스스로 괴뢰군장성별을 뜯어버리고 외국에 망명하게 되는 이야기와 처음에는 박정희의 정부, 비밀첩자로, 후에는 전두환의 앞잡이로 권력의 시녀노릇을 하던 《한국태권도련맹》부총재 홍영자가 필요하면 자기의 심복졸개도 가차없이 희생물로 만드는 놈들의 비인간성을 체험하고 또 이미 련공련북의 길에 오른 차홍기의 영향을 받아 민족통일의 길에 나서게 되는 이야기를 그리고있다.

제14-16부는 리정모편인데 조국해방전쟁시기 종군기자로 활동하다가 원쑤들에게 포로된 리정모가 34년간의 기나긴 감옥살이를 하면서도 그 어떤 악형과 간난신고도 이겨내며 끝끝내 사상전향을 거부하고 위대한 수령님과 조국앞에 지닌 의무와 량심을 지켜냄으로써 신념과 의지의 화신으로서 인생을 빛내이는 모습을 보여주고있다.

제17-19부는 허정순편인데 처녀의 몸으로 일찍부터 혁명의 길에 나섰지만 옳바른 령도자를 만나지 못하여 곡절많은 운명의 길을 걸어오던 녀주인공이 위대한 수령님의 품에 안겨 참된 삶의 길을 찾게 되는 감명깊은 이야기를 담고있다.

제20-25부는 귀화한 일본인녀성편인데 조선인남편을 따라 공화국의 품에 안긴 일본인녀성 림은정이 일본반동당국의 교활한 음모책동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진정한 조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신념을 더욱 굳게 간직하게 되는 곡절많은 운명의 로정을 펼쳐보이고있다.

제26-36부는 로동계급편인데 강선제강소 직장장 강태관일가를 중심에 놓고 각이한 운명의 길을 걸어온 각이한 계급, 계층출신의 인물들이 위대한 수령님만을 믿고 따르는 로동계급의 적극적이며 뜨거운 방조속에 위대한 수령님을 친어버이로 모신 사회주의대가정의 한성원으로 되여가는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형상화하고있다.

제37-45부는 《카프》작가편으로서 1920～1930년대에 존재하였던 조선프로레타리아예술동맹(략칭 《카프》)의 활동을 중심사건으로 하여 혁명시인 리찬을 비롯한 진보적작가들이 위대한 수령님께서 령도하신 항일혁명투쟁과 항일혁명문학의 영향밑에 민족을 위해 복무하는 참된 문학의 길을 찾게 되는 시련에 찬 탐구의 로정을 예술화하고있다.

제46-51부는 최현편으로서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시기 적후 제2전선부대들의 활동을 중심사건으로 하면서 위대한 수령님께 끝없이 충실한

군단장 최현의 형상을 통하여 주체적인 총대중시사상을 철학적으로 심오히 밝혀내고있다.

영화는 계속 창작된다.

교재의 선문은 《민족과 운명》 제26부(로동계급편 제1부)의 일부분이다.

작품은 전국영웅대회에 참가하고 돌아오던 강선제강소 직장장 강태관, 로장 진응산이 역구내에서 우연히 어떤 낯익은 녀인의 모습을 보고 깊은 충격을 받는데서부터 시작된다. 진응산은 이미 죽은것으로 되여있는 안해와 너무도 비슷한 녀인에게 이끌려 그를 만나보려고 하나 강태관은 애써 방해를 논다.

작품은 계속하여 아들과 함께 《강옥의 묘》를 찾은 진응산이 묘비를 쓰다듬으며 가슴아픈 회상에 잠기는것을 보여준다.

정전직후 강선제강소로는 전선에 나갔던 사람들과 함께 새로 배치된 제대군인청년들이 찾아온다. 그들속에는 남조선에서 의용군으로 입대하여 싸우다가 미국놈들에게 포로되여 치욕과 고통을 겪다가 귀환병으로 풀려나온 진응산이도 있다. 응산은 뜻밖에도 전투에서 두눈을 부상당하여 실명한채 강태관일가의 따뜻한 보살핌을 받으며 그 집에서 살고있는 처남 공승렬을 만난다. 승렬은 응산에게 자기 누이가 미국놈들의 폭격에 죽은 소식을 전하며 포로되였다가 돌아왔다는 매부의 고백을 듣자 분노를 금치 못하여 제일 어렵고 힘든 용해공이 되여 땀으로 조국앞에 지은 죄를 씻으라고 요구한다. 응산은 처남에게 아직은 그 내용을 비밀로 지켜줄것을 부탁하고 그와 함께 강태관의 사랑채에서 살면서 용해공을 선발하는 시험에 합격하기 위한 장입물투사훈련을 맹렬히 벌린다.

이무렵 강태관의 둘째아들이며 야금기사인 강석이도 제대되여 자기의 애인인 한송옥기사까지 데리고 돌아온다. 한송옥은 지난날 부유한 자본가의 딸로서 가정과 결별하고 집을 뛰쳐나왔으나 아직도 그 냄새가 채 빠지지 않은 녀성이다. 강석은 합숙이 만원인것을 구실로 그도 자기 집에 데려가지만 삼촌 강태섭로장이 송옥이를 배척하는 바람에 고충을 겪게 된다.

한편 해방전에 돈에 팔려 돈많은 기형아인 일본인부자집아들에게 시집갔던 기구한 운명의 녀인으로서 자기 정체를 숨기고있지만 로동계급속에서 그들의 후더운 인정에 이끌려 성실하게 살고있는 창고장 사옥비를 전쟁때 홀아비로 되여 형 강태관의 집에 들어와 사는 강태섭로장

이 은근히 사랑한다. 사옥비는 강태섭의 인품과 열정에 끌리면서도 자기의 처지로부터 굳이 사양한다.

이렇게 쇠물집일가에는 원쑤들에게 희생된 식솔들의 자리를 출신경력도 각각이고 인생행로도 각각인 낯선 사람들이 차지하게 되였으나 그들의 공통된 지향은 어버이수령님을 민족의 친어버이로 모시고 나라의 참된 주인으로 살고싶은 갈망이였다. 작품에서 강태관은 해방직후 자기집에 위대한 수령님을 모신 영광을 지니였던 사람으로서 수령님께서 안겨주신 신념을 자기 식의 쇠물철학으로 삼고 사는 로동계급의 전형적인물이다. 하기에 그는 전쟁의 포성이 멎은지 한주일도 못되여 여기 제강소를 찾아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간곡한 교시를 높이 받들고 전기로복구보다 주택건설을 내리먹이는 내각의 오참사와 꿋꿋이 맞서싸우며 동요하는 지배인을 깨우쳐주면서 40t로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린다.(이 부분이 선문교재이다.)

☆

……

조괴장

파괴된 기관차를 끌어내느라고 숱한 사람들이 힘을 합쳐 바줄을 잡아당긴다.

《영차—영차—》

바줄을 걸어 숨죽은 강철거물을 끌고있다.

바줄을 어깨에 걸고 용을 쓰는 진응산, 강태관, 장계득, 허기춘, 태섭.

레루우에서 한치한치 굴러가는 기관차바퀴.

주인공들의 얼굴마다에 비지땀이 솟는다.

새까맣게 달라붙어 끌고당기고 하면서 개미역사질을 해나가는 로동자들, 강태관, 리천 등등 …

밖으로 끌려나오는 기관차.

《휴식！》

시내가

내가에 앉아 손을 씻는 태섭에게 태관 말한다.

《이보라구, 저 송옥이말야. 강석이 그 녀석이 그러는데 40톤로를 하자면 송옥의 기술이 꼭 필요해서 데려왔다누만.》

《형님은 그 말을 곧이듣소? 이거야 갓쓰고 입맞추기지! 40톤로라 흥!》

《동생, 내 말 좀 들어보게.》

《아니요. 형님,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이요? 바로 진짜배기로동계급의 집안이란 말이웨다. 그런데 가장인 형님이!》

한숨을 내쉬는 강태관.

《내 동생 심중을 십분 알아. 허지만… 강물이 아무리 맑다 해두 잉어만 살수야 없지 않나!》

《그럼 막고기들을 처넣구려.》

《허허… 그냥 엇드레질이로군 그래?》

담배를 동생에게 권하는 태관.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믿구 품어주지 않으면 그들이 갈데가 어딘가.》

《원 별걱정 다하시오.》

《걱정해야지. 장군님께서 우리 집에 오셨을 때 뭐라구 하시던가. 민족의 흥망은 로동계급이 씨암닭구실을 어떻게 하는가에 달려있다고 하시지 않던가. 우리가 씨암닭이 되자면 응산이나 송옥이 같이 기구한 사람들을 다 믿구 따뜻이 품어줘야 해. 믿구…》

강태섭이 눈을 꺼벅거린다.

이때 강옥 달려온다.

《아버지, 이게 어떻게 된 일이예요?》

《뭘말이냐?》

《어째서 전기로사람들을 다 가열로에 보냈나 말이예요.》

《내가?》

태섭 《그건 분명 그 오참사가 한 짓일거웨다!》

가열로복구장

로동자들이 까맣게 달라붙어 파괴된 가열로를 해체한다.

진응산이도 땀에 떠서 일을 다그친다.
여기에 강태관이 온다.
《동무들！》
진응산이 일손을 놓고 돌아본다.
《전기로복구현장에서 온 동무들은… 다 제자리에 돌아가시오.》
그래도 로동자들은 움직이지 않고 서있다.
강옥이가 종이말이를 메가폰처럼 입에다 대고 소리친다.
《왜들 그냥 서있어요. 야 참 응산오빠！》
응산 놀라서 강옥과 태관을 본다.
강태관이 엄하게 말한다.
《전기로가 빨리 서야 쇠물이 나오우. 지금 일부 사람들이 가열로부터 하자는건 전쟁전에 밀어놓은 강재를 손질해서 간부들의 주택부터 짓고보자는 그런 생각이란 말이요. 이게 나라를 위한 생각이요?》
강태관을 바라보는 진응산과 허기춘.
태관《동무들은 전기로를 하루빨리 복구해서 살려내야 나라가 입은 상처를 가신다고 하신 장군님의 뜻을 따라야지 큰소리친다고 맹종맹동해서야 되겠소?》
사람들이 웅성거린다.
① 《아 그랬댔구만.》
② 《나라가 페허로 됐는데 제 집부터 짓다니?》
태관 《자, 돌아갑시다.》
작업장에서 나오는 사람들.
이때 《땅！》 총소리 울린다.
모두 총소리 나는쪽을 본다.

갈숲

총에 맞은 기러기 한마리가 애처로운 소리를 지르며 떨어진다.
《아, 맞았습니다.》
고과장이 기러기를 집으려고 달려간다.

제방뚝

강태관을 따라 진응산이 뛰여온다.
《아버님은 그 내각참사어른이 무섭지도 않습니까? 이남에서 같으면 회사측과 맞서다가는…》

《여긴 로동자가 주인인 세상이야！》
강태관은 진응산을 측은한 눈으로 보더니 밀어놓고 혼자 걸음을 옮긴다.
《직장장동지！》
그러나 강태관은 그냥 간다.
할수없이 따라서는 진응산.

갈숲

고과장이 기러기를 오참사에게 보여준다.
《참사동지, 이걸 보십시오.》
《허허…》
만족해서 걸어가는 오참사와 고과장, 말같은 사냥개가 뒤따른다. 오참사앞에 떡 벧치고선 강태관. 진응산은 가슴을 떨며 지켜본다. 오기도가 강태관을 거들떠본다.
《엉, 강령감이요? 왜, 무슨 일이 있었나?》
《참사동무가 전기로로력을 빼돌렸소?》
《왜? 내가 지시했소.》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전기로가 죽습니다. 모든 힘을 전기로복구에…》
《가만, 그러니 강령감은…》
《난 직장장이요. 대접을 받자는게 아니라…》
헐떡이는 사냥개.
아니꼽게 보는 오참사.
《좋소. 직장장동무！ 인민들은 아직 반토굴에서 나오지 못하고있소. 령감은 그걸 볼 때 가슴이 아프지 않습디까? 자기가 여러칸 집을 쓰고 산다구 해서 로동자들의 생활을 외면해서야 안되지！》
안경쟁이가 달려온다.
《참사동지, 가열로작업이 중단됐습니다.》
《중단되다니?》
《강태관두상이 선동해서…》
하다가 태관을 발견하고 움츠러드는 안경쟁이.
오기도가 분격을 참으며 강태관에게
《동무가…그랬소?》
《내가 그랬수다.》

《어째서?》

진응산이 곁에 오지 못하고 멀리에서 그들의 행동을 보고있다.

태관 《그건 진정으로…인민을 위한 태도가 아닌것 같아서요.》

《뭐요?》

오기도가 푸르락거린다.

강태관이 결패있는 목소리로

《지금 우리 강선로동자들은 나라걱정을 하지 제 집걱정을 하고있는게 아니웨다.

뭐 에돌게 있소. 당신네가 말하는 주택건설이야 몇사람의 간부들을 위해서 하는게 아니요?》

위협조로 쏘아보는 오기도.

《이 령감이 누굴 걸고드는거야? 생산과장！》

고과장 《예, 여기 있습니다.》

오기도 《누가 전권대표의 지시를 홍정하라고 했어? 당장 전기로로력을 몽땅…》

그러나 강태관은 걸음을 옮기는 오기도의 앞을 떡 막아나선다.

오기도 《이건 뭐요? 반항이요?》

태관 《아니웨다. 이건 참사동무를 위해서웨다. 참사어른, 왜놈때는 그런게 통했수다.》

《왜놈때?… 그러니 령감은…》

《장군님께선 〈이민위천〉이라 하셨수다. 인민을 하늘처럼 떠받드는게 자신의 신념이라고까지 하셨소. 당신은 공부깨나 한 사람 같은데 어디서 그런 못된 버릇부터 배우셨소? 그럼 못쓰오！》

홱 돌아서 가는 태관.

오기도 《아니！ 저게！》

진응산이 태관을 따라가며 묻는다.

《아버님, 후환이 없을가요?》

말없이 걸어가는 태관.

오기도와 고과장이 그들을 바라보며 씩씩거린다.

지배인실

강태관이 지배인실에 와있다.

겁에 질린 리천.

《오참사는 강동무를 직장장직에서 당장 철직시키라는거요. 너무 엇서지 마우.》

묵묵히 듣고있는 강태관.

리천《참사는 로동자들의 주택이 걱정돼서 그랬다누만.》

태관《거 제발 닭 잡아놓고 오리발 내밀지 말란다구 하시우.》

《또 또! 거 좀 주의하라구요. 참사는 강동무가 계급적으로 변질되여가고있다고 했소.》

《뭐요? 그건 또 무슨 아닌밤중에 홍두깨요?》

《난 물론 리해해. 허지만 그 량반들은 동갑이가 어째서 진응산이나 한송옥이 같은 어중이떠중이들을 집안에 끼들이는지 심각히 따져봐야 한다는게요.》

《어중이떠중이?…》

《강동무네 집안이야말로 누구보다 로동계급의 계급적순결성을…》

《걱정말라구 하시우. 비물이 아무리 흘러든다고 아, 바다물이 싱거워지겠습니까.…》

《?!》

선망의 눈으로 강태관을 보는 리천.

강태관이 신문지쪼박을 꺼내더니 흥분된 손으로 담배를 만다.

같이 담배를 붙여 무는 리천.

태관《그런데 지배인립장이 왜 그리 어정쩡하시우?》

리천《세력이 빨래줄같은 사람들이 타고누르는데 이 리천이라는게 도대체 뭐요?… 나도 왜놈신세지고 공부를 한 주제에…》

《음— 그래서 바지가랭이가 떨고있었구만!》

《난 아무래도 지배인자릴 내놔야 할가보우.》

《내논다? 그다음은?》

강태관이 담배연기를 내뿜으며 생각을 좇는다.

《이보우 지배인동무, 강은 두번에 나누어 건늘수 없소. 인생도 마찬가지라니.》

그래도 리천은 실망한 낯빛이다.

창밖에 소리없이 내리는 비.

강태관의 목갈린 소리.

《사람이란 정에 사는 동물이요. 정이 의로우면 서로 합심이 되는 거구. 그러면 뭐가 두렵겠소?

우리 쇠물을 다루는 사람들이 언제나 수령님과 뜻을 같이하는건 그 정에 끌리고 뜻에 감복해서이지. 이제 그 정을 제 손으로 끊으면 리천이란 사람이 도대체 뭐가 되겠소? 응!》

리천이 태관의 말에 감동되여 큰숨을 몰아쉰다.

태관 《섭섭합니다. 그래두 지배인동무야 우리 수령님때문에 세상에 두번다시 운명을 건진 사람이 아닌가!…》

리천의 절통한 모습.

설화

《리천지배인의 운명은 일제시기부터 우리 강태관일가와 떼여놓을 수 없는 혈연이 있었다.》

(회상)

해방전, 전기로에서 불길이 올려뿜는다.

천정기중기에 꺼꾸로 매달린 강태관이 움직여온다.

왜놈경찰이 태관에게 묻는다.

《조선기술자를 어디다 숨겼어? 말해라 말해!》

태관 《염라대왕이 묻는대도 난 몰라!》

경찰 《음, 지옥도 무섭지 않다는 소리겠다? 좋다. 불에 처넣어라!》

전기로천정으로 둥둥 떠가는 강태관.

전기로의 이글거리는 쇠물.

화염에 그슬리는 저고리.

지글지글 살이 타며 연기가 피여오른다.

입을 꽉 다문 태관의 얼굴.

발광하는 경찰.

《말해라 말해…》

태관 《몰라…》

등잔불이 탄다.

가족들이 붕대에 감겨 누워있는 강태관을 둘러싸고 울고있다.

강태관의 손을 쥐고 리천이 목메여 말한다.

《동갑이, 나 하나 내놨으면 무사할걸… 몸이 이 지경 되도록 입을 다물건 뭐요?》

강태관이 리천을 행복한 눈으로 보며

《리천선생, 선생은… 장차 내 나라를 위한 일에 황금덩이보다 더 값진 사람이 될거웨다.》

《그건 무슨 소리요?》

《지금 저 백두산에서 항일전을 하시는 **김일성**장군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오.》

놀라는 리천.

《**김일성**장군님?!… 날 어떻게 아시오?》

《다 아신다우, 장군님의 목책에는 조선기술자란 너나없이 그 이름이 다 있다고 내 조카가 말했소.》

《그게 정말이요?》

《정말 아니구? 왜놈들이 금명간에 망해. 장군님께서는 왜놈들이 도망치면서 조선기술자들을 다 끌어가거나 죽일수 있다고 하시면서… 장차 새 조선을 위해 귀중한 인재들이 상하지 않게 선손을 쓰라고 하셨다우.》

《아, 그렇게도 천리혜안이신가?》 눈물이 그렁해진다.

《선생은 이제 곧 기양으로 가서 해방이 되는 날까지 꾹 숨어계시우!》

《기양엘?》

《거기에 가면 장군님께서 한발 먼저 내보내신 공작원선생이 기다리고있을거웨다.》

리천이 태관의 손을 쓸어만지며 감사의 눈물을 흘리다가 그만 엎디여 흐느낀다.

《동갑이, 고맙소! 고맙소!》

둘러앉은 가족들도 눈물을 씻는다.

강가

회상에서 깨여나는 강태관, 그의 안타까움이 독백으로 울린다.

《…그래두 지배인동무야 우리 수령님때문에 세상에 두번다시 운명을 건진 사람이 아닌가! 그런데 어쩌면 자네가?》

리천이도 생각에 잠겨 걷는다.

그의 귀전에 울리는 태관의 소리.

《힘을 내우! 강선이 기침을 하면 온 나라가 열이 난다고 수령님께서 걱정하시지 않습디까.

이제 40톤로에서 쇠물이 이글이글 끓어야 온갖 잡균이 다 죽어버리우! 그래야 나라가 건강해지지!》

리천의 얼굴에 결의의 빛이 어린다.

리천이 일군들과 함께 생산지휘를 한다.

《5톤로를 몽땅 폭파해버립시다. 여기는 강철직장! 여기는 분괴압연! 여기는 동무가 맡소!》

……

〔명언〕

오늘을 위한 오늘에 살지 말고 래일을 위한 오늘에 살라.

김 정 일

높이 들자 붉은기

백두의 성스런 붉은 기발엔
수령님의 한생이 어리여있다
높이 들자 붉은기 맹세로 불타라
장군님을 따라서 휘날려가리라

력사의 준령을 헤쳐넘으며
승리만을 기폭에 새기여왔다
높이 들자 붉은기 신념의 이 기발
장군님을 따라서 휘날려가리라

이 기발 들고서 당을 받들고
이 기발 지키며 내 조국 빛내리
높이 들자 붉은기 주체의 한길에
장군님을 따라서 휘날려가리라

(송찬웅)

혁명의 수뇌부 결사옹위하리라

우리가 틀어잡은 총검마다엔
장군님 보위해갈 맹세가 비꼈다
붉은기 날리는 혁명의 수뇌부
천만이 총폭탄되여 결사옹위하리라

사령부 지켜싸운 그 넋을 이어
피끓는 우리 가슴 성새로 뭉쳤다
조선의 심장인 혁명의 수뇌부
천만이 총폭탄되여 결사옹위하리라

장군님 사수하여 목숨바침은
전사의 제일가는 영광이여라
백승을 펼치는 혁명의 수뇌부
천만이 총폭탄되여 결사옹위하리라

(김정훈)

문학작품의 종류와 형태

문학작품의 종류란 작품에서 생활을 어떤 방식으로 그리는가 하는 그 특성에 의하여 갈라지는 작품의 갈래를 말한다.

문학작품들을 보면 거기에는 작가가 사람들에게 생활을 이야기해주는 형식으로 보여주는것도 있고 생활에서 받은 작가의 생각과 느낌을 표현하고있는것도 있으며 등장인물들의 말과 행동으로 생활을 보여주는 것도 있다. 그리고 이야기식으로 생활을 보여주면서도 자기의 느낌을 함께 나타내는것도 있다.

이와 같이 작가가 어떤 방법으로 작품속에서 생활을 펼쳐보이는가 하는것을 묘사방식이라고 한다.

묘사방식에는 서사적묘사방식, 서정적묘사방식, 극적묘사방식 그리고 서정서사적묘사방식이 있다.

문학작품의 종류와 형태는 그것이 어떤 묘사방식으로 씌여지는가에 따라 갈라진다.

서사적묘사방식은 작가가 인간생활을 객관적립장에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주는 형식으로 반영하는 방식을 말한다.

서사적묘사방식에는 등장인물들의 행동, 대화, 사상감정 등이 모두 작가의 객관적인 서술을 통하여 주어지며 반드시 시작과 끝을 가진 이야기줄거리가 펼쳐진다.

서사적묘사방식은 다른 묘사방식보다 생활을 더 폭넓고 자유롭게 묘사할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있다.

서사적묘사방식으로 씌여진 작품들을 서사적종류의 형태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소설을 비롯하여 동화, 우화 같은 형태들이 속한다.

서정적묘사방식은 작가가 주로 생활에서 받은 자기의 느낌을 직접 표현하는 방식을 말한다.

서정적묘사방식은 서사적묘사방식처럼 인간의 성격과 사건줄거리를 객관적으로 묘사하는것이 아니라 생활에서 받은 자기의 생각과 느낌을 표현하는 특성을 가진다.

서정적묘사방식으로 씌여진 작품들을 서정적종류의 형태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서정시, 가사 등이 속한다.

극적묘사방식은 말과 행동으로 생활을 보여주는 방식을 말한다.

극적묘사방식은 생활을 객관적으로 묘사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서사적묘사방식과 같지만 묘사가 아니라 등장인물의 말과 행동으로써 생활을 반영하며 성격을 창조한다.

극적묘사방식으로 씌여진 작품들을 극적종류의 형태라고 하며 여기에는 희곡, 영화문학, 가극문학이 속한다.

서정서사적묘사방식은 서정적묘사방식과 서사적묘사방식이 결합된 형식이다.

이 묘사방식으로 씌여진것을 서정서사적종류의 형태라고 하며 여기에는 서사시, 이야기시 등이 속하며 수필 같은 작품도 이 형태에 속한다.

문학작품의 종류는 이상과 같은 형태들로 갈라질뿐아니라 그 형태들이 다시 여러가지 기준에 따라 세분되기도 한다.

소설형태가 흔히 그 크기에 따라 단편소설, 중편소설, 장편소설로 구분되고 서정시형태가 송시, 정론시, 풍자시 등으로 갈라지는것이 그 실례이다.

문학의 기본형태는 소설, 시, 극문학이다.

소설은 문학의 형상수단을 종합적으로 리용하면서도 어디까지나 묘사를 기본으로 하는 산문형식의 문학작품이다. 동시에 생활을 이야기식으로 펼쳐나가는 이야기문학이다. 소설도 다양한 형태를 가진다. 장편, 중편, 단편의 형식으로 갈라볼수도 있지만 그밖에 여러가지 기준에 따라 벽소설, 서한체소설, 일기체소설, 추리소설, 탐정소설, 실화소설, 환상소설, 운문소설, 지능소설의 형식으로 갈라볼수도 있다.

시는 서정성을 기본특성으로, 생명으로 하는 운문형식의 문학작품이다. 서정이란 생활에서 환기된 정서를 형상으로 재현한것이다. 시는 서정을 담는것으로 하여 운률을 필수적으로 요구한다. 운률은 말소리의 음악적인 흐름으로서 그것을 구성하고있는 기본성분은 흐름새와 박자이다. 시도 여러가지 형태로 세분화하여 볼수 있다.

극문학은 인물의 대사와 행동을 직접 무대우에 펼쳐보이는 방법으로 생활을 그리면서 극성을 기본특성으로 하고있다. 극문학은 정극과 함께 혁명적비극, 경희극, 풍자극, 재담, 촌극 등 다양한 형태와 양상으로 갈라진다.

문학의 형태는 다양하게 발전하고있다. 풍자문학, 실화문학, 환상문학과 함께 수필, 단상 같은 짧은 글, 텔레비죤소설, 텔레비죤극, 텔레비죤예술영화와 같은 텔레비죤문학도 발전하고있으며 음악무용이야기, 음악무용서사시, 음악무용서사시극의 기초로 된 문학대본처럼 시와 극, 서사적요소가 결합된 독특한 형태도 나오고있다.

외국문학

로동계급의 혁명적당이 출현하고 그 령도밑에 사회주의를 위한 혁명투쟁이 힘차게 벌어지던 20세기초에 초기프로레타리아문학은 드디여 사회주의적사실주의문학에로 넘어가게 되였다.

사회주의적사실주의문학발생의 결정적인 요인은 로동계급의 위대한 수령이 정확한 혁명리론과 투쟁방침을 내놓고 로동계급을 비롯한 근로인민대중을 사회주의혁명에로 현명하게 이끌어나가게 된것이다. 이 과정에 수령의 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수령의 령도밑에 창작활동을 벌린 작가들에 의하여 새형의 문학이 창조되게 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사회주의적사실주의의 출현은 로동계급의 혁명적문학예술, 인류의 진보적문학예술발전에서 획기적의의를 가지는 력사적사변이였다.》

사회주의적사실주의문학은 무엇보다도 수령의 사상을 구현하여 당성, 로동계급성을 철저히 체현한 문학이였다. 당과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에 대한 충실성이 이 문학의 기본주제사상으로 되였다.

이 문학은 또한 당과 혁명위업에 충실한 혁명가의 빛나는 전형을 창조하였다. 위대한 수령의 령도따라 혁명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안고 헌신적으로 싸우는 아름답고 숭고한 투사의 형상이 이 문학의 중심에 서있었다.

이 문학은 또한 지난날의 모든 사실주의문학과 혁명적랑만주의문학의 창작경험을 비판적으로 총화하고 계승발전시킴으로써 사상성과 예술성의 결합이 높은 수준에서 이룩된 문학이였다. 사회주의적내용이 높은 예술적수준에서 잘 표현된것은 이 문학의 중요특징으로 되였다.

사회주의적사실주의문학은 로씨야에서 제일먼저 출현하였다. 프로레타리아작가였던 고리끼가 장편소설 《어머니》(1906)와 희곡 《원쑤들》(1906)을 내놓음으로써 사회주의적사실주의문학의 개척자로 되였다.

사회주의10월혁명이후 사회주의제도가 수립된 나라들에서 사회주의적사실주의문학은 눈부신 발전을 이룩하였다.

쏘련의 작가 쎄라피모비치의 장편소설《철의 흐름》, 푸르마노브의

장편소설《챠빠예브》, 아. 똘스또이의 장편소설《고난의 길》, 엔. 오스뜨롭스끼의 장편소설 《강철은 어떻게 단련되였는가》, 숄로호브의 장편소설 《고요한 돈》, 파제예브의 장편소설 《청년근위대》, 마야꼽스끼의 서사시 《울라지미르 일리이치 레닌》 등 우수한 작품들이 련이어 창작되였다.

중국의 작가 티엔지엔의 시집들, 마오둔의 장편소설《한밤중》, 자오수리의 중편소설《리쟈좡의 변천》, 저우리뿨의 장편소설《폭풍취우》, 양뭐의 장편소설《청춘의 노래》, 딩링의 장편소설《태양은 쌍간하를 비친다》 등도 널리 알려진 작품들이다.

서방자본주의나라들에서도 사회주의적사실주의문학이 창작되였다. 프랑스의 작가 바르뷰스의 장편소설 《포화》, 아라공의 장편소설 《공산주의자들》, 영국작가 오케이씨의 희곡《별은 붉게 물들다》, 린드세이의 장편소설《배반당한 봄》, 단마르크작가 안데르쎈—넥쑈의 장편소설 《붉은 모르텐》 등이 그 대표작들이다.

쏘베트려권

《쏘베트려권》은 쏘련시인 마야꼽스끼가 1929년에 쓴 시이다.

마야꼽스끼(1893-1930)는 산림지기의 가정에서 태여났다.

그는 1908년에 중학교를 중퇴한 후 볼쉐위크지하당사업을 적극 도와나섰으며 이때문에 여러번 검거당하였다.

마야꼽스끼는 감옥에 있을 때부터 습작을 시작하였는데 초기의 시들은 미래주의의 영향밑에 씌여진것들로서 형식주의적인 경향을 띠고있었다. 그러나 그는 볼쉐위크당조직의 영향을 받으면서 혁명운동의 앙양과 더불어 점차 형식주의적경향을 극복해나갔으며 특히 1915년 고리끼와 만난 이후부터 그에게서 커다란 영향을 받아 부르죠아지들의 죄행을 폭로하고 인민대중을 혁명에로 부르는 시들을 썼다. 그리고 10월혁명후에는 《혁명송가》, 《좌익행진곡》 등 사회주의혁명과 착취와 억압에서 해방된 인민에게 바치는 시들을 발표하였다.

마야꼽스끼는 오랜 기간의 사상미학적탐구과정을 거쳐 1924년에 레닌의 불멸의 형상에 바쳐진 대표적인 서사시 《울라지미르 일리이치 레닌》을 창작하였으며 여러차례의 외국려행에서 얻은 인상에 기초하여 자본주의의 모순과 부패상을 폭로하고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노래한 시들을 썼다.

그는 또한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적 및 략탈적본성을 폭로단죄하며 소시민근성, 관료주의, 형식주의 등 낡은 사상잔재를 반대하는 내용의 풍자시와 풍자적인 희극 등을 창작하여 쏘베트시문학을 풍부화하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마야꼽스끼는 쏘련문학예술계에서 책동하고있던 각종 이색분자들을 반대하여 적극 투쟁하였다.

나는 승냥이처럼
　　관료주의를
　　　　씹어버릴테다
위임장을 도무지
　　존중히 여기지 않아
어떤 종이장이거나
　　저 갈데로 다 가라
　　　　그러나 이것만은…

차간과
　　선실의
　　　　기다란 복도로
례절겨운
　　관리가 걸어오고있다

모두 려권을 내여보이노니
　　나도 역시
나의
　　붉은색꼬마책을
　　　　내여보인다

어떤 려권을 보곤—
　　입술에 미소를 띄우고
또 어떤것은
　　멸시하듯 응대한다

례컨대
　　쌍사자 그린
　　　　영국려권은
존경스레
　　받아본다
두눈으로
　　어진 아주버님을 쳐다보고

끝없이
굽실거리며
마치
동냥이나 받는듯이
미국사람의
려권을 받는다
뽈스까것은
마치 염소가 광고를
들여다보듯
뽈스까—
어디서 이것은
이따위
지리학상 신발견이냐는듯
둔한 코끼리인양 경관은
두눈을 솟구고 들여다본다
둥글머리는
돌리지도 않고
아무러한
감각도 없이
눈도
깜빡 안하고
단마르크사람들과
또 여러가지
다른 스위스사람들의
려권을 받는다

불시에
마치
불덩이에 데인듯
각하님이
입을 찡그린다
그것은
관리각하께서

나의
　　붉은 뚜껑의 대려권을
　　　　받았음이다
마치
　　폭탄을
　　　　쥐는듯
고슴도치를
　　쥐는듯
마치
　　스무개의 혀끝으로
　　　　휘파람 부는
두메터의
　　독사를
　　　　쥐는듯

운반부의 눈은
　　의미깊게
　　　　껌벅이여
짐짝이라도
　　무료로 들어다줄듯
헌병은
　　의문스레
　　　　형사를 바라보고
형사는
　　헌병을 바라본다
아주 멋있게
　　헌병의 손에
내가 얻어맞고 벌이라도 당할번—
내 손에
　　마치와
　　　　낫 그린
쏘련려권이
　　쥐여있는

죄로

나는 승냥이처럼
관료주의를
씹어버릴테다
위임장을 도무지
존중히 여기지 않아
어떤 종이장이거나
저 갈데로 다 가라
그러나 이것만은…

나는
넓다란 바지주머니속에서
부본으로 간직한
고귀한
증서를 끄집어내노니
자 읽으라
부러워하라
나는
쏘베트련맹의
공민이다

어머니

《어머니》는 로씨야작가 고리끼가 1906년에 쓴 장편소설이다.

고리끼의 본래 성은 뻬슈꼬브였는데 너무도 모질게 가난하고 불행한 생활을 하여온 자신의 처지를 성에 담아 고리끼(불행하다는 뜻)라고 고쳐불렀다.

고리끼(1868—1936)는 로씨야의 남부도시 니즈니 노브고로드의 목수가정에서 출생하였다.

고리끼는 일찌기 부모를 잃고 외할아버지의 손에서 자라면서 지독한 빈궁과 학대를 체험하였다. 학교라고는 다섯달밖에 다녀보지 못하였고 11살 때부터 힘겨운 로동과 방랑생활을 하면서 순전히 자습으로 문학수업을 하였다.

그는 1890년대부터 창작활동을 벌려 단편소설《이제르길할머니》, 《첼까슈》, 희곡《최하층》, 산문시《해연의 노래》를 써서 프로레타리아문학의 선구자로 되였다.

산문시《해연의 노래》에서 고리끼는 다가오는 프로레타리아혁명을 예감하며 폭풍치는 바다우를 용감히 나래치는 해연의 랑만적형상을 창조하였다. 《폭풍! 오래지 않아 터지리라, 폭풍이!》 이 열정에 넘친 호소가 이 시기 그의 작품을 관통하는 기본정신으로 되였다.

1906년에 그는 당의 령도를 받으며 장편소설《어머니》와 희곡《원쑤들》을 발표하여 사회주의적사실주의문학의 개척자로 되였다.

혁명승리후 고리끼는 새로운 사회주의문학건설을 위하여 적극 투쟁하였으며 장편소설 《아르따모노브일가의 사업》, 《클림 쌈긴의 생애》 등 우수한 작품들을 창작발표하였다.

장편소설 《어머니》는 그의 가장 대표적인 작품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고리끼는 소설 〈어머니〉를 비롯한 우수한 작품을 많이 창작하여 로씨야에서 로동계급의 혁명적문학을 개척하며 쏘베트문학을 건설하는데서 선구자적역할을 한 작가입니다.》

장편소설 《어머니》는 로동자출신의 혁명가 빠웰 블라쏘브와 그의 어머니 뻴라게야 닐로브나의 형상을 통하여 19세기말～20세기초 로씨야로동계급의 성장과정과 투쟁모습을 잘 그리고있다. 소설의 주인공 어머니는 처음에 가난과 굴종을 팔자탓으로 여기는 평범한 녀성이였다. 그는 아들이 금지된 책들을 읽고 사회주의자로 되며 비밀독서회를 거쳐 당소조의 책임자로 되였을 때 그것을 공포심을 가지고 바라보았다. 그런데 밀정의 고발로 아들이 체포되여가고 집을 수색하는 헌병놈들의 만행을 목격하면서 계급적원쑤들에 대한 증오에 불타게 된다. 아들을 구출하기 위하여 공장안에 혁명적인 선전물을 날라들여가는 일도 하고 읍거리의 혁명조직에 련락을 다니기도 하면서 어머니의 혁명의식은 더욱 성장한다. 석방된 아들이 5.1절시위에 붉은기를 들고 앞장섰다가 다시 체포되여 재판을 받게 되였을 때 어머니는 벌써 당당한 혁명조직성원으로서 아들의 연설원고를 찍은 선전물을 배포하는 용감한 투쟁에 나선다. 이번에는 역두에서 어머니자신이 체포되게 된다. 어머니는 날라가던 선전물을 사람들의 머리우에 뿌리며 투쟁을 호소하는 격동적인 연설을 한다.(이 부분이 선문교재이다.)

소설은 사회주의사상이 어떻게 평범한 인간들을 혁명투쟁에로 불러일으키는가를 기본문제로 제기하고 로동계급이 당의 령도밑에 계급적으로 각성하여 혁명투쟁에 떨쳐나서는것은 필연적이라는것을 보여주고있다.

……

어머니는 입구가까이 눈에 띄는 곳에 앉아서 기다리고있었다. 문이 열릴 때마다 찬공기가 구름처럼 휩쓸어들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이 상쾌하여 한가슴씩 깊이 들이마시군 하였다. 손에 보따리를 든 사람들이 들어왔다.

옷을 비둔하게 입은 그들은 둔하게 문에 걸려 뒤뚱거리고는 투덜거리다가 짐을 방바닥이나 혹은 긴의자에 동댕이쳤다. 그리고는 외투깃이나 소매에서 마른 성에를 털어버리기도 하고 또 그것을 턱수염이나 코수염에서 떨어버리면서 꽥꽥거렸다.

손에 노란 트렁크를 든 젊은 사람이 들어오더니 한번 쭉 돌아보고 나서 곧추 어머니한테로 걸어왔다.

《모스크바로 가십니까?》 그는 나직한 목소리로 물었다.

《네, 따냐한테로 갑니다.》

《그럼 이걸 받으시오!》

그는 어머니곁의 긴의자우에 트렁크를 놓더니 얼른 권연 한대를 꺼내여 붙여물고는 모자를 슬쩍 쳐들어보이고나서 묵묵히 다른 문으로 가버렸다. 어머니는 트렁크의 차거운 가죽을 한손으로 쓰다듬어본 다음 그우에 팔꿈치를 짚고 흐뭇해서 군중을 하나하나 뜯어보기 시작하였다. 잠시후에 그는 일어나서 플래트홈으로 나가는 출구에 가까운 다른 긴의자 있는데로 갔다. 그는 트렁크를 가뿐히 손에 들고있었다. 그것은 그리 큰것은 아니였다. 어머니는 고개를 쳐들고 자기앞에 얼른거리는 사람들의 얼굴을 뜯어보면서 걸어갔다.

짧은 외투를 깃을 세워 입은 어떤 젊은이가 그와 부닥치더니 한손을 머리우로 홱 내젓고 말없이 냉큼 물러났다. 어머니는 그 사람에게 어딘가 낯익은데가 있는것처럼 생각되였다. 되돌아본 어머니는 그가 외투깃안에서 한쪽 밝은 눈으로 자기를 바라보고있는것을 보았다. 이 주의깊은 눈은 어머니를 찔렀다. 트렁크를 들고있는 손이 부들부들 떨리며 짐이 갑자기 무거워졌다.

(어디선가 저 사람을 본것 같은데?) 어머니는 이런 생각으로 가슴속에서 느낀 불유쾌하고 어슴푸레한 감촉을 눌러버리려고 하였고 그리고 오한이 나도록 슬그머니 그러나 세차게 심장을 압박하는 감정을 다른 말로써 규정할념은 하지도 않았다. 그런데 그 감정은 차차 부풀어 목구멍까지 치밀어올라와 입안을 소태같이 쓴 맛으로 채웠다. 그는 참을수 없어 되돌아서서 한번 더 보고싶었다. 그는 그렇게 하였다. 그 사람은 조심스럽게 제자리걸음을 하면서 아까와 같은 곳에 서있었는데 그는 무엇을 하려고 하면서도 망설이고있는것 같아보였다. 그는 오른손을 외투의 단추사이에 끼우고 다른 한손은 호주머니에 지르고있었다. 그때문에 오른쪽어깨가 왼쪽어깨보다 약간 높아보였다.

어머니는 슬금슬금 긴의자 있는데로 다가가서 마치 자기 머리속에

있는 그 무엇을 찢을세라 조심조심 천천히 걸터앉았다. 불행이 닥쳐올 것 같은 날카로운 예감으로 하여 잠을 깬 그의 기억은 이미 두번씩이나 이 사나이를 그의 앞에 내세웠던것이다. 한번은 리빈이 탈주한 뒤 교외의 벌판에서였고 또 한번은 재판정에서였다. 그 벌판에서는 어머니가 리빈의 도망친 길을 거짓으로 가리켜준 경관과 그가 나란히 서있었다. 자기를 알고 자기의 뒤를 밟고있음이 분명하였다.

(걸려들었지?) 어머니는 스스로 물어보았다. 다음순간 소스라치면서 대답하였다. (그래도 아직은 괜찮을지 몰라.…)

바로 그 자리에서 자기 생각을 억누르고 엄하게 말하였다.

(걸려들었다!) 주위를 휘둘러보았으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의 머리속에서는 가지가지 생각이 하나둘 꼬리를 물고 불꽃처럼 반짝했다가는 그대로 다시 꺼져버리는것이였다. (트렁크를 내버려두고 도망쳐버릴가?) 그러나 다른 불꽃이 더욱 밝게 반짝하고 사라졌다. (아들의 말을 내버리다니? 저런 놈들의 손에…) 어머니는 트렁크를 자기 몸에 바싹 눌러댔다. (그럼 가지고 도망칠가?… 달음박질로…)

이런 생각들은 남의 생각만 같은감이 들었다. 마치 그것들을 누가 외부에서 억지로 그의 머리속에 찔러넣어주는듯싶었다. 이러한 생각들은 그를 불로 지져주어 그 화상은 머리를 아프게 쿡쿡 찔렀으며 활활 타오르는 불길처럼 심장을 후려치는것이였다. 그리고 아픔을 주는 한편 그를 자기자신과 빠웰과 그리고 그동안 그의 마음과 융합된 모든것으로부터 딴데로 몰아대면서 그를 모욕하는것이였다. 그는 적의를 가진 힘이 집요하게 자기를 그러조이고 어깨와 가슴을 지지누르며 죽음과도 같은 공포에 빠뜨리면서 자기의 값을 떨구고있음을 느꼈다. 그는 관자노리의 피줄이 몹시 뛰였으며 머리칼뿌리가 뜨거워졌다.

그러자 어머니는 그의 온몸을 뒤흔들어놓는듯싶이 마음을 한번 다잡고 죽을 기를 써서 자신에게 명령조로《부끄러움을 알아라!》라고 말하고나서 능글맞고 자질구레하고 잔약한 이 모든 불길을 꺼버렸다. 그리고나니 그는 곧 거뜬하여졌다. 게다가《아들을 망신시키지 말라! 두려워하는 사람은 없다.》고 덧붙여 말하고 난 그는 마음이 아주 든든해졌다. 어머니의 눈은 웬 사람의 침울하고 소심한 눈길과 마주쳤다. 뒤

이어 머리속에서 리빈의 얼굴이 얼핏 지나갔다. 몇초동안의 동요는 마치 그의 몸안에 있는 모든것을 한결 더 실속있게 만든듯 하였다. 심장의 고동도 평온해져갔다.

(인제는 대체 어떻게 될것인가?) 그는 주위를 살펴보면서 생각하였다.

밀정은 수위를 오라고 부르더니 눈짓으로 어머니를 가리키면서 그에게 뭐라고 소곤거렸다. 수위는 그를 아래우로 훑어보고는 뒤걸음질쳤다. 다른 수위가 가까이 와서 귀를 기울이고 듣더니 눈살을 찌프렸다. 그는 머리가 세고 면도를 하지 않아 수염이 텁수룩한 몸집이 큰 늙은이였다. 바로 그가 밀정에게 고개를 끄덕여보이고나서 어머니가 앉아있는 긴걸상 있는데로 다가왔고 밀정은 어느새 어디론가 자취를 감추어버렸다. 령감은 사나운 눈초리로 어머니의 얼굴을 주의깊게 더듬어보면서 천천히 걸어왔다. 어머니는 걸상에 깊숙이 들어앉았다.

(때리지만 않았으면…)

그는 어머니옆에 와서 멈춰서더니 잠간 잠자코있다가 나직하나 준엄한 목소리로 물었다. 《뭘 보는거야?》

《보는게 없쉐다.》

《정말 도적년이로군! 원 나살이나 처먹은것이 그따위짓을 하다니!》

어머니에게는 그의 말의 마디마디가 자기의 얼굴을 찰싹찰싹 때리는것만 같았고 악의에 넘치고 거쉰 그 말마디들이 뺨을 잡아뜯는듯, 눈통을 쥐여박는듯 아프게 하는것만 같았다.

《내가? 나는 도적이 아니다. 거짓말말아!》 어머니는 벅차오르는 가슴으로 웨쳤다. 눈앞에 있는 모든것이 모욕의 쓰라림으로 심장을 마비시키면서 그의 격분의 회리바람을 일구었다. 어머니가 와락 트렁크를 잡아당기는 바람에 뚜껑이 저절로 열렸다.

《보시오! 여러분 보시오!》 어머니는 일어서서 집어낸 선전삐라의 묶음을 머리우에 내저으면서 웨쳤다. 그는 윙윙 울리는 귀전에 모여드는 사람들의 고함소리를 들었으며 사방에서 모두가 허둥지둥 달려오는것을 보았다.

《무슨 일이야?》

《저기 저 형사가…》

《어찌된 일이요?》

《훔쳤다는군요.…》

《저렇게 점잖은 녀자가, 원 참!》

《나는 도적이 아닙니다!》사방에서 자기한테로 바싹 밀려오는 사람들을 보자 저으기 마음이 진정된 어머니는 목청껏 소리쳤다.

《어제 정치범들의 재판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블라쏘브라는 내 아들도 있었습니다. 그 애는 변론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그것입니다! 나는 사람들로 하여금 진리에 대해서 읽고 생각케 하려고 이것을 가지고 가는 길입니다.…》

누군가가 조심스럽게 그의 손에서 삐라를 잡아당겼다. 어머니는 그것을 공중에 내젓다가 군중속으로 내동댕이쳤다.

《저따위짓을 하면 재미없을텐데!》

누군가의 겁에 질린 목소리가 부르짖었다.

어머니는 사람들이 삐라를 집어 품안이나 호주머니속에 감추는것을 보았다. 이로 하여 그는 다시금 발을 땅에 떡 뻗디디고 서있을수 있었다. 전신이 몹시 긴장되는 동시에 가슴속에서 눈을 뜬 긍지감이 자라나고 억눌렸던 기쁨이 활활 타오르는것을 느낀 어머니는 트렁크속에서 삐라뭉치들을 끄집어내여 좌우에서 걸탐스럽게 날쌔게 내미는 손들에 마구 뿌려주면서 차츰 침착하고 억세게 말하였다.

《무엇때문에 내 아들과 그의 모든 동지들이 재판을 받았는지 당신들은 아십니까? 내가 당신들에게 말하여드리지요. 그런데 당신들은 에미의 마음과 이 센 머리를 믿어주십시오.… 어제 그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진리를 전달한다고 하여 재판을 받았습니다! 어제야 비로소 나는 그 진리란 무엇인가 하는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아무도 그 진리와는 다툴수 없다는것을 알았습니다!》

군중은 입을 다물었고 점점 더 바싹 죄여들어서 사람의 몸뚱아리들로 고리를 이루어 어머니를 둘러싸면서 자꾸만 불어났다.

《가난과 굶주림과 질병, 사람들이 일하여 얻는것이란 이것뿐입니다. 모든것이 우리와 엇서고있습니다. 우리들은 한평생을 하루와 같이

늘쌍 진흙구뎅이속에서 살고 속아서 살다가 죽고맙니다. 그런데 한편 다른 사람들은 우리들의 로동의 열매로써 락을 누리고 배불리 먹고있습니다. 또한 우리들을 쇠사슬에 비끄러맨 개모양으로 무지속에 처박아두고있습니다. 우리들은 아무것도 모르고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들을 공포속에 붙들어두어 우리는 모든것을 두려워하고있습니다! 우리들의 생활은 밤입니다. 캄캄한 밤입니다!》

《그렇소!》 누군가의 웅글은 목소리가 응답하였다.

《저년의 목구멍을 틀어막아!》

어머니는 군중들뒤에 서있는 밀정과 두명의 헌병을 보았다. 그래서 그는 마지막종이뭉치들을 내주려고 서둘렀다. 그러나 그의 손이 트렁크안으로 들어갔을 때 손은 거기서 어떤 다른 사람의 손과 부딪쳤다.

《어서 가져가시오, 가지시오!》 어머니는 몸을 굽히면서 말하였다.

《물러서라!》 헌병들은 사람들을 밀어헤치면서 꽥꽥거렸다. 사람들은 시틋해서 떠미는대로 주춤 물러섰으나 한덩어리로 되여 헌병들을 죄여대면서 의식적이 아닌지 몰라도 헌병들에게 방해를 놀았다. 무던한 얼굴에 커다란 눈이 정직해보이는 머리가 센 아낙네는 그들의 마음을 명령적으로 이끌었다. 그래서 현실생활에 의하여 이리저리 갈라져서 서로 떨어졌던 그들은 이제야 불평등한 생활의 모욕을 받아온 수많은 마음들이 아마도 이미 오래전부터 찾았고 갈망해오던 그 불같은 말로써 후더워져가고 그 어떤 옹근 하나로 융합되는것이였다. 가까이에 서있는 사람들은 묵묵히 입을 다물고있었다. 어머니는 열정적으로 유심히 바라보는 그들의 눈을 보았으며 또 그들의 뜨거운 숨결을 자기 얼굴에 감촉하였다.

《도망치시오, 할머니!》

《그러다 붙잡힙니다!》

《참 대단한 녀잔데!》

《비켜라, 물러가라!》 헌병들의 고함소리는 점점 더 가까이에서 울렸다. 어머니앞에 있던 사람들은 서로 꽉 붙잡고 몸들을 이리저리 흔들거렸다.

어머니에게는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리해하려 하고 자기 말

을 믿으려 하는것 같았다. 그래서 어머니로서는 자기가 알고있는 모든 것, 자기가 그 힘을 느끼고있는 모든 생각들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주고싶었고 이야기하려고 서둘렀다. 그것들은 가슴속 깊은데로부터 가볍게 쑥쑥 떠올라와서 노래로 되였다. 그러나 그는 자기의 목청이 모자라고 그나마도 갈리고 떨리고 끊어지는것이 안타까왔다.

《내 아들의 말은 로동하는 사람의 깨끗한 말입니다. 강의한 넋을 지닌 사람의 말입니다. 용감한 점에 있어서 강의한 이 말을 알아두시오!》

누군가의 두눈이 감격과 공포를 띠고 어머니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가슴을 탁 밀치는통에 어머니는 뒤뚝하고 긴의자우에 펄썩 주저앉았다. 사람들의 머리우로 헌병의 손이 얼른거리더니 옷깃과 어깨를 붙잡아 사람들의 몸뚱아리들옆으로 내동댕이치거나 모자들을 잡아 벗겨가지고 멀리로 집어던졌다.

어머니는 눈앞이 새까매지고 모든것이 뒤흔들리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그는 자기의 피로를 이겨가면서 다시금 짜내는듯 한 목소리로 웨쳐대였다. 《여러분, 힘을 하나로 합치시오!》

헌병은 커다란 빨간 손으로 어머니의 옷깃을 붙잡고 흔들어대였다.

《입을 닥쳐!》

어머니는 뒤통수가 바람벽에 부딪쳤고 마음은 일순간 맵짠 공포의 연기속에 싸였다가 다시금 내굴을 날려버리고 밝게 확 타올랐다.

《가라!》 헌병은 말하였다.

《아무것도 겁내지 마시오! 당신네들이 평생을 두고 숨쉬고있는 그 고통보다 더 쓰라린 고통은 없습니다.…》

《닥치라는데두!》 헌병은 어머니의 팔을 홱 잡아채였다. 다른 헌병이 다른 팔을 붙잡더니 그들은 어머니를 끌고 성큼성큼 걸어갔다.

《그 고통은 매일처럼 심장을 야금야금 갉아먹고 가슴을 말리우고 있습니다!》

밀정은 앞으로 달려나가더니 어머니의 얼굴을 겨누고 주먹질을 하며 으르딱딱거리면서 새된 갈린 소리로 고함쳤다. 《닥쳐, 못된 년!》

어머니는 휘둥그래진 눈이 번쩍이였고 턱이 떨리기 시작하였다. 두발을 미끄러운 돌바닥에 뻗디디면서 그는 웨쳤다.

《소생한 넋을 죽일수는 결코 없을것이다!》

《이 개같은 년아!》

밀정은 팔을 홱 하고 휘둘러 어머니의 얼굴을 때렸다.

《그래 싸다, 늙은 년이!》 잘코사니해하는 웨침소리가 울리였다.

무슨 검고 붉은것이 한순간 어머니의 눈을 부시게 하더니 찝찔한 피맛이 입안을 채웠다. 중구난방으로 한마디씩 야무지게 퍼붓는 고함소리에 어머니는 기운이 솟았다.

《함부로 손대지 말라!》

《젊은이들.》

《저런 죽일 놈 같으니라구!…》

《저놈에게 한대 안겨줘라.》

《리성을 피로써 지워버릴수는 결코 없다!》

놈들은 어머니의 목덜미와 잔등을 떠박지르고 어깨와 머리를 때렸다. 모든것은 고함소리와 울음소리와 휘파람소리를 지르면서 어두컴컴한 회리바람이 되여 소용돌이치고 뱅글뱅글 돌아치기 시작하였다. 그 무슨 엉킨것이 귀를 먹먹하게 하면서 귀속에 기여들어왔고 목구멍안에도 몰려와서 숨을 막았다. 돌바닥이 그의 발밑에서 물러내려앉는듯 뒤흔들렸다. 다리가 구부러들었다. 몸이 쑤시는듯 한 아픔으로 오슬오슬 추워졌고 무거워졌고 맥없이 비틀거렸다. 그러나 그의 눈만은 흐려지지 않고 많은 다른 눈들을 보고있었는데 그 눈들은 그의 눈에 익은 대담하고 날카로운 불길로, 그의 마음에 친근한 불길로 타고있었다. 놈들은 그를 문간으로 떠밀었다. 그는 한손을 잡아빼여 문설주를 부여잡았다.

《피의 바다로써도 진리는 결코 없애버리지 못할것이다.…》

놈들이 손을 탁 쳤다.

《원한만 자꾸 쌓아올려라, 이 미친것들아! 그 원한은 꼭 너희들의 몸에 떨어질것이다!》

헌병은 그의 목을 부여쥐고 누르기 시작하였다.

어머니는 갈린 목소리를 냈다.

《이 불쌍한것들아…》

그 소리에 대답하여 누군가가 목놓아 흐느껴울기 시작하였다.

청춘의 노래

《청춘의 노래》는 중국의 녀류작가 양뭐가 1958년에 쓴 장편소설이다.

양뭐는 1914년 8월 25일 베이징의 한 몰락한 귀족출신관리의 가정에서 태여났다. 13살 때 중학교에 입학하였으나 중퇴하고 허베이성의 여러 곳으로 다니며 소학교 교원생활을 하였다.

그후 그는 베이징으로 돌아와 가정교사, 책방판매원 등으로 일하였다.

1933년부터 양뭐는 혁명적인 청년들과 교제를 하면서 혁명서적들을 읽기 시작하였다.

양뭐는 1936년에 공산당에 들어갔다.

1937년 7월 7일 일제가 전 중국을 강점하기 위한 전쟁을 일으키자 양뭐는 젖먹이녀자아이를 떼여놓고 진찰기변구(지방이름)에 가서 녀성의 몸으로 항전에 참가하였다. 양뭐의 본래이름은 양청예였는데 이시기부터 양뭐라고 고쳐불렀다.

양뭐는 어려서부터 문학을 즐겨하였으며 20살 때부터 작품을 발표하였다.

장편소설 《청춘의 노래》는 작가가 직접 겪은 체험에 기초하여 쓴 자서전적소설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중국의 녀류작가가 쓴 장편소설 〈청춘의 노래〉도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소설은 기구한 인생행로를 걷던 한 녀성이 계급적으로 각성하고 혁명가로 자라나 견결히 싸우는 이야기를 기본줄거리로 하면서 일제와 국민당반동들을 반대하는 중국의 각계각층 청년들과 인민들의 투쟁을 폭넓게 보여주고있습니다.》

소설의 이야기는 린다오징이 집을 뛰쳐나와 베이다이허의 양좡마을에서 소학교 교원을 하는 외사촌오빠를 찾아가는 장면으로부터 시작된다.

린다오징의 아버지 린바이탕은 베이징의 대지주이며 그의 어머니는 가난한 농민의 딸이였다. 어느날 린바이탕이 산골에 소작료를 받으러 갔다가 농민의 딸인 다오징의 어머니를 보고 강제로 끌어다가 첩으로 삼았으며 그가 다오징을 낳은 다음에는 집에서 쫓아버린다. 다오징의 어머니는 물에 빠져 자살한다.

린다오징이 대학에 가게 되였을 때 린바이탕은 자기 땅을 판 돈을 가지고 몰래 도망친다. 그러자 그의 본처인 쉬펑잉은 린다오징을 국민당의 특무인 후멍안에게 시집보내고 그 대가로 향락을 누리려고 한다. 이것을 안 린다오징은 자기 집안을 저주하며 도망쳤던것이다.

다오징이 양좡마을에 와보니 그의 외사촌오빠는 교장과 충돌하고 이곳을 떠난 뒤였다. 앞길이 막막해진 다오징은 바다물에 뛰여들어 자살하려고 한다. 이때 방학을 맞아 이곳에 놀러왔던 베이징대학 학생 위잉저가 그를 구원한다. 다오징은 잉저의 주선으로 양좡마을 소학교에 교원으로 들어간다. 그러나 교장의 너절한 행위에 격분하여 베이징으로 돌아온다. 그해 섣달 그믐날 망년회에서 양좡소학교에 있을 때 만난적이 있는 루쟈촨을 다시 만나게 된다. 그것이 계기가 되여 다오징은 혁명적인 서적을 읽고 투쟁에도 점차 들어선다.

어느날 다오징은 갑자기 놈들에게 체포된다. 재판정에 나타난 후멍안은 다오징을 제 손아귀에 넣으려고 일부러 석방시킨다. 그러나 다오징은 몰래 집을 빠져나와 딩시엔으로 가서 다시 소학교 교원을 한다.

여기서 다오징은 비밀사업을 지도하는 쟝화라는 사람을 알게 된다. 어느날 쟝화는 부상을 입고 들어와 다오징에게 뒤일을 부탁하고 딩시엔을 떠난다. 다오징은 쟝화가 준 지시대로 학생들과 학부형들속에 들어가 혁명의 진리를 깨우쳐준다.

그러나 다이위의 좌경적책동으로 학교에 뿌리박기 시작하던 조직은 파괴되고 다오징은 지방조직의 도움으로 겨우 베이징에 돌아온다. 그러나 베이징에 온 그는 변절자의 밀고로 다시 체포된다. 다오징은 감옥에서 오랜 혁명가인 린훙을 알게 되며 그에게서 혁명이란 무엇이며 공산당원이란 어떤 사람들인가를 배우게 된다. 특히 린훙이 사형당하는 모습에서 커다란 충격을 받는다.(이 부분이 선문교재이다.)

감옥에서 나온 다오징은 쟝화를 만나 다시 투쟁을 계속하여 마침내 공산당원의 영예를 지닌다.

이무렵에 일제놈들이 베이징에 들어온다. 다오징은 대학생들과 시민들을 일제를 반대하는 투쟁에로 불러일으키며 그자신이 투쟁의 앞장에 선다.

第20장

이날 밤 다오징은 또 잠들지 못하고말았다. 그의 상처는 몹시 아파났다. 뻘건 쇠꼬치에 찔리운 다리의 상처가 문드러지면서 안으로 곪겨 온통 뼈마디들이 부서지는것만 같았다. 그러나 이보다도 그를 잠들지 못하게 한것은 정진이가 들려준 그 이야기때문이였다. 리워이, 이 얼마나 무쇠같이 굳센 볼쉐위크인가! 그이는 최후의 순간까지 싸웠다. 다오징은 자기도 적들과 법정에서 투쟁할 준비를 갖추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는 살아야 해. 중국에서 공산주의가 실현될 때까지 살아야 한단 말이야.》

하던 정진의 말은 다오징을 크게 고무했고 기쁘게 하는 한편 그로 하여금 자책의 고통을 느끼게 하였다.

《다오징이, 아직 안 자?》

자정이 넘은 깊은 밤, 몽롱한 달빛이 창구멍으로 스며드는 속에서 정진은 다오징의 무거운 숨소리를 듣고 아직 잠들지 않은줄을 알았다.

《정진언니, 반동놈들이 다시 심문하게 되면 어떻게 대답해야 해요? 말 좀 해주세요, 난 경험이 없어서.》

《무슨 증거가 놈들의 손에 들어갔니? 또 조직에 속한 사람과 관계를 맺은 일은 없고? 날 믿는다면 사실대로 말해줘.》

온몸이 당성으로 충만된 혁명동지앞에서 다오징은 굳게 믿고 솔직히 말하였다.

《다른 당원과 관계를 맺은 일은 없고 또 아무 증거도 놈들의 손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럼 됐어. 린동무, 내가 며칠 더 살수 있다면 있는 힘껏 방조해주겠어. 가만 보면 놈들은 동무나 위수슈에게 그리 큰 주의를 돌리지 않아. 후에 석방될거야. 그러니까 동문, 그냥 한마디루 보통사람, 보통 실업청년이라고 우기란 말이야. 다시 고문을 들이대더라도 그냥 견디고 뻗대.… 동무의 상처가 심하니까 놈들두 더 악형을 가하지는 않을거야. 그렇지만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우린 적들한테 굴복할순 없어. 어디까지나 최후까지 투쟁을 견지해야 돼. 최후승리는 꼭 우리의것이야. 동문 공산당원이 될걸 원하지? 이렇게 하면 꼭 훌륭한 공산당원이 될수 있고 또 인류의 평화와 행복을 위한 최전선의 영광스러운 전사로 될수 있

어.》 하고 정진은 단숨에 말했다. 몸이 허약한 그는 지쳐서 가쁜숨을 내쉬다가 한동안 기침을 깇더니 더 말을 잇지 못하였다.

《정진동지!》 다오징은 그의 여위고 보드라운 손을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난 영원히 오늘 밤을 잊지 못하겠어요. 영원토록 동지의 고무를 잊지 못하겠어요. 난 꼭 동지의 모범을 따르겠어요. 그래서 공산당원이 되여 최후의 한순간까지 투쟁하겠어요. 나는 기어코 나의 모든것을 바쳐 그 영광의 날을 맞이할테예요. 내가 만일 죽어도 당에서는 나를 인정하여…》

《난 참 기뻐, 다오징이!》

칠흑같이 어두운 야밤, 정진의 뜨거운 손이 다오징의 두손을 꼭 쥐는것이였다. 순간 다오징의 가슴은 그 어떤 숭고하고도 진실한 우정으로 하여 끝없이 설레였다. 그는 더 억제할수 없어 눈물을 주르륵 떨구고말았다.

《다오징이, 내 동무한테 말해둬야겠어.》

일순 침묵이 흐른 뒤 정진은 다시 말을 꺼냈다. 여전히 부드럽고 침착한 음성이였다. 《먼저번 재판에서 알았는데 놈들은 내 목숨을 더 붙여두지 않을거야. 놈들은 날 중앙에서 파견된 당원이라고 인정해. 그래서 나두 마음준빌 하고있어.…》

이 말에 다오징은 펄쩍 놀랐다. 갑자기 가슴이 찢어지는것만 같았다. 그는 정진의 손을 꼭 잡고 다급히 《정진언니, 그게 무슨 말이예요?…》 하고 물었다.

위수슈도 잠에서 깨여났다. 그는 어렴풋한 속에서도 정진의 마지막 말을 들은 모양으로 놀라며 부르짖었다.

《정진언니, 거 무슨 말입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정진은 조심스럽게 말했다. 《나와 다오징인 잠이 오지 않아 쓸데없는 얘기를 하고있어. 다오징이, 왜 동무 이름은 그렇게 지었나? 꼭 녀승의 법호같애.》

《우리 아버진 부처를 믿었어요. 집을 떠날래두 첩을 버릴수 없어 못 떠났지요. 그래서…》 다오징은 눈물을 씻으며 말했다. 《그래서 이런 흉칙한 이름을 지어주었답니다.》

위수슈는 좋아하며 해해 웃었다.

《내 말 좀 들어보세요. 난 또 우리 어머닐 꿈에서 봤어요!》그는

아직도 꿈속의 기분을 지니고 종알댔다. 《우리 남동생도 봤어요. 내가 감옥에서 집으로 돌아가니까 다들 반가와 왁 나한테 달려와서…》

정진은 왼쪽에 있는 다오징의 눈물을 훔쳐준 다음 위수슈에게는 이불을 끌어다 덮어주었다. 그리고나서 달래듯 말했다.

《밤이 깊었어. 우리 다 자자구, 경비병한테 들키면 또 시끄러우니깐.》

이튿날 오전 경비병이 와서 정진을 불렀다.

정진은 침대에 누웠다가 《잠간 기다려요. 머리를 좀 빗고 나갑시다.》 하고 말하였다.

그는 천천히 기다란 머리카락을 빗어넘기고나서 곧 경비병들한테 끌리워나갔다.

오래지 않아 그는 다시 들리워 돌아왔다. 그는 매우 피로한듯 널판자침대에 누운채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가 다시 의식을 회복하자 두 젊은 동감자는 다같이 정답게 물었다.

《정진언니, 그놈들이 뭘 물어요? 판결이 어떻게 됐어요?》

《별거없어. 놈들은 내 병이 좀 나아가는가 묻고… 형편은 틀렸어. 아마 날 딴데로 이송시킬것 같애.》

위수슈는 마음이 놓였다. 하지만 다오징은 무거운 걱정에 짓눌리며 무어라 말이 나가지 않았다.

이날 오전 한겻 정진은 그들에게 수감자의 노래를 가만가만 가르쳐주었다.

이 노래는 1930년 이후 상하이(상해)나 항저우, 쑤저우감옥에서 류행되던것이였다.

우리는 죄수, 시대의 죄수
우리는 결코 죄없는 사람
우리는 모두 화선의 용사

계급의 전초에서 싸우는 전위
죄수, 죄수가 아닌 포로
모진 학대속에서도
우리의 붉은 피 끓어넘치거니

철창과 쇠사슬이 아무리 간악해도
담벽과 철문이 아무리 두터워도

육체의 자유는 묶을지라도
혁명정신은 묶지 못하리！

우리는 죄수, 시대의 죄수
전우들은 비록 희생되였으나
우리들은 굳세게 싸우고있거니

식은 밥덩이에 썩은 반찬
모기와 파리, 이와 벼룩들
우리의 살은 여위게 할지라도
우리의 정신은 좀먹지 못하리

죄수, 죄수 시대의 죄수！
최후의 승리는 우리의것
시련을 이겨내자！ 용감히 분투하자
그 어느날이건
붉은 기발 태양과 함께
온 누리를 비치리 찬란히 비치리

노래는 매우 길었다. 정진은 겨우 처음과 마지막 몇구절만을 가르쳐주었다. 그러나 셋은 오전동안을 매우 유쾌하게 지냈다.

오후 세 사람은 모두 피곤하여 잠이 들었다. 얼마후 정진은 잠든 다오징을 흔들어 깨우고 나직이 말을 꺼냈다.

《린다오징동지, 내 꼭 말할게 있어. 그래 난 아마 오늘을 못 채울것 같애. 후에라도 기회 있으면 당에 내 말을 전달해줘. 내 진짜이름은 린훙이야. 작년 시월에 상하이에서 베이징으로 파견되여 사업하고있었어. 그만 배반자의 고자질에 거기서 얼마 사업을 못하고 잡혔거던. 난 당의 명예를 훼손시키지 않았고 나의 모든걸 다해서 최후까지 투쟁했어. … 나는 우리 당이 홍군을 백배로 확대하여 항일투쟁을 더욱 힘차게 전개해줄것을 바래. 승리는 틀림없이 우리의것이야. 친근한 동지！ 굳세게 투쟁하여 무쇠같은 볼쉐위크당원이 되기를 바래.…》

린훙의 아름다운 두눈은 어두컴컴한 감방안에서 유난히 반짝이였다.

이 얼마나 맑고도 열정에 빛나는 눈망울인가! 그는 조금도 죽음에 대하여, 자기 생명의 마지막순간에 대하여 생각하는 사람같지 않았다. 오히려 그 어떤 쾌락과 흥분으로 하여 그리고 가장 보람있는 일을 하는 사람과 같이 보였다. 그는 피로한듯 눈을 감으며 가쁜숨을 돌리다가 또 그 열정적인 눈을 크게 뜨고 물었다.

《다오징동문 내 말을 꼭 조직에 전달할수 있지?》

다오징은 눈물을 흘리며 머리만 힘껏 끄덕이였다. 그리고는 두손을 내밀어 린홍의 희디흰 손을 꼭 그러쥐고 아릿다운 그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다오징은 피가 일시에 혈관에서 굳어지는듯 하였다. 다만 몽롱한 꿈속에서와 같은 어렴풋한 생각뿐이였다.

(이러한 사람도 죽는단 말인가?…)

취침할무렵 린홍은 입고있던 장미색털조끼를 벗어 다오징에게 넘겨주는것이였다.

《다오징이, 동무 몸이 매우 좋지 않은데 이걸 입어!》

그리고는 머리맡에서 전날 상하이에서 가지고 온 고운 빗을 꺼내주며 《수슈야, 넌 이 빗이 맘에 드니? 너한테 기념으로 줄게.》 하고 웃어보였다.

위수슈는 벌써 일이 잘못된줄 알고 다오징과 같이 울었다. 폭풍우가 일기 직전처럼 컴컴하고 음침한 이밤, 견디기 어려운 이밤은 왜 이다지도 긴것인가!

야밤중 철문이 열렸다. 린홍은 담가대용으로 쓰이는 문짝에 들리워 나갔다. 그는 감방문을 나서면서도 동감자에게 손이 닿지 않는것이 안타까운듯 손을 내여밀며 다정한 목소리로 몇번이나 작별인사를 했다.

《난 가! 동생들! 부디 몸조심해, 응!》

담가에 들리운 정진이가 감방을 나가자마자 갑자기 폭풍과 같은 웨침소리가 온 밤하늘에 울려퍼졌다.

《반동국민당을 타도하자!》

《중국공산당 만세!》

《공산주의는 필승불패이다！》

《동지들, 원쑤를 갚자！》

린훙의 목소리에 따라 몇사람, 몇십, 몇백명의 목소리가 울려퍼졌다. 이 웨침은 갈수록 우렁차고 비장하게 변했다. 마치 온 누리가 이 영용한 고함소리에 들끓는듯 하였다.

다오징은 널판자침대에 엎드린채 고함을 치고있었다. 그는 장미색 털조끼를 그러안고 있는 힘을 다해 고함을 질렀다. 위수슈는 이때 소리를 지르지 못했다. 그는 린훙이 담가에 들리워나가자 어머니를 빼앗기는 어린애마냥 와락 침대에서 뛰여내려 달려들었다.

《언니！ 정진언니！ 가지 마세요！ … 언니, 죽지 말아요, 죽으면 안돼요！》순간 그의 조그마한 머리는 바람벽에 콱 부딪쳤다. 경비병놈의 구두발에 허리를 채웠던것이다. 그는 그만 그 자리에서 정신을 잃고 말았다. 총소리는 울리지 않았다.

쟝지에스(장개석)이가 파견한 흉악한 수하졸개 헌병3련대장 쟈샤오시엔이 베이징에 온 이후 공산당원들과 애국청년들이 매일과 같이 체포되고 총살되고 그중 일부 사람들은 비밀리에 처형을 당하였다.

이날 밤, 린훙이 희생된 날 밤에도 십여명의 동지들이 그와 함께 생매장을 당하였다.

조용하고 차디찬 감방안에는 다오징과 위수슈만이 남게 되였다. 그들은 어둠속을 더듬어 손을 꼭 마주잡았다. 마치도 어머니를 여읜 고아들처럼 서로 믿고 의지하는것이였다.

《다오징언니, 지금 우린 둘이 남았어요, 난… 난… 믿을 사람이라곤 언니 하나밖에 없어요！》

위수슈는 다오징의 머리를 그러안고 슬프게 울었다. 이 울음은 린훙을 생각해서였고 또한 자기가 이 세상 일을 너무나 늦게 안것이 분해서였다. 비록 나이는 열여섯밖에 안되였으나 자기가 과거 너무나 철없이 헛되게 살아왔다고 생각하자 스스로 부끄러웠던것이다.

《수슈야, 애 우지 마!》 다오징은 눈물이 글썽글썽해지며 부드럽게 그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었다. 《이밤을 기억해, 이밤을 영원히 기억해둬! 영원히 정진언니의 피를 가슴에 새겨두자.》

린홍이 죽자 다오징은 저절로 린홍의 임무를 대신하게 되였다. 그는 모성적인 그리고 동지적인 감정으로 위수슈를 교양하며 돌봐줄 그러한 책임을 스스로 걸머졌다.

그러나 다오징의 몸은 매우 허약하였다. 그는 종일토록 혼미한 정신으로 더럽고 습기찬 널판자침대우에 누워있었다. 린홍이 처형된 뒤 극도의 빈혈과 형편없는 식사 그리고 불쇠꼬치에 찔리운 상처의 화농으로 그는 거의 죽을것만 같았다. 다행히 그 녀간수가 마음이 괜찮아 매양 칼제비국이나 계란탕을 구해다주고 또 의사를 데려다 치료도 해주었다. 위수슈는 더욱 세심하고 극성스럽게 간호해주었다. 그리하여 다오징의 젊은 생명은 다시 소생하게 되였다.

린홍이 희생된지 닷새째 되는 날, 다오징의 감방에는 웬 낯선 녀죄수가 하나 들어왔다. 30안팎의 둥근 얼굴에 몸이 좀 실한 그는 살갗이 유들유들한데 목소리는 매우 거칠었다. 그 녀자는 침대에 드러눕자 신기한 눈초리로 자기를 바라보는 위수슈에게 친근한 어조로 말을 붙이는것이였다.

《애, 너 몇살이냐? 아니 그런 나이에 체포되다니, 참말…》

다오징은 눈을 반쯤 뜨고 녀인을 보았다. 위수슈는 진정으로 대답하고있었다.

《열여섯입니다. 어떻게 되여 여길 들어왔어요?》

《혁명하다 그랬지 뭐. 넌 왜 갇히우게 됐니? 공산당이니?》 하다가 이번에는 다오징을 향해 온화하고 다정한 표정을 지으며 역시 같은 말을 물었다.

다오징은 더럭 의심이 들었다. 혁명사업을 하는 사람 같지는 않은데 일반범인이라면 왜 여기에다 넣었을가?… 다오징은 맥없이 머리만 저어보일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래 위수슈가 대신 대답하였다.

《이 언니는 고문을 몹시 받아 그래요. 며칠전 우리 방엔 정진이란 이가 있었어요. 그인 참 좋은분인데 그만 사형당했어요. 그래서 이 언닌 맘이 좋지 않아 병이 도졌어요.…》

위수슈는 천진하게 그냥 말을 계속하려 하였다. 그러자 다오징은 가볍게 기침을 한번 깇고나서

《수슈야, 물을 좀 다고!》하며 가만히 입을 열었다. 위수슈는 말을 하려다 말고 얼른 침대를 뛰여내려 낡아빠진 양철차관에서 물을 따라다주었다. 다오징은 머리를 옆으로 돌려 물잔을 받으며 안깐힘을 다해 위수슈의 손을 잡고 눈짓을 해보였다. 위수슈는 뜻을 알아채자 얼굴을 붉히며 가볍게 머리를 끄덕였다.

그 녀인은 계속 위수슈에게 물었다. 아직 나이도 어려 입이 가벼울줄 알았던 모양이였다.

《이 방은 참 좋구나. 조용한게.》 그 녀인은 누워 궐연을 피워물고 천장으로 모롱모롱 피여오르는 파란 담배연기를 쳐다보다가 이윽고 혜죽이 웃음 띤 얼굴을 위수슈에게 돌렸다.

《난 저 동쪽 녀감방에서 왔어. 배고파 죽을번 했지. 거기선 단식을 떠드는지가 사흘이나 됐는데 이 방에서두 다 알고있겠구나?》

다오징은 내심 놀라면서 넌지시 물어보았다.

《단식? 어데서 단식을 해요? 아, 나두 들었어요, 참! 그 사람들은 왜 그렇게 바볼가?》

《옳아요! 그 사람들은 정말 바보지!》 녀인은 기뻐하며 고개를 돌려 다오징을 똑바로 쳐다보았다.《그놈의 공산당 아닌것들두 괜히 공산당놀음에 덩달아 단식하거던. 그것들은 국민당의 비밀체포, 비밀사형을 반대한다, 또 무슨 반일을 하잖고 매국하는걸 반대한다는 등 야단이지.… 흥, 우리 이 방이 그래도 조용해. 제깐것들 떠들대로 떠들어보라지.》 하다가 머리를 위수슈에게 돌렸다. 《얘 처녀야, 우리 방에 누가 쪽지편질 가져오지 않았니? 이 감옥에 갇힌 전체 3~4백명이 다 한꺼번에 단식을 했다는데. 무슨 비밀쪽지를 련락하면서 의논한다더라.》

다오징은 저으기 당황했다. 이 계집간첩에게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망설이는데 위수슈가 먼저 대답하는것이였다.

《거 좋은 말씀이예요! 누가 단식을 하자 했는지 알고싶었던 참이였어요! 우린 아직 쪽지를 못 봤어요. 그 사람들은 왜 우리한텐 쪽질 보내지 않았을가? 참 일이 잘못됐어.》

《애, 그거야 이 방 사람들이 믿을수 없으니까 공산당은 쪽질 보내오지 않았지. 우리 며칠동안 밥을 실컷 먹게 됐어. 난 그것들과 함께 있었는데 나한테두 먹지 못하게 해서 정말 혼났단다.》 죄수로 가장한 녀간첩은 매우 허기증이 나는듯 이 방에서는 자기의 추악한 면모를 감추지 않았다.

갑자기 위수슈는 낯색이 달라지며 녀인을 똑바로 쏘아보다가 그 부둥부둥 살진 얼굴에 침을 퉤 뱉았다.

《에익 더러운것! 낯짝두 두텁지! 그렇게 뻐대없이 굴어요? 게걸쟁이! 배고파서 여기 왔다구요? 소용없어요. 우리도 단식하겠어요.》

그 녀인은 어쩔줄을 몰랐다. 분노에 서린 위수슈의 총명한 얼굴을 바라보는 다오징은 가느다란 미소를 띠우며 한동안 잠잠해있다가 이윽고 녀간첩에게 입을 열었다.

《우리한테 소식을 전해줘서 고마와요. 그렇지 않았더면 우린 잘못할번 했어요.》

하다가 그는 위수슈에게 시선을 돌리고 거의 명령하는 어조로 힘주어 말하였다.

《수슈야, 우리 둘도 더 지체말고 당장 이제부터라도 아무것도 먹지 말자!》

위수슈는 머리를 끄덕였다.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다오징언니, 언니 말을 듣겠어요! 정진언니도 돌아갔으니 난 언니의 말은 아무 말이나 다 듣겠어요. 그래야지요.》

하고 그는 울면서 다오징에게 말했다.

그 녀간첩은 그들 둘의 얼굴을 물끄러미 쳐다보며 그들의 말과 거

동도 유심히 살피는것이였다. 권연은 다 타서 살갗이 얇은 그의 손가락을 태웠다.

……

이튿날 오후, 여기서 아무런 구멍도 뚫을수 없음을 깨달은 녀간첩은 침대에서 일어나 몸에 묻은 먼지를 툭툭 털더니 몸이 쇠진해 꼼짝 못하는 두 사람에게 눈을 힐끗 빨고는 엉덩판을 삐죽 내밀고 나가버렸다. 녀간첩이 나간지 얼마 안있다가 위수슈는 끌려나가 고문을 받았다. 고문을 받고 놈들에게 들려 다시 돌아왔을 때는 온몸에 피가 묻고 얼굴에 상처가 나고 머리카락이 온통 헝클어진채 울 힘마저 없는 모양으로 아무 소리도 내지 못했다. 널침대에 누운 그는 마치 죽은 시체와 같았다.

위수슈는 의식이 들자 근심어린 눈으로 자기를 들여다보고있는 다오징에게 먼저 말을 꺼냈다.

《다오징언니, 난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어요! 내야 본래 보통 중학생인데 글쎄 뭣을 알겠어요. 주모자가 누군지 그걸 내가 알게 뭐예요. … 나도 굴복하지 않았어요. 나도 여러 사람들과 같이 굶고…》

한방울의 눈물도 보이지 않고 이렇게 말하다가 위수슈는 다시 까무러치고말았다.

다오징의 눈에서는 콩알같은 눈물이 맺혀 떨어졌다. 이 얼마나 귀여운 소녀인가. 이러한 아들딸을 가지고있다는것은 중화민족의 커다란 자랑이 아닐수 없다.

두 사람은 컴컴한 감방안에 그냥 누워있었다. 하루, 이틀, 사흘 악형을 받은 상처와 굶주림은 이들을 언제나 혼미상태에 빠뜨려넣었다. 류녀간수는 거짓말을 한때문에 이미 딴데로 조동되여갔다. 이 적막한 녀감방은 무덤속처럼 공허하고 악취가 풍기고 인기척 하나 없었다. 조금 의식을 회복하는 순간, 그들은 눈을 뜨다가 시선이 마주쳤다. 서로 열정어린 눈으로 바라보는것이였다. 위수슈는 부들부들 떨면서 나무가지처럼 마른 조그만 손을 내여밀며 거무스레 말라탄 엷은 입술을 열어 나지막하게 말했다.

《엄마! 언닌 정말 우리 엄마와 갈애.…》

그는 다오징을 정진과 똑같이 여겼고 또 어머니와 같은 육친으로 알았다. 다오징의 선량하고 정열적인 눈빛이며 정진과 같이 굴하지 않는 그 완강한 의지를 보게 된 위수슈는 혁명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스스로 깊이 느꼈던것이다. 이 혁명의 힘이야말로 언제나 사람들의 마음을 따스하게 덥혀주고 또한 그 령혼을 앞으로앞으로 나가도록 고무해주는것이였다.

나흘째 되는 날, 전체 수감자들이 단식을 시작한지 벌써 이레째 되는 날이였다. 다오징은 혼미한 속에서도 그 무엇이 얼굴에 떨어지는것 같아 흠칫 깨여났다. 그는 거의 무의식적으로 얼굴을 쓸어보았다. 조그마한 종이뭉테기가 옆으로 굴러떨어졌다. 펼쳐보니 연필로 흘려쓴 글씨였다.

단식투쟁에 호응하여 간고하게 분투하고있는줄을 안 우리 전체 수감자들은 매우 기뻐하고있습니다. 오늘부터 전체 수감자들은 식사를 받기로 하였습니다.(당국에서는 우리의 부분적조건을 수락하였기때문에) 식사를 시작하시고 몸보충하십시오. 처음엔 식사를 너무 과하게 하지마시오. 이후 자주 련계를 가집시다.

다오징은 위수슈를 흔들어 깨워 쪽지를 보였다. 쪽지를 보는 위수슈의 여윈 조그만 손은 푸들푸들 떨리였다.

《다오징언니, 이거… 이거 꿈이 아니예요? 우린 처… 처음엔… 그저 죽이나 조금 먹음… 될가요?》

다오징은 입을 벌려 웃었다. 그의 둥글던 얼굴은 벌써 쭈빗하게 여위였다.

《조심해, 적들의 술책은 여러가지거던. 우리, 우리 말이야, 좀 더 무슨 소식을 들어보자.》

두어시간뒤 저녁식사때가 되였다. 복도에서는 밥통을 나르느라 왁

자지껄하는 소리와 함께 감옥안 잡부가 아니면 혹은 헌병일지도 모를 놈들의 욕지거리가 들려왔다.

《망할놈들같으니! 굶으려면 아예 깨깨 굶어 뒤여질게지! 겨우 고만큼 떠들구 또 밥을 먹어, 뭐 죽을 먹겠대, 문턱밑이 저승인데 뒤여질 생각은 안하나!》

새로 갈려온 녀간수가 다오징의 감방에 와서 심술궂고 사나운 표정으로 밥을 먹겠느냐고 물었을 때 다오징은 서슴없이 대답하였다.

《우린 모든 사람과 같이 행동하겠어요. 빨리 죽을 가져와요!》

집체적힘이란 위대하며 무궁무진한것이다. 린다오징은 자기와 위수슈의 투쟁이 고독하지 않으며 고립무원한 개인적행동도 아니라는것을 느꼈으며 동시에 자기들도 그 어떤 보이지 않는 몇겹의 철벽을 사이에 두고도 굳게 단결되여있는 위대한 전일체의 한 성원이라는것을 깨달았다. 그들은 눈으로는 그 전일체와 굳센 모습들을 볼수 없게 의연히 격리된 어두운 감방에 누워있지만 머리속으로는 그 열정에 어린 얼굴을 하나하나 그려보는것이였다. 그들은 죽어도 넘어질줄 모르는 그 굳센 사람들과 더불어 호흡을 같이하고있는것이였다. 아까 그 쪽지를 보자부터 그들은 마치 죽음에서 소생하는 령약을 먹은듯 정신이 들었는데 이제 죽을 좀 먹고나니 더욱 머리가 맑아지고 용기가 솟구쳐오르는것이였다. 밤에 위수슈는 다오징의 곁으로 가만히 와엎디면서 귀가에다 대고 낮은 소리로 속삭였다.

《다오징언니! 다오징언니! 언닌 어떻게 아세요? 난 오늘에야 알았어요. 우리가 한 투쟁이 가지는 의의를 오늘에야 비로소 알았어요. 이제 보니 정진언니 같은 사람이 이가운데 많이 있질 않겠어요!》

다오징은 방긋이 미소를 띠웠다. 그의 조용한 얼굴에는 명랑한 기색이 떠올랐다. 그의 동작마저 어딘지 모르게 정진과 같이 보였다. 그는 위수슈의 부드러운 머리카락을 쓸어넘겨주며 정열적이면서도 매우 부드러운 어조로 말하였다.

《수슈야, 난 참말 기쁘다! 내 사상이 또 좀 발전한것 같애. 원쑤

놈들은 우리 둘을 다시는 갈라놓지 못할거야. 우린 영원히 혁명집단의 한 성원이거던!》

법정— 재판하는 곳.

수감자— (낡은 사회에서)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

동감자— (낡은 사회에서) 같이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

단식투쟁— (낡은 사회에서) 외래침략자들과 착취계급을 반대하여 일정한 요구조건을 내걸고 굶는 방법으로 항거하는 투쟁.

강철은 어떻게 단련되였는가

《강철은 어떻게 단련되였는가》(1934)는 쏘련작가 오스뜨롭스끼가 창작한 자서전적인 장편소설이다.

니꼴라이 오스뜨롭스끼(1904—1936)는 계절로동자의 가정에서 출생하였다. 그는 촌학교에서 겨우 3년간 공부하고 출학당하여 어려서부터 로동을 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그가 13살 되였을 때 로씨야에서는 사회주의10월혁명이 일어나고 공민전쟁이 시작되였다.

오스뜨롭스끼는 이 준엄한 시기에 자진하여 붉은군대에 들어가 싸우다가 온몸에 중상을 입고 오른쪽눈의 시력까지 잃게 되였다.

군대에서 제대된 오스뜨롭스끼는 우크라이나의 첫 공청원의 한 사람으로 활동하였으며 20살에는 공산당에 입당하였다.

공민전쟁후 그는 건강이 매우 나빴으나 사회주의건설에 적극 참가하였다. 그러나 공민전쟁때 입은 상처가 도지고 건강이 악화되여 1926년에는 침대에서 완전히 일어나지 못하고 3년후에는 눈을 전혀 볼수 없게 되였다.

그러나 그는 락심하지 않고 혁명적인 소설을 창작하여 인민들과 청년들을 교양하리라 결심하고 자신의 지난날 생활체험에 기초하여 소설을 쓰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하여 1930년부터 4년간에 걸쳐 온갖 정력과 심혈을 다 기울여 첫 장편소설 《강철은 어떻게 단련되였는가》를 창작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소설 〈강철은 어떻게 단련되였는가〉는 사람들 특히 청년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하는데서 감화력이 큰 작품입니다.

소설은 소년로동자였던 빠웰 꼬르챠긴이 준엄하고 간고한 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혁명가로 자라나는 과정을 기본내용으로 하고있습니다.》

장편소설 《강철은 어떻게 단련되였는가》는 그자신의 생애를 거의 그대로 그린 작품이다. 소설은 소년로동자였던 빠웰 꼬르챠긴이 준엄하고 간고한 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혁명가로 자라나는 과정을 기본내용으로 하고있다. 소설의 제목은 쇠가 뜨거운 열과 세찬 랭각을 거쳐야 강철로 되듯이 사람은 혁명투쟁과 강한 규률속에서 단련되여야 혁명가가 될수 있다는 깊은 뜻을 담고있다.

소설의 이야기는 주인공 빠웰 꼬르챠긴이 《하느님》을 부정하는 질문을 한탓으로 학교에서 쫓겨나는데로부터 시작된다.

빠웰은 12살나이에 역전식당 심부름군으로 들어가 2년동안 고역을 치른 다음 발전소 화부로 들어간다.

1918년 봄 그의 고향 세뻬또브까에도 붉은군대가 들어왔으나 형세가 불리하여 해병출신의 혁명가 쥬흐라이를 공작원으로 남긴 후 철수한다. 빠웰은 발전소에 들어온 쥬흐라이와 친해진다.

어느 일요일 낚시질하러 늪가에 나갔던 빠웰은 끼예브에서 6학년에 다니는 또냐라는 처녀와 알게 되며 그후 그와 친해진다.

1919년 4월, 세뻬또브까에 우크라이나민족주의자들이 들어와 지하조직을 찾아내려고 미쳐날뛴다. 쥬흐라이는 빠웰의 집에 8일동안 숨어있는다. 그때 빠웰은 그에게서 혁명적인 영향을 크게 받는다.

어느날 빠웰은 놈들에게 체포되여가는 쥬흐라이를 구원한다. 그러나 변호사의 아들의 밀고로 빠웰은 체포된다. 그는 감옥에서 지독한 고문을 당했지만 비밀을 지켜낸다.

그는 놈들속에서 혼란이 조성된 틈을 타서 잔꾀를 부려 감방에서 빠져나오며 또냐와 서로 잊지 말자는 약속을 남긴 후 형 아르쫌이 화부로 일하는 기관차에 몸을 숨기고 고향도시를 떠난다.

빠웰은 곧 붉은군대 기병려단에 입대하여 용감히 싸운다. 머리에 심한 부상을 당한다. 그후 오른쪽머리전체가 마비되고 오른쪽눈이 먼다.

병원에서 나온 빠웰은 또냐가 묵고있는 집에 머물러있으면서 그를 공청사업에 끌어들이려고 애쓴다. 그러나 소부르죠아출신의 또냐가 끌

내 그것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자 그와 결연히 헤여지고만다.

빠웰은 체까위원장으로 일하는 쥬흐라이를 만난 후 그의 알선으로 체까에서 일한다. 밤낮없이 일해야 하는 체까사업은 빠웰을 더욱 허약하게 만든다. 그는 할수없이 철도공장에 가서 직접 로동을 하면서 공청비서로 일한다. 하면서도 그는 백파 오률리크도당의 폭동음모를 분쇄하는 전투에 희생적으로 참가한다.

반혁명분자들의 음모는 진압되였으나 태업(의식적으로 일에 태만하는 것)으로 인한 사고가 계속되고 식량난, 연료난이 닥쳐온다. 도시에서는 쥬흐라이의 제의에 의하여 목재채벌장까지 7km구간에 철길을 놓아 화목을 나르기로 한다. 석달안으로 해야 하는 이 어려운 공사를 공청원들이 맡았는데 빠웰 꼬르챠긴은 허약한 몸임에도 불구하고 앞장에 나선다.

겨울이 닥쳐온다. 공사장에는 식량공급이 안되는것을 비롯하여 여러가지 곤난이 겹친다.(이 부분부터 선문교재이다.) 모진 고난속에서 교대없이 일하게 되자 도망치는자도 생긴다. 어느날 빠웰은 티브스에 급성폐염까지 겹쳐가지고도 일을 하다가 현장에서 정신잃고 쓰러진다. 고향으로 후송하는 도중에 죽은것으로 인정되였던 빠웰은 한달후 아직 건강을 회복하지 못한 몸이지만 또다시 현공청위원회를 찾아갔고 공장보조전공으로 일하면서 공청사업을 한다. 얼마후에 그는 입당한다.

국경경비대대 군사위원으로 임명되여 육체적고통을 이겨내면서 사업하던 그는 1년후에 현공청위원회에서 일하게 되는데 건강은 더욱 나빠져 2년후에는 조직의 권고로 남방의 료양소로 가게 된다.

어느 겨울날 자동차전복으로 오른쪽무릎을 다쳐 수술을 받은 그는 7년전 척추에 받은 타격이 덧쳐 이제는 사회보장으로 넘어가지 않으면 안되게 된다.

그는 크림의 외진 해변가에서 전혀 회복될수 없는 자기 건강을 두고 24년간의 자기의 생애를 랭정히 돌이켜본다. 자기는 비록 잘못을 저지른 일도 적지 않지만 혁명을 위하여 떳떳이 살아왔다. 그런데 투쟁능력을 잃어버린 지금 나를 배반한 이 몸뚱아리를 없애버리는것이 더 떳떳한 일이 아니겠는가? 괜찮게 살줄 알았으니 제때에 죽을줄도 알아야 할것이 아닌가? 그리하여 그는 권총을 꺼내여 자기의 이마를 겨눈다.

그러나 다음순간 그는 자살이란 가장 너절한 행동이라는것을 뉘우친다. 가장 곤난하게 된 이러한 조건에서도 생명이 붙어있는 한 투쟁을 계속해야 한다는 생각에 이른다. 그리하여 그는 소경이 되였으며 전신

마비상태에 빠졌지만 그런 조건에서도 할수 있는 일, 자기의 체험을 소설로 써서 청년들을 교양하는데 이바지할 결심으로 소설공부를 시작한다. 구상이 끝난 다음 글줄을 섞갈리지 않기 위해 칸을 따낸 마분지를 대고 문장 하나하나를 쓰고 그렇게도 못하게 되자 남의 손을 빌어서 쓰고… 실로 완강한 의지와 불굴의 투지로 그는 소설을 써나간다.

이로써 빠웰 꼬르챠긴은 살아있으면서 쓸모없는 인간으로 되는 정신적고통에서 벗어나 다시 혁명대오에 서게 된다.

제 2부

제 2장

……

또까레브는 격분하여 도시에서 돌아오자 홀랴바의 방에 열성자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우울한 소식을 전했다.

《가는 곳마다 침체뿐이요. 어디를 돌아보나 헛수고만 하면서 한자리에서 뭉개고있단 말이요. 아마 우리는 흰 거위(반혁명분자를 의미함—역주)새끼들을 적게 붙잡아낸 모양이요. 우리가 한평생 잡아내도 다 잡지 못할만큼 놈들은 수효가 많소.…》로인은 좌중에게 이렇게 말하고나서 계속하였다. 《동무들, 나는 숨김없이 이야기하겠소.… 말하자면 일은 영 망태기요. 아직도 두번째 교대로 올 사람들을 소집도 하지 않았으며 몇사람이나 보내겠는지조차 분명치 않소. 추위는 코앞에 닥쳤는데. 그러니 목적지까지 가닿기 위해서는 죽는 한이 있더라도 진창판을 건너야 하겠소. 그렇지 않고있다가 추위가 닥쳐오면 이발로도 언 땅을 물어뜯어낼수는 없을것이니까. 동무들, 물론 도시에서는 사업을 지체시키는자들을 모조리 단속할것이요.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공사속도를 두곱으로 다그쳐야 하겠소. 열번 죽는 한이 있더라도 기어코 지선을 부설해야 하겠소. 이 일을 완수 못하고서야 우리가 무슨 볼쉐위크겠소?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닐것이요.》 또까레브의 목소리는 여느때와 같은 그런 목쉰 저음이 아니였다. 강철같이 쨍쨍한 음성이였다. 찌프러진 그의

눈섭밑에서 번쩍거리는 눈동자에는 결단성과 고집이 번득이고있었다.

《오늘로 비공개회의를 소집하고 모든 실정을 우리 사람들에게 설명한 후 래일부터는 모두 일에 달라붙어야 하겠소. 아침에 비당원들은 돌려보내고 우리는 여기 남아있어야 하오. 이것이 현위원회의 결정이요.》 하고 그는 빤크라또브에게 네겹으로 접은 편지쪽지를 전했다.

꼬르챠긴은 그의 어깨너머로 다음과 같은 글발을 읽었다. 《철도부설현장에 전체 공청원들을 남겨두는것을 절대 필요하다고 인정하며 첫 화목이 도착하기까지는 그들의 교대를 허가할수 없음. 현위원회의 비서를 대리하여 에르. 우스찌노위치.》

비좁은 바라크에는 발을 들여놓을 자리도 없었다. 120명이 그속에 꽉 들어차있었다. 그래서 벽에도 기대여 서고 책상에도 올라앉고 심지어 부엌에까지 들어섰다.

빤크라또브가 개회를 선언했다. 또까레브는 길게 말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마지막구절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섬찍하게 하였다.

《…공산당원들과 공청원들은 래일 도시로 가지 못합니다.》

또까레브가 허공에 그리는 손의 동작은 이것이 확고부동한 결정이라는것을 웅변으로 말해주었다. 그의 이 동작은 진흙구뎅이에서 벗어나서 도시로, 자기 집으로 돌아가려던 모든 희망을 쓸어버렸다. 처음 몇분동안은 떠들썩한 소리에 뭐가 뭔지 분간해낼수 없었다. 움직거리는 몸동작들에 가물거리는 석유등불이 불안스레 흔들거렸다. 어둠은 사람들의 얼굴을 가리웠다. 소란한 음성이 점점 더 높아졌다.

어떤 사람들은 아늑한 집에 대하여 달콤하게 말하였으며 어떤 사람들은 불평을 하며 이제는 기진맥진했다고 투덜거렸다. 많은 사람들은 침묵에 잠겼다. 오직 한 사람만이 결정적으로 탈주를 표명했다. 그는 한켠구석에서 격한 목소리를 욕설에 담아 내뿜었다.

《개수작말어! 나는 여기 하루도 더 남아있지 않을테다! 징역살이를 시키는것은 죄라도 있으니 그렇지만 우리야 무엇때문에? 우리를 두주일동안이나 붙잡아두었으면 그만이지 이이상 여기 눌러있을 바보자

식이 어디 있담? 결정한 그자들이나 와서 부설해보라지. 자청하는자나 이 진탕속에서 장절임이 되라지! 내게는 목숨이 하나뿐이야. 나는 래일 돌아갈테다.》

오꾸네브는 자기 등뒤에서 이렇게 떠들어대는 로력회피자를 보려고 성냥을 그었다. 성냥불은 어둠속에서 악이 오른 얼굴과 딱 벌리고 지절대는 입을 한순간 뚜렷이 비쳐냈다. 오꾸네브는 그자가 현식료공급부에서 일하는 회계원의 아들임을 알았다.

《뭘 살펴보느냐? 나는 숨지 않는다. 도적놈이 아니니까…》

성냥불은 꺼졌다. 빤크라또브는 허리를 힘껏 펴며 일어섰다.

《누가 게서 지절대는거요? 누구에게 당의 과업이 징역살이로 보인단 말이요?》 빤크라또브는 좋지 않은 시선으로 자기곁에 가까이 서있는 사람들을 휘둘러보면서 여무지게 말했다.

《형제들, 우리는 도시로 갈수 없소. 우리가 있을 곳은 여기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도망을 친다면 주민들은 얼게 될것이요. 형제들, 우리가 일을 빨리 끝내면 끝낼수록 그만큼 빨리 집으로 돌아갈수 있소. 그렇지 않고 방금 이 자리에서 어떤자가 말한것처럼 도망을 친다면 그건 우리의 사상과 규률이 용서치 않을것이요.》

빤크라또브는 장황한 연설을 좋아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이 간단한 말도 오히려 장황하다는듯이 구석에서 내뿜던자가 그 소리를 가로채였다.

《그럼 당원이 아닌 사람은 집으로 가는가?》

《그렇소.》 빤크라또브는 한마디로 잘라던졌다.

시민들이 입는 짤막한 외투를 입은 한 작자가 책상앞으로 비집고 나왔다. 그러자 자그마한 공청증이 박쥐처럼 날아와서 빤크라또브의 가슴에 맞고 책상에 가로 떨어졌다.

《자, 맹증을 받으시우, 어서. 이따위 마분지 한쪽때문에 건강을 희생하고싶지 않소!》

이 마지막구절은 바라크안에 떠들썩하던 말소리를 일소해버렸다.

《뭘 내던지는거야！》

《요 탈을 쓴 놈아！》

《공청에 기여들어 따뜻한 자리만 노리고있었구나！》

《그자식을 내쫓아라！》

《어디 불이 번쩍나게 해주마. 이 옘병할 자식아！》

공청증을 던진 그자는 고개를 떨어뜨리고 밖으로 빠져나갔다. 사람들은 전염병자를 피하듯이 한쪽으로 비켜서면서 그자를 통과시켰다. 그자가 나가자 문이 삐걱하고 소리를 내며 닫히였다.

빤크라또브는 떨어진 공청증을 주어 불타는 석유등에 던졌다.

마분지는 새까맣게 말려들며 타버렸다.

……

갈망하는 화목은 벌써 멀지 않은 곳에 있건만 그곳에까지 당도하는 일은 애타게도 더디였다. 티브스는 날마다 십여명의 요긴한 일손들을 일에서 떼여갔다.

꼬르챠긴은 마치 술에 취한것처럼 느른해진 다리를 비칠거리면서 정거장으로 돌아왔다. 그는 벌써 오래전부터 신열이 몹시 났었다. 그러나 오늘 그의 온몸을 엄습한 열은 그 어느때보다도 더 심하였다. 전체 건설부대에 만연한 티브스가 빠웰에게까지 침습한것이다. 그러나 그는 튼튼한 몸으로 꾹 참고 닷새동안이나 짚을 깐 콩크리트바닥에서 억지로 일어나 자기 대원들과 함께 일터로 다녔다. 인젠 그 따뜻한 가죽저고리도, 표도르가 보내준 그 언 발을 녹여주는 왈렌끼도 더는 그를 구원하지 못했다.

걸음마다 무엇인가 가슴을 아프게 꾹꾹 찔렀고 오한이 너무도 심하여 이발이 딱딱 마주치며 눈앞이 캄캄해지고 나무들이 마치 회전목마처럼 빙빙 돌아가는것이였다.

이렇게 빠웰은 가까스로 정거장까지 다달았다. 유난스러운 소음이 그를 놀라게 하였다. 살펴보니 길다란 렬차가 온 정거장에 가득차게 길게 늘어서있었다.

무개차량들에는 경편철도용기관차들이 실렸고 선로들과 침목들이 그득 쌓였는데 그 차편에 온 사람들이 지금 그것들을 부리우고있었다. 그는 몇발자국 더 옮겨놓고는 몸의 균형을 잃었다. 땅바닥에 머리가 부딪치면서 받은 타격을 어슴푸레 느꼈다. 눈은 달아오른 뺨을 상쾌한 랭기로 시원하게 식혀주었다.

몇시간후에야 그는 발견되여 바라크로 옮겨졌다. 꼬르챠긴의 호흡은 몹시 급하였다. 그는 자기를 둘러싼 사람들을 알아보지 못했다. 장갑차에서 초빙해온 의사는《티브스에 급성페염을 겸했소. 체온이 41도 5부, 관절염과 목이 부은것은 대단한것이 아니라고 쳐도 어쨌든 티브스와 급성페염만으로도 생명이 위독합니다.》 하고 말하였다.

빤크라또브와 방금 기차로 도착한 두바바는 빠웰을 구원할수 있는 온갖 방도를 다 강구하였다.

꼬르챠긴과 한고향사람인 알료샤 꼬한스끼에게 병자를 고향으로 데려다줄것을 위임하였다.

꼬르챠긴의 전체 대원들의 도움으로, 그중에도 특히 홀랴바의 억지덕택으로 빤크라또브와 두바바는 알료샤와 혼수상태에 빠진 꼬르챠긴을 빈틈없이 들어찬 차칸에 앉힐수 있었다.

발진티브스가 전염병이라고 하여 그들을 차에 들여놓지 못하게 하였으며 병자를 도중에서 끌어내던지겠다고 으르댔다. 홀랴바는 병자를 앉히는데 방해하는자들의 코밑에다 권총을 들이대면서 소리쳤다.

《이 환자는 전염병자가 아니요! 우리는 당신들전부가 차를 못타게 되는 한이 있더라도 이 환자 하나만은 태워가고야말것이요! 제 욕심들만 차리는 노랭이같으니라구. 만일 누구든지 이 환자에게 손가락하나 까딱만 해보우. 모두 차에서 몰아내여 철창속에 집어넣으라고 역마다 전화로 련락해둘테니! 자, 알료샤, 옛소, 이것이 빠웰의 권총이요. 어떤자든지 환자를 내리려고 하는자가 있거든 면바로 쏘시우!》하고 홀랴바는 으름장을 놓았다.

기차는 움직였다. 텅 빈 정거장에서 빤크라또브는 두바바에게 가까

이 오며 말했다.

《동무는 어떻게 생각하우? 살아날수 있을가?》

그러나 대답은 없었다.

《갑시다, 미쨔이, 될대로 되겠지. 인제는 우리가 모든것에 책임을 져야겠소. 기관차들을 오늘 밤안으로 부리워야겠소. 그리고 래일 아침에는 그것들에 불을 지펴봅시다.》

홀랴바는 철도연선의 각역에 있는 자기 친구인 체까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승객들이 환자 꼬르챠긴을 차에서 내리우는것을 용허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하였다. 그리고는 절대로《용허하지 않겠다.》는 굳은 약속을 받고서야 자려고 돌아갔다.

……

제3장

청춘은 끝내 승리하고야말았다. 열병은 꼬르챠긴의 생명을 빼앗지 못하였다. 빠웰은 네차례나 까무라쳤다가 소생하였다. 수척하고 파리한 빠웰은 한달후에야 후들거리는 다리를 일으켜세우고 벽을 짚으면서 시험삼아 방안을 거닐어보았다. 그는 어머니의 부축을 받아 창문가까지 가서 길거리를 오래동안 내다보았다. 눈석이로 불어난 도랑물이 해빛에 반짝이였다. 밖에는 벌써 해토머리의 첫 예고가 다가오고있었다.

바로 창문앞 앵두나무가지에서 가슴이 부유스름한 참새들이 또릿또릿한 눈초리로 빠웰을 불안스럽게 쳐다보며 머리를 갸웃거리면서 조잘대고있었다.

《너와 나는 겨울을 견디여냈단 말이지?》 빠웰은 손가락으로 창문을 똑똑 두드리면서 나직이 중얼거렸다.

어머니는 놀란 기색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너 게서 누구와 말하니?》

《참새들하고요.… 날아갔어요. 그만 그것들이.》 그리고는 빙그레 웃었다.

봄이 무르녹았다. 꼬르챠긴은 도시로 돌아가려고 하였다. 그는 외출할수 있을 정도로 회복되기는 하였으나 아무래도 시원치가 않았다. 한번은 정원에서 소풍하다가 척추가 몹시도 아파서 불시에 땅에 쓰러졌다. 간신히 방으로 기여들어왔다. 이튿날 의사가 그를 자세히 진찰했다. 의사는 척추가 약간 들어간데를 눌러보고 이상해하면서 물었다.

《어디서 이런 상처를 받았소?》

《선생님, 그것은 돌멩이에 맞은 상처입니다. 로브노시부근에서 바로 등뒤에 3인치포 포탄이 떨어졌었는데 그바람에 길바닥에 있는 돌멩이가 튀여 척추를 때린것이지요.》

《그런데 당신은 어떻게 걸어다녔소? 여기가 몹시 아프지 않소?》

《아니요. 그때에 두어시간동안 누웠다가 이내 말을 탔었습니다. 그랬던것이 지금 새삼스럽게 나타났습니다.》

의사는 약간 눈섭을 찌프리면서 척추의 들어간 부분을 다시한번 살펴보았다.

《하여튼 동무, 좋지 않은 징후요. 척추는 그러한 진동을 좋아하지 않소. 앞으로 이것이 아프지 않으면 다행이겠소. 옷을 입으시오, 꼬르챠긴동무.》

의사는 괴로운 심정을 서투르게 가리우면서 동정에 찬 시선으로 환자를 바라보았다.

……

빠웰은 래일이면 자기의 동지들과 고귀한 사람들이 남아있는 대도시로 갈것을 기뻐하였다. 대도시에서는 그 위력과 생명력, 끊임없이 나드는 사람들의 물결, 전차의 요란한 소리와 자동차의 동음—이 모든것들이 자석처럼 그를 끌어당기는것이였다. 그중에도 돌로 지은 웅장한 집과 연기에 그을린 직장들, 기계들, 조용히 돌아가는 피대바퀴들에 빠웰은 각별히 마음이 끌렸다. 웅장한 기계들이 고속도로 돌아가고 기계기름냄새가 풍기며 그것이 몸에 푹 밴 그곳으로 빠웰은 마음이 끌렸다. 빠웰은 이 고요한 시가지를 방황하면서 일종의 서글픔을 느꼈다. 이 작

은 도시가 그의 마음속에서 멀어지고 갑갑하게 느껴지는것은 두말할것도 없고 심지어 대낮에 나돌아다니기도 마음내키지 않았다. 빠웰이 어느 한 집앞을 지날 때 마루에 모여앉아 지절대기 좋아하는 아낙네들이 지나가는 그를 보고 주고받는 이야기를 들었다.

《아이 저렇게도 말라빠진 저게 누굴가?》

《필시 페병쟁인게야.》

《그래두 저고리는 꽤 좋은걸 입었구먼. 어디서 훔친것이겠지 뭘!》

이밖에도 부아가 치미는 말들이 많았다. 빠웰은 이미 오래전부터 지방생활과는 인연을 끊었다. 대도시가 그에게 더 가깝고 정다왔다. 그곳은 우정이 넘치며 진실하고 락천적이며 로력이 가득차있는 곳이다.

꼬르차긴은 어느덧 송림이 있는데까지 당도하여 갈림길에 멈춰섰다. 오른쪽에는 높고 뾰족한 말뚝들로 산림을 가로막은 어설픈 낡은 감옥이 우뚝 솟았는데 그뒤로는 흰 병원건물들이 보였다.

바로 이 넓은 광장, 여기서 왈랴와 그의 동지들이 교수대에 올랐던것이다.

빠웰은 교수대가 있던 자리에 멍하니 서있다가 벼랑아래로 내려가 동무들의 무덤을 찾았다.

누군가의 어진 손길이 작은 분묘들을 어린 나무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솔잎으로 만든 화환들을 장식해놓았다. 벼랑우에는 조촐한 소나무들이 서있었다. 파랗게 새로 돋아난 비단결같이 연한 풀들이 골짜기를 한벌 쭉 덮었다.

여기는 시가지주변이다. 고요하고 쓸쓸하다. 한갖 나무가지들의 살랑대는 소리와 땅에서 풍기는 봄향기뿐이다. 가난속에서 태여난 모든 사람들의 생활을 그리고 배꼽 떨어진 때로부터 죽을 때까지 종살이하던 사람들의 생활을 아름답게 하려고 여기서 형제자매들이 용감하게 죽은것이다.

빠웰은 천천히 모자를 벗었다. 비애, 통절한 비애가 가슴에 가득찼다. 사람에게 있어 가장 귀중한것은 생이다. 생은 사람에게 있어 한번

밖에 없는것이다. 그러므로 목적없이 산 지난날때문에 뼈저린 고통을 느끼지 않도록, 비굴하고 너절한 과거때문에 치욕을 맛보지 않도록 그리고 죽으면서도 일생의 모든 힘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 인류해방을 위한 투쟁에 바쳤다고 긍지높이 말할수 있도록 살아야 한다. 그리고 달음질쳐 살아야 한다. 불의의 병이나 혹은 어떤 비극적인 우연이 생을 끊어버릴수도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에 사로잡힌 꼬르챠긴은 동지들의 무덤에서 떠났다.

어머니는 쓸쓸히 집에서 아들의 행장을 차리고있었다. 빠웰은 어머니가 눈물을 감추는것을 보았다.

《꼭 가지 않으면 안되니, 빠블루샤야? 늘그막에 홀로 사는것이 슬프구나. 자식이 많아도 크기만 하면 다들 떠나가버리니! 대관절 도시에서 무엇이 너를 그처럼 끌어당기느냐? 예서도 꽤 살만 한데. 너도 혹시 단발한 메추라기를 하나 골라잡은게 아니냐? 글쎄 아무도 이 늙은것한테는 말을 해주지 않누나. 아르쫌도 한마디 말없이 장가갔지만 넌 더 말할것도 없지. 나는 너를 몸에 탈이 나는 때라야만 보게 되니.》 하면서 어머니는 아들의 깨끗한 배낭속에 그리 넉넉치 못한 물건들을 넣으면서 조용히 말했다.

빠웰은 어머니의 어깨를 안고 자기앞으로 끌어당기면서

《아니예요. 어머니! 메추라기는 무슨 메추라기요! 그렇지만 어머니, 알아두세요. 새도 제 무리를 따라 제 짝을 찾는다는것을!… 그렇다고 해서 어머니는 나를 수메추라기로 생각하지야 않겠지요?》

어머니는 그만 웃어버리고말았다.

《어머니, 나는 전세계에서 부르죠아들을 박멸하기 전에는 처녀를 사귀지 않겠다고 혼자 맹세했어요. 세월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예요. 부르죠아지는 오래동안 견디지 못해요.… 세계는 전 인류를 포함한 하나의 공화국으로 될거예요. 그리고 어머니와 같은 근로하는 남녀로인들은 따뜻한 해변에 있는 나라, 이딸리아로 보내드려요. 어머니,

거기에는 일년내내 겨울이 없어요. 부르죠아들이 살던 좋은 집에다 어머니와 같은이들을 모셔놓으면 거기서 쇠약한 몸들을 해빛에 쪼일수 있지요. 그리고 우리는 부르죠아들의 뿌리를 빼기 위하여 아메리카로 갈것입니다.》

《얘, 네가 말하는 그때까지 나는 살지도 못하겠다. 네 할아버지는 무척 용감하신분이여서 해군이 되여 온 바다를 다니셨다. 참 더할나위없이 무서운 어른이였지! 쎄와스또뽈전쟁에서 어찌도 용맹하게 싸우셨던지 운신을 전혀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집으로 돌아오셨단다.

가슴에다 두개의 십자훈장과 짜리의 메달 두개를 리봉에 달아 찼지만 늘그막에는 가난에 쪼들려 고생하시다가 돌아가셨느니라. 그분은 원래 고집이 센 어른이여서 쇠몽둥이로 어떤 귀족놈의 골통을 까부시고는 일년가까이 감옥에 갇히여 계셨단다. 그러다나니 공로도 다 소용없어지고 십자훈장도 할아버지를 도와드리진 못했지. 네가 암만 봐야 꼭 할아버지를 닮았다니까.》

《어머니, 그런 즐겁지 않은 이야기로 작별하겠어요? 어디 손풍금이나 이리 좀 주세요. 그것을 손에 쥐여본지도 퍽 오래되였군요.》

그는 자개박은 손풍금의 건반우에 머리를 숙였다. 어머니는 손풍금에서 울려나오는 새로운 곡조를 기뻐하였다.

빠웰은 손풍금을 그전과 같은 솜씨로 타지 않았다. 그의 손풍금소리에는 이전에 아무렇게나 마구 켜대던 그 삑삑거리고 술에 취한듯이 갈팡질팡하는 소리도 없었고 온 거리가 그것때문에 젊은 손풍금수 빠브까를 입에 침이 마르도록 찬양케 하던 그런 대담성도 없었다. 오늘의 곡조는 류창하게 울리는 동시에 힘있고 또 전보다 더 은근한 맛이 있었다.

문학(중학교 제 6 학년용)
4 판

집 필 교수 박사 김성우, 부교수 오정환,
대필
심 사 심의위원회
편 집 김송희 콤퓨터편성 김송희
장 정 류명심 교 정

낸 곳 교육도서출판사
인쇄소
3 판 발행 주체 98(2009)년 12 월 25 일
4 판 인쇄 주체 년 월 일 4 판 발행 주체 년 월 일

교—12—보—698 값 원